

2017 사업년도 경영평가보고서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회



차 례

제1장 경영평가 개요

1. 경영평가 근거 및 목적	11
2. 경영평가단 구성 및 운영	11
3. 평가부문 및 평가항목	12
4. 평가방법 및 평가과정	16

제2장 경영개황

1. 2017년도 경영목표	19
2. 매체 운영 현황	20
3. 2017년 편성 목표 및 내용	22
4. 조직 및 인원 현황	23
5. 시설 현황	24
6. 예산 현황	25
7. 재무 현황	26

제3장 경영평가 결과

1. 총평	31
2. 부문별 총평	40
가. 경영부문	40
나. 방송부문	42
다. 교육부문	45
라. 기술부문	48

제4장 부문별 평가

1. 경영부문	53
가. 경영목표 및 전략	54
평가내용	54
1) 경영목표 및 전략의 적정성	54
2) 책임 및 윤리경영의 제고 노력	57
평가결과 및 제언	61
나. 조직 및 인사관리	62
평가내용	62
1) 조직운영의 효율성	62
2) 인사관리의 적정성	65
3) 노사관리의 안정화 정도	69
4) 연구소의 전문성 확보 및 활용 정도	71
5) 교육뉴스부 운영의 적정성	73
평가결과 및 제언	75
다. 재무 및 경영정보 관리	76
평가내용	76
1) 경영실적의 개선 정도	76
2) 재무 및 위험관리의 적정성	77
3) 예산편성 및 운영의 적정성	84
4) 경영정보 관리의 적정성	86
평가결과 및 제언	88
라. 홍보 및 사회공헌도	90
평가내용	90
1) 브랜드가치 제고 노력의 정도	90
2) 사회공헌 활동의 성과	93
평가결과 및 제언	98

마. 전년도 개선권고사항의 이행 노력	99
평가내용	99
1) 전년도 경영평가 개선권고사항 이행 노력 및 성과	99
평가결과 및 제언	102
바. 당해연도 중점평가사항	103
평가내용	103
1) 당해연도 중점평가사항의 노력 및 성과	103
평가결과 및 제언	110
2. 방송부문	111
가. 방송목표	112
평가내용	112
1) 방송편성목표의 적정성	112
평가결과 및 제언	115
나. 방송편성과 운영	118
평가내용	118
1) 방송편성비율의 적정성	118
2) 프로그램의 신설 및 폐지의 적정성	129
3) 방송운행의 정시성 정도	131
평가결과 및 제언	133
다. 프로그램 제작과 운영	136
평가내용	136
1) 제작예산 관리 및 집행의 효율성	136
2) 외주제작 정책 및 제도의 적정성	137
3) 프로그램의 내부 평가 및 심의의 적정성	143
평가결과 및 제언	147
라. 시청자 서비스	150
평가내용	150

1) 시청자 의견 수렴 및 반영 시스템의 적정성	150
2)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편성비율의 적정성	155
평가결과 및 제언	156
마. 방송성과	158
평가내용	158
1) 프로그램의 완성도 제고	158
2) 프로그램 시청률 및 VOD 이용 정도	166
3) 콘텐츠 내부 관리 및 멀티 플랫폼을 활용한 유통 및 사업화 정도	169
평가결과 및 제언	172
바. 전년도 개선권고사항의 이행 노력	176
평가내용	176
1) 전년도 경영평가 개선권고사항 이행 노력 및 성과	176
평가결과 및 제언	182
사. 당해연도 중점평가사항	183
평가내용	183
1) 당해연도 중점평가사항의 노력 및 성과	183
평가결과 및 제언	186
3. 교육부문	187
가. 방송교육목표	188
평가내용	188
1) 방송교육목표의 적정성	188
평가결과 및 제언	191
나. 교육방송 시스템	193
평가내용	193
1) 교육전문성 확보를 위한 노력 및 대외협력의 정도	193
2) 교육콘텐츠 개발을 위한 노력 및 성과	195
3) 제작 직원의 교육전문성 제고 정도	198

4) 참여자들의 교육전문성 제고 정도	200
5) 매체별 전문성 확보와 상호 연계성 제고 정도	203
6) 출판부문 외주의 전문성 및 관리의 적정성	207
평가결과 및 제언	210
다. 방송교육 과정	212
평가내용	212
1) 학교교육 보완 활동 전략의 적정성과 성과	212
평가결과 및 제언	217
라. 방송교육 성과	218
평가내용	218
1) 타겟 시청자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이용 정도	218
2) 방송교육 프로그램의 공교육 기여 정도와 학교 현장의 평가 정도	219
3) 프로그램 및 출판물의 교육격차 해소 기여 정도	221
평가결과 및 제언	224
마. 전년도 개선권고사항의 이행노력	226
평가내용	226
1) 전년도 경영평가 개선권고사항 이행 노력 및 성과	226
평가결과 및 제언	228
바. 당해연도 중점평가사항	229
평가내용	229
1) 당해연도 중점평가사항의 노력 및 성과	229
평가결과 및 제언	232
4. 기술부문	233
가. 방송기술 목표	234
평가내용	234
1) 방송기술목표의 적정성	234
평가결과 및 제언	236

나. IT 환경 대응	237
평가 내용	237
1) IT 서비스 활성화 노력의 적정성	237
2) IT 인프라 운용의 효율성	243
3) IT 서비스의 고객 만족도	247
평가결과 및 제언	249
다. 미디어 환경 대응	250
평가내용	250
1) 융합서비스 추진 노력의 적정성	250
2) 전문성 강화 노력의 적정성	255
3) 프로그램 품질개선 기술지원의 적정성	258
4) 방송장비 도입의 적합성	267
5) 방송제작 워크플로우 개선 노력의 적정성	271
6) 방송망 관리의 안정성	273
평가결과 및 제언	279
라. 전년도 개선권고사항의 이행 노력	282
평가내용	282
1) 전년도 경영평가 개선권고사항 이행 노력 및 성과	282
평가결과 및 제언	284
마. 당해연도 중점평가 사항	285
평가내용	285
1) 당해연도 중점평가사항의 노력 및 성과	285
평가결과 및 제언	293

제1장 경영평가 개요

1. 경영평가 근거 및 목적

본 경영평가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4조(이사회의 기능)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9조(경영평가 및 공표)의 규정에 의거해 실시하였으며,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설립목적인 ‘교육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하도록’ 공적책임을 다하고, 경영 개선을 통해 EBS 설립목적 구현에 충실한 경영 관리를 도모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2. 경영평가단 구성 및 운영

가. 경영평가단 구성

경영평가단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시행령 제9조(경영평가 및 공표) 제2항 규정에 따라 경영, 방송, 교육, 기술 관련 전문가 각 1명, 비상임 이사 2명 및 EBS 상임감사 1명 등 총 7인을 이사회가 위촉해 구성하였다. 단장은 경영평가단에서 호선하였으며, 평가위원은 다음과 같다.

단장 : 이시우 (EBS 이사)

경영부문 : 최창윤 (삼일회계법인 상무)

방송부문 : 김세은 (강원대학교 교수)

교육부문 : 정제영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기술부문 : 이상운 (남서울대학교 교수)

위원 : 이찬우 (EBS 이사)

위원 : 배인준 (EBS 상임감사)

나. 운영기간 : 2018년 1월 ~ 2018월 5월

3. 평가부문 및 평가항목

평가부문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시행령 제9조(경영평가 및 공표) 제1항 및 한국교육방송공사정관 제13조(기능) 제3항에 명기된 6개항 ① 경영목표 설정의 타당성, ② 예산 집행의 효율성, ③ 인사·조직 등 경영관리 제도, ④ 재무상태 등 경영 실적, ⑤ 시설투자, ⑥ 기타 EBS 발전과 경영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EBS 업무와 연관시켜 경영, 방송, 교육, 기술 4개 부문으로 설정했다.

2017사업연도 경영평가는 제262회 이사회(2017.12.28)에서 개정한 한국교육방송공사 경영평가편람에 따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경영부문 15항목, 방송부문 14항목, 교육부문 13항목, 기술부문 12항목 총 54항목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가. 평가 대상 기간 : 2017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나. 부문별 평가항목

1) 경영부문

가) 경영목표 및 전략

- ① 경영목표 및 전략의 적정성
- ② 책임 및 윤리경영의 제고 노력

나) 조직 및 인사 관리

- ① 조직운영의 효율성
- ② 인사관리의 적정성
- ③ 노사관리의 안정화 정도
- ④ 연구소의 전문성 확보 및 활용 정도
- ④ 교육뉴스부 운영의 적정성

다) 재무 및 경영정보 관리

- ① 경영실적의 개선 정도
- ② 재무 및 위험관리의 적정성
- ③ 예산편성 및 운영의 적정성
- ④ 경영정보 관리의 적정성

라) 홍보 및 사회공헌도

- ① 브랜드가치 제고 노력의 정도
- ② 사회공헌 활동의 성과

마) 전년도 개선권고사항의 이행 노력

- ① 전년도 경영평가 개선권고사항 이행 노력 및 성과

바) 당해연도 중점평가 사항

- ① 당해연도 중점평가사항의 노력 및 성과

2) 방송부문

가) 방송목표

- ① 방송편성목표의 적정성

나) 방송편성과 운영

- ① 방송편성비율의 적정성
- ② 프로그램의 신설 및 폐지의 적정성
- ③ 방송운행의 정시성 정도

다) 프로그램 제작과 운영

- ① 제작예산관리 및 집행의 효율성
- ② 외주제작 정책 및 제도의 적정성
- ③ 프로그램의 내부평가 및 심의의 적정성

라) 시청자 서비스

- ① 시청자 의견 수렴 및 반영 시스템의 적정성
- ②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편성비율의 적정성

마) 방송성과

- ① 프로그램의 완성도 제고
- ② 프로그램의 시청률 및 VOD 이용 정도
- ③ 콘텐츠 내부관리 및 멀티 플랫폼을 활용한 유통 및 사업화 정도

바) 전년도 개선권고사항의 이행 노력

- ① 전년도 경영평가 개선권고사항 이행 노력 및 성과

사) 당해연도 중점평가 사항

- ① 당해연도 중점평가사항의 노력 및 성과

3) 교육부문

가) 방송교육목표

- ① 방송교육목표의 적정성

나) 교육방송 시스템

- ① 교육전문성 확보를 위한 노력 및 대외협력의 정도
- ② 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한 노력 및 성과
- ③ 제작 직원의 교육전문성 제고 정도
- ④ 참여자들의 교육전문성 제고 정도
- ⑤ 매체별 전문성 확보와 상호 연계성 제고 정도
- ⑥ 출판부문 외주의 전문성 및 관리의 적정성

다) 방송교육 과정

- ① 학교교육 보완 활동 전략의 적정성과 성과

라) 방송교육 성과

- ① 타겟 시청자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이용 정도
- ② 방송교육 프로그램의 공교육 기여 정도와 학교 현장의 평가 정도
- ③ 프로그램 및 출판물의 교육격차 해소 기여 정도

마) 전년도 개선권고사항의 이행 노력

- ① 전년도 경영평가 개선권고사항 이행 노력 및 성과

바) 당해연도 중점평가 사항

- ① 당해연도 중점평가사항의 노력 및 성과

4) 기술부문

가) 방송기술 목표

- ① 방송기술목표의 적정성

나) IT 환경 대응

- ① IT 서비스 활성화 노력의 적정성
- ② IT 인프라 운용의 효율성
- ③ IT 서비스의 고객 만족도

다) 미디어 환경 대응

- ① 융합서비스 추진 노력의 적정성
- ② 전문성 강화 노력의 적정성
- ③ 프로그램 품질개선 기술지원의 적정성
- ④ 방송장비 도입의 적합성
- ⑤ 방송제작 워크플로우 개선 노력의 적정성
- ⑥ 방송망 관리의 안정성

라) 전년도 개선권고사항의 이행 노력

- ① 전년도 경영평가 개선권고사항 이행 노력 및 성과

마) 당해연도 중점평가 사항

- ① 당해연도 중점평가사항의 노력 및 성과

4. 평가방법 및 평가과정

2017사업연도 경영평가는 2017년 12월 28일 개최된 제262회 이사회에서 의결한 2017사업연도 경영평가 실시 계획에 따라, 경영실적에 대한 세밀한 평가를 위하여 부문별책임자와 실무지원 담당을 두고 EBS 경영평가 편람을 바탕으로 업무를 정리·분석하여 경영, 방송, 교육, 기술 등 각 부문별로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영평가단에 제출하였다. 경영평가단은 이를 바탕으로 서면평가와 각 부문책임자 및 실무진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자료가 평가에 미흡한 경우에는 추가 자료를 받아 검토하고 여기에 제작현장 실사 등을 거쳐 경영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도출하였다.

2017사업연도 경영평가 추진 일정은 다음과 같다.

2017. 12. 28 : 2017사업연도 경영평가 실시 계획(안) 이사회 의결

2018. 1. 25 : 경영평가 위원 위촉 및 상견례

2018. 1. 25 : 제1차 경영평가단 회의

2018. 2. 6 : 제2차 경영평가단 회의

2018. 3. 14 : 제3차 경영평가단 회의(서면회의)

2018. 3. 20~3. 27 : 부문별 부서장 면담을 통한 현장평가 실시

2018. 3. 30 : 제4차 경영평가단 회의

2018. 4. 12 : 제5차 경영평가단 회의

2018. 5. 4 : 제6차 경영평가단 회의 및 이사진과 간담회 실시

2018. 5. 24 : 2017사업연도 경영평가 결과 이사회 보고 및 의결

2018. 5. 31 : 2017사업연도 경영평가 결과 공표(방송 및 인터넷)

2018. 5. 31 : 2017사업연도 경영평가보고서 타 언론사 및 방송사 배포

제2장 경영개황

1. 2017년도 경영목표

1) 경영목표

미래·창의
교육 강화

최고 교육
콘텐츠 확대

스마트 서비스
실 현

2) 6대 추진과제

- ① 미래혁신 융합교육 선도
- ② 교육현장 연계 강화
- ③ 고품격 교육콘텐츠 제작
- ④ 글로벌 경쟁력 제고
- ⑤ 언제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서비스
- ⑥ 조직 경쟁력 강화

2. 매체 운영 현황

1) 방송 채널

구 분		편성 내용	시 간	비 고
지상파	EBS 1TV	평생교육 구현 및 학교교육 보완	05:00 ~ 익일 02:00	
	EBS 2TV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격차 해소	06:00 ~ 익일 01:00	
	EBS FM	외국어 및 독서 교육	05:00 ~ 익일 02:00	
위성 케이블 IPTV	EBS 플러스1	수능·내신·논술 교육	24시간	
	EBS 플러스2	초등·중학·직업 교육	07:00 ~ 익일 01:00	
	EBS English	영어 전문 교육	06:00 ~ 익일 02:00	
	EBS U	유아어린이 전문 교육	20시간	
해외	EBS America	미주 지역 재외국민 교육	24시간	

※ EBS 지상파TV는 방송법 제78조에 의거,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및 IPTV에 동시 재전송

2) 인터넷 서비스

사이트 주소	주요 서비스	유 · 무료	회원수
ebs.co.kr	기관 대표 인터넷 통합 서비스		
www.ebs.co.kr	TV, 플러스2, FM VOD/AOD 서비스	유 · 무료	228 만명
primary.ebs.co.kr	초등 학습 콘텐츠 서비스	무료	184 만명
mid.ebs.co.kr	중학 학습 콘텐츠 서비스	유 · 무료	226 만명
clipbank.ebs.co.kr	클립 서비스	무료	25 만명
free.ebs.co.kr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무료	무회원제서비스
durian.ebs.co.kr	한글교육 프로그램 서비스	무료	무회원제서비스
ebsi.co.kr	플러스1 및 수능 인터넷 강좌 서비스	무료	134 만명
ebse.co.kr	영어방송 다시보기 서비스	무료	123 만명
ebsmath.co.kr	수학교육 전문 사이트	무료	21 만명
ebslang.co.kr	종합 외국어 인터넷 강의 서비스	유료	11 만명
총 회원 수 (2017년 12월 기준)			480 만명

※ 총 회원 수는 중복이 제거된 회원 수

3) 채널별 편성 비율

매체			편성비율				
지상파	EBS 1TV	교양 · 다큐 · 유아 · 어린이 · 문화예술 등 평생교육 채널	평생 교육			계	
			유아어린이	청소년	성인		
			30.5%	6.4%	63.1%	100%	
FM 라디오	EBS 2TV	초등 · 중학 · 외국어 · 교육격차해소 중심 국내 최초 지상파 다채널 방송	초등	중등	외국어	교육격차해소	계
			32.4%	9.9%	30.1%	27.7%	100%
			※ 교육격차해소: 경제·문화·성인·문화·교육 등				
위성 케이블	EBS 플러스1 (수능전문)	고등학교 수능 교과 프로그램 전문 채널	평생 교육			계	
			청소년	영어	제2외국어	사회교육	
			4.1%	29.3%	3.4%	63.2%	100%
IPTV (PP채널)	EBS 플러스2 (중학 · 직업)	초등교과 · 중등교과 · 직업교육 · 외국어 학습 특화 채널	학교교육	평생교육	계	계	
			97.0%	3.0%	100%		
			초등교육	중학교육	직업	평생교육	계
	EBS English (영어교육)	유아에서 성인에 이르는 영어 교육 특화 채널	28.9%	46.5%	7.9%	16.7%	100%
			유아	어린이	청소년	성인	계
			13.0%	24.0%	27.3%	35.7%	100%
	EBS U (유아 · 어린이 및 부모교육)	유아대상 창의 · 인성 및 학부모 보육 특화 채널	유아	어린이	부모교육	계	계
			61.4%	19.8%	18.8%	100%	
			유아	어린이	부모교육	계	

3. 2017년 편성 목표 및 내용

1

미래 인재 교육 콘텐츠 강화

- 초등 창의·융합 교육 존(Zone) 설정
 - : <과학다큐 비욘드><사이언스타Q><과학땡Q> <사이틴 플러스> 등
- 수학, 외국어 등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 콘텐츠 확대
 - : <EBS 수학대전> <즐거운 수학 EBSMath><EBS랑 한 입 토익>
<보이는 라디오-니하오 차이나> 등
- 교육취약 계층을 위한 교육격차 해소 콘텐츠 존(Zone) 설정
 - : <호모 이코노미쿠스> <왕초보 영어> <매일 10분 영어> <매직 아이스크림트럭> 등

2

채널 브랜드 경쟁력 강화

- 콘텐츠 전략성 강화 : 프리미엄 콘텐츠 개발, 에버그린 콘텐츠 강화,
액티브 시니어 신규 콘텐츠 확대
 - : <세계문명사 대기획 불멸의 진시황> <철학하라> <번 아웃 키즈> <다큐 시선>
<메디컬 다큐-7요일> <엄마를 찾지마> <까칠남녀> <최종면접> <금쪽같은 내
새끼랑> <성난 물고기> 등
- 채널 경쟁력 강화 : 유아 어린이 편성 시간대 축소, 평일 밤 시간대 강화,
주말 저녁시간대 편성 강화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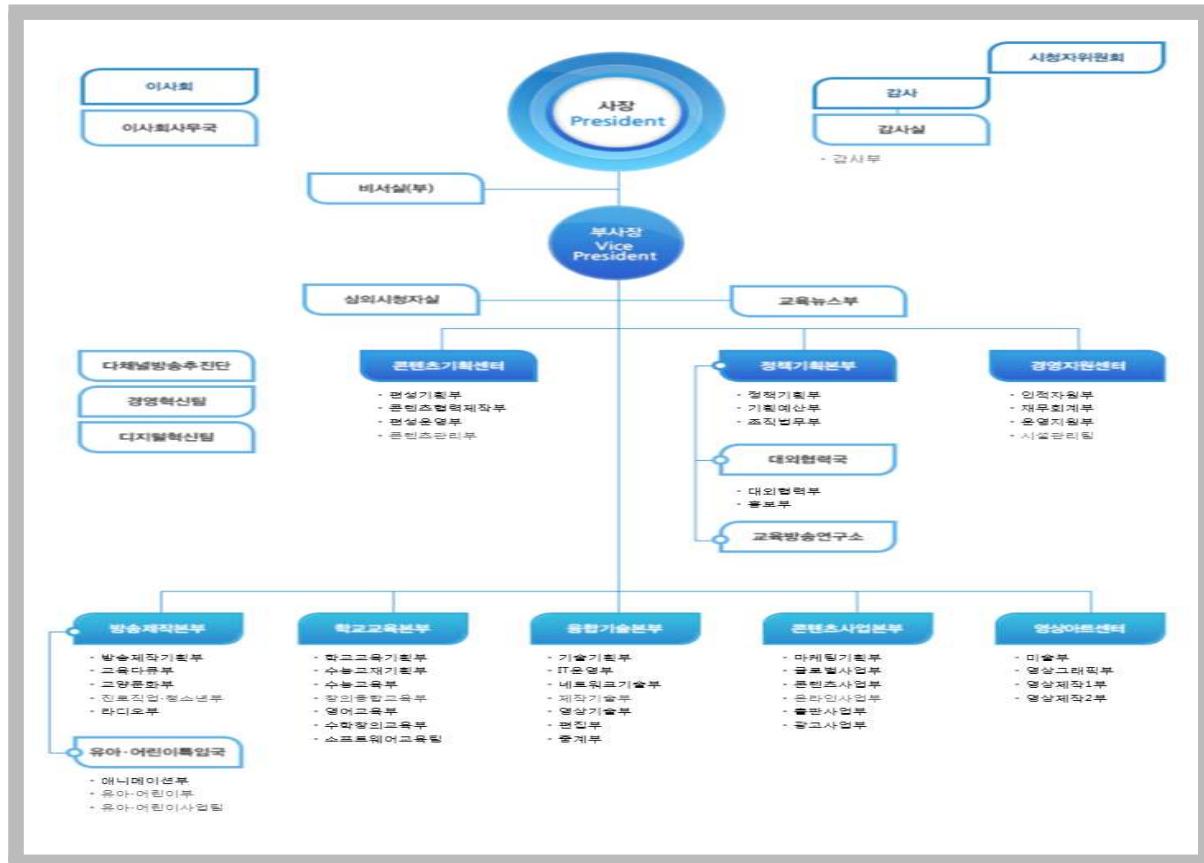
멀티플랫폼 콘텐츠 전략 강화

- 모바일 환경 및 SNS 플랫폼을 통한 동영상 콘텐츠 소비 가속화 적극 대응
- 콘텐츠 기획, 제작, 유통, 판매의 통합 마케팅 전략 수립을 통한 효율성 제고

4. 조직 및 인원 현황

1) 조직 현황

2017. 12. 31 현재



※ 한시조직 : 다채널방송추진단, 유아-어린이사업팀, 소프트웨어교육팀, 경영혁신팀, 디지털혁신팀

2) 인원 현황

○ 현재원 : 586명(정원 : 634명)

구분	임원	일반직(별정직포함)	계(명)
정원	3	631	634
현원	3	583	586
과부족	0	△48	△48

※ 개방형 계약직 포함 (2017.12.31. 현재)

5. 시설 현황

1) 업무 시설

○ 본사 개요

위치	면적	용도
고양시 일산동구 한류월드로 281	부지 14,836m ² 건물 61,375m ²	사무실, 방송 제작 및 기타 지원시설

○ 본사 주요 시설

구 분	면 적	용 도
방송시설	15,240m ² (4,610평)	스튜디오 20실(TV 4실, FM 4실, 이어닝 12실) 주조정실 2실(TV 1실, 라디오 1실) 1:1편집실 40실, 더빙실 4실, 다목적홀 1실, 세트실 등
업무시설	14,631 m ² (4,426평)	사무실, 회의실, 세미나실, 구내식당 등
공용시설	31,332m ² (9,478평)	주차장(513구획), 전기·기계실, 엘리베이터, 복도 등

○ 임차 시설

위치		면적	용도
우복빌딩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24m ²	이어닝 제작
세트 창고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남곡리	462m ²	세트 보관
계		786m ²	

2) 방송 시설

송출시설(주조)	스튜디오	편집시설	중계차
○ 지상파주조 1실	○ TV 스튜디오 4실	○ HD종편 5실	○ HD(15톤) 1대
○ 라디오주조 1실	○ R 스튜디오 5실	○ 특수편집 6실	○ HD(5톤) 1대
○ 위성멀티주조 1실 (3개 PP 동시송출)	○ e-러닝 스튜디오 14실 (우복빌딩 2실 포함)	○ 색보정실 4실	○ 스마트밴 1대 (4톤)
	○ 스페이스 훌 1실	○ 사운드믹스 3실	
		○ 더빙 4실	
		○ 1:1 편집 45조	

6. 예산 현황

1) 2017년 예산 현황

총 예산	공적재원	상업적 재원(자체수입)
3,263억 원	747억 원(22.9%)	2,516억 원(77.1%)

○ 공적 재원

TV수신료	방송통신발전기금	특별교부금	소계
180억 원(5.5%)	303억 원(9.3%)	264억 원(8.1%)	747억 원(22.9%)

① TV수신료 배분			② 방통발전기금(방통위, 미래부)		③ 특별교부금(교육부)	
KBS	90.4%	5,804억 원	프로그램 제작	282억 원	수능강의	165억 원
한전	6.8%	436억 원	글로벌 교육 콘텐츠	17억 원	영어채널	62억 원
EBS	2.8%	180억 원	장애인 방송	2억 원	수학교육	33억 원
계	100.0%	6,420억 원	장애인인터넷 서비스	2억 원	소프트웨어 교육	4억 원
월 TV수신료 2,500원 중 EBS 뛲은 70원		계	303억 원	계	264억 원	

○ 자체 수입

수능교재	기타출판	방송광고	온라인사업	기타매출	사업외	소 계
429억 원 (13.1%)	417억 원 (12.8%)	373억 원 (11.4%)	267억 원 (8.2%)	499억 원 (15.3%)	531억 원 (16.3%)	2,516억 원 (77.1%)

2) 자본금 납입현황

법정 자본금	납입 자본금	미납입 자본금
1,000억 원	889억 원(88.9%)	111억 원(11.1%)

7. 재무 현황

1) 재무제표

- 제18기 : 2017년 12월 31일 현재
- 제17기 : 2016년 12월 31일 현재

[자산]

(단위 : 억 원)

계정과목	제18(당)기	제17(전)기	증감액	증감률
I . 유동자산	710	643	67	10.4%
(1) 당좌자산	687	631	56	8.9%
1. 현금및현금성자산	108	109	△1	△0.9%
2. 단기투자자산	105	105	-	-
3. 매출채권	338	294	44	15.0%
4. 미수금	23	15	8	53.3%
5. 미수수익	1	-	1	-
6. 선급법인세	1	2	△1	△50.0%
7. 선급비용	64	69	△5	△7.2%
8. 부가세선급금	47	37	10	27.0%
(2) 재고자산	23	12	11	91.7%
II . 비유동자산	1,913	1,822	91	5.0%
(1) 투자자산	25	18	7	38.9%
1. 장기투자증권	3	-	-	-
2. 지분법적용투자주식	22	18	4	22.2%
(2) 유형자산	1,876	1,788	88	4.9%
1. 토지	186	334	△148	△44.3%
2. 건물	1,355	72	1,283	1781.9%
3. 구축물	15	-	15	-
4. 방송장비	248	33	215	651.5%
5. 기계장치	27	6	20	285.7%
6. 차량운반구	1	-	1	-
7. 공기구비품	43	14	29	207.1%
8. 건설중인자산	1	1,329	△1,327	△99.9%
(3) 무형자산	1	1	-	-
(4) 기타비유동자산	11	15	△4	△26.7%
[자산총계]	2,623	2,465	158	6.4%

[부채와 자본]

(단위 : 억 원)

계정과목	제18(당)기	제17(전)기	증감액	증감률
I . 유동부채	415	551	△136	△24.7%
1. 매입채무	73	40	33	82.5%
2. 미지급금	138	237	△99	△41.8%
3. 예수제세금	20	13	7	53.8%
4. 예수보관금	2	1	1	100.0%
5. 예수보증금	3	3	-	-
6. 부가세예수금	-	-	-	-
7. 미지급비용	7	7	-	-
8. 미지급법인세	-	-	-	-
9. 환급추정부채	10	8	2	25.0%
10. 반품추정부채	98	84	14	16.7%
11. 선수금	64	158	△94	△59.5%
12. 기타의 유동부채	-	-	-	-
II . 비유동부채	355	310	45	14.5%
1. 퇴직급여충당부채	355	310	45	14.5%
[부채총계]	770	861	△91	△10.6%
I . 자본금	889	809	80	9.9%
1. 자본금	889	809	80	9.9%
II . 이익잉여금	964	795	169	21.3%
1. 이익준비금	172	171	1	0.6%
2. 임의적립금	622	616	6	1.0%
3. 미처분이익잉여금	170	8	162	2025.0%
[자본총계]	1,853	1,604	249	15.5%
[부채와 자본총계]	2,623	2,465	158	6.4%

2) 요약 손익계산서

(단위 : 억 원)

계정과목	제18(당)기	제17(전)기	증감액	증감률
I . 매출액	2,513	2,613	△100	△3.8%
(1) 방송사업수입	1,172	1,152	20	1.7%
1. 수신료수입	181	177	4	2.3%
2. 방송발전기금수입	302	273	29	10.6%
3. 국고보조금수입	237	229	8	3.5%
4. 방송광고수입	355	370	△15	△4.1%
5. 방송사업 기타수입	97	103	△6	△5.8%
(2) 부대사업수입	1,341	1,461	△120	△8.2%
1. 출판사업수입	803	882	△79	△9.0%
2. 문화콘텐츠부대사업수입	100	89	11	12.4%
3. 콘텐츠사업수입	295	350	△55	△15.7%
4. 부대사업 기타수입	143	140	3	2.1%
II . 매출원가	2,483	2,331	152	6.5%
(1) 방송사업비	1,658	1,500	158	10.5%
1. 방송제작비	1,259	1,163	96	8.3%
2. 기술제작비	281	236	45	19.1%
3. 방통융합제작비	118	101	17	16.8%
(2) 부대사업비	825	831	△6	△0.7%
1. 출판사업비	466	459	7	1.5%
2. 문화콘텐츠부대사업비	5	7	△2	△28.6%
3. 콘텐츠사업비	247	269	△22	△8.2%
4. 기타부대사업비	107	96	11	11.5%
III. 매출총이익	30	282	△252	△89.4%
IV. 판매비와일반관리비	380	301	79	26.2%
1. 판매비	78	81	△3	△3.7%
2. 일반관리비	302	220	82	37.3%
V . 사업이익(손실)	-350	-19	△331	1742.1%
VI. 사업외수입	525	30	495	1650.0%
VII. 사업외비용	5	1	4	400.0%
VIII. 경상이익	170	10	160	1600.0%
IX.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70	10	160	1600.0%
X . 법인세비용	-	2	△2	△100.0%
XI. 당기순이익(손실)	170	8	162	2025.0%

제3장 경영평가 결과

1. 총평

EBS는 교육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EBS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가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사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경영평가를 위하여 방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4인을 포함해 7인의 경영평가단을 구성해 2017 사업연도의 사업 전반에 관해 <경영, 방송, 교육, 기술>의 4개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를 실시하였다.

2017 사업연도 경영평가에서는 평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부의 전문가와 전년도 경영평가위원, 2017년도 경영평가 참여 이사, 평가 부문별 부서 책임자가 참여한 ‘편람개선위원회’를 운영하였다. 이 위원회에서는 2016 사업연도 경영평가에서 평가편람을 대대적으로 개편하였던 점을 감안하여 평가 체계와 평가 지표의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였다. 그리고 경영상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중점평가사항’으로 설정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적 사항이란 용어는 ‘개선 권고 사항’으로 바꾸었다.

2017 사업연도의 경영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평가의 전제로 삼은 현실적인 여건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공적재원과 자체 수입재원의 기형적인 재무구조이다.

EBS는 공영방송으로서 공익에 우선적으로 기여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예산서의 재원구조를 보면, 수신료, 방송통신발전기금, 특별교부금 등의 공적재원은 전체 운영재원의 22.9%에 불과하고 나머지 77.1%는 자체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다. 맹자(孟子)는 ‘무항산(無恒產)이면 무항심(無恒心)이라’는 말을 하였다. 즉 일정한 수입이 없으면 일정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EBS가 독립된 기관으로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공공성뿐만 아니라 수익 성도 중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2017년도 결산에서 보면 도곡동 사옥 매각 이익의 반영으로 당기순이익은 발생하였으나 영업이익에서는 상당액의 적자가 발

생하였는데, 이는 광고 수입 감소, 출판 수입 감소, 온라인 사업 수입 감소 등에 의한 것인데, 이러한 감소 요인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두 번째는 사옥을 도곡동에서 일산 통합사옥으로 신축 이전했다는 점이다.

기존 사옥 매각 가격을 최적화하여 외부차입 없이 신축 이전을 완료하고 사옥 이전과 함께 중장기 전략수립을 위한 ‘경영혁신팀’과 ‘디지털혁신팀’을 신설하여 전사적 전략기획 기능을 강화하였다. 또 통합사옥의 방송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UHD 본방송 대비 제작여건을 구비하였으며 IT 서비스 고도화 과제를 통하여 차세대방송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구성원들의 업무편의와 효율화를 위한 쾌적한 업무 환경을 조성하였다. 그러나 쾌적한 업무환경이 조기에 조성되지 못한 것과 원거리 출퇴근으로 인해 불편이 초래되는 등 구성원에 대한 세밀한 배려와 지원도 필요하였다는 점이다.

2017년도 사업연도의 경영평가에서는 이러한 현실적인 여건을 전제로 하여 다음의 다섯 가지를 중점평가 사항으로 삼아 평가를 실시하였다.

경영부문에서는 청사이전 계획 대비 실행의 적정성과 전사 ERP 도입 계획 및 추진의 적정성을 평가하였다.

방송부문에서는 외주제작 관리 개선의 적정성을 평가하였다.

교육부문에서는 EBS 교재 품질관리 체계 개선의 적정성을 평가하였다.

기술부문에서는 청사이전에 따른 기술환경 개선의 적정성을 평가하였다.

위와 같은 현실적 여건을 전제로 EBS의 2017년도 사업 전반을 평가한 결과 전반적으로 보면 청사 이전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정된 인원과 재원으로 사업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선 EBS가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방송으로서의 정체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EBS는 유일의 교육방송이다. 따라서 교육방송으로서 다른 방송과 구분되는 차별성과 고유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런데 2017 사업연도를 평가해 보면 그 차별성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오히려 타 방송사들을 따라가려는 시도들이 많이 보인다. EBS는 방송이나 모든 콘텐츠 제작, 운영면에서까지 타 방송사와 구별되는 교육적인 접근과 고민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중장기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 경영 실적에서 도곡동 사옥 매각으로 당기순이익을 냈으나 영업에서는 사상 최대의 적자가 발생한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현재까지는 상황의 변화에 비교적 잘 대처하여 왔다고 안도할 수도 있겠지만, EBS 전 직원은 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 공적재원이 대폭 확충되기 어려운 여건에서 자체 수입은 상당기간 점차 줄어드는 구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 직원은 노사가 합심하여, 경직성 경비의 증가를 억제하고 판매관리비를 줄이면서 수익을 창출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는 피나는 자구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공적재원 확충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2017년 하반기부터 활동한 ‘경영혁신팀’이 제시한 매서운 현실 진단을 바탕으로 이를 개선할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할 것을 기대한다.

이하 구체적으로 각 부문별로 주요한 평가 사항을 살펴보기로 한다.

경영부문에서는 먼저 수차례의 경영평가에서 도입을 권유했던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ERP시스템) 도입을 결정하고 2017년 8월부터 준비 작업에 착수해 2019년 1월 적용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인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ERP시스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업무 재설계(BPR), 현행 업무분석, 개선 과제 선정 등의 과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경영진의 일관된 의지와 모든 부서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2019년 1월부터 ERP시스템이 도입되어 업무처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한 단계 높아지고 이를 통해 원가관리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심사 분석을 통해 수익도 개선될 것을 기대한다.

EBS의 매출액은 공적재원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의 2,700억원에서 2016년 2,613억원으로, 2017년에는 2,513억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7년에는 사상 최대의 영업손실을 입었다. 매출이 감소한 것은 지상파 방송 광고 시장의 축소에 따른 광고 매출 감소, 학령인구 감소와 교재 정가 동결, 연계책 수 축소에 따른 출판사업 수입 감소와 온라인 부대사업 수입 감소 등이 주요 요인이다. 그러나 판매관리비는 2016년에 비해서 25.1%가 증가하였는데, 물론 이것은 지급수수료와 청사 이전으로 감가상각비가 크게 증가한 때문이고 이를 제외한 인건비성 비용이나 업무추진비 등은 감소하였고 매출액 대비 판관비의 비율도 타 방

송사보다 낮기는 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볼 때 매출액의 획기적인 증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판매관리비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새로운 환경에 부합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면서, 판매관리비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EBS의 경영 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전 구성원이 인식하고, 이를 타개할 구체적이고 객관화된 중장기적인 재무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천과정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가야 할 것이다.

EBS의 2017년도 직원만족도는 62.3점으로 전년보다 6.0점이 상승하였고 응답률도 50.5%로 9.5%가 상승하였다. 또 윤리의식 평가점수도 62.0점으로 전년보다 4.6점이 상승하였고 조직진단 평가점수도 76.0점으로 전년보다 0.8점이 상승하였다. 윤리의식도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201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5등급으로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외부청렴도가 2016년에는 3등급이었으나 2017년도에는 5등급으로서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2016년도에 국가권익위원회의 컨설팅을 받은 바도 있지만, 청렴도 평가가 저조한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합리적인 대책을 세워 EBS 브랜드에 걸맞은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전사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방송부문에서는 편성목표의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EBS는 경영 목표를 구현할 편성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편성을 통해 이를 달성하고자 노력하였다. 각 채널은 그 정체성에 따라 영역별 혹은 대상별로 특화된 전문 채널로서의 기능을 하도록 편성하였다. EBS 1TV는 유아·어린이 대표 프로그램을 확대 편성하고, EBS 2TV는 창의·융합 교육 존(Zone)을 설정하고 창의융합교육 콘텐츠를 확대 편성하고 사교육비 경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학교교육 보완 콘텐츠를 편성하였다. EBS 플러스1의 경우, 수능 전문 채널로서 대입 사교육비를 직접적으로 경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편성하고, 입시정보와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교사 및 학부모 대상 콘텐츠를 강화하였다. EBS 플러스2는 직업교육 콘텐츠 및 과학교육 프로그램 등 학교교육을 직접적으로 보완하는 콘텐츠를 편성하였다. EBS English는 스마트 교육 환경에 최적화된 학습용 클립 콘텐츠를 제공하고,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영어 콘텐츠를 확대 편성하였다. EBS FM은 영어교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교양

채널로서의 정체성을 높이기 위한 편성을 실시하였다. 그런데 EBS 2TV가 창의·융합 교육 존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해당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방송통신발전기금 등 공적 재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하고, 사교육비 경감, 교육격차 해소 등의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청자들이 지상파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EBS는 미디어 매체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용자의 지상파 플랫폼 외 다양한 이용 추이를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적극적인 큐레이션 전략 등을 펼친 결과, 주요 동영상 사이트 이용 합계가 전년도보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 웹, 모바일 등 방송 외 플랫폼을 통한 콘텐츠 이용이 갈수록 증가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2018년 1월 런칭을 목표로 모바일 오리지널 콘텐츠와 디지털 인터랙티브 콘텐츠 제작에 착수하였다. 이러한 미디어 매체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은 2017년 10월부터 활동하고 있는 ‘디지털혁신팀’의 추진 성과에 기대를 건다.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디지털혁신팀’의 성과 산출이 너무 늦어져 기성안흔(技成眼昏)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

EBS는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EBS 협력제작 프로그램 제작 매뉴얼’을 활용해 제작관리와 검수의 시스템화를 추진하였다. 그리고 외주제작진들이 제작을 시작하기 전에 EBS 정체성과 방송제작에 필수적인 기준을 충분히 습득토록 하여 EBS 정체성이 프로그램에 구현되도록 하고 프로그램의 질도 높였다. 외주 제작의 안전 강화를 위해 상해보험 및 여행자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그 비용은 제작비로 지급하여 외주제작사의 부담을 최소화하였다. 그러나 외주제작사와의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많은 성과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외주제작사들이 제작환경의 어려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앞으로도 개정된 상생협력방안을 적극 적용해 외주제작사와의 상생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관계자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문에서는 EBS가 학교교육 보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만큼, 방송내용의 교육전문성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EBS는 교육전문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교육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였다. 우선 대학수학능력시험과 EBS 연계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교육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의 공조체제를 구축해 수능연계 교재개발과 수능관련 이슈 공동 대응, 수능강의 서비스 개선 등에 대하여 수시로 협력하고 있다. 또 학교교육 관련사업을 기획하거나 콘텐츠를 제작할 때는 학교현장의 요구를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해 교육콘텐츠 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교사 시청자위원회’를 운영하고 각 시도교육청의 EBS 학교교육 담당 장학사와 교육부 담당자로 구성된 시도교육청 연구협의회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업무협력을 강화해 수능연계 교재의 완성도를 높였다. ‘수능-EBS 연계교재 완성도 종합대책안’에 따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감수계약을 체결해 감수기능을 강화하고, 집필방향 협의 등을 통해 연계교재에 교육과정과 수능체제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또 교육부의 관련 부서와의 협력을 강화해 수능 및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또, 창의융합교육사업을 위해서 교육방송시범학교를 운영하고, ‘교재개발 교과연구원-강사-CP-제작PD’로 구성된 합동회의를 운영해 교재개발 기획의도가 강의에 잘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 영어교육사업에서는 시도교육청 영어과 담당장학사 협의회와 홍보교사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고, 수학교육사업에서는 시도교육청 장학사협의회와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한국창의재단으로부터 커리큘럼 연구와 활용 확산 등에서 지원을 받고 있다.

EBS 내부에서는 미래교육연구소가 교육전문성을 지원하고 있다. 미래교육연구소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교육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관 간의 인적교류, 공동연구, 정보공유 등을 통해서 교육정책에 대한 협의와 교육계의 동향을 파악하여 관련부서를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EBS 콘텐츠의 활용 증진과 이를 활용한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방송연구대회를 운영하며, 시범학교도 운영하고 있다.

EBS는 직원들의 교육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EBS는 유일의 교육방송이므로 방송이나 모든 콘텐츠에서 타 방송과 구별되는 교육적인 접근과 고민이 더 녹아 있어야 한다. 따라서 EBS가 설정한 방송교육 목표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려면 개별 프로그램을 실제로 기획하고 제작하는 방송제작 인력이나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하는 직원들도 상당한 정도의 교육 전문

성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이들의 교육 전문성을 확보해 유지하는 방안을 강구 할 필요가 있다.

EBS는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재품질관리 개선을 위하여 학교급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선 고등학교 교재에서는 새로운 교육정책의 도입, 수능개편안에 대한 논의, 2018년 3월부터 적용되는 새 교육과정, 학생 수 감소, 대학입시제도의 변화 등에 대응하여 보다 면밀한 학습자의 요구 분석을 통해 새로운 교재와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2015개정교육과정 도입 취지에 맞추어 학교 수업에서 모둠/활동 중심의 수업, 과정중심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습자 개별 수준에 맞추어 기초 학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고교 강의를 위해 교육부, '검인정교과서협회'에 소속된 12개 교과서 출판사와 강의 제작을 협의하고 있다. 초중학 교재에서는 개발과정을 수능연계 교재와 대동소이하게 운영하여 집필·검토 과정 중의 오류 발생 최소화에 노력하여 최근 3년간의 책 당 정정건수가 약 0.12건으로 시중 교과서를 상회하는 완성도와 신뢰도를 구축하여 교재 시장 전반의 하락세에도 초등교재는 성장세를 보이고 점유율도 상승하고 있다.

EBS에서는 '수능강의 및 교재 만족도 조사'를 연1회 실시하여 교사, 학부모,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2017년의 수능 강의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학생은 95.1%, 교사 92.8%로 전년도보다 높았다. 교재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도 학생이 89.4%, 교사 88.1%로 전년도보다 높았다. 수능 강의사업에서 교사들이 학교 수업에서 EBS 콘텐츠를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재의 한글파일을 제공하였고, 수시와 학생부 전형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내신평가 대비 콘텐츠를 보강하고 학교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클립형 콘텐츠를 제작해 교사와 학생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한 점 등의 효과로 보인다.

교육부문의 성과를 살펴보면 양질의 교재를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보급하고, 우수한 강의를 제공함으로써,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데 상당부분 기여했으며,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 교사 및 학부모의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그러나 학생 수의 급격한 감소, 대학입시제도의 변화, 수능에서의 절대 평가 확대, 중학교의 자유학년제 등으로 출판사업 수입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

로 전망된다. 또 특별교부금을 비롯한 공적재원을 더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교육부문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육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교재와 강의, 콘텐츠의 기획단계에서부터 현장의 요구를 폭넓게 수렴하여 잘 반영하고 EBS의 신뢰성을 적극 활용하는 효율적인 판매 전략을 수립하여 교재와 강의, 콘텐츠의 사업 수익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학교현장에 EBS가 개발한 교재, 강의, 콘텐츠에 대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학교현장에서 EBS의 수많은 양질의 교재, 강의, 콘텐츠들을 더욱 많이 활용하게 해야 한다.

기술부문에서는 적은 인원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 통합사옥의 방송 인프라의 안정적 구축, UHD 본방송 대비 제작 여건 마련, IT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차세대 방송의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통합사옥으로의 방송 인프라 이전 중에도 원활한 제작과 송출이 가능하게 하였고 방송 인프라 이전 후에는, 그 동안 이원화되어 있었던 방송시설 및 시스템을 통합운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사옥 전체를 제작 공간으로 만들어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 UHD 송신지원 미해결로 UHD 본방송은 지연되고 있으나 UHD 후반작업 업무 강화를 통하여 내부 제작 여건을 마련하고 UHD 방송 인프라에 대한 체계적인 투자를 하였다. 또 IT 서비스 고도화로 반응형 웹서비스 적용 확대를 통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강화하고 클립뱅크 교과분류 개선 및 교수학습서비스 체제 구축, SNS 로그인 계정을 활용한 회원 인증으로 사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각 영역 별 서비스 관심 그룹화를 통한 개인화 추천 서비스 도입을 통해 향후 개인 맞춤형 서비스로 확대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융합서비스 발굴 및 적용 검토를 통해 방송·통신의 융합 서비스 활성화에 노력하였다. 모바일 세컨드스크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번개코드 서비스 특허를 취득하고,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하여 현안과제 해결을 시도하여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EBS 각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그러나 기술부문에서 4차 산업혁명 등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과 인력 부재, 내부 인력의 고령화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은 과제로 남는다. 따라서 신규 플랫폼 방송 서비스 및 융합 서비스 확대를 위한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 방송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기술개발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미래를 위한 방송기술을 연구, 개발할 수 있는 인력과 자금이 없다면, 미래의 방송형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위험성이 적지 않다. 따라서 방송기술에 대한 인적, 물적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

2. 부문별 총평

가. 경영부문

- 1) 경영혁신계획에 근거한 중장기 재무계획을 보다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EBS는 자체사업 수익의 지속적 감소, 공적재원 증대의 한계 등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였다. 또한 물가상승, 구성원의 고령화, 통합사옥 운영 등에 따른 고비용 구조가 고착화 될 전망이다. 이와 같이 경영상황 악화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2017년 임·단협에서는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노·사간 충분한 상황인식과 협의가 부족하였다. 향후 어려운 재정상황에 대해 경영진뿐만 아니라, EBS 구성원 모두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임해야 할 것이다.

이에 EBS 경영진은 전 구성원의 참여를 통해 경영혁신계획을 준비함으로써 EBS 경영환경 악화에 대한 근본적이고, 실천 가능한 타개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경영혁신계획에 기초한 중장기 재무계획을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을 통해 평가받음으로써, EBS의 악화되는 경영환경을 객관화하여야 한다.

- 2) 직원의 평가 및 보상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40대 이상 직원의 비율이 74.2%에 달한다는 것은 인적 구조에 있어 매우 심각한 위협요소이다. 고령자에 대한 높은 인건비뿐만 아니라, EBS 조직의 지속 가능한 존속을 위한 연속성 측면에서도 문제점이다. 또한, 성과상여금 지급에 있어, 상위직급자에게 우수 등급 부여 비율이 높게 분포된 것은 문제점의 극히 일부 사례이다. 따라서, EBS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는 인사 및 보상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다양한 수당 항목을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위기 상황인 EBS의 경영실적과 구성원 개인의 직접적인 성과와 비용에 따라 효율적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다.

- 3) 직원들의 애사심 고취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수년째 낮은 청렴도 평가 결과가 반복되고, 직원만족도 조사 참여율이 50.5%에 불과하다는 것은, 직원들의 조직몰입도와 애사심이 낮다는 것을 나타낸

다. 또한, 2017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이 12월 30일에 이루어진 것 역시 노·사간 협의에 한계가 있음을 방증한다.

형식적인 교육과 소극적인 안내에서 탈피하여, 혁신적인 조직 활성화 방안 수립을 통해 직원들의 애사심을 고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단기적으로는, 규율이나 규범 위반에 대한 신상필벌의 원칙을 확립, 실천하는 것도 요구된다.

4) 콘텐츠 사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재점검과 수입 확대 전략이 필요하다.

부대사업 중 출판사업 수입이 절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수입 감소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EBS의 핵심경쟁력인 콘텐츠에 기반한 수익 모델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또한, 문화콘텐츠부대사업 수입이 2016년 대비 1,053백만원 증가하였으나, 콘텐츠사업 수입은 전년대비 5,402백만원 감소하여 총 콘텐츠사업 수입도 감소하였다. 따라서, EBS의 핵심 자원인 콘텐츠사업에 대하여 경영진은 기존의 관리체계와 관성에서 탈피하여, 콘텐츠 보유 현황 및 수익 창출력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ERP 구축 완료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바, 현 시점에서 즉각적인 실행이 요구된다.

5) 사옥 이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

EBS의 2017년 가장 역점 사업인 통합사옥으로의 이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미래지향적인 방송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또한, 직원 편의 향상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한 쾌적한 업무 환경이 조성되었다. 다만, 통합사옥 이전에 따라 사옥관리 및 운영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바, 이를 절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6) ERP시스템 구축 관리를 보다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EBS는 통합사옥 건립 과정에서 건설사업관리(CM)을 통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완수하였다. ERP시스템 구축 과정에서도 우선협상대상자와의 기술협상 결렬 등 이상상황 발생으로 사업 수행기간이 연장되고 있다. 따라서, 사업의 안정적 진행을 위해 현재 수립·시행 중인 ERP 관리체계를 보다 고도화하여 책임 담당자를 상설화하고, 외부 전문기관을 사업관리 위탁기관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으며, 성공적인 구축 완료를 위해 실효성 있는 전사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나. 방송부문

2017년도 EBS는 ‘미래·창의 교육 강화’, ‘콘텐츠 전략성 강화·채널 경쟁력 강화’, ‘멀티 플랫폼 콘텐츠 전략 강화’를 목표로, 지상파 TV(EBS 1TV, EBS 2TV), 지상파 라디오(EBS FM), 3개의 PP 채널(EBS 플러스1, 플러스2, EBS English) 및 온라인 서비스 등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는, 2017년도 EBS의 경영목표인 미래·창의 교육 강화, 최고 교육콘텐츠 확대, 스마트 서비스 구현의 위한 실행계획이자 학교교육 보완, 평생교육 구현,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이라는 EBS의 설립 목적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2017년 일어난 〈까칠남녀〉 논란과 〈다큐프라임〉 독립피디 사망 사건은 공영방송, 교육방송으로서의 EBS의 공익적 가치와 사회적 책무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돌아보게 한다. 그러한 맥락에서 2017년도 방송 부문의 주요 사항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급변하는 매체환경 상황에서 EBS의 방송 성과를 나타내는 여러 지표들이 하락, 유지, 상승세를 보이면서 복합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따라서, 각 지표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매체환경 변화에 대비한 적절하고 세부적인 방송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2017년 주시청시간대와 유아·어린이 프로그램의 시청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성인 시간대의 타겟 시청률(남녀 25세 이상)은 0.60으로 전년대비 5.26% 상승했고, 종합 CI¹⁾ 지수는 6.54점으로 전년 대비 0.64점이 하락했지만 콘텐츠 평가지수인 EPEI²⁾는 2016년도 7.83에서 2017년도 7.85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주요 동영상 사이트 (EBS사이트, Youtube, Naver) VOD 이용도 12억 2,939만 건으로 전년도 10억 7,910만 건에 비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지표들은 EBS가 급변하는 매체환경 및 멀티 플랫폼으로 인한 경쟁 심화라는 어려운 방송환경 속에서 나름 선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각각의 지표가 의미하는 바를 잘 분석하여 향후 매체환경 변화에 대비한 방송 전략을 세부적으로 수립하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

1) CI : Children's Index, EBS 유아, 어린이 프로그램 평가지수

2) EPEI : EBS Program Evaluation Index, EBS 프로그램 평가지수

- 2) EBS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대표 프로그램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새로운 포맷과 내용 개발을 위한 투자와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교육 공영방송사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종합편성 채널이 약진하고 비방송 플랫폼 콘텐츠가 질적으로 개선되면서 콘텐츠 간 경쟁은 날로 심화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취약한 제작비 재원 구조와 인력 규모를 가지고 있는 EBS는 더욱 분발이 필요하다. 높은 신뢰도에 비해 콘텐츠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약점을 가진 EBS는 그간 추진해 온 콘텐츠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보다 지속적으로 고도화시켜 대표 프로그램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할 것이다. 그와 함께, 보다 새로운 콘텐츠 포맷 및 내용 개발 등에 대한 투자와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교육 공영방송사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

- 3)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EBS의 실험성이나 도전정신이 드러나는 프로그램이 교육이라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계속 기획, 방송되는 것이 요구된다. 성 불평등과 성소수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사회적 담론을 다양화하려는 <까칠남녀>가 당초 의도와 달리 출연자 하차가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을 일으키며 조기 종영한 것은 사회적 소수자 관련 담론을 개척해 나가는 데 있어 공영방송 EBS의 자리매김이 쉽지 않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사례이다. 이번 사례를 통해 EBS의 편성 목표를 다시금 돌아보고 어떻게 그 목표를 실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또한 민주사회가 차이에 대한 인정과 존중, 소수자에 대한 배려와 관용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관련 의제를 발굴하고 사회적 자극을 주는 프로그램들을 마련해야 한다. 다시 말해,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EBS의 실험성이나 도전정신이 드러나는 프로그램이 교육이라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계속 기획, 방송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 4) 방송환경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EBS는 계약조건에서 불공정 요소를 없애고 제작비를 현실화하는 한편, 외주제작관리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외주제작사와의 상생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다큐프라임> 독립피디 사망 사건은 EBS뿐만 아니라 한국 방송계 전반에 만연하고 있는 외주제작관리의 문제를 여실히 보여준 종체적 비극이었다. 공정거래위

원회는 사건 전후 EBS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 2018년 3월 28일 무혐의 판정 및 심사절차종료 처리한 바 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결과는 법적 처리결과일 뿐, 그와 관련한 사회적 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으로 남아 있다. 향후 방송환경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EBS는 계약조건에서 불공정 요소를 없애고 제작비를 현실화하는 한편, 관리 절차를 개선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외주제작사와의 상생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이번 비극적 사건을 계기로 EBS가 지금까지의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선도적으로 외주제작관리 강화는 물론 구조적, 제도적 개선에 나섬으로써 한국 방송산업 전반에 좋은 선례와 모범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BS의 공영성은 단지 프로그램에서만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기획, 편성, 제작, 유통되는 전 과정에 걸쳐 다각적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5) 프로그램의 교육적 전문성을 제고하여 타방송사 교양프로그램과의 차별성을 확보해야 한다.

평생교육의 개념이 확장적으로 적용되면서 EBS의 상당수 프로그램들이 다른 방송사의 교양프로그램과 비교해 차별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EBS는 교육방송으로서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각별히 노력하고, 흥미도 보다는 교육적 가치에 중점을 두는 편성과 구성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제작진의 관점과 인식이 교육 중심적, 교육 우선적이어야 하며, 그러한 관점과 인식의 유지, 제고를 위한 방안도 다양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 교육부문

EBS의 2017년도 경영목표는 ‘미래 · 창의교육 강화’, ‘최고 교육 콘텐츠 확대’, ‘스마트 서비스 실현’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서 교육 분야에서 수능강의사업, 교재발간사업, 창의융합교육사업, 영어교육사업, 수학교육사업 등 5개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세부 사업별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여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 하였으며,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복지 지원도 수행하였다. 또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도 다양한 프로그램과 콘텐츠, 교재 개발, 모바일 기반의 서비스 개선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교육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방송의 교육적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과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EBS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성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환경의 가장 큰 변화는 저출산 시대의 도래라고 할 수 있다. 저출산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교육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학령인구의 감소는 EBS 주요 수요층의 감소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영향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사회의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는 평생교육의 측면에서 EBS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양극화와 이로 인한 교육격차의 심화는 EBS의 교육적 기능 중에서도 교육복지 기능의 확대가 사회적 요구로 등장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대학입시제도의 변화와 수능연계 정책의 변화도 EBS 수능강의사업과 교재발간사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일컬어지는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모바일 및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혁신적 발전도 EBS의 교육매체와 미디어 측면에서의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교육환경 및 방송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EBS의 교육부문에서 관심을 갖고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1) 미래지향적인 창의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EBS의 2017년도 경영목표인 ‘미래·창의교육 강화’, ‘최고 교육 콘텐츠 확대’, ‘스마트 서비스 실현’ 중에서 최근 교육 분야에서 강조하고 있는 ‘미래·창의교육 강화’ 부분에 대해 더 큰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2015년 개정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미래교육과 창의교육을 위한 더 많은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중학교의 자유학기제·자유학년제와 연결될 수 있으며 고등학교에 처음으로 시범 도입되는 고교 학점제와도 연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부모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미래 사회의 변화와 창의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교양 프로그램 제작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2) EBS 교육부문에서 수능방송사업의 비중을 줄이고 콘텐츠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수능방송사업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EBS 방송과 수능의 연계 정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수능연계를 통해 방송과 교재발간 사업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대입제도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능체제의 변화 및 EBS 연계 정책도 변화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언제 부딪치게 될지 모르는 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수능방송사업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 수능방송사업 이외의 교육 콘텐츠 수요 확대를 통해 수능 비연계 교재발간 사업의 비중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

3) EBS에서 제작하는 교육 콘텐츠, 방송교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모니터링과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현재 교육부문에서 개발한 콘텐츠 중에서 활용도가 높은 것과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그 원인을 분석해 나갈 필요가 있다. 수요가 높은 영역의 콘텐츠 개발을 확대하고 활용도가 낮은 영역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수능강의사업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서도 특히 새로운 수요의 창출과 개선이 요구된다. 특히 교육방송 설립 목적에도 부합하고 최근 타 방송에서 많은 인기를 모으고 있는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명강사 명강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의 감소에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학령인구의 감소가 교육부문에 미친 영향은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수능방송 등의 활용도를 보여주는 스트리밍과 다운로드 수치가 감소하는 현상은 저출산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교재발간사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기존의 매체나 서비스 개선을 통해 학생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기존의 양적 목표 중심의 관리와 평가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고령화 사회와 직업세계의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교육영역 개척이 필요하다.

현재의 교육부문 사업은 대부분 학령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저출산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고령화 사회의 급속한 진전은 교육부문 사업 영역의 다변화를 시도 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청장년층의 직업역량 개발을 위한 자격과정의 확대 등을 통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에 세계적으로 주목 받고 있는 MOOC³⁾와 연계하는 방안이나 기업과 연계하여 단기 직업교육 자격과정을 운영하는 나노 디그리(Nano Degree⁴⁾) 등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령자를 위해 보람 있는 취미와 여가활동을 지원 할 수 있는 평생교육 방송 콘텐츠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고령자를 위한 콘텐츠는 TV를 활용한 접근이 용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연구와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6) 교육방송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연수 기회 확대가 시급하다.

교육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해 EBS 콘텐츠의 수준을 높이고 미래교육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직원의 전문성이 매우 중요하다. 현업에 바쁜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연수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지원과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방송 콘텐츠의 수준은 직원의 전문성 수준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교육방송 직원들의 교육 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신입사원 대상 교육, 전체 직원 연수와 워크숍, 연구모임 등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3)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 : 웹 서비스를 기반으로 대규모 사용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공개 수업

4) Nano Degree : 단기교육과정 인증제도

라. 기술부문

2017년도 방송기술 부문은 EBS 경영방침에 부합하도록 ‘차세대방송 기반 마련, 콘텐츠 경쟁력 강화, 방송·통신융합서비스 구현’을 목표로 설정하고 그 역할을 완수하고자 노력하였다고 평가된다.

1) 통합사옥 방송 인프라의 안정적 구축, UHD⁵⁾ 본방송 대비 제작여건 마련, IT 서비스 고도화 추진을 통해 차세대방송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통합사옥으로의 방송 인프라 이전 일정별 체크리스트 및 시나리오 작성 관리를 통해 이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여 이전 중에도 원활한 제작 및 송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방송 인프라 이전을 통해 이원화된 방송 시설 및 시스템을 통합 운영하여 효율성을 높였으며, 제작 및 송출부문을 100% 파일기반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원활한 제작환경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UHD 송신지원 미해결로 UHD 본방송이 지연되고 있으나, UHD 후반작업 체계 강화를 통해 UHD 콘텐츠 제작 여건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반응형 웹 서비스 적용 확대 및 SNS 로그인 계정을 활용한 회원 인증으로 사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각 영역별 서비스 관심 그룹화를 통한 개인화 추천 서비스 도입을 통해 향후 개인 맞춤형 서비스로 확대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IT인프라의 클라우드 시범 도입으로 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2) 제작 기술 고도화 및 제작 프로세스 개선 과제를 통해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라디오 방송 제작·송출시스템을 자체 개발하여 비용절감 및 안정적인 제작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자체 기술의 사업화를 통해 기술 역량 및 내부 기술인들의 사기를 높이기도 하였다. 모바일 <PIN> 앱을 통한 시청자 참여형 양방향 서비스 도입으로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시청자의 편의성이 향상되었다.

5) UHD : Ultra High Definition Television, 차세대 초고화질 방송

아울러 프로그램 스텝 배정 전담제 및 제작 소통위원회 운영을 통해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책임감을 증진하고, PD와 기술스텝 간의 원활한 소통으로 프로그램 품질을 높였다.

3) 융합서비스 발굴 및 적용 검토 과제를 통해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모바일 앱의 번개코드 서비스 특허 취득을 통해 TV와 모바일 서비스 연계 강화가 이루어졌으며, AI를 활용한 네이버 오픈자 교정 솔루션 도입 시도, 빅데이터를 통한 교재 출판 수요 예측 솔루션 개발 시도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적용이 시도되었다.

기술부문에서는 이와 같이 ‘차세대방송 기반 마련, 콘텐츠 경쟁력 강화, 방송·통신융합서비스 구현’ 방송기술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현안 과제인 통합사옥으로의 방송인프라 이전·구축 업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신사옥에서의 제2창사 기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다.

다만 ‘KBS의 UHD 송신지원 지연’ 미해결로 UHD 본방송 송출이 지연되고 있는 점, 4차 산업혁명 등 미디어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및 인력 부재로 융합서비스 발굴 시도가 실질적인 추진성과로 이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점, 지상파방송 경쟁력이 약화되는 시점에서 내부인력의 고령화로 조직의 활력이 떨어지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다.

그리고 교육방송 본연의 책무인 교육 중심 방송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다양한 신기술들의 도입을 통한 타 방송채널들과의 차별화 노력을 기술부문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4장 부문별 평가

1. 경영부문

EBS 경영평가 중 경영부문 평가의 목적은 EBS 경영전반에 대한 계획, 관리 방식과 운영성과를 점검하는 것으로, 2017년도 12월에 개선된 2017사업연도 EBS 경영평가편람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경영목표 및 전략, 조직·인사, 재무·경영정보, 홍보 및 사회공헌도에 4개 항목, 13개 지표로 평가한다.

그리고 전년도 개선권고사항의 이행노력 및 성과에 대한 평가와 당해연도 중점평가사항으로 '청사이전 계획 대비 실행의 적정성' 및 '전사 ERP도입계획 및 추진노력의 적정성'의 2개 지표로 나누어 평가한다.

<표 1-1> 경영부문 경영평가 분야의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지표
가. 경영목표 및 전략	1. 경영목표 및 전략의 적정성 2. 책임 및 윤리경영의 제고 노력
나. 조직 및 인사관리	1. 조직운영의 효율성 2. 인사관리의 적정성 3. 노사관리의 안정화 정도 4. 연구소의 전문성 확보 및 활용 정도 5. 교육뉴스부 운영의 적정성
다. 재무 및 경영정보 관리	1. 경영실적의 개선 정도 2. 재무 및 위험관리의 적정성 3. 예산편성 및 운영의 적정성 4. 경영정보 관리의 적정성
라. 홍보 및 사회공헌도	1. 브랜드가치 제고 노력의 정도 2. 사회공헌 활동의 성과
마. 전년도 개선권고사항의 이행노력	1. 전년도 경영평가 개선권고사항 이행노력 및 성과
바. 당해연도 중점평가 사항	1. 청사이전 계획 대비 실행의 적정성 2. 전사 ERP 도입계획 및 추진노력의 적정성

가. 경영목표 및 전략

평가내용

1) 경영목표 및 전략의 적정성

가) 평가기준

경영목표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지, 경영목표에 따라 경영전략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프로세스 개선 노력을 기울였는지 여부와 중·장기 재무계획 수립의 적절성에 대해 평가한다. 구체적인 평가항목은 ① 경영목표의 적정성, ② 경영전략 수립의 적정성 및 프로세스 개선 노력 정도, ③ 중장기 재무계획 수립의 적정성으로 구성하였다.

나) 평가사항

① 경영목표의 적정성

2017년도 EBS의 경영목표는 미래·창의 교육 강화, 최고 교육콘텐츠 확대 및 스마트 서비스 실현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경영목표는 교육 공영방송으로서의 EBS의 사명과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2020 비전·중기 경영목표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함이다. 또한, EBS 내·외부의 환경변화를 성장 모멘텀으로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콘텐츠 경쟁력을 기반으로 미디어 환경 및 교육 환경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해 6가지의 세부적인 전략 과제를 수립해 이를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전략·기획 강화’, ‘핵심경쟁력 확보’, ‘개방·공유·참여를 통한 서비스 확대’ 방안을 마련하였다.

첫째, 미래혁신 융합교육을 선도하기 위하여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2TV 전문성을 강화하였으며, 수학교육 콘텐츠 집중화와 창의융합 과학콘텐츠 강화 및 교육정책 변화에 따른 소프트웨어·진로직업교육 콘텐츠를 확대하는 등 국가 미래인재 육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개인

형·맞춤형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둘째, 교육현장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영어·수학 등 교육과정과 연계된 콘텐츠 제작을 강화하였으며, 교사지원센터 및 찾아가는 EBS 등을 통해 교육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였다.

셋째, 채널 인지도 및 화제성을 높일 수 있는 고품질 교육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유아·어린이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였다. 또한, 급부상하는 액티브 시니어층 유입을 위해 신규 콘텐츠 발굴을 지속하고 있다.

넷째,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및 중동 국가들을 대상으로 공적개발원조를 위한 정부 기금인 ODA⁶⁾ 사업 등을 통한 EBS교육모델 진출을 노력하고 있다.

다섯째, 시청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언제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EBS 서비스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모바일 콘텐츠 제작 등 모바일 퍼스트 전략으로의 전환 및 유튜브와 네이버 등 플랫폼 선도기업과 제휴를 통한 스마트 플랫폼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조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합사옥 건립 및 이전에 따른 EBS 제2창사 시대 개막으로 경영 혁신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ERP(전자적 자원관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함으로써 경영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네이버와의 합작회사인 EBS스쿨잼 설립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였다.

② 경영전략 수립의 적정성 및 프로세스 개선 노력 정도

EBS는 설립 근거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조에 따라 ‘교육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되었다. 또한, EBS를 둘러싼 환경이 지속적으로 급변하여 모바일 시대가 본격화되는 등 미디어 환경과 이용자/이용패턴이 변화함에 따라, EBS의 콘텐츠와 서비스 역시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에 따라 EBS는 2017년 경영목표를 ‘미래·창의 교육 강화’, ‘최고 교육 콘텐

6)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공적개발원조(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기관에 하는 원조.)

츠 확대', '스마트 서비스 실현'으로 설정하고, 전 국민의 교육복지 개선과 이용편의 증진에 노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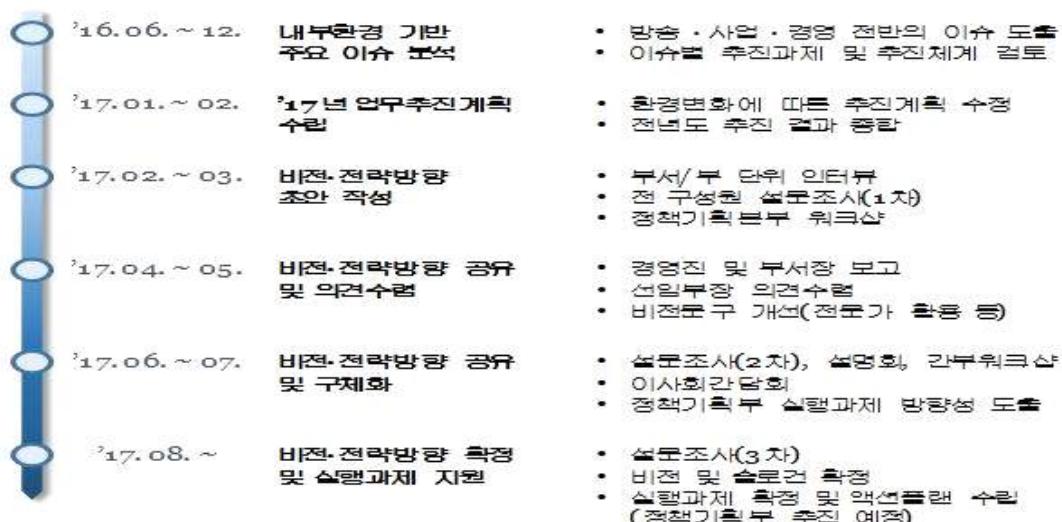
경영전략은 EBS의 내부규정인 '직제규정시행세칙' 등에 따라, EBS 비전 설정 및 중장기 발전 목표 수립은 정책기획본부 정책기획부에서 수립하고 있으나, 청사 이전 등 새로운 재도약의 모멘텀 마련을 위해 2016년 6월부터 2017년 10월까지는 한시조직인 '미래전략팀'이, 2017년 10월 이후로는 '경영혁신팀'과 '디지털혁신팀'이 EBS의 비전 및 중장기 전략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EBS의 단기 경영전략은 매년 말 이사회에서 확정하는 '방송기본계획'이 대표적이며, 이는 당해연도 경영목표 및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된다. 또한, 중장기 전략은 '2020 비전'과 같이 공사의 중장기 목표와 지향을 명시한 것으로서, 한시조직이었던 미래전략팀과 경영혁신팀, 디지털혁신팀에서 준비하였다.

단기 전략 중 '2017년 방송기본계획'은 정책기획부에서 상반기 실적 및 내·외부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작성한 후, 제248회 정기 이사회(2016.12.15.)에서 의결·확정되었다. '채널운영계획' 등 기타 단기 전략은 관련 부서와의 협의 등을 거쳐 경영진 보고 등을 통하여 구체화되었다.

다만, 중장기 전략은 내·외부 환경 분석, 내·외부 의견수렴, 외부 전문 컨설팅 등의 단계가 있어 단기 전략보다 복잡한 절차와 시일을 요하는 바, 2017 EBS 비전은 다음의 추진 절차로 수립하였다.

<표 1-2> 2017 EBS 비전 추진 절차



③ 중·장기 재무계획 수립의 적정성

EBS의 중·장기 재무계획은 정책기획본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예산 전반의 기획과 편성, 조정과 관리를 담당하는 정책기획본부 내 기획예산부를 중심으로 경영지원센터 재무회계부 등 관련 부서가 협업하는 효과적인 형태로 재무계획을 수립하였다.

중·장기 재무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들에 대한 검토 및 분석이 이루어졌다. 첫째, 부서별, 사업별 중장기 수지계획 및 투자계획을 분석하고 이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었다. 둘째, 중장기 자금수지 전망에 따른 차입 운영계획이 검토되었다. 셋째, 중장기 재정 전망에 따른 추정재무제표를 낙관/중도/보수의 관점에서 시나리오별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예산과목 관리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이 검토되었다.

2) 책임 및 윤리경영의 제고 노력

가) 평가기준

지배구조 확립과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한 이사회 운영의 활성화 및 감사 제도의 활성화 정도를 평가한다. 구체적인 평가항목은 ① 이사회 운영의 활성화 정도, ② 감사활동의 활성화 정도, ③ 직원의 정렴도 제고 노력으로 구성하였다.

나) 평가사항

① 이사회 운영의 활성화 정도

2017년 EBS 이사회는, 월 1회 개최되는 정기이사회와 수시로 개최되는 임시이사회, 간담회 등을 포함하여 총 21회 개최되었으며, 44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하였다.

구체적으로는 2017년도 운영계획, 2016회계연도 결산, 2016사업연도 경영평가 결과 보고 및 2017년도 예산 등 이사회규정 제9조(의결사항) 규정에 따라 의결안건 22건을 의결하고, 통합사옥 사무공간 및 제작인프라 이전계획(안), 2017 EBS TV 시청률 분석 및 가을 편성 조정 방향, EBS 지적재산권 관리 현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안) 등 22건의 보고안건을 심의하였으며, EBS 지속 경영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워크숍을 개최하여 공사의 주요 현황 및 현안을 점검하는 등 공사의 투명한 경영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

<표 1-3> 2016년 이사회 운영 현황

구 분	개최횟수	심의·의결 안건수			
		총건수	의결안건	보고안건	기타안건
정기이사회	10	29	13	16	-
임시이사회	4	10	8	2	-
간담회/워크숍	7	14	-	-	14
계	21	53	21	18	14

<표 1-4> 2017년 이사회 운영 현황

구 분	개최횟수	심의·의결 안건수			
		총건수	의결안건	보고안건	기타안건
정기이사회	12	34	13	21	-
임시이사회	2	10	9	1	-
간담회/워크숍	7	15	-	-	15
계	21	59	22	22	15

또한 EBS의 공적 책임과 경영개선을 도모하고 설립목적 구현에 맞는 충실한 경영관리를 위해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4조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경영평가의 경우 평가의 수용성 및 활용성을 강화하고 실행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연구자 심준식 위원)에 연구를 의뢰하여 경영평가 편람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첫째, 경영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모형을 개선하였다. 둘째, 한국교육방송공사법시행령과 한국교육방송공사정관에 명기된 경영평가의 취지를 살리고 경영평가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판정기준 점수를 1200점에서 1500점으로 재조정하고, 경영부문 배점을 기존 300점에서 600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셋째, 평가지표 개선을 위하여 정량지표 평가방식을 목표부여 방식을 도입하여 미래지향적으로 개선하고, ‘당해연도 중점 평가사항’ 지표를 신설하여 주요 현안에 대한 노력 및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정성지표 일부를 개선하였다. 기타 부문 간 및 부문 내 중복 항목을 통합·조정하였으며, 중복적이고 모호한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다.

EBS의 이사회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모두 비상임 이사 9인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전원 임명하며, 이사회 의장과 집행부의(대표) 분리 운영으로 이사회의 독립성이 확보되어 있다.

② 감사활동의 활성화 정도

내부감사는 2017년 중 일상감사 2,470건, 정기감사 2건, 특별감사 2건 등을 실시하여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제반 규정 준수 여부 등 위험관리 부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감사로 법령·규정 등 객관적인 기준 준수 여부 검토와 개선점 도출을 통해 EBS의 경영 합리화 달성을 기여하였다.

2017년 중 시행된 외부감사는 없었으며, 감사는 EBS의 이사회를 포함한 의결기관 및 집행기관과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였다.

이사회와 별개로 상임감사 1인이 임명되어 있으며, 2019년 3월 1일까지 3년의 임기가 부여되어 있다.

③ 직원의 청렴도 제고 노력 정도

2017년 EBS는 직원의 청렴의식 개선 및 이를 위한 소통을 위해 ‘청렴소통 간담회’를 2017년 4월부터 7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EBS 전 직원들에게 청렴업무 수행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청렴 의지를 환기하였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원 청렴도 제고를 위한 활동을 진행하였다.

첫째, 다양한 유형의 청렴 및 윤리 교육을 실시하였다.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도 확대 및 세부사례 해결을 위해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2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부장 등 관리자로 승진한 직원을 대상으로 ‘승진자 청렴·윤리교육’을 실시하였다. 부서장, 부장 등 간부 직원을 대상으로도 별도의 청렴교육을 실시하였다.

둘째, 청렴의식 환기를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하였다. 개인PC 그룹웨어 로그인 창에 ‘나는 오늘도 청렴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란 청렴 관련 문구를 노출하였으며, ‘청렴한 조직문화,’CLEAN EBS’라는 문구를 기안 서식 내에 표기하였다. 설날 및 추석 등 명절 시기에는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및 적용기준을 그룹웨어 게시판에 공지하는 등 계기성 공지도 실시하였다.

셋째, 청렴의식 제고를 위해 EBS클린센터 및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를 운영하고, 사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EBS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였으며, 2017년 12월에는 전직원을 대상 청렴서약서 제출과 청렴계약제를 실시하였다.

넷째, 감사실도 청렴도 향상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하였다. 2016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컨설팅을 통해 EBS의 청렴도 취약점으로 드러난 인사업무에 대한 2017년 정기감사를 실시하여 ‘직무 순환 제도 활성화’ 등 12건에 대해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조치하였다. 이 외에도, 총판 선정 시 공정한 진행을 위해 감사실이 면접에 참관하였고 결과적으로 총판 수를 기존의 절반으로 축소하여 선정하였음에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러한 청렴도 제고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7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종합청렴도가 전년 대비 0.55점 하락하고 외부청렴도는 3등급에서 5등급으로 하락하는 등 근본적인 청렴도 개선에는 한계가 표출되었다.

평가결과 및 제언

2017년 EBS는 급변하는 방송·통신·교육 환경에 대응하여 국민들에 대한 교육서비스를 확대하고, 교육 공영방송사로서의 사회적 책무 이행을 위하여 ‘미래·창의 교육 강화’, ‘최고 교육콘텐츠 확대’, ‘스마트 서비스 실현’이라는 적합한 경영목표를 설정하였다. 또한, 경영목표의 실현을 위한 성과 도출을 위해 ‘전략·기획 강화’하고, ‘핵심경쟁력(Core Competence) 확보’하며, ‘개방·공유·참여를 통한 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ERP 구축을 추진하여 경영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네이버와 협작기업인 ‘EBS스쿨잼’을 설립한 것은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취약한 재정 기반으로 인하여 향후 지속적인 당기순손실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매우 엄중한 현실이다. 공영방송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공사의 수신료 징수대행수수료에도 미치지 못하는 EBS의 수신료 수입에 대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중장기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경영혁신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수지 개선을 위한 노력이 중장기 재무계획에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은 조속히 시정되어야 한다. 또한, 중장기 재무계획에 대한 회계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의 검토 과정을 통해 공신력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017년 이사회의 심의·의결 안건 수는 전년도의 53건에서 59건으로 11.3% 증가하였다. 또한, 경영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평가의 수용성/활용성/실행성을 높이기 위해 경영편람을 개정하여 경영평가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다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가 5등급으로 최하위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외부청렴도가 2016년 3등급에서 2017년에는 5등급으로 하락하는 등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렴도 평가에서 드러난 외부 및 내부 문제점에 대하여 전사적인 쇄신의 노력이 필요하다.

나. 조직 및 인사관리

평가내용

1) 조직운영의 효율성

가) 평가기준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변화관리 노력 정도, 인력운영의 적정성, 직원만족도 정도 및 개선 노력 등을 평가한다. 구체적인 평가항목은 ① 조직운영 관련 문제해결 노력 정도, ② 인력운영의 적정성, ③ 조직운영에 대한 직원만족도 정도 및 개선 노력으로 구성하였다.

나) 평가사항

① 조직운영 관련 문제해결 노력 정도

EBS는 2017년 당면 과제 중 하나인 관리직급 과다, 직종간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하여 관리직급을 신설하여 일반직급과 분리하고, 일반직 (가)(나)(다) 직종의 통합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직급제도 개선을 통해 관리직급(상위직급)의 정원을 분리 운영함으로써 감사원 및 국회 결산감사 지적 사항을 시정하였으며, 직급 수당이 조정됨으로써 연간 약 6천만원의 소요예산을 절감하고, 인력운영을 고도화하였다.

<표 1-5> 직급체계 변경(안)

현 행					개 선 (안)					
구분	정원	직급	현원	직급수당 (천원)	구분	직급	정원	현원	결원	직급 수당 (천원)
별정직 본부장	5	부서장급		400	일 반 직	별정직 본부장	5	5	0	400
	가	491	부서장급	36		관 임 직 급	부서장급	7(1%)	7	0
	나	36	부장급	142		부장급	53(9%)	50	3	300
	다	99	차장급	154		차장급				300
			선임급	40		차장대우급				250
			주무급	211		차장대우급				220
				50		선임급				200
						주무급				100
										50
						합 계				
							631	583	48	

또한, 일반직(가)(나)(다) 직종 통합에 따라 승급기준을 차장대우급은 21년 이상 근속하거나 선임급 7년 이상인 자로, 선임급은 14년 이상 근속하거나 주무급 10년 이상인 자로 변경하여, 직원 사기를 진작하고 조직문화를 활성화하였다.

<표 1-6> 승급기준 개선(안)

현 행				개 선			
호칭	직종	근속기간	호봉	호칭	직종	근속기간	호봉
차장급	일반직(가)	17년 또는 25호봉	차장대우급	일	21년 또는 25호봉 또는 선임급 7년 이상		
(비보직자)	일반직(나)(다)	21년 또는 29호봉			14년 또는 18호봉 또는 주무급 10년 이상		
선임급	일반직(가)	10년 또는 18호봉	선임급	반 직	14년 또는 18호봉 또는 주무급 10년 이상		
	일반직(나)(다)	14년 또는 22호봉			주무급 10년 이상		

② 인력운영의 적정성

EBS는 혁신 및 신사업 추진을 위하여 ‘경영혁신팀’, ‘디지털혁신팀’, ‘소프트웨어교육팀’, ‘유아어린이사업팀’을 2018년 말까지의 한시적인 전문조직으로 신설하여 공사 미래전략, 디지털혁신전략 수립과 유아어린이사업, 4차산업 시대에 걸 맞는 소프트웨어 교육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대비하였다.

경영혁신팀은 EBS의 예산, 조직, 인사, 사업 등 전반의 구조 및 제도에 대하여 비효율을 제거하고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설된 사장 직속 조직으로 팀장 1명과 팀원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디지털혁신팀은 통합형 웹 플랫폼을 기획·구축하고 체계적인 모바일 앱서비스 구현 등 디지털 플랫폼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신설된 부사장 직속 조직으로 팀장 1명과 팀원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프트웨어교육팀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소프트웨어교육 증대에 따른 사교육비 절감, 교육 격차 해소에 적극 대응하고 관련 정부 기관, 단체 등과의 원활한 협조체계 구축과 소통을 하기 위해 신설된 학교교육본부 소속 조직으로 팀장 1명과 팀원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아어린이사업팀은 유아·어린이 콘텐츠 제작과 사업 영역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발휘하고, 유아어린이 콘텐츠 사업기획 총괄·조정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신설된 유아어린이특임국 소속 조직으로 팀장 1명과 팀원 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시범 방송 중인 EBS2 채널의 안정적 정착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설립된 다채널방송추진단의 운영을 2018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였다.

이러한 한시조직 신설로 인해 발생한 인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원외인력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인력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였다.

<표 1-7> 정원외인력 배정 현황

번호	구 분	세 부 내 용	비 고
1	학교교육기획부	콘텐츠 기획 인력 1명(계약직 3등급) 1명 배정	NAVER판 대체인력
2	창의융합교육부	콘텐츠 관리 인력 1명(계약직 3등급) 1명 배정	
3	IT운영부	전산 인력 1명(계약직 3등급) 1명 배정	NAVER판 대체인력
4	온라인사업부	콘텐츠 기획 인력 1명(계약직 3등급) 1명 배정	NAVER판 대체인력
5	출판사업부	교재개발 인력(계약직 3등급) 1명 배정	
6	유아어린이사업팀	캐릭터 기획 전문 인력(계약직 3등급) 1명 배정	
7	유아어린이사업팀	유아어린이 사업기획 전문 인력 (계약직 3등급) 1명 배정	
8	기획예산부	콘텐츠 관리 인력 1명(계약직 3등급) 1명 배정	
9	대외협력부	국제협력 인력(계약직 6등급) 1명, 업무 지원 인력 (파견직_업무보조) 1명 배정	
10	콘텐츠관리부	콘텐츠 관리 인력 1명(계약직 3등급) 1명 배정	NAVER판 대체인력
11	재무회계부	회계 인력(계약직 3등급) 1명 배정	
12	인적자원부	업무 지원 인력(파견직_업무보조) 1명 배정	

③ 조직운영에 대한 직원만족도 정도

- 산정지수 : 직원만족도 수치
- 산출식(%) : 실적평가 60점과 개선도 평가 40점으로 나누어 총합 100점으로 평가

$$\frac{\text{실적}}{100\text{점}} \times 60\text{점} + \frac{\text{실적}}{\text{전년도 실적} + (100\text{점} - \text{전년도 실적})} \times 40\text{점} \times 10\%$$

EBS 구성원들의 만족 수준과 현황을 파악하여 조직문화 및 경영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017년 12월 18일부터 27일까지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참여 인원은 421명으로 응답률은 50.5%이며, 2016년의 참여 인원 321명과 응답률 41%에 비하여 참여도는 개선되었다.

2017년도 직원 만족도는 62.3점으로 전년대비 6.0점 상승하였으며, 직원만족도 수치는 78.45%이다.

16개 평가요소 중 근무환경, 복리후생, 부서내 동료, 부서내 상급자, 사회적 역할 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기본적인 근무환경 및 구성원 간의 관계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교육훈련제도, 급여·성과평가·보상·인사·승진평가 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조직관리를 위한 인사제도에 대한 개선은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며, 성과·역량 기반의 인사제도 재설계를 통한 급여·성과평가·보상 등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2) 인사관리의 적정성

가) 평가기준

채용제도, 인사고과에 따른 역량·성과 평가제도, 보상제도, 승진제도 등 인사제도의 합리성, 업적평가 및 보상제도(신분, 급여)를 연계한 인사관리와 구성원들에 대한 지속적이고도 체계적인 교육훈련 노력을 평가한다. 구체적인 평가항목은 ① 채용, 인사고과, 승진 등 인사제도의 적정성, ② 임금 및 보상제도의 적정성, ③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노력 정도로 구성하였다.

나) 평가사항

① 채용, 인사고과, 승진 등 인사제도의 적정성

EBS는 2017년 정기 공개채용을 통해 17명의 정규직을 채용하였으며, 전(全) 전형과정에 블라인드 방식을 도입하여 직무역량 위주로 평가되도록 전형을 개선하였다. 또한, 계약직은 총 57명을 수시 공개채용을 통해 채용하였으며, 이를 위해 '계약직 상시채용 시스템'을 도입하여 입·퇴사가 잦은 계약직의 결원 발생 시기에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하였다.

정규직은 ‘서류-필기-실무역량평가-최종면접’의 총 4단계 전형을 통해 채용하며, 각 단계별 선발배수는 다음과 같다.

<표 1-8> 정규직 채용 단계별 전형



* 계약직 채용시,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 전형으로 진행

또한, 채용제도와 관련하여 전(全) 전형 블라인드 방식을 도입하고, 직무역량 평가를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2016년과 대비하여 2017년에 개선된 채용제도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1-9> 채용제도 주요 개선

구분	2016	2017
블라인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학점, 사진, 어학점수 기재 1~2차 평가 시 비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인적사항 미기재 전(全) 전형과정 비공개
자기소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력기술서 없음 8개 문항 (공통 6개, 직무별 2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적, 중복적 문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무 관련 교육사항 추가 경력·경험사항 및 경력기술서 작성 추가 4개 문항 (공통 3개, 직무별 1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자 분석·이해에 집중하는 문항
실무 역량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적성검사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종면접시 참고 평가위원 : 3명~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성검사 결과 반영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적격’ 판정자, 최종 면접 대상에서 제외 실무역량평가 결과 반영 확대·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위원 : 5명 적성검사 폐지로 100% 반영 (적성20%+역량80% → 역량100%) 평가 공정성·객관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절사평균 도입(최고, 최저 제외 평균)
최종면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원 및 부서장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분야 현업 담당자 1인 평가위원 추가

업적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위하여 다면평가(하향평가, 상향평가, 동료평가)를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하향평가, 상향평가 및 동료평가를 상반기 1회 및 하반기 1회 실시하였다.

<표 1-10> 2017년도 근무평정 시행 현황

구 분	대상기간	대상인원	평가수행기간	비 고
상반기 근무평정	2017.01.01. ~ 2017.06.30.	659	2017.08.09. ~ 2017.08.23.	계약직포함
하반기 근무평정	2017.07.01. ~ 2017.12.31.	568	2018.02.09. ~ 2018.02.24.	계약직별도

하향평가는 5단계 등급으로 등급별 비율에 의거해 상대평가를 실시하며, 근무 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를 60:20:20의 배점비율로 평가한다.

<표 1-11> 등급별 비율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비 율	10%	20%	50%	15%	5%

동료평가는 차장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동일 부에 피평가자와 2개월 이상 근무 한 일반직 직원이 상호평가하며, 상향평가는 부장, 부서장 보직자를 대상으로 계약직원을 포함한 전체 소속 직원이 평가한다.

근무실적 평가는 핵심성과지표(KPI)에 의해 평가하며, 매년 경영방침 및 지표에 따른 부서별 업무추진계획을 반영하여 수정·평가함으로써 조직전략목표와의 일치성을 제고하고 있다.

또한, 적시성 있는 성과지표 마련을 통한 조직전략성과의 일치를 도모하기 위하여 반기별로 KPI 조사를 실시하고 인사이동, 조직개편 등 이벤트 발생 시에 조직목표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KPI조사를 실시한다(2017년도 2회 시행).

평가지표 설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별 KPI 설정 시 소속부장과 직원과의 협의과정을 통해 추출·수정·관리하며, 부내 담당업무에 따라 평가지표를 선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부서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평가절차 진행 시 절대평가방식을 사용하되, 부서별 형평을 위해 기준점수, 표준편차, 분산도를 사용한 조정산식을 활용하여 평가자의 관대화 경향 등에 의한 오류를 보완하기 위한 기계적 산식을 활용하고 있다.

* 조정산식 : 기준점수 + [(파평기자점수-해당부서평균점수) / 해당부서표준편차] * 조정편차

평가자 1인 또는 2인에 의한 평가로 지나치게 주관적이거나 관계중심적인 평가 결과가 도출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부장평가(60%)와 부서장평가(40%)를 나누어 진행하고 있으며, 직렬별 평가위원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결과를 10%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 있다.

② 임금 및 보상제도의 적정성

보직자 관리에 있어 차장승진은 최근 3년간 근무성적평정 평균점수가 78점 미만인 경우 차장승진 후보자 명부에서 제외하며, 근무성적평정 순위에 따라 차장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했다. 부장 및 부서장 승진은 승진후보자의 최근 3년간 근무성적평정 평균점수 및 상향평가 결과를 부장 이상 보직 임용에 활용하고 있다.

교육연수 및 포상 대상자 선발을 위한 인사위원회 심의 시 후보자의 최근 1년과 최근 3년간 근무성적평정 평균점수를 공개 후, 선발 심사에 반영하고 있으며, 자비연수 휴직의 경우 업적평가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최근 3년 이내의 하향평가점수가 76점 미만인자는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한편, 근무시간 중 국내자비연수자는 최근 3년 이내의 하향평가점수가 78점 이상으로 기준을 상향하여 제한하고 있다.

금전적 보상을 위해 도입된 성과상여금은 직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근무평가 결과 및 성과 등을 감안하여 개인별 5단계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다.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가점수를 토대로 인사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지급 등급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표 1-12> 성과상여금 등급별 지급 인원

(단위 : 명)

구 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계
부장 이상	6명	16명	33명	12명	-	67명
일반직원 (차장이하)	10명	67명	256명	154명	25명	512명
계약직원	1명	9명	26명	26명	2명	64명
계	17명	92명	315명	192명	27명	643명

③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노력 정도

- 산정지수 : 1인당 교육연수시간

- 산출식(%)

$$\left(\frac{\text{실적(당해년도)} - \text{최저목표(직전3개년도 실적의 평균} \times 60\%}{\text{최고목표(직전3개년도 실적의 평균} \times 105\% - \text{최저목표(직전3개년도 실적의 평균} \times 60\%} \right) \times 100$$

EBS의 2017년 1인당 교육연수시간은 85.3시간으로 2016년 대비 11.9시간 (16.2%) 증가하였다. 또한, 직원 1인당 연수비가 23.4% 증가하였으며, 연수비 집행률은 2016년의 59.8%에서 2017년에는 91.0%로 대폭 상승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 직원교육훈련정도에 대한 산정지수는 122.72%이다.

<표 1-13> 2017 교육훈련 실적

(단위: 시간, 천원)

구분	2016	2017	증감	증감률	비고
직원 1인당 연수시간	73.4	85.3	11.9	16.2%	
직원 1인당 연수비	552.2	681.5	129.3	23.4%	
연수비 집행률 (배정 예산대비 집행실적)	59.8%	91.0%	31.2%	52.2%	

3) 노사관리의 안정화 정도

가) 평가기준

노사관계의 안정화를 위해서 노사 간의 충분한 의견교류 및 공유를 이룰 수 있도록 노사 간 의사소통 채널의 공식화 수준과 노사 의사소통 채널의 합리성 및 경영합리화를 위한 노사협력 정도를 평가한다. 구체적 평가항목은 ① 노사 간 의사소통을 위한 제도적 노력 정도, ② 경영합리화를 위한 노사협력 정도로 구성하였다.

나) 평가사항

① 노사 간 의사소통을 위한 제도적 노력 정도

노사관계의 안정화를 위하여 EBS는 노·사간 상시적인 의사소통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혁신토론, 제작 및 사업부서장 회의 등을 공지하고, 직원 채용 및 각종위원회, 이사회 상정 안건 내용을 공유하며, 수시로 요청되는 경영자료

를 제공하는 등 경영 관련 정보를 활발히 공유하고 있다.

또한, 노·사간 의사소통 증진을 위한 업무협의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고, 노·사 실무자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며, 직원의 근로개선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협의하였다.

노사협의회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하여 노·사간 정기적인 소통 정보 교환하기 위한 채널을 구축하고 있다.

2017년 중 노사협의회를 통한 공유된 주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 사옥 방송인프라 구축 계획 및 UHD 송출 관련 진행사항. 둘째, 분기별 예산현황 및 수익, 비용 실적, 사옥매각대금 운영 계획. 셋째, 사옥 이전에 따른 거점셔틀, 20층 라운지 운영 계획. 넷째, 테마파크, 엘리베이터 구축, 한시조직 운영 계획, ERP 진행 현황을 공유하였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서는 2017년도 임·직원 건강검진 실시 계획을 공유하였다.

노·사간 근로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을 체결하기 위하여 2017년 10월 11일에 노·사 교섭위원 전체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총 6회의 노·사 실무소위원회 회의(2017.10.24(화) ~ 12.4(월))와 5회에 걸친 노·사 교섭 대표위원 회의(2017.12.8(금) ~ 12.28(목))를 통해 2017년 12월 30일에 2017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② 경영합리화를 위한 노사협력 정도

2017년 EBS 노·사는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함께 실천하였다.

첫째, 동일직무 동일처우에 대한 법적 문제제기 가능성을 제거하고, 직종 구분으로 인한 일반직(나)(다) 직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직종을 일반직으로 통합하였다.

둘째, 감사원, 국회에서 지적한, 상위직급에 상응하는 직위의 수를 고려하여 직급과 직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비보직자에 대한 직급수당 차별화 적용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관리직급을 신설하여 일반직급과 분리하고, 비보직자의 직급수당을 삭감함으로써 인건비 절감을 실현하였다.

셋째, EBS 네이버 판 신설 등을 통해 사업영역 확대하고, EBS U 채널을 EBS미디어에 이관에 자회사와의 상생관계를 확보하였다.

넷째, 계약직과 정규직의 복지포인트가 차등 지급되었으나 2017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을 통해 노·사간 합의로 2년 미만과 2년 이상으로 구분하여 비정규직과의 차별을 개선함으로써 2018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개방형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시 최초입사일로부터 근속년수를 적용하고, 장기근속수당, 퇴직금 등의 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연차수당을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도록 직책수당, 직급수당 및 장기근속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였다. 다만, 시간외 수당 지급기준은 근로기준법에 미달되나 기관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수당을 일부 인상하는 것으로 노·사 합의를 통해 제한적으로 개선하였다.

비금전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근로조건 개선 및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였다. 우선, 직원의 해외출장기간 중 공휴일을 포함하지 않고, 단체협약서 등에 따라 7일 이상 1일, 2주 이상 2일, 3주 이상 3일로 대휴가 부여되었으나, 현실에 맞춰 공휴일이 포함되는 경우 그 일수만큼 대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대휴 및 연차의 경우, 당초 발생한 당해연도에 소진하지 않으면 소멸되었으나 발생일이 상반기일 경우 익년도 상반기, 발생일이 하반기일 경우 익년도 하반기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EBS 사옥 이전에 따른 직원 휴게 전용공간을 확보해 직원간의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한 자율적인 회의공간으로 활용하고, 여성휴게실을 신설하여 임신, 육아 등 활동 등에서의 불편함을 해소하였다.

4) 연구소의 전문성 확보 및 활용 정도

가) 평가기준

미래교육연구소의 전문성 확보 및 활용 정도를 평가한다. 구체적 평가항목은 미래교육연구소의 전문성 확보 및 활용 정도이다.

나) 평가사항

① 미래교육연구소의 전문성 확보 및 활용 정도

EBS의 미래교육연구소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및 교육 관련 기관 간의 인적교류, 공동연구, 정보공유를 위한 정보공유체제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설립되었다. 유관기관(한국교육개발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학술정보원)과의 정기적 교류를 통하여 교육정책을 협의하고,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있으며, 시·도교육청 및 연구기관과의 정기 협의회 및 공동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유관기관과 진행한 정기적인 교류 및 협의회와 토론회의 2017년 성과는 다음과 같다.

<표 1-14> 정기 협의회 및 공동 토론회 개최 현황

진행 내용	비고
교육부-교육청-유관기관 실무회의 및 워크숍	연 4회 개최
교육부-유관기관 담당자 회의	연 2회 개최
행복교육 현장 토론회 공동 개최	연 6회 개최
교육부-교육청-유관기관 책임관 회의	연 1회 개최

외부 전문 기관을 활용하여 2017년 EBS 수능 성과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단국대학교), 2017년 EBS 수능 종단연구(성신여자대학교) 및 지상파 다채널 본방송 활성화 방안과 정책 제언(정보통신정책학회) 연구를 수행하였다.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5건의 이슈&전략 리포트를 발간하였으며, 교육 및 미디어 분야 등에 대한 동향을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총 891건을 제공하였다.

제25회 교육방송연구대회를 개최하여 EBS 콘텐츠 활용을 통한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지원하고 교원들의 현장연구 활성화를 유도해 교육 콘텐츠 개발·활용 능력 신장을 도모하였다. 이번 대회에는 연구보고서 135건과 클립형 영상학습 자료 407건이 출품되었는데, 2번의 심사를 거쳐 20건과 62건 총 82건을 시상하였다. 또 EBS 시범학교 6개교를 지정하여 2년간에 걸쳐 운영하고 있다.

5) 교육뉴스부 운영의 적정성

가) 평가기준

교육뉴스부의 제작계획에 따른 노력 및 성과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구체적인 평가항목은 ① 당해연도 제작계획 대비 달성 노력 및 성과의 적정성, ② 당해연도 성과에 대한 환류 및 차년도 계획의 적정성으로 구성하였다.

나) 평가사항

① 당해연도 제작계획 대비 달성 노력 및 성과

2017년 교육뉴스부는 제19대 대선을 앞두고 다양한 교육 이슈를 기획 보도함으로써 차기 정부의 교육 의제를 선도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업무를 최우선으로 추진하였다. 대선 3개월 전부터 대선 취재팀을 구성하고 각 후보별로 마크맨을 지정해 폭넓고 깊이 있는 기획 시리즈를 준비하였다. 전 국민적 관심사인 교육 공약과 정책을 정밀 검증하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49편에 달하는 기획 뉴스를 보도함으로써 EBS 뉴스의 경쟁력을 제고하였다.

특히, 대선 교육 여론조사는 정치권과 교육부 등으로부터 폭넓은 관심을 받음으로써 대외적으로 EBS 뉴스의 영향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으며, 대선 후보 특별 대담에 유력 후보 5명 중 3명을 섭외하여 EBS가 다양한 교육적 담론을 형성하는 것에도 일조하였다.

EBS 뉴스는 대규모 연중기획과 심층기획을 통한 교육 어젠다 제시를 목표로 삼아 교육 저널리즘을 실현하는 데 매진하였다. 이에 따라 뉴스부 내에 별도의 프로젝트 팀을 운영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 현장을 가다〉, 〈여기서 일한다, 여성이 일한다〉, 〈마이너스 가정의 아이들 - 재혼가정 자녀 인권보고서〉 등 모두 3차례의 대형 기획시리즈를 총 57편 보도하였다.

기획시리즈들은 모두 3개월부터 1년 이상의 사전 기획·취재·제작 과정을 통해 뉴스의 완성도를 높였으며, 특히, 〈여기서 일한다, 여성이 일한다〉는 제19회 양성평등미디어상 방송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보였다. 또한, 〈마이너스 가정의 아이들 - 재혼가정 자녀 인권보고서〉는 삼성언론재단 기획취재지원사업에 선정돼 취재의 필요성을 인정받았으며 관련 학술지에 발표될 예정이다.

세월호 1000일을 포함하여 주요 기획보도가 7건에 26편이 방송되었으며, 28 편의 EBS 단독 기사가 방송되었다.

EBS 뉴스는 고등학생들이 직접 제작하는 스쿨리포트를 확대 운영하여, 방송 횟수를 주 1회에서 격주 2회로 늘려 2017년 중 70회가 방송되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놀거리를 체험하고 소개하는 코너를 신설하여 학생들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장려하고 있다.

② 당해연도 성과에 대한 환류 및 차년도 계획의 적정성

연중기획 및 심층기획 시리즈 제작 계획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교육에 대한 심층기획을 준비한다. 특수학교 설립 갈등으로 촉발된 특수교육의 문제점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짚어보고 대안을 살펴보는 심층기획이다. 국가교육위원회 특수교육 분과와의 연계를 통해 기획보도의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교육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목표이다.

둘째, 학습부진아 심층기획이다. 학교 현장의 학습부진아 판정 및 보정 시스템의 문제점을 탐사 보도한다. 교육적 효과가 없는 보정 시스템에 들어가는 예산 문제점을 분석하고, 전국 시도교육청의 학습 부진 클리닉 운영상의 맹점을 집중취재 할 계획이다. 좋은교사운동 등 교육시민단체와의 취재 협조를 통해 사회적 이슈를 확산하고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어내 실질적인 교육 정책 변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셋째, 교육 소외 지역에 대한 심층기획이다. 전국 지역별 교육 환경과 학업 성취도, 대학 진학률 등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교육 소외 지역의 실태를 점검하고 교육 소외 지역에 대한 대책을 살펴볼 예정이다.

온라인·모바일 뉴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 내진 설계를 주제로 인터랙티브 뉴스를 제작할 계획이며, 교육 관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 뉴스를 제작할 예정이다.

또한, '6.13 교육감 선거'에 맞추어 〈교육감 성적표〉, 〈우리 동네 교육공약〉, 〈교육 이슈 찬반〉 등의 기획보도를 통해 교육 의제를 선도하고, 서울, 경기 등 교육감 선거 TV 토론회와 교육감 선거 여론조사를 진행하며, 신임 교육감의 EBS 출연을 통해 지역 교육청과 협력관계를 공고하게 구축할 예정이다.

평가결과 및 제언

일반직 직종 통합을 통해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관리직급과 일반직급 분리를 통해 과다한 상위직급 문제를 해소하는 등 조직 운영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시적인 노력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직원 만족도가 전년 대비 6.0점이 상승한 62.3점으로 개선되었다.

다만, 직원 만족도 조사 참여도가 50.5%로 과반에 그치고 있는 점과 40대 이상의 직원 구성 비율이 74.2%에 이르는 점은 경영진이 최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점이다.

블라인드 채용 방식과 직무역량 위주의 평가를 통해 채용직원의 다양성이 제고되고 있으며, 계약직 상시채용 시스템을 통해 계약직 결원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한편, 공정한 업적 평가를 위한 다양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이 상위직급자에게 유리하게 지급된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

직원 교육훈련을 위한 연수시간 및 연수비 등은 전년대비 대폭 개선되었으나, 교육훈련의 성과에 대한 분석 및 피드백 체계를 구축하여 실질적인 교육훈련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직급 및 보직 유무에 따른 불평등한 처우를 개선하여 조직문화를 개선한 점은 높이 평가되나 2017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이 2017년 12월 30일에 이루어진 것은 미흡한 부분인 바, 2018년에는 노·사가 원활한 협의를 거쳐 조기 타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뉴스부가 다수의 연중기획과 심층기획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으나, 뉴스 제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인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EBS 타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육 아젠다 개발에 노력해야 한다. EBS의 뉴스로서 정체성을 높이면서 전사적인 대외협력·홍보 기능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 조직 업무 전반에 대한 개선과 경영진의 관심이 필요하다.

다. 재무 및 경영정보 관리

평가내용

1) 경영실적의 개선 정도

가) 평가기준

이익 구조 및 재무 구조의 개선 노력과 성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한다. 구체적인 평가항목은 ① 이익 구조의 개선 성과, ② 재무 구조의 개선 성과로 구성하였다.

나) 평가사항

① 이익 구조의 개선 성과

- 산정지수 : EBITDA⁷⁾
- 산출식(%)

$$\left(\frac{\text{실적(당해년도)} - \text{최저목표(직전3개년도 실적의 평균} \times 60\%}{\text{최고목표(직전3개년도 실적의 평균} \times 105\%)} - \text{최저목표(직전3개년도 실적의 평균} \times 60\% \right) \times 100$$

EBS의 2017년 EBITDA는 (-)280억 4,676만원으로 최근 3년간 EBITDA 실적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지표를 반영한 이익 구조 개선 성과에 대한 평가결과는 (-)1,439.73%이다.

<표 1-15> 연도별 EBITDA 현황

[단위 : 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사업이익 (A)	-1,243,123,116	2,347,351,410	-1,949,666,997	-34,998,562,818
감가상각비 (B)	6,844,881,469	4,403,450,409	3,909,654,310	6,951,305,515
EBITDA (A+B)	5,601,760,367	6,750,803,834	1,959,989,329	28,047,257,303

7) EBITDA(Earnings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 기업이 영업 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 창출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

② 재무 구조의 개선 성과

- 산정지수 : 부채 비율 및 유동 부채, 자산
- 산출식(%)

$$\left(\frac{\left(1 - \frac{\text{부채(당해년도)}}{\text{자산(당해년도)}} \right)}{\left(1 - \frac{\text{부채(전년도)}}{\text{자산(전년도)}} \right)} \times 50 + \left(\frac{\frac{\text{유동자산(당해년도)}}{\text{유동부채(당해년도)}}}{\frac{\text{유동자산(전년도)}}{\text{유동부채(전년도)}}} \right) \times 50 \right)$$

2017년 중 도곡사옥에 대한 매각대금이 유입됨에 따라 유동자산이 증가하고, 유동부채가 감소함에 따라 EBS의 재무구조 개선 성과에 대한 평가결과는 88.42%이다.

<표 1-16> 연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단위 : 원]

구 분	자산	유동자산	부채	유동부채
2016년	246,486,635,442	64,255,167,231	86,082,279,469	55,055,639,419
2017년	262,287,071,914	70,941,946,739	76,973,432,471	41,503,803,488

2) 재무 및 위험관리의 적정성

가) 평가기준

관리회계와 위험관리 시스템 연계 현황의 분석 및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리스크를 감안한 수익관리체계 정비에 대한 적정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매출액 대비 판매관리비의 비율로 판매관리비의 적정성과 판매관리비 구성 항목 내용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이와 함께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수익 구조 창출을 위해 공적재원 확대 노력과 성과 및 신규 수익 항목 개발을 통한 자체 사업수익 확대 노력의 정도와 성과를 평가한다.

구체적인 평가항목은 ① 재무제표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의 적정성, ② 재무관리 회계와 위험관리 시스템의 연계정도, ③ 재무위험관리 전문가 양성 노력의 적정성, ④ 매출액 대비 판매관리비 비율의 정도, ⑤ 판매관리비 구성 항목별 내용의 적정성, ⑥ 공적 재원 확대 성과, ⑦ 공적 재원 확대 노력 정도, ⑧ 자체 사업수익 확대 성과, ⑨ 자체 사업수익 확대 노력 정도로 구성하였다.

나) 평가사항

① 재무제표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의 적정성

2017년 EBS의 재무성과는 도곡사옥 등 매각에 따른 대규모 유형자산처분이익(50,597백만원)이 발생하여 대부분의 지표가 개선되었다. 특히, 유동비율, 부채비율 등 재무 안정성 지표가 전년대비 개선되었으며, 무차입 경영에 따라 차입금의 존도와 이자보상 비율이 0인 점은 우수한 재무구조임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반면, 부대사업수입의 감소와 방송사업비 및 일반관리비의 증가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사업손실이 확대됨에 따라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악화되었다.

재무제표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독립된 외부감사인(삼일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통해 기업회계기준 준수 여부와 재무제표 작성의 적정성 및 공정성 검증 받고 있다.

또한, 결산재무제표 및 결산서의 대외 검증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및 정관에 따라 결산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감사원의 감사 및 국회 승인을 거친 후 재무제표를 공표하는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EBS 경영의 대외 투명성을 확보하고, 경영진 및 이해관계자에게 합리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경영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17 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주요 지표는 다음과 같다.

<표 1-17> 2017 회계연도 결산 결과

구 분	2016년	2017년
유동비율	116.7%	170.9%
부채비율	53.7%	41.5%
차입금의존도	-	-
자기자본비율	65.1%	70.7%
현금비율	19.8%	26.1%
매출액영업이익률	-0.7%	-13.9%
매출액순이익률	0.3%	6.8%
총자산순이익률	0.3%	6.7%
자기자본순이익률	0.5%	9.2%
이자보상비율	-	-
매출액증가율	-3.2%	-3.8%
총자산증가율	14.4%	6.4%
유형자산증가율	92.6%	5.0%
자기자본증가율	8.1%	15.5%
유동자산증가율	-46.2%	10.4%

② 재무관리 회계와 위험관리 시스템의 연계 정도

재무리스크 관리를 위해 통합자금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정적으로 유지 및 관리하고 있다. 주거래 은행인 기업은행과 연계된 통합자금관리시스템(IHB) 운용을 통해 보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다. 자금출납시스템을 통해 3단계에 걸친 출금 오류 검증을 통한 출납 무사고를 유지하면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출납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시스템 기능 추가와 고도화로 효율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있다.

통합사옥 건립 이후 운용자금 부족 시 차입 방안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자금운용계획 수립을 통한 재무적 리스크를 최소화하였다. 이를 위해 월별·분기별 전사의 자금 수요를 조사하여 자금운용계획 수립에 활용하며, 회계구분별 대금 지출일자를 지정하여 일별 자금 수요의 예측을 원활하게 하였다. 차입의 필요성(규모 및 시기)을 점검하고, 이자비용 최소화를 위한 자금 운용에 노력하였다.

세무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외부 세무법인 다솔과의 세무 자문 계약을 통해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세무 관련 문제를 검토 받아 관련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하였다.

③ 재무·위험관리 전문가 양성 노력의 적정성

재무관리 전문가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KICPA)를 2006년부터 채용하여 회계와 세무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자금 관리 담당자는 EBS 자금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10년 이상의 자금운영 경력을 보유한 베테랑이다. 다만, 재무 관리 전문가가 자금 및 회계/세무 분야에 각 1명씩만 근무하고 있어, 담당 인력의 장기 휴가 또는 퇴사 시 심각한 업무 공백이 초래될 수 있다. 또한, 장기 근무에 따른 금전사고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순환보직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직무 관련하여 재무, 회계, 세무 관련 교육 예산이 전년의 1,398,500원 대비 92% 증가하였다.

<표 1-18> 재무관리 전문가 현황

담당업무	인원	주요경력	특기사항
자금	1명	1991. 1. EBS 입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BS 자금관리시스템 구축 ◦ 자금운영 경력 10년 이상
회계와 세무	1명	2006. 1. EBS 입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인회계사(KICPA)

<표 1-19> 직무 관련 예산집행 현황

담당업무	인원	집행 내역	예산집행액
회계, 세무 및 관리업무	9명	재무, 회계, 세무 관련 온오프라인 교육	2,685,629 원

④ 매출액 대비 판매관리비 비율의 정도

- 산정지수 : 매출액 중 판매관리비 비율
- 산출식(%) : 목표부여 평가 하향지표, 판매관리비에서 감가상각비는 제외 함.

$$\left(\frac{\text{실적(당해년도)} - \text{최저목표}(\text{직전3개년도 실적의 평균} \times 140\%)}{\text{최고목표}(\text{직전3개년도 실적의 평균} \times 95\%) - \text{최저목표}(\text{직전3개년도 실적의 평균} \times 140\%)} \right) \times 100$$

2017년 회계연도에 EBS의 매출액은 2016년의 261,336백만원 대비 251,315백만원으로 10,021백만원이 감소하였다. 반면, 판매관리비는 2016년의 30,174백만원에서 2017년에는 38,002백만원으로 7,828백만원 증가하였다. 이로 인하여 매출액 대비 판매관리비의 비율은 14.0%의 수치가 산출되었다.

<표 1-20> 매출액 대비 판매관리비 비율의 정도

(단위:백만원)

구분	'14결산	'15결산	'16결산	'17결산	과거3년 평균
매출액(A)	276,806	269,958	261,336	251,315	269,367
판매비	8,486	8,692	8,187	7,811	8,455
일반관리비	21,842	21,981	21,986	30,190	21,936
판관비 합계(B)	30,328	30,673	30,174	38,002	30,392
감가상각비	636	607	558	2,926	600
상각비 제외(C)	29,692	30,066	29,615	35,076	29,791
판관비율(B/A)	10.7%	11.1%	11.3%	14.0%	11.1%

⑤ 판매관리비 구성 항목별 내용의 적정성

교재판매에 따른 부대사업수익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2017년의 판매관리비 총액은 2016년 대비 25.95%가 증가하였다. 통합사옥 이전에 따른 건물관리 인력 증가 등으로 인하여 지급수수료가 전년 대비 3,105백만원(83.45%) 증가하고, 감가상각비가 2,368백만원(424.37%) 증가하였다. 또한, 일반관리비의 기타도 3,498 백만원(195.42%)이나 증가하였다.

반면, 업무추진비 및 임차료 등이 감소되어 판매관리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시도되었으나, 지급수수료 및 기타의 일반관리비를 대폭 감축하기 위한 근본적인 경영합리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표 1-21> 판매관리비 구성 내용

(단위 : 백만원)

구분	'13결산	'14결산	'15결산	'16결산	'17결산	전년대비 증감률
판매비	8,241	8,486	8,692	8,187	7,811	-4.59%
인건비성비용	981	1,089	1,341	1,228	1,166	-5.05%
세금과공과	1,198	1,193	650	593	571	-3.71%
판매수수료	5,795	5,756	5,809	5,490	5,318	-3.13%
기타	267	448	892	876	756	-13.70%
일반관리비	22,938	21,842	21,981	21,986	30,190	37.31%
인건비성비용	11,960	11,262	10,691	10,755	10,856	0.94%
세금과공과	1,816	1,847	2,239	2,083	1,275	-38.79%
지급수수료	3,328	3,147	3,652	3,721	6,826	83.45%
감가상각비	638	636	607	558	2,926	424.37%
광고선전비	557	567	503	467	510	9.21%
교육훈련비	571	601	608	475	528	11.16%
법정부담금	-	615	627	579	681	17.62%
업무추진비	641	682	679	689	688	-0.15%
임차료	838	654	877	869	572	-34.18%
기타	2,589	1,833	1,497	1,790	5,288	195.42%
판관비 합계	31,179	30,328	30,673	30,173	38,002	25.95%

⑥ 공적 재원 확대 성과

- 산정지수 : 공적 재원 금액
- 산출식(%)

$$\left(\frac{\text{실적(당해년도)} - \text{최저목표(직전3개년도 실적의 평균} \times 60\%}{\text{최고목표(직전3개년도 실적의 평균} \times 105\% - \text{최저목표(직전3개년도 실적의 평균} \times 60\%} \right) \times 100$$

EBS는 2017년에 특별교부금 지원액을 2016년의 238억원 대비 17.7억원 증액된 255.7억원을 확보하였다. 또한, 사옥이전 등에 따라 2012년부터 2017년에 걸쳐 총 506억원의 정부의 자본금 납입계획을 정상적으로 추진해, 2017년에도 계획된 80억원의 자본금 출자 교부를 완료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공적 재원을 확대한 성과는 106.2%로 100%를 초과하여 달성하였다.

<표 1-22> 연도별 공적 재원 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직전 3년 평균	결과
수신료수익	17,004	17,501	17,712	18,076	17,406	
정부기금수익	23,669	25,475	27,322	30,171	25,489	
국고보조금 수익	25,147	23,610	22,931	23,760	23,896	
합계	65,821	66,586	67,965	72,007	66,791	106.2

⑦ 공적 재원 확대 노력 정도

공적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성과로 2017년 프로그램 제작지원 예산으로 정부(안) 252억원 대비 30억원 증액된 28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다. 또한, 방송인프라 개선 사업 예산은 부처(안) 26억원을 기재부 심의과정에서 7억원 증액하여 33억원으로 확보하였다. 뿐만 아니라 2017년 종료 사업이던 방송인프라 개선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유치하여, 2018년에도 33억원의 보조금 예산(자본예산)을 확보하게 되었다.

2018년 예산 요구액은 프로그램 제작지원 282억원과 방송인프라개선 48억원을 합하여 총 320억원 규모이다.

수신료 수익 규모가 정체되고, 자체 사업 수익원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방송사업비 및 판매관리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공적 재원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절실하다.

⑧ 자체 사업 수익 확대 성과

- 산정지수 : 자체 사업수익 금액
- 산출식(%)

$$\left(\frac{\text{실적(당해년도)} - \text{최저목표(직전3개년도 실적의 평균} \times 60\%}{\text{최고목표(직전3개년도 실적의 평균} \times 105\% - \text{최저목표(직전3개년도 실적의 평균} \times 60\%} \right) \times 100$$

EBS의 2017년 자체 사업수익은 대부분분의 항목에서 2016년 대비 감소하였다.

다만, 도록사옥 처분이익에 따라 대규모 사업외수입이 발생하였으며, 문화콘텐츠 부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긍정적인 상황이다.

다만, 사업외수입은 과거 30억원 규모로 회귀할 가능성성이 높은 바, 자체수입 확대를 위한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2016년 대비 49,502백만원 증가한 사업외수입의 영향으로 자체 사업수익 확대 성과는 116.5%를 달성하였다.

<표 1-23> 연도별 자체수입 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14결산	'15결산	'16결산	'17결산	과거3년 평균	산출결과
자체수입	214,753	207,287	196,330	231,769	206.123	116.5
방송광고	39,929	40,862	37,010	35,475		
제작협찬	4,666	5,383	5,593	4,809		
프로그램공급	5,130	4,801	4,712	4,899		
출판사업	101,196	93,610	88,163	80,604		
- 연계교재	51,976	48,405	46,546	42,296		
- 연계교재 외	49,400	45,205	41,617	38,308		
문화콘텐츠부대사업	5,595	8,353	8,932	9,985		
콘텐츠사업	40,836	38,481	34,940	29,538		
기타부대수입	13,633	11,883	14,020	14,298		
사업외수입	3,768	3,915	2,959	52,461		

⑨ 자체 사업 수익 확대 노력 정도

EBS는 악화되는 사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문화콘텐츠부대사업을 중심으로 자체 사업수익의 확대를 위한 신규 사업 및 서비스 추진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다.

첫째, 제작협찬수입 확대를 추진하여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작비 재원 조달을 위해 제작협찬수입의 공격적인 확대 편성을 통한 제작비 조달 모델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유아어린이사업팀 신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다. 테마파크 라이선싱, 브랜드 라이선싱, 프로그램사업 기획, 관련 신규 협찬사업 등 유아어린이 신규 사업 수입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 투자 비용을 예산 적극 편성하였다.

셋째, 디지털 테마파크 구축에 따른 라이선싱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다. 향후 광양 어린이 테마파크, 강진 고려청자 박물관 내 번개타운 구축 등 신규 사업 수주를 위한 콘텐츠 기획비 등 투자예산을 반영하였다.

마지막으로 신규 공연 수입 모델을 개발하기 위하여 기존 번개맨 공연 외 신규 공연 수익 창출 개발을 위한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다.

3) 예산편성 및 운영의 적정성

가) 평가기준

전체 예산 구조의 건전성과 함께 예산 편성 과정의 절차적 합리성· 정당성 및 예산 관리의 효율성·합리성을 평가하고, 관련된 노력의 정도를 평가한다.

구체적인 평가항목은 ① 예산 구조의 건전성 유지 노력 정도, ② 예산편성 기준의 적정성 및 준수 정도, ③ 예산절감 노력 정도로 구성하였다.

나) 평가사항

① 예산 구조의 건전성 유지 노력 정도

EBS는 2017년도 예산 추경을 2회에 걸쳐 시행하고, 예산조정 및 전용을 총 11회 시행하여 예산 구조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자체사업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비용 증가를 억제하여 당기 순익을 실현하

였다. 이를 위해 EBS는 예산집행실적 현황을 월별로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분기별로 이사회에 보고하였으며, 당기순이익 전망을 활용하여 비용집행 관리를 강화하고 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하였다.

2017년도 예산 추경 편성을 통해 특별교부금 사업 확정 사항을 반영하고, 2017년도 상반기 실적 및 연간 집행 전망에 근거하여 예산을 조정함으로써 자체 수익사업 매출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비용 예산을 절감 편성하였다.

한편, 2017년도 예산 편성 시 ERP 구축 예산이 반영된 바, 향후 체계적인 중장기 재정전망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자체 수익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사업 모델 개발에 경영진의 특별한 관심과 구체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② 예산편성 기준의 적정성 및 준수 정도

EBS는 2017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일정을 수립하고, 부서별 요구 및 조정 사항을 반영하였다. 2016년 12월부터 2017년 2월에 걸쳐 재정여건, 예산편성방향, 예산요구 일반 및 세부지침을 확정하여 통보하였다. 또한, 2017년 6월부터 9월말까지 예산편성방향에 대한 실무진 대상 업무협의를 통해 현업 요구를 수렴하였다. 이를 통해 2017년 9월, 기존 예산과목 및 회계계정 재조정 관련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확정하였다.

특히 2017년에는 예산편성 및 지침을 명료화하고 내용을 간소화하여 현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업의 예산 편성 작업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또한, 부서별·사업별 목표에 따른 예산 요구 및 검토가 진행되었다. 기관운영목표 및 부서별 운영목표, 중점 추진사업, 과년도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요구예산을 검토하였다. 예산 편성은 구체적인 단위/세부사업별 목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취합하여 이를 기초로 이루어졌다. 부서별·사업별 예산 수립 시 추진실적, 추진방식, 단가 및 수량 등 상세 매출 산정근거를 제출하였다. 비용예산 수립 시에는 매출 관련 비용의 정확한 연동 여부가 검토되었으며, 제반 사업별 추진계획의 타당성이 검토되었다.

③ 예산절감 노력 정도

EBS는 전사 모든 사업에 대한 제로 베이스 사업성 검토 분석을 통하여 예산 절감을 유도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 주요 사업 및 신규 수익사업 계획 관련된 예산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긴축재정 기조 하에서도 효과적인 자원의 집중을 도모하였다.

또한, 단위사업별 비용 억제를 통한 예산 절감을 유도하였다. 세부사업에 대한 면밀 검토를 통해 소모성 비용 및 간담회성 비용에 대한 관리를 통해 예산 지출을 최소화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2017년에는 수입목표 달성을과 비용예산 집행률이 2016년 대비 동반 상승하였다. 다만, 사업 매출이 감소하는 어려운 경영환경에도 불구하고, 비용예산 집행률이 수입목표 달성을과 초과하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표 1-24> 연도별 비용예산 집행율

(단위 : 억원)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예산	결산	예산대비	예산	결산	예산대비	예산	결산	예산대비	예산	결산	예산대비
수입	2,999	2,806	93.6%	3,001	2,739	91.3%	2,870	2,643	92.09%	3,263	3,037	93.0%
비용	2,999	2,790	93.0%	3,001	2,693	89.7%	2,870	2,635	91.81%	3,047	2,868	94.1%
이익	-	16		-	46		-	8		216	169	

4) 경영정보 관리의 적정성

가) 평가기준

경영정보의 제공을 통해 경영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였는지, 또한 투명성 제고 및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였는지를 EBS 정보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개선 정도로 평가한다.

나) 평가사항

① EBS정보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개선 정도

- 산정지수 : EBS 정보시스템의 이용자 만족도 수치

- ① 전략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제공 정도
- ② 관리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제공 정도
- ③ 회계정보의 신속정확한 제공 정도
- ④ 기업의 투명성제고 및 경쟁력향상에 대한 기여 정도 등에 대한

설문조사

- 산출식(%) : 실적평가 60점과 개선도 평가 40점으로 나누어 총합 100점으로 평가

$$\frac{\text{실적}}{100\text{점}} \times 60\text{점} + \frac{\text{실적}}{\text{전년도 실적} + (100\text{점} - \text{전년도 실적}) \times 10\%} \times 40\text{점}$$

EBS 정보시스템 이용자(경영자 및 관리자 포함)를 대상으로 만족도 평가를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2018년 1월 24일부터 30일까지 그룹웨어시스템을 통한 설문조사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이용자의 정보시스템 중요도에 대한 인식 정도를 파악하고, 업무 활용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과업을 진행하여 이용자 만족도를 제고하였다.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도 점수는 2016년의 54.2점에 비해 24.3%가 향상된 67.4점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반영한 평가결과는 86.25%로 산출되었다.

평가결과 및 제언

2017년에는 도곡동 사옥을 포함한 50,597백만원의 대규모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발생하여 유동비율 및 부채비율이 개선되고 당기순이익이 2016년의 751백만원에서 2017년에는 16,970백만원으로 2,159.7%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일회성 항목인 유형자산처분이익이 배제된 사업손실은 전년도의 1,950백만원 손실에서 2017년에는 34,999백만원 손실로 1,694.8%나 증가하였다. 통합사옥에 따른 감가상각비 영향을 배제한 EBITDA 수치도 2016년까지는 흑자 상태를 유지하였으나, 2017년에는 28,047백만원의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였다.

EBS는 자체사업 수익의 지속적 감소, 공적재원 증대의 한계 등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였다. 또한 물가상승, 구성원의 고령화, 통합사옥 운영 등에 따른 고비용 구조가 고착화될 조짐이 보인다.

2017년에 새로 선임된 EBS 경영진은 공교육 보완 목적 달성을 위한 수신료 배분 확대를 위한 정책마케팅과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TV 수신료 인상에만 기대하지 말고, EBS의 사회·문화적 중요성과 책무 강화를 위해 수신료 배분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요구와 국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특히, 문화콘텐츠부대사업 수입이 전년대비 1,053백만원 증가하였으나, 콘텐츠 사업 수입은 전년대비 5,402백만원 감소하였다. 자체수입 중 핵심사업인 출판사업의 전망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EBS의 핵심 경쟁력인 콘텐츠 관련 사업에 대하여 경영진은 제로 베이스에서, 보유 자산 현황 및 수익 창출력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ERP 구축 완료에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바, 경영진은 최우선 과제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EBS 내부적으로도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부대사업을 다각화하고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유아·어린이사업 등 신성장동력 발굴을 강화해야 하며, 한계사업을 정리하고 원가구조 개선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해야 한다.

중장기 재정여건이 악화되는 것에는 이견이 없는 상황인 바, 강도 높은 예산 절감과 운영 효율화 노력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전문적인 외부기관의 평가를 통해 객관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EBITDA가 (-)인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차입 규모와 차입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자금운용 노력이 필요하다.

악화되는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실적에 따른 평가 및 인센티브 부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수입목표 달성을 저조할 경우, 이에 연동하는 비용예산에 대한 철저한 절감이 필수적이며, 부서별 예산 절감 노력에 대하여 적절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

EBS 경영정보시스템에 대한 만족도와 활용도는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 특히, 신사옥 이전에 따른 문의·요청 사항 2,462건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회의실 예약·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과 신사옥 출입증 신청 및 권한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연동 처리를 적시성 있게 개발하였다.

다만, 현재의 경영정보시스템이 경영진과 관리자의 전략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한계가 있는 바, ERP의 조속한 구축 완료가 필요하다. 또한, 만족도 설문 조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이용자 중심의 UI⁸⁾ 재설계 및 절차의 간소화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8) UI(User Interface,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와 시스템 정보 등을 교환하기 위한 ‘접점’을 의미

라. 홍보 및 사회공헌도

평가내용

1) 브랜드가치 제고 노력의 정도

가) 평가기준

공영방송으로서의 기업이미지 향상을 위한 노력을 평가한다. 구체적인 평가항 목은 ① 브랜드가치의 제고를 위한 대외 홍보 시스템 운영전략의 적정성, ② 브랜드가치의 제고를 위한 대외 홍보 활동의 적정성으로 구성하였다.

나) 평가사항

① 브랜드가치의 제고를 위한 대외 홍보 시스템 운영전략의 적정성

EBS는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매체 특성별 미디어 서비스를 강화하였다. 이를 위해 기자 설명회 포맷 변경을 통해 언론 노출을 강화하였으며, SNS 채널별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고 소통을 강화하였다.

또한, 홍보 역량 강화를 위하여 소셜미디어 담당자 그룹을 운영하였으며, 홍보 확산 효과를 위해 스토리 기자단을 운영하였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EBS의 대외 이미지 제고를 위한 시청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홍보 시스템 운영 전략은 부재하였다. 시청자와 효과적으로 소통·교류 할 수 있는 기획 콘텐츠 발행을 확대하고, EBS와 제휴 관계인 네이버 등의 플랫폼을 통한 홍보 확대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② 브랜드가치의 제고를 위한 대외 홍보 활동의 적정성

소셜미디어 채널의 이용패턴을 분석하여 매체 운영 관리가 전략적으로 이루어졌다. 콘텐츠 소비 패턴에 따라 유튜브 및 포스트 채널 운영 비중을 강화하여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5만명 이상 급증하였으며, 월 평균 1.75건의 포스트가 지속적으로 네이버 포털 메인에 노출되었다.

EBS의 고유한 교육 콘텐츠 및 정책 홍보 확대를 위한 언론 홍보를 강화하여 교육 사업과 관련된 언론 홍보가 강화되었으며, EBS의 사회공헌활동 및 유관 기관과의 MOU도 언론을 통해 적절히 홍보되었다.

또한, 부정적 여론 및 보도 발생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설명자료 및 입장문을 적극적으로 배포하여 부정적 여론 확산을 최소화하였으며, 외부 채널 소통을 단일화해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2017년 EBS 홍보예산은 프로그램 및 기관홍보를 위해 445백만원을, 홍보자료 발간을 위해 96백만원을 집행하는 등 90%内外로 집행되었다. 다만, 홍보존 구축 예산은 1,076백만원 중 1,246천원만 집행되어 0.1%의 낮은 집행률을 보였다. 이는 관련 예산이 4분기에 배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테마파크 구축 사업이 2018년으로 연기된 것에 기인한다.

2017년 중 실시된 EBS의 주요한 홍보 실적은 다음과 같다.

(가) 언론 홍보

- 전체 보도량 : 14,762건
- 기획기사 보도량 : 13,753건(전년 대비 231건↑)
- 프로그램 제작발표회 및 기자 초청 설명회 : 6건
(아! 일요일 기적의 달리기, 편성 설명회, 이것이 야생이다, EIFDF, 다큐프라임 등)
- 주요 프로그램 기자 동행취재 및 인터뷰 : 14건
(다큐프라임, 까칠남녀, 다문화 고부열전 제작진 인터뷰 등)
- 긍정적 기사 비율 : 97%

(나) 소셜미디어 홍보

-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 실시간 정보 전달 및 이용자와의 소통
 - 카카오스토리 EBS 프로그램과 연계한 큐레이션 콘텐츠 제작
- 블로그
 - 포털 사이트의 모바일 강화 정책으로 블로그 축소 및 포스트 강화
 - 일평균 페이지뷰 14,408회
 - 포스팅 수 780건 (일 평균 2.13건)
 - 스토리기자단 9, 10기 운영
 - 기획성 콘텐츠 및 리뷰 포스팅 1566건 (전년 대비 58% 증가)

○ 포스트

- 연 누적 페이지뷰 1,018,488회 / 포스팅 수 106건
- 네이버 모바일 메인 채널 노출 수 21건 (월 평균 1.75건)

○ 유튜브

- 컨텐츠 발행 회수 588건
- 동영상 시청시간 32,922,388분 (전년 8,432,995분)

○ 인스타그램 : 다큐, 요리, 반려동물 등의 이미지, 영상 콘텐츠 제공

○ 카페

- 온라인 학부모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카페 서포터즈 운영
- EBS초 등 및 유아 부모 대상프로그램 홍보를 위한 카페 게시판 개설 운영
- 주요 SNS 채널 콘텐츠 고도화 및 운영 효율성 강화를 위해 17년 12월 운영 종료

<표 1-25> 소셜미디어 홍보 실적

채널명	이용자 현황(전년 대비 증가)	운영 현황(전년 대비 증가)
블로그	총 방문자수 : 27,884,099명 (↑ 4,003,734명)	포스팅 수 : 780건 (↓ 495건)
페이스북	팬수 : 145,730명(↑ 11,112명)	콘텐츠 수 : 707건 (↑ 77건)
카카오스토리	총 친구수 : 257,556명(↑ 5,000명)	게시물 : 916건 (↑ 4건)
카페	구독자수 : 5,833명(↑ 450명)	연간누적방문수 : 82,293(↓ 145,157)
유튜브	구독자수 : 75,983명(↑ 57,612명)	발행횟수 : 588회 (↓ 12건)
인스타그램	팔로워수 : 8,371명(↑ 2,206명)	발행횟수 : 333회 (↓ 128건)

(다) 기관 홍보

○ 대중교통을 활용한 콘텐츠 및 기관 홍보

- 지하철3호선 : 1일 70회, 30초 동영상 홍보(매월 1일, 16일 편성)
 - 총 3,920대(행선안내기)
 - 경기G버스 : 1일 60회, 60초 동영상 홍보(매주 월, 목요일 편성)
 - 버스 13,300대에 설치(버스 당 TV 2대 설치)
- * 활용프로그램 : 세계테마기행, 올리버쌤 영어꿀팁, 문화유산 코리아 등
- 지하철3호선 음성광고
- * 2017년 9월 사옥이전에 따라 매봉역에서 주엽역으로 역명 변경

○ EBS FM 주파수 안내 표지판 총 67조 운영 및 관리

- 대외 공사 홍보 인쇄물 뉴스레터 제작 및 배포
 - 격주 발행(총 24회), 매회 탄력적 인쇄
 - 매회 약 19만 여명 회원에게 발송 (메일 수신 동의한 회원)
 -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서 모바일 접근성 강화
- EBS다이어리(10,500부) 제작 배포
- 대표 캐릭터를 이용한 탁상용 달력(15,000부) 제작 배포
- 2017년 연지 제작 홈페이지 탑재
- EBS 브랜드 이미지 광고 3건 제작 (채널광고)
- 차량 랩핑을 통한 기관 홍보 : 사내차량(15대) 대상 3회 랩핑
- EBS 본사 건물 외벽을 통한 프로그램 홍보 : 연 3회 제작
- 수상 실적 등 현수막 제작 홍보 : 7건
- 사진 제작(촬영) : 281건
- 사진 이미지 제공(보도자료, 사보 등) : 530건
- 사옥 이전 홍보
 - 발전 기원제, 송출식, 첫 녹화 현장 촬영 및 홍보를 통한 사옥 이전 과정 홍보
 - 유관 부서와 협의를 통한 로비 공간 활용 및 홍보
 - 전시회 진행 홍보 협조, 구조물 설치 등

2) 사회공헌 활동의 성과

가) 평가기준

사회공헌 활동 테마 선정 시 EBS의 사회적 책임경영목표에 잘 부합하였는지, 마케팅 및 홍보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테마를 선정하였는지를 평가한다. 구체적인 평가항목은 ① 사회공헌 활동 내용과 구성의 적정성 및 사회적 책무 이행 정도, ② 사회공헌 활동의 성과에 대한 내부평가 정도이다.

나) 평가사항

① 사회공헌 활동 내용과 구성의 적정성 및 사회적 책무 이행 정도

2017년도에 EBS는 사회공헌 사업으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과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서비스 제공,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지원과 기회 제공 못지않게, 사회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EBS의 책무이기 때문이다.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은 EBS 교재나 수강권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빈부의 차가 학력의 차이가 되지 않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 적이다. 꿈 장학생을 선발하여 지원하고, 교재 점역서비스를 통해 누구도 교육으 로부터 소외받지 않도록 교육복지률 실현하는 데 주력했다.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서비스는 우리 사회에 주어진 과제를 교육주체와 시민이 함께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월드비전과 공동으로 수행한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사회통합교육 멘토링,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두리안사이트 운영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② 사회공헌 활동 성과에 대한 내부 평가 정도

EBS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과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교육공영방송으로서 EBS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소외계층 맞춤형 지원사업은 EBS 교재 무상지원, EBS 교재 점역서비스, EBS 꿈장학생 선발 및 지원, 꿈나래 봉사단 운영과 VOD 서비스를 통한 사회공헌·소외계층 지원 등으로 세부적인 활동성과는 다음과 같다.

(가) EBS교재 무상지원

(1) 추진 목적

- 사회적 배려대상자 자녀를 대상으로 EBS 방송교재를 무상 지원함으로써 교육기회의 형평성 제고 및 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

(2) 지원 대상

- 교육부와 연계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생계·의료) 가정의 고교 학생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북한이탈주민재단 등) 등 : 일부 차상위계층 및 교육적 배려 초·중고 학생
 - MOU 체결기관 등 [국방부(전방군인, 순직파일럿), 경찰청(순직경찰) 등]의 초·중고 학생
- (3) 지원 교재 : 학생들의 요청 및 주요 과목(국·영·수)의 기본서 위주로 선정

(4) 지원 현황

<표 1-26> EBS교재 무상지원 현황

지원 대상	지원 학생수(명)	지원 부수(부)	지원 금액 (정가기준:천원)	소요 예산 (인쇄·물류비 등)
고1~3학년	166,000	579,000	4,613,000	1,273,640천원
중1~3학년	15,000	60,000	567,500	(집행)/
초1~6학년	30,000	100,000	1,162,500	1,375,686천원
계	211,000	739,000	6,343,000	(예산)

(나) EBS 교재 점역서비스

(1) 추진 목적

- EBS 방송강의에 대한 시각장애학생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 교육기회 형평성 제고
- 다양한 방송교재 점역을 통해 시각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학습능력 향상

(2) 제작유형 : 인쇄용 점역 파일, 음성지원용 점역 파일 등

(3) 점역파일 보급 : 국립특수교육원이 운영하는 시각장애학생 학습지원사이트 E-YAB(bli nd.nise.go.kr)과 EBS 장애인 서비스(free.ebs.co.kr)에 점역 파일 탑재

<표 1-27> EBS 점역 교재 내역

[단위 : 책, 천원]

교재 구분	중학	고교	기타	계	비 고
점역책 수	32	119	3	154	* 점역수행기관 : 국립특수교육원 (예산:226,000)

(다) EBS 꿈장학생 선발 및 지원

(1) 추진 목적

- 어려운 학습환경 속에서도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한 장학생을 선발하여 대한민국 교육 희망의 메시지 전달
- EBS 수능강의 동영상 및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높은 학업 성취도를 이룬 사례를 발굴, 소개함으로써 EBS 수능사업의 사회적 기여 홍보

(2) 선발 및 지원 현황

20명을 대상으로 총 85백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으며, 수상자 20명 중 17명을 대상으로 멘토·멘티 클래스를 진행하여 1인당 50만원씩 총 850만원 추가적인 장학금을 지원하였다.

(라) 꿈나래 봉사단 운영

(1) 운영목적

- EBS캐릭터를 활용하여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 사회공헌을 통한 사회적 책무 실현
- 외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문화콘텐츠 및 직업체험 등 문화지원범위 확대

(2) 2017년 주요 실적

<표 1-28> 꿈나래 봉사단 운영 실적

회	월일	장소	출연 및 지원기관	내용
1	4. 11.	승기원 장애인동시설	번개맨 외 6명	장애아동 50명 대상 번개맨 공연
2	4. 19.	소월 아트홀	엄마까투리 뮤지컬	서울지역 보육원 어린이 50명 대상 티켓 나눔 행사 진행
3	7. 14.	경복궁, 북촌 일대	다문화가정 특집	다문화가정 엄마와 자녀 15팀 대상 역사, 문화 체험 진행
4	9. 28	내 꿈의 로드맵	중도입국청소년	중도입국 청소년 대상 방송국 견학 및 성우직업 체험 등

(마) VOD 서비스를 통한 사회공헌·소외계층 지원

(1)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사회취약 계층

(2) 지원내역

- EBS방송 VOD/AOD유료 프로그램 이용
- EBS중학 프리미엄 무료 이용
- EBS명품 공인중개사, 공무원 온라인 강좌 50% 할인 혜택
- EBSlang(어학) 온라인 유료강좌 무료 이용

(3) 2017년 지원 실적

<표 1-29> VOD 서비스를 통한 사회공헌·소외계층 지원 실적

영역별	인원(명)	실 적(원)
방송	1,654	318,503,300
중학프리미엄	1,281	780,539,200
명품직업	316	17,064,535
ebslang.co.kr	5,127	421,262,301
계	8,378	1,537,369,336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서비스는 사회통합교육 멘토링 사업과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두리안>사이트 운영 및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등으로 세부적인 활동성과는 다음과 같다.

(바) 사회통합교육 멘토링 사업

(1) 사업목적

- 교육적 배려대상에 대한 자기주도 학습능력 배양을 통한 사회적 비용감소의 사회 공헌 책무수행

- 시 · 도교육청과의 유대관계 강화를 통한 상호 상생모델의 개발 및 교육현장의 직접 접근기회 활용

- ‘자유학기제’등 정부 교육정책에 부합하여 흥미와 재능 탐색의 새로운 기회 제공

(2) 2017년 운영실적

- 경상남도교육청 : 초중고 50개교, 402명

- 정선교육지원청 : 중학 1~3년, 29명

- 국방부 : 중학 1~3년, 411명

(사)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두리안>사이트 운영

(1) 사업목적

- EBS의 다문화 관련 콘텐츠를 활용하여 국내 거주 다문화 외국인, 자녀에게 한국어, 한국문화 콘텐츠 무료 제공

- EBS 콘텐츠를 활용한 다문화 교육지원으로 EBS의 사회적 책무 수행

- 다문화 관련 콘텐츠의 활용도 제고를 통한 EBS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

(2) 2017년 사이트 운영실적

- 초중고 클립뱅크 중 선별 3개 언어 자막콘텐츠 업로드

- 한국어능력시험 TOPIK 교재와 연계한 웹 콘텐츠 신규제작 및 참여 이벤트

- 다문화 엄마와 자녀가 함께하는 한국역사문화체험 <엄마 손잡고 다같이>, 중도 입국청소년들의 진로·직업체험 <내 꿈의 로드맵> 실시

- 두리안사이트 홍보 브로슈어제작, 전국 다문화가정센터 및 유관기관 배포

- 누적 콘텐츠 총 6,356편

(아)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1) 개요

- 주제 : 같.이.놀.자 시즌2

- 기간 : 2017년 4월 10일 ~ 7월 16일(14주)

- 최종시상식 : 2017년 11월 7일(EBS 스페이스홀)

- 공동주최 : EBS, 월드비전 / 후원: 교육부, 오리온, 미래엔

(2) 2017년 캠페인 주요결과

- 참여 학급 : 2,007개(전년대비 15% 증가)

- 참여 인원 : 48,367명(전년대비 11% 증가)

- 참여 학교 : 1,109개(전년대비 23% 증가)

평가결과 및 제언

EBS 브랜드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시청자의 참여를 통한 EBS의 대외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공적재원 확보를 위해서도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EBS의 시청자임을 자각하고, 시청자와의 접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EBS의 브랜드 홍보를 극대화하고, 공적재원 확보를 위한 지원 서명 등을 적극 확보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프로그램의 주요 등장인물과 캐릭터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 확대가 필수적이다.

EBS의 정책 및 사업 콘텐츠 홍보 확대를 위해 언론 홍보를 강화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EBS는 교육 콘텐츠를 기반으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다만, 악화되는 사업 환경을 고려하여 금전적인 사회공헌 활동뿐만 아니라, 소외계층을 위한 참여형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교재지원사업의 경우 교육부 관련기관과 단체의 지원대상자 파악이 늦어져 교재 발송이 지연되었다. 관련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강화해 지원 대상자들의 학습 만족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마. 전년도 개선권고사항의 이행 노력

평가내용

1) 전년도 경영평가 개선권고사항의 이행 노력 및 성과

가) 평가기준

경영평가의 목적은 평가과정에서 밝혀진 장·단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기관의 발전에 도움을 주려는 데 있다. 전년도 경영부문 경영평가에서 제시된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처리 및 반영 정도를 평가한다. 구체적인 평가항목은 전년도 경영부문 평가결과 지적사항 개선 정도이다.

나) 평가사항

① 전년도 경영부문 평가결과 개선권고사항 개선 정도

EBS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로 자체 수익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노력하였다.

첫째, 출판사업 관련 정책을 개선하였다. 연계교재를 제외한 비연계 교재의 정가를 현실화하여, 시중 정가 대비 65% 수준인 가격을 2018년부터는 70~80%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다만, 수능 연계교재는 2010년 연계정책 이후 지속적으로 가격을 인하 또는 동결하고 있다. 또한, 총판을 광역화(128개→65개)하여 단위 총판의 수익 증대 도모하고, 연말 우수총판 선정 등 총판영업 장려책을 시행하고 있다.

둘째, 협찬사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였다. 협찬 전문 BM(Business Manager)을 활용하여 ‘제작-편성-사업’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마련하였으며, TV, 라디오, 웹사이트, 모바일 등 EBS 보유매체를 종망라한 크로스미디어 상품을 구성하였다.

셋째, 디지털 테마파크 사업을 추진한다. 경남 울주에 ‘번개맨 우주센터/트레이닝센터’(2017년 11월) 및 제주에 ‘번개레이싱’(2018년 2월)을 개관하여 EBS IP⁹⁾를 테마파크 사업에 활용함으로써, 입장료, 상품 및 식음료 판매 등의 수익모델을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기 구축된 사례를 바탕으로 에버랜드, 광양시, 전남도 등에 확대 추진을 협의 중이며, 지자체/공공기관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수익성 개선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고 있다.

넷째, EBS 지역캠퍼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학교현장에서의 EBS 영향력을 강화하고 오프라인 기반의 지역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EBS 지역캠퍼스 설립을 추진하여 2017년 12월, 충남교육청과 MOU를 체결함으로써 첫 번째 지역캠퍼스 설립을 추진 중에 있다. EBS가 제공 가능한 콘텐츠, 서비스 등을 통합 솔루션 형태로 구성하여 교원연수, 교수·학습용 콘텐츠 판매, 평생교육, 방송연계, 세미나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ERP에 대한 경영진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졌다. 우선 기술협상 시 유관기관(KBS, MBC) 방문 인터뷰를 통해 기존 사례 분석·적용을 완료하였으며, 원가관리시스템 설계 의견 방영을 위해 2018년 2월 추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또한, 업무부서별 담당자 지정을 통해 ERP 추진 TFT를 구성(총34명)하였으며, 이사회의 다양한 제언내용을 적극 수용하여 사업추진 방향에 반영하였다.

재무구조 건실화를 위한 수신료 조정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대안이 요구되었으나, 이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 도출에는 한계가 있었다.

수신료 인상과 관련하여 2017년도는 수신료 인상 주체인 KBS의 장기 파업 등으로 인해 논의에 진전이 없었다. 이에 EBS는 우선, 한국언론학회가 주관하는 ‘공영방송 역할 및 재원에 관한 세미나(2017. 4. 6.)’에 참여해 교육공영방송의 역할과 재원구조 개선 필요성을 설명하고 유관기관 간 공감과 공조의 성과 창출하였다.

또한, 수신료 배분율 정상화 필요성을 정리한 소책자 및 동영상 등을 제작해 대외에 배포하고, 국회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연간 30여 차례의 수신료 간담회 및 설명회 개최함으로써 대외에 공영방송사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수신료 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하였다.

9) IP(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지적재산권

한편, 방송발전기금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정부안 대비 30억원 증액된 282억원의 방송발전기금을 확보하는 성과를 창출하였다.

다만 이러한 성과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회, 관계부처를 대상으로 전략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대외창구의 확대’와 ‘방송법 분야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함을 인식하였다.

조직원의 청렴도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대안이 요구되어 직원만족도는 개선되었으나, 청렴도 제고에는 한계가 있었다.

EBS의 직원만족도는 2016년의 56.3점 대비 62.3점으로 6.0점 상승하였다. 이는 근무환경 및 구성원 간의 관계가 우수한 것에 기반한 것으로 분석되나, 조직관리를 위한 인사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되어 인사제도 재설계를 통한 급여 /성과평가/보상 등에 대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반면 청렴도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를 통해 윤리의식 평가점수는 62점으로 2016년 대비 4.6점이 상승하였으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결과는 2016년 대비 악화되었다.

평가결과 및 제언

자체 수익사업 확대를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단기간 내에 이루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EBS의 경영환경을 고려할 때, 경영진을 포함한 EBS의 전 구성원이 역량을 결집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생존의 문제임을 절실히 인식해야 한다.

EBS가 보유한 역량에 집중하여 통합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모델 개발을 위해 O2O¹⁰⁾ 기반 EBS 지역캠퍼스 모델 개발이나, EBS IP를 활용한 디지털 테마파크 설립 등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발적인 신규사업 추진보다는 콘텐츠사업과 협찬사업을 중심으로 기존사업을 고도화하기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재무구조 건실화를 위한 수신료 조정 등을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 수신료 인상 및 배분율 정상화를 위한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등 학술적, 전문적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 업무 계획에 대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모색해야 한다.

가장 개선 정도가 취약한 분야가 조직원의 청렴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다. 공영방송으로서 EBS의 존립 근거가 청렴도 제고에 있음을 EBS 전 구성원이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캠페인과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10) O2O(Online to Offline) :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한 마케팅으로, 온라인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주문 하면 오프라인으로 제공되는 것

바. 당해연도 중점평가 사항

평가내용

1) 청사이전 계획 대비 실행의 적정성

가) 평가기준

당초 수립된 청사이전 계획 대비 실행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구체적인 평가항 목은 ① 청사 이전 계획 대비 자원 투입의 적정성, ② 청사 이전 계획 대비 성과에 대한 내부평가 정도로 구성하였다.

나) 평가사항

① 청사 이전 계획 대비 자원 투입의 적정성

EBS의 기존 도곡동 사옥은 2002년 이전 후 2017년 현(現)청사로의 이전 전까지 본사 사옥으로 활용되었다. EBS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사옥 수용능력이 부족해져, 일부 기능을 5곳으로 분산해 임차방식을 이용하거나, 한국교육개발원(KEDI) 소유 건물을 이용해 왔다. 이로 인해 업무시설 등이 각기 다른 빌딩에 입주하고 있어 단일화된 EBS 조직문화 구축 및 부서간 협조시스템 구축, 경영 관리에 애로 상황이 많았다. 이에 방송제작·업무시설 분산 및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통합 사옥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주요 경과는 다음과 같다.

- 2008. 1. 경기도와 한류월드 내 EBS 디지털통합사옥 건립 MOU 체결
- 2010.10. 제141회 이사회, [EBS 디지털통합사옥 건립 추진 계획(안)] 의결
- 2011. 6. 제156회 이사회, [EBS 디지털통합사옥 건립 부지 취득 계획(안)] 의결
- 2011. 6. 부지매입 계약체결(경기도, 경기도시공사)
- 2011. 9. EBS 디지털통합사옥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기획재정부)
- 2011.11. EBS 디지털통합사옥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통과(국토해양부)
- 2012. 4. EBS 디지털통합사옥 건립 기본계획(안) 의결
- 2012. 5. ~ 8. EBS 디지털통합사옥 건립 설계공모 및 설계사 선정
- 2013. 2. EBS 디지털통합사옥 건립 기본계획 변경(안) 의결

- 2013. 9. EBS 디지털통합사옥 건립 기본계획 조정(안) 의결
- 2014. 1. 통합사옥 건립 공사 입찰 공고(조달청)
- 2014. 4. 건축허가 등 8개 부문 인허가 완료(고양시)
- 2014. 7. 실시설계적격자 선정(조달청)
- 2014. 7. 우선시공분 계약 체결(조달청)
- 2014. 7. 우선시공분 착공(고양시)
- 2014. 8. 기공식
- 2014.11. 실시설계 적격 심의 완료(조달청)
- 2017. 2.13. 건축물 사용승인 완료(고양시), 최종 준공
- 2017. 5. 2. 건축물 인수인계 완료

효율적인 청사 이전을 위해, EBS는 기존 사옥 매각 가격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통한 공개입찰(10.28~11.25) 방식으로 매각절차를 진행한 결과, 720억원에 낙찰(11.28)됨에 따라 예정가격(감정 평가) 626억원 대비 15% 증가된 금액으로 매각을 완료하였다. 또한, 철거대상 물품을 매각에 포함하여 약 85백만원의 비용을 절감하였다.

또한, 도곡 사옥 매각대금과 자체 유동성 보유자금뿐만 아니라, 정부 출자금 506억원을 지원받아, 총 사업비 1,773억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였다.

<표 1-30> 통합사옥 건립 자금 조달 내역

[단위 : 백만원, VAT포함]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합계
총 사업비	공사비	—	—	—	8,600	31,605	82,053	17,900	140,158
	부대비	51	1,460	2,095	2,458	2,625	2,870	981	12,539
	부지매입비	2,195	15,415	1,738	—	—	—	16	19,364
	인프라 공사비	—	—	—	—	—	1,573	3,669	5,242
	예비비	—	—	—	—	—	—	—	—
합 계		2,246	16,875	3,833	11,058	34,230	86,496	22,566	177,304
재원 조달 계획	EBS 자체자금	2,246	15,875	1,803	1,712	16,191	74,311	14,566	126,704
	정부 출자금	—	1,000	2,030	9,346	18,039	12,185	8,000	50,600

사옥 건립 규모는 당초 기본계획의 건축 연면적 66,250m²를 61,375m²로 축소하여 지하 4층/지상 25층의 총 29개층을 지하 3층/지상 20층 규모의 총 23개층으로 축소하여 건립하였다. 이를 통해 사업비는 기본계획(2012년 4월) 2,044억원 대비 실제 1,758억원을 2018년 2월까지 투입되어 286억원이 절감하였다.

<표 1-31> 사옥 건립 계획 대비 준공 비교

구 분	기본계획	기본계획변경	현재	비 고
	2012. 4.	2013. 9.	2018. 2.	
위 치	일산동구 한류월드로 281(장항동)	일산동구 한류월드로 281(장항동)	일산동구 한류월드로 281(장항동)	도곡사옥, 방송센터 등
대지면적	14,823 m ² (4,484평)	14,836(4,488평)	14,836 m ² (4,488평)	-
건축규모	지하4층/지상25층	지하3층/지상20층	지하3층/지상20층	-
구 조	철근철골콘크리트조	철근철골콘크리트조	철근철골콘크리트조	-
최고높이	115.8m	100m 이하	98.6m	-
건축면적	6,555 m ² (1,983평)	5,105 m ² (1,544평)	5,122 m ² (1,549평)	-
연 면 적	66,250 m ² (20,040평)	61,507 m ² (18,606평)	61,375 m ² (18,566평)	계획 대비 40평 감소
주차대수	563대	517대	513대	-

이러한 사옥 건립 과정에서 EBS는 디지털통합사옥 건립 추진을 위한 사업추진 지원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 및 운영하였다. 각종 회의체 구성 및 운영 등 통합사옥 건립 추진 관련 제반지원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워크숍, 설명회, 사례조사, 자문위원 운영 등 통합사옥 건립에 필요한 제반 업무도 효과적으로 추진하였다.

한편, 최적의 건설사업관리(CM)을 통해 사업 추진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였다. 전문기관을 통해 사업일정 및 사업비 등을 효율적 관리하였으며, 설계단계의 적절한 감리·VE(value engineering)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설계품질을 제고하였다. 또한, 시공사 선정에 있어서도 전문적인 조력을 받았으며, 조달청 위탁을 통해 시공사를 선정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표 1-32> 사업 일정 비교

구 分	기본계획	현재
	2012. 4.	2018. 2.
설 계	'12. 8 ~ '13. 3	'12. 11 ~ '13. 11
시공사 선정	'13. 3 ~ '13. 6	'13. 11 ~ '14. 7
착공 및 준공	'13. 6 ~ '15. 5	'14. 8 ~ '17. 2

또한, 통합사옥 이전에 따라 사옥관리및운영 예산이 2017년 기준으로 기존 사옥 활용시에는 임차비용 등을 포함하여 4,706백만원이 소요되었으나, 통합사옥 이용에 따라 7,181백만원으로 2,475백만원(52.6%)가 증가하는 것은 사업여건이 어

려운 EBS 경영상황에서 매우 심각한 제약 요소이다. 향후, 사옥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② 청사 이전 계획 대비 성과에 대한 내부평가 정도

통합사옥 이전으로 EBS는 분산된 업무공간을 통합하는 효과를 이루었다. 기존에는 도곡 본사를 비롯하여 우면동 방송센터, 다명빌딩, 한방빌딩, 우박빌딩, 평촌창고, 유일빌딩 등 7개소 임차사무실 이용하였으나, 이를 통합함에 따라 예산(임차료, 셔틀차량유지비 등)을 절감하고 사무실 분산으로 야기되었던 업무보고·회의 참석 이동시간 자연문제를 해결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였고, 궁극적으로 업무공간 통합에 의한 소통 원활로 업무능률도 증대되었다.

또한, 미래지향적인 방송 인프라(스페이스홀 1실, TV스튜디오 4실, 이러닝스튜디오 12실, 라디오스튜디오 4실, 주조정실 2실, NLE편집실 45실 등)가 구축되어 업무효율성이 증대되고, 사업 환경이 개선되었다. 첫째, 노후화된 방송센터 사용에 따른 비효율적 업무 여건 개선되었다. 둘째, 디지털 방송·UHD 방송 전환을 대비하여 미흡한 환경을 개선하고, 디지털방송 및 방송통신융합 환경을 대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하였다. 셋째, 통일 시대를 대비한 교육방송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어 향후 EBS의 역할 증대가 기대된다. 넷째, 방송통신의 융합과 스마트 방송미디어환경 대응을 위한 차세대방송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다만, 쾌적한 업무환경이 초기에 조성되지 못한 점은 미흡하다. 신규 시설물로 새집증후군 현상이 발생하였고, 엘리베이터 등 일부 시설물 사용이 원활하지 못하였다. 또한, 조경과 결로발생에 대한 하자처리가 지연되었다. 커피숍, 편의점 등 직원 편의시설 입점이 지연되어, 초기 EBS 구성원의 근무여건 정착에 불편함이 발생하였다.

2017. 2월 준공이후 2018년 2월까지 하자건수 총 2,928건 중 2,830건에 대한 처리가 완료(약 97%)되었으나, 미완료된 98건의 조속한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운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하자를 발굴하여 보완하여야 하겠다.

2) 전사 ERP 도입계획 및 추진노력의 적정성

가) 평가기준

전사 ERP 도입계획 및 그에 따른 추진노력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구체적인 평가항목은 ① 전사 ERP 도입목적에 부합하는 도입계획의 수립정도, ② 도입계획 대비 추진노력 및 성과 수준으로 구성하였다.

나) 평가사항

① 전사 ERP 도입목적에 부합하는 도입계획의 수립 정도

EBS는 기존 종합정보시스템의 노후화와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 가능한 선진화된 경영정보시스템 도입 필요성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 계획과 관련한 ERP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에 부응하고 일중심의 조직문화 확산과 미래 성장 기반을 확보하고자 통합 ERP(전사적자원관리) 시스템 구축을 계획하였다. 이를 통해 업무 프로세스 표준화와 통합관리 체계를 정립하고, 업무 효율성과 사용자 편의성을 극대화하며, 통합 의사결정 체계를 확보하여 경영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EBS는 2015년 EBS 경영평가 보고서와 2016년 8월 ERP 도입을 위한 부서별 인터뷰 조사를 바탕으로 2016년 10월 경영진 보고를 통해 ERP시스템 구축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사업범위와 사업추진 방향 설정을 위한 ISP 컨설팅 수행하였다. 2017년 5월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공정성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해 조달청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였다.(2017년 8월 ~ 10월)하였다. 이 과정에서 ERP사용 유관기관(KBS, MBC) 방문 및 자문회의를 통해 사업범위 및 한계점 확인하였다.

현재 정책기획부가 사업을 총괄관리하고, ‘ERP 구축사업 추진 TFT’를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 12월 1일 누리인포스 컨소시엄과 통합 ERP 구축사업을 위한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2018년 1월 11일 사업 착수보고회를 진행하였다.

현재까지 ERP 도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 사업추진 일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 이는 조달청 국가조달시스템 운영 절차에 따른 행정소요 대응 부족으로 행정 소요 기간이 증가하였으며, 우선협상대상자와의 기술협상 결렬 등 이상상

황 발생에 대한 조치일정이 미확보되어 사업 수행기간이 부득이 연장되고 있다.

ERP 도입은 EBS의 미래 성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전사적인 프로젝트인 바, 최고 경영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ERP 구축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사업관리 위탁기관으로 선정하여 EBS의 부족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ERP 도입을 위해 진행되어 온 추진 경과는 <표 1-33>와 같다.

<표 1-33> ERP 도입 추진 경과

일정	추진경과
2016.8.18. ~ 8.26.	• 부서별 인터뷰 실시 및 현황 조사
2016.8.26. ~ 9.30.	• ERP 시스템 구축사업 추진계획 수립
2016.10.1. ~ 10.31.	• ERP 추진 계획 경영진 보고
2016.12.1. ~ 2017.3.31.	• ISP 컨설팅 실시 및 RFP(안) 마련
2017.4.1. ~ 4.30.	• RFP(초안)에 대한 전사 의견 수렴
2017.5.1. ~ 5.24.	• 기본계획 수립
2017.8.30. ~ 10.13.	• 사업자 선정 조달 공고
2017.10.17.	• 사업자 선정평가(조달청)
2017.10.18.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2017.10.26.	• ERP사용 유관기관(KBS) 방문 자문회의 진행
2017.10.25. ~ 11.16.	• ERP 사업 1차 ~ 6차 기술협상 진행 - 세부요구사항 확인 및 협의
2017.11.16.	• EBS 통합 ERP 추진 TFT 구성(발령)
2017.11.17.	• 기술협상 결과(불성립) - 기술협상 결과(불성립) 우선협상대상자 공문 발송
2017.11.21.	• 기술협상 결과 통보에 대한 응답 수신 ※ 불성립 의견에 답변 및 기술협상 결과서(수용불가)
2017.11.28.	• 기술협상 불성립 공문 발송(EBS → 조달청)
2017.11.30.	• 우선 협상대상자 기술협상 불성립에 따른 차순위자와 기술협상 실시 공문 수신(조달청)
2017.12.06.	• ERP사용 유관기관(MBC) 방문 자문회의 진행
2017.12.05. ~ 12.20.	• 차순위업체 1차~3차 기술협상 진행 - 세부요구사항 확인 및 협의
2017.12.21	• 기술협상 성립 공문 발송(EBS → 조달청)
2017.12.21	• 통합 ERP 구축사업 계약 완료
2018.01.11	• 통합 ERP 구축 사업 착수보고회 진행

② 도입계획 대비 추진노력 및 성과 수준

ERP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 EBS는 표준 업무 도입과 업무간소화 방향으로 BPR을 선행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ERP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 업무영 역별 선진화된 프로세스 도입하고, Best Practice를 내재화함과 동시에 중복 및 수작업 업무를 최소화하여 업무 효율성과 조직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추진팀은 업무부서별 담당자 지정을 통하여 총 34명으로 TFT를 구성하였으며, 외부 컨설팅 인력 15명이 상주하였다. 업무부서별 업무프로세스 분석을 위한 총 27회의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업무 현황 및 규정 분석을 통해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또한, 경영진(사장, 부사장, 이사회 소위원회, 감사실 및 5본부 3센터장) 인터뷰를 통해 추진 방향성을 확립하였다.

ERP 사용 유관기관(KBS, MBC) 자문회의를 통해 위험도를 파악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였으며, 원가분석시스템 구축·이용 사례분석을 위해 유관기관을 2018년 중에 재방문 예정이다.

또한, 사전 ISP를 통해 업무 부서별 현황, 개선방안, 원인, 변화요소를 분석하고 타사 사례 조사·분석을 실시하여 개선과제와 개선방향을 도출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하였으며, 조달청 국가조달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정한 입찰방식을 통한 사업자 선정 및 기관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실제 ERP 시스템 도입 시 다양한 내·외부 시스템(E-DAS, NPS, 국세청, KOBACO 등)과의 연계관리를 위한 연계관리시스템(EAI, Enterprise Application Integration) 도입을 통해 향후 지속적인 연계관리 체계가 구축되도록 시스템 설계가 반영되어야 하겠다.

평가결과 및 제언

2017년 EBS의 가장 역점 사업인 통합사옥으로의 이전은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마무리되었다. 기존 낙후된 도곡동 사옥에서 발생한 방송제작과 업무시설의 분산 및 부족에 따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디지털통합사옥을 성공적으로 건립 완료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방송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었다. 또한, 직원 편의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한 쾌적한 업무 환경이 조성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가구 및 집기 등이 완비되었다. 또한, 도곡동 사옥 처분을 공개매각하여 예정가격 대비 115%의 가격에 매각함으로써, 통합사옥 건립을 위한 자체조달 재원 충당에 기여 하였으며, 최적의 건설사업관리(CM)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다만, 통합사옥 이전에 따라 사옥관리및운영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은 사업여건이 어려운 EBS 경영상황에서 매우 심각한 제약 요소이다. 향후, 사옥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덧붙여 사옥 이전에 따른 원거리 출퇴근으로 불편이 초래된 EBS 구성원에 대한 경영진의 세밀한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

ERP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 사전적으로 ISP 및 BPR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ERP 시스템 구축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은 바람직하다. 또한, ERP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유관기관(KBS, MBC)과 자문회의를 진행하는 것도 타당하다.

다만, 당초의 ERP시스템 구축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와의 기술협상 결렬 등 이상상황 발생으로 사업 수행기간이 부득이 연장되고 있다. ERP 도입은 EBS의 미래 성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전사적인 프로젝트인 바, 사업의 안정적 진행을 위해 내·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높여 현재 수립·시행 중인 ERP 관리체계를 보다 고도화할 필요가 있으며, 성공적인 구축 완료를 위해 경영진을 포함하여 전사적인 관심과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영부문 대표 집필위원 : 최창윤 위원

2. 방송부문

EBS 설립목적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명기되어 있듯이 ‘교육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방송부문 평가의 목적은 EBS가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방송을 실천했는지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나은 방송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2017년도 EBS 방송부문 경영평가는 방송목표, 방송편성과 운영, 프로그램 제작과 운영, 시청자 서비스, 방송성과에 5개 항목 12개 지표로 나누어 평가하고, 전년도 개선권고사항의 이행노력 및 성과에 대해서도 평가한다.

그리고 당해연도 중점평가사항으로 ‘외주제작관리 개선의 적정성’ 지표를 도입하여 평가한다.

<표 2-1> 방송부문 경영평가 항목 및 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가. 방송목표	1. 방송편성목표의 적정성
나. 방송편성과 운영	1. 방송편성비율의 적정성 2. <u>프로그램</u> 의 신설 및 폐지의 적정성 3. 방송운행의 정시성 정도
다. <u>프로그램</u> 제작과 운영	1. 제작예산 관리 및 집행의 효율성 2. 외주제작정책 및 제도의 적정성 3. <u>프로그램</u> 의 내부 평가 및 심의의 적정성
라. 시청자 서비스	1. 시청자 의견 수렴 및 반영 시스템의 적정성 2. 시청자 참여 <u>프로그램</u> 편성비율의 적정성
마. 방송성과	1. <u>프로그램</u> 의 완성도 제고 2. <u>프로그램</u> 시청률 및 VOD 이용 정도 3. 콘텐츠 내부 관리 및 멀티 플랫폼을 활용한 유통 및 사업화 정도
바. 전년도 개선권고사항의 이행노력	1. 전년도 경영평가 개선권고사항 이행노력 및 성과
사. 당해연도 중점평가 사항	1. 외주제작관리 개선의 적정성

가. 방송목표

평가내용

1) 방송 편성목표의 적정성

가) 평가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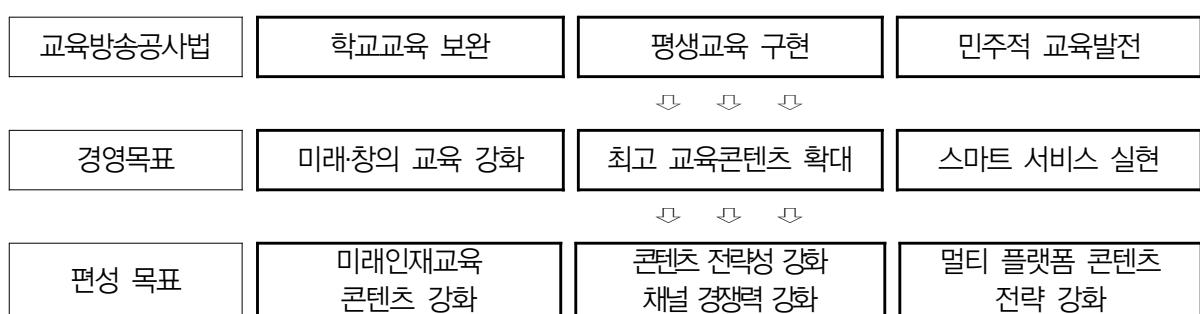
방송 편성목표는 당해 연도 방송의 틀을 짜는 가장 기본적인 밑그림이자 계획으로서 EBS의 정체성은 물론 EBS가 지향하는 방향성을 드러내는 매우 중요한 지표이다. 구체적인 평가항목은 ① 당해 연도 경영목표에 따른 방송 편성목표 설정의 적정성, ② 방송 편성목표 달성을 차원의 성과 등이다.

나) 평가사항

① 방송 편성목표의 경영목표 부합 정도

EBS는 설립목적을 기반으로 한 2017년 경영목표로 ‘미래·창의 교육 강화’, ‘최고 교육콘텐츠 확대’, ‘스마트 서비스 실현’ 등 세 가지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송 편성목표를 ‘미래인재교육콘텐츠 강화’, ‘콘텐츠 전략성 강화·채널 경쟁력 강화’, ‘멀티플랫폼 콘텐츠 전략 강화’ 등으로 설정했다.

<표 2-2> 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경영 목표 및 편성 목표 구성



이러한 방송 편성목표는 상위 목표라 할 수 있는 경영목표를 실천하고 그 성과를 내기 위한 목표로 적절하며, EBS가 교육방송사로서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방향성을 단계적으로 구체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방송 편성목표의 반영 성과

이러한 편성 목표는 다음과 같이 각각 4개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구성되며, EBS의 다양한 채널이 가진 목표에 따라 주요 편성 목표가 세분되었다.

<표 2-3> 편성 목표별 주요 내용

편성 목표	주요 내용
미래인재 교육 콘텐츠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 창의·융합 교육 프로그램 확대 - 수학 등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 콘텐츠 확대 - 교육취약 계층을 위한 교육격차 해소 프로그램 편성 - '4차 산업혁명 시대' 관련 프로그램 편성
콘텐츠 전략성 강화 채널 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개발 프로그램 사전기획 강화 - EBS 위상 제고를 위한 대표 콘텐츠 개발 - 생애주기별 수요자 니즈(Needs) 기반 콘텐츠 편성을 통한 공익성 강화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명품 대기획 제작
멀티 플랫폼 콘텐츠 전략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内外부 플랫폼을 통한 신규 이용자 확보 방안 수립 - 플랫폼별 특성에 맞는 콘텐츠 큐레이션 - 프로그램 기획단계부터 멀티플랫폼 콘텐츠 제작 계획 수립 - 카드뉴스, 웹·모바일용 영상 제작 확대

<표 2-4> 채널별 주요 편성 목표

구분		주요 편성 목표	비고
지상파	EBS 1T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어린이 및 평생교육 ■ 세대별 교양 함양 	Broadcasting의 특성 고려한 범용적 콘텐츠, EBS 브랜드 가치 제고, 시청취율 견인
	EBS 2T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학 창의·융합교육 ■ 외국어, 교육격차해소 	
	EBS F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양함양 및 외국어 교육 	
PP	EBS Plus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능·내신·논술교육 	채널별 목표 시청자 대 상 콘텐츠 및 교육3주체 대상 콘텐츠 강화
	EBS Plus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중학·직업교육 	
	EBS Englis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 교육 	
인터넷 / 1인 방송	ebs.co.kr ebsi.co.kr ebse.co.kr EBS 육아학교 Pi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멀티플랫폼 콘텐츠 전략 강화 ■ 이슈 및 집중 프로그램 통합 큐레이션 ■ 시기별 주제별 콘텐츠 큐레이션 	온라인 특성 고려, 다양 한 상세 부가 정보 (nar rowcasting)

2017년 EBS는 편성 목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경주했는데, 첫 번째 경영목표인 ‘미래·창의 교육 강화’를 위해서 EBS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인재교육 콘텐츠를 제공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창의적 인재 양성 필요성 증가에 따라 초·중등 대상 창의·융합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동시에 교육 및 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두 번째 경영목표인 ‘최고 교육콘텐츠 확대’를 달성하기 위해 콘텐츠 전략성 강화와 채널 경쟁력 강화라는 편성 목표를 설정한 바, 시청률은 물론 화제성이 높은 퀄리 콘텐츠 제작을 위해 프리미엄 콘텐츠·에버그린 콘텐츠·액티브 시니어 콘텐츠 편성 등의 전략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공익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서비스 실현’을 위해서 콘텐츠 생산과 소비행태 변화에 따른 멀티플랫폼 활용 전략을 수립한다는 편성 목표를 설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프로그램은 콘텐츠 큐레이션을 통한 경쟁력을 제공하고, 신규 프로그램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플랫폼 활용 방안을 수립하는 투 트랙 전략을 사용했다.

또한 방송 편성목표 달성을 정도와 성과를 살펴보면, EBS 편성과 프로그램에 관한 객관적인 외부 평가척도 EPEI(EBS Program Evaluation Index) 종합점수는 2016년 7.83에서 2017년 7.85로 상승했다. 특히 인문·교양 프로그램의 각 항목별 지표가 타 프로그램 대비 전반적으로 높은 지수를 기록했으며 창의·인성 교육은 완성도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2017년 성인 시간대의 타겟 시청률(남녀 25세 이상)은 0.60으로 전년대비 5.26% 상승했다. 이는 시간대별 시청자 분석에 따라 프리미엄 콘텐츠·에버그린 콘텐츠·액티브 시니어 콘텐츠 등을 집중 편성하는 등 전략적 배치에 의한 효과로 판단된다.

사용자의 멀티플랫폼 이용 증가에 따라 적극적인 큐레이션 전략 및 멀티 플랫폼 콘텐츠 강화 전략으로 주요 동영상 사이트(EBS사이트, Youtube, Naver) 이용 합계는 12억 2,939만 건이라는 이용률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에 10억 7,910만 건에 비해 13.9% 증가한 수치이다.

평가결과 및 제언

2017년도 EBS의 방송 편성목표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EBS의 설립 목적과 경영 지표뿐 아니라 방송의 유통과 소비가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2016년 포괄적으로 ‘미디어 환경 변화 적극 대응’으로 설정되었던 편성목표가 ‘멀티 플랫폼 콘텐츠 전략 강화’로 바뀐 것은 EBS가 디지털 환경에서의 변화를 적절히 파악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적절히 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2016년 ‘콘텐츠 경쟁력 제고’가 2017년에는 ‘콘텐츠 전략성 강화’ 및 ‘채널 경쟁력 강화’로 구분된 것 역시 콘텐츠와 채널을 분리해서 접근하려는 적절한 인식의 변화가 편성 전략에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편성 목표 아래 각 채널별 정체성에 따라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 및 제작 방향성을 명확히 함으로써 경영 목표를 달성하고자 했다.

- EBS 1TV는 유아·어린이 대표 프로그램을 확대 편성했다. 뿐만 아니라 프리미엄 콘텐츠 및 전 연령을 위한 에버그린 콘텐츠, 장년층을 위한 액티브 시니어 콘텐츠 등을 강화했다.
- EBS 2TV는 창의·융합 교육 존(Zone)을 설정, 창의융합교육 콘텐츠를 확대 편성했다. 그 외에 사교육비 경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학교교육 보완 콘텐츠 및 외국어교육과 다양한 특강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했다.
- EBS 플러스1의 경우, 수능 전문 채널로서 대입 사교육비를 직접적으로 경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편성하고, 입시 정보 지역격차 완화를 위한 교사 및 학부모 대상 콘텐츠를 강화했다.
- EBS 플러스2는 직업 교육 콘텐츠 및 과학교육 프로그램 등 학교교육을 직접적으로 보완하는 콘텐츠를 편성했다.
- EBS English는 스마트 교육 환경에 최적화된 학습용 클립 콘텐츠를 제공하고,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영어 콘텐츠를 확대 편성했다.

- EBS FM은 영어 교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교양 채널로서의 정체성을 제고하기 위한 편성을 실시했다.

미디어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사용자의 지상파플랫폼 외 다양한 이용추이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적극적인 큐레이션 전략 등을 펼친 결과 주요 동영상 사이트(EBS사이트, Youtube, Naver) 이용 합계 12 억 2,939만 건이라는 이용률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에 10억 7,910만 건에 비해 13.9% 증가한 수치이다.

웹, 모바일 등 방송 외 플랫폼을 통한 콘텐츠 이용이 갈수록 증가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모바일 오리지널 콘텐츠와 디지털 인터랙티브 콘텐츠 제작을 착수한 점도 디지털 환경에서 매우 적절한 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콘텐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예산 및 인력 등 제작 여건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방송통신위원회 등과의 협력을 통해 EBS 2TV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의 확대로 일부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목표 달성을 한계가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EBS 1TV의 경우, 한정된 제작 여건 하에서 경쟁력 있는 주요 콘텐츠들의 외연을 확대하고 이를바 ‘빅 콘텐츠’를 신규 편성하는 등 기존의 선택과 집중 전략을 다양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연계하여 개선사항을 제언한다면, 첫째, 2018년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만큼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함과 동시에 방송통신발전기금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선택과 집중 전략의 다양화를 위해서는 먼저, 채널별 편성 블록 전략을 수립하여 각각의 특성에 맞는 신규 콘텐츠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개별 콘텐츠의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채널별 정체성 또한 보다 명확해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할 수 있다. 셋째, 빅 콘텐츠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화제성 및 시청률의 검증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기존의 프로그램 중 경쟁력이 증명된 콘텐츠를 빅 콘텐츠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다방면으로 모색해 보아야 한다. 우선적으로 RT 확대, 멀티 플랫폼 콘텐츠로의 확장, 인력과 제작비 집중 배치 등의 전략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파일럿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편성을 통해 창의 적이고 혁신적인 콘텐츠를 개발하여 테스트베드로 활용하는 동시에, 발전가능성이

높은 콘텐츠를 정규 편성하여 또 다른 빅 콘텐츠로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 전략이나 방안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내부 구성원들의 이해와 공감, 그리고 수용자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가장 중요하다. 먼저, 2016년 경영평가보고서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EBS의 경영목표나 편성목표가 추상적인 수준을 넘어 하부조직과 구성원들의 성과목표에 반영되어 체화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와 더불어, 미디어 콘텐츠 소비나 수용에서 근본적인 변화와 차이를 보이는 세대별 패턴이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하려는 정기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그러한 부분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부서를 신설하거나 인원을 증원하는 전향적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한 기반 위에서 편성목표와 전략이 추진되어야 조직문화의 개선과 함께 보다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나. 방송 편성과 운영

평가내용

1) 방송편성비율의 적정성

가) 평가기준

방송 편성과 운영은 다섯 가지 평가항목으로 평가되는데, ① 법정 편성비율 준수 정도, ② EBS 특성에 따른 편성의 특성화 전략 고려, ③ 타겟 시청자별 목표대상층별 시간 배분과 프로그램 배분의 균형성, ④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의 적정성, ⑤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의 적정성 등이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해 편성비율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채널별 주요 편성 내용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이는 2016년과 비교해 EBS 2TV의 경우 창의 융합콘텐츠가 추가되었으며, EBS FM의 경우에는 인문, 문화 교육이 추가된 것이다.

<표 2-5> 채널별 주요 편성 내용

구분	주요 편성 내용
EBS 1TV	○ 유아어린이 교육 ○ 청소년 인성·진로교육 ○ 성인 평생교육
EBS 2TV	○ 창의 융합 콘텐츠 ○ 사교육비 경감 및 외국어 학습 콘텐츠
EBS 플러스1	○ 대학 입시 관련 사교육비 경감 콘텐츠
EBS 플러스2	○ 초중학 사교육비 경감 콘텐츠 ○ 직업능력 향상 콘텐츠
EBS English	○ 영어교육
EBS FM	○ 인문, 문화, 독서교육 ○ 외국어교육

나) 평가사항

① 법정 편성비율 준수 정도

EBS 1TV는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의 국내제작(60%이상), 국내제작영화(25%이상), 국내제작 애니메이션(8%이상), 국내제작 대중 음악(60%이상) 등 법정 편성 비율을 준수했다.

<표 2-6> 법정 편성비율 준수 현황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국내제작	국내제작 영화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국내제작 대중음악
		60%이상	25%이상	8%이상	60%이상
2017년	봄	87.8%	40.5%	101.9%	100%
	가을	87.9%	40.5%	104.3%	100%

※ 국내제작 영화 : 주시청시간대(평일 19:00~23:00, 주말/공휴일 18:00~23:00)에 편성 시 편성시간의 1.5배 가중치 적용

※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 1.5배 가중치 시간대 적용 값
- 평일 19:00~23:00, 주말/공휴일 18:00~23:00

또한 기타 의무 편성 비율도 모두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외주제작프로그램의 경우 봄 편성과 가을 편성이 30% 전후로 의무편성비율 16%를 훨씬 상회하는 실적을 보였다.

<표 2-7> 기타 의무 편성비율 준수 현황

점검항목	대상 채널	기준	의무 편성 비율	실제 반영 비율	
외주제작 프로그램	EBS 1TV	전체 방송시간	16% 이상	봄 편성	29.4%
비상업적 공익광고	EBS 1TV	전체 방송시간	0.2% 이상	준수	
	FM, 플러스1, 플러스2, EBS English	전체 방송시간	0.1% 이상	준수	
국내제작 프로그램	플러스1, 플러스2, EBS English	전체 방송시간	40% 이상	준수	
신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EBS 1TV	전체 방송시간	0.3% 이상	준수	

※ EBS 2TV는 시범서비스 기간으로 의무 편성 비율 없음

② 채널 특성화 전략

EBS는 설립 목적인 국민의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매체별 특성에 따른 채널별 차별화 전략을 수립하고, 시대 변화에 맞춰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매체별 차별화 전략과 함께 일부 채널 간 중첩되는 영역에 대해서는 상호 교차편성을 하고 있다. 채널별 특성화 전략의 기본은 아래와 같다.

<표 2-8-1> 채널별 특성과 전략 1

매체	구분	내용
EBS 1TV	채널 Identity	◦ 유아어린이 창의인성 교육 채널 및 평생 교육 채널
	채널 포지셔닝	◦ 국내 최대·최고의 유아어린이 교육 프로그램 채널 ◦ 국내 최대·최고의 교육 다큐멘터리 채널
	채널 특성화 전략	◦ 프리미엄 콘텐츠 개발을 통한 채널 경쟁력 강화 ◦ 에버그린 콘텐츠 강화, 액티브 시니어 대상 신규 콘텐츠 확대 ◦ 유아어린이 창의·인성 콘텐츠 경쟁력 강화 ◦ 다큐멘터리 장르 스펙트럼 확장 ◦ 크로스미디어, UHD 등 방송 환경 변화 대비 콘텐츠 기획
EBS 2TV	채널 Identity	◦ 창의·융합 교육 채널
	채널 포지셔닝	◦ 국내 최고 초중학 창의·융합 콘텐츠 교육 채널 ◦ 사교육비 경감 등 교육 격차 해소 채널
	채널 특성화 전략	◦ 초·중 대상 창의·융합 콘텐츠 기획·제작 ◦ 수학, 과학 등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 콘텐츠 확대 ◦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외국어 및 경제 프로그램 개발
EBS FM	채널 Identity	◦ 외국어 학습 및 인문 교양 채널
	채널 포지셔닝	◦ 외국어 학습 라디오 채널 및 인문·교양 채널로의 정체성 제고
	채널 특성화 전략	◦ 영어 교육 프로그램의 강화를 통한 청취율 제고 ◦ 수준별·대상별 다양한 외국어 콘텐츠 편성 ◦ 인문·교양 채널 정체성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기획 ◦ 주말 여가활동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강화

<표 2-8-2> 채널별 특성과 전략 2

매체	구분	내용
EBS 플러스1	채널 Identity	◦ 대수능 및 고교 학습 채널
	채널 포지셔닝	◦ 국내 유일의 고교 대상 학습 및 정보 채널(무료)
	채널 특성화 전략	◦ 수능 및 내신 대비 전 교과 수준별 편성 ◦ 입시, 논술 등 각종 학습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 제공 ◦ 교과 학습용 클립형 콘텐츠를 통한 학습 효율성 제고 ◦ 학생 및 교사, 학부모 등 교육현장의 니즈를 반영한 콘텐츠 강화

매체	구분	내용
EBS 플러스2	채널 Identity	◦ 초·중 공교육 보완 및 직업 교육 채널
	채널 포지셔닝	◦ 자기 주도적 학습을 지원하는 고품질 학습 프로그램 ◦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보, 시험대비, 실무 콘텐츠
	채널 특성화 전략	◦ 초·중학생 및 성인 생활시간대에 맞춘 블록 편성 강화 ◦ 교육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공교육 보완 콘텐츠 강화 ◦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고품격 맞춤형 직업교육 콘텐츠 제작 ◦ 학생 및 교사, 학부모 등 교육현장의 니즈를 반영한 콘텐츠 강화
EBS English	채널 Identity	◦ 영어교육 전문 채널
	채널 포지셔닝	◦ 국내 최대·최고의 고품격 영어 학습 콘텐츠 제공
	채널 특성화 전략	◦ 학교 커리큘럼 반영 및 학교 현장 활용 가능한 융합 교과형 프로그램 강화(클립형 콘텐츠 확대) ◦ 온라인 방송을 활용한 양방향 라이브 클래스 강화

③ 시청 타겟별 편성의 균형성

각 채널의 시청 타겟을 구분하여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EBS 1TV의 경우 유아·어린이(30.5%), 청소년(6.4%), 성인/일반(63.1%)로 구성되었고, 2TV의 경우 초등(32.4%), 중등(9.9%), 외국어(30.1%), 일반(27.7%)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EBS FM은 청소년(4.1%), 영어(29.3%), 제2외국어(3.4%), 사회교육(63.2%)로 구성되었으며, 고교생 및 대수능 수험생 대상 전문 채널인 EBS 플러스1 대상별 편성 비율은 학교교육이 97.0%, 평생교육이 3.0%로, EBS 플러스2의 경우 초등교육이 28.9%, 중학교육이 54.3%, 평생교육이 16.7%로 나타났다. EBS English는 유아 13.0%, 어린이 24.0%, 청소년 27.3%, 성인 35.7%의 분포를 보였다.

EBS 편성의 특성으로는 소수계층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돋보인다. 2017년도 EBS 1TV에는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노년세대, 장애인 등 소수계층 대상 프로그램이 총 방송시간 39,285분으로 8.42% 편성되었다. 주요 대상 및 주요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다.

<표 2-9> 소수계층 대상 주요 프로그램

구분	주요 프로그램
다문화 가정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다문화 고부열전>, <글로벌 가족정착기-한국에 산다>, <한국어 쉬워요> 등
저소득층	<나눔 0700>, <글로벌 프로젝트 나눔> 등
노년세대	<장수의 비밀>, <성인 문해교육 프로젝트 공부하기 좋은 날>, <아줌마 고민상담소-수상한 철학관> 등
장애인	<희망풍경>

또한, EBS에서는 장애인들의 시청접근권 보장을 위해 자막방송, 수화방송, 화면해설방송을 실시하고 있는데 2017년도 실적은 자막방송 100%, 수화방송 7.3%, 화면해설방송 12.8%로 2016년보다 소폭 증가했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목표치를 모두 준수하거나 상회하는 것이다.

<표 2-10> 장애인 시청접근권 보장을 위한 방송시간

구 분	2016년		2017년		2017년 정부 목표 (%)
	방송시간(분)	비율(%)	방송시간(분)	비율(%)	
자막방송	439,115	100%	439,182	100%	100%
수화방송	26,695	6.1%	31,895	7.3%	5%
화면해설방송	56,620	12.2%	59,115	12.8%	10%

④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편성

2017년도 EBS는 각 채널별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먼저 1TV는 〈EBS 다큐프라임〉 146편, 〈명의〉 51편, 〈스페이스 공감〉 75편, 〈최고의 요리비결〉 206편, 〈세계테마기행〉 208편, 〈한국기행〉 260편 등을 꼽을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2-11> EBS 1TV 평생교육 프로그램 방송편수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	방송 편수
EBS 다큐프라임	과학, 역사, 환경, 자연, 인간, 철학 등 분야를 종망라한 고품격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146편
명의	명의들의 치열한 노력을 담아내고 질환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환자들의 리얼한 삶을 보여줌으로써 시청자의 만족도를 높인 고품질 의학 다큐멘터리	51편
스페이스 공감	폭넓은 장르에 걸친 실력 있는 뮤지션의 음악공연을 기획, 공연, 방송함으로써 공연문화의 질적 발전에 기여하고 대중 음악의 고급화와 건강성 회복을 도모하는 프로그램	75편
엄마를 찾지마	엄마로서의 삶에 익숙해진 여성에게 주어진 100만원과 24시간. 엄마가 가출함으로써 엄마는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가족들은 엄마에 대해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는 세대공감 버라이어티	34편
부모	<라이브 토크 부모>, <부모-위대한 엄마> 등 육아, 건강, 자녀문제 등 부모에게 유익한 정보와 지침을 전달하는 종합 구성 프로그램	23편
최고의 요리비결	요리의 대가와 함께 한식, 양식, 중식, 퓨전 등 다양한 종류의 요리 비법을 배워보는 프로그램	260편
세계테마기행	세계의 교육현장, 역사문화유적, 자연유산, 생활문화, 예술, 풍속 등 테마를 중심으로 세계를 이해하는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	208편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	방송 편수
한국기행	한국 곳곳의 자연, 문화, 역사, 사람을 탐방하여 한국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프로그램	260편
역사채널 e	왜곡된 역사 지식을 바로 잡고, 우리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돋는 5분 클립형 콘텐츠	8편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문제연 코칭 프로그램으로 인간과 개 모두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리얼리티 솔루션 프로그램	51편
아줌마 고민 상담소 수상한 철학관	철학, 과학,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의 시각으로 기훈 여성들이 안고 있는 고민의 실체를 들여다보고, 해결 방법을 함께 고민해보는 프로그램	4편
불량시니어클럽	젊은이들 뜻지않은 열정으로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액티브 시니어들의 도전기를 담은 프로그램	4편
성난 물고기	거친 야생에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 여정을 그린 리얼리티. 어류를 통해 인문지리학적 정보를 함께 전달하는 프로그램	41편
이것이 야생이다1, 2	한국의 자연과 야생을 직접 경험해보면서 다양한 자연의 모습을 관찰하는 고품격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17편
문화유산 코리아	문화재와 여행을 접목시켜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문화재를 여행길을 따라 소개하고 우리 주변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프로그램	50편
장수의 비밀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다양한 정보와 사례를 보여주는 휴먼 다큐 프로그램	74편
사회 공헌 프로그램	<글로벌 프로젝트 나눔>, <나눔 0700> 등 국내외 소외 계층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환기시키는 프로그램	105편
희망풍경	장애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세상,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의 구현을 위한 희망의 룰 모델을 제시하는 프로그램	53편

2TV는 〈부모-위대한 엄마 열전〉 273편, 〈21세기 교육 프로그램-세계의 PBL〉 220편,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공부하기 좋은 날〉 733편 등을 비롯하여 다음과 같은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방송했다.

<표 2-12> EBS 2TV 평생교육 프로그램 방송 편수

프로그램 명	프로그램 내용	방송 편수
호모 이코노미쿠스	경제지식 취약 계층을 위한 알뜰 생활정보 및 다양한 절약 노하우를 전달하는 경제교육 프로그램	6
한 눈에 보는 경제	경제전문 용어 및 시사경제를 통해 경제에 대한 상식과 시각을 갖게 하는 클립형 경제교육 콘텐츠	84

프로그램 명	프로그램 내용	방송 편수
생각하는 콘서트 -서울은 학교다	다양한 전문가들의 삶과 식견을 짧고 인상 깊은 강연으로 들어보는 릴레이 강연 프로그램	5
부모-위대한 엄마 열전	이 시대의 임신, 출산, 육아 등 다양한 고민을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풀어내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출연자와 함께 찾아서 제시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273
지능정보사회 시대 -공영방송의 역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사회문화 변화 과정에서 올바른 공영방송의 역할에 대해 진단해 보는 토론 프로그램	1
EBS 특별기획 7부작 인터뷰 다큐 -우리, 지금 행복한가요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의 진솔한 인터뷰를 통해 공감과 대안을 모색하는 인터뷰 다큐멘터리	10
21세기 교육 패러다임 -세계의 PBL	21세기 교육 패러다임인 세계의 PBL(프로젝트 학습) 수업을 널리 알리고 방송 콘텐츠를 교육 용으로 활용하는 교육 콘텐츠	220
성인 문해교육 프로젝트 -공부하기 좋은 날	농어촌 등 문해교육 소외지역에서 쉽고, 편하게 문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방송함.	733

EBS FM은 〈라디오 행복한 교육세상〉 31편, TOPIK 312편, 〈시 콘서트〉 312편, 〈책으로 행복한 12시〉 312편 등 많은 프로그램이 평생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으로 분류되었다. 다만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의 경우 시청 타겟을 어떻게 잡고 제작하는지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표 2-13〉 EBS FM 평생교육 프로그램 방송 편수

프로그램 명	프로그램 내용	방송 편수
라디오 행복한 교육세상	유익하고 다양한 교육 정보를 알려 주어 학부모의 자녀교육과 교사들의 현장 교육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312편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라디오 청취층의 연령대가 점점 올라가면서, 어느 순간 10대들의 라디오는 자취를 감췄다. 10대들의 건전한 문화형성을 위한 이야기로 라디오를 꾸며본다.	52편
TOPIK (중국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러시아어, 태국어, 아랍어)	한국으로 이민을 온 다양한 국적의 다문화인들을 위한 모국어로 가르치는 한국어 교육강좌	312편
詩 콘서트	평안하고 감성적인 詩, 어른들을 위한 좋은 동시와 동화 등을 익숙한 팝, 가요, 세 미클래식 등의 친근한 음악과 함께 나누고 공감한다	312편
책으로 행복한 12시	책의 일부분을 발췌해 들려주고 음악과 함께 삶에 관한 토크를 나눠본다	312편

프로그램 명	프로그램 내용	방송 편수
일요음악여행- 클래식, 팝, 세계음악, 가요	전문 음악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청취자들의 취향을 만족시키고 음악이 주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208편
다문화 음악여행	우리 이웃인 다문화 음악들을 들으며 함께 공감 한다.	52편
EBS 북 카페	책과 관련된 문화이슈와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책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	312편
심야책방	고전부터 현대소설까지 다양한 장르의 문학작품을 낭독하고, 낭독 중간 중간에 적절한 음악들을 삽입하며 청취자들의 지성과 감성을 충족시킨다.	312편
인생 라디오	최근 일반인들이 자서전을 출간하는 등 자기 표현의 욕구가 분출하고 있다. 이런 개인들의 시대를 맞아 글쓰기, 음악, 영화 등에 나타난 개인들의 삶과 표현 법에 대해 생각해 본다	108편
사물의 재발견	일상에서 접하기 쉬운 사물을 대상으로 융복합적 인 문학 토크를 나눈다	156편
오후 N 음악	장르에 구애 없이 대중음악을 선도하는 이야기가 있는 음악 프로그램	48편
음악이 흐르는 책방	팝, 가요와 함께 쉽고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에세이를 낭독함으로써 청취자들에게 마음의 여유를 주는 프로그램	48편
이지연의 3삼5오	라디오 주 청취층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교육, 요리, 건강, 생활상식 등 주요 관심사를 재미있게 전달한다.	264편
뮤직원더랜드	대중에게 익숙한 팝과 가요를 들려 주어 하루의 피로를 풀며 감성 총전을 돋는다.	264편
책처럼 음악처럼	책과 음악이 줄 수 있는 위로와 공감의 기능으로 심야 라디오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프로그램	48편
주말의 문화	대중문화 전문 프로그램으로서 일요일 아침 청취자에게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44편
일요 풍류방	정체기에 있는 한류음악의 새로운 도약을 풍류에서 찾고 가능성있는 신진 예술인들을 발굴, 육성하여 풍류문화를 확산시킨다.	44편

EBS 플러스1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생방송 EBS 교육 대토론> 47편과 <연중 기획-미래를 여는 교육> 8편 등을 들 수 있다.

<표 2-14> EBS 플러스1 평생교육 프로그램 방송 편수

프로그램 명	프로그램 내용	방송 편수
생방송 EBS 교육 대토론	다양한 교육계 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	47편
연중기획-미래를 여는 교육	공교육 현장과 교육의제를 살펴보면서 미래 교육 방향 제시	8편

EBS 플러스2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직업교육 포함)은 <자격증 시험대비 강좌> 935편, <지식채널e> 90편, <EBS 초대석> 52편 등이 방송되었다.

<표 2-15> EBS 플러스2 평생교육 편성 비율(직업교육 포함)

프로그램 명	프로그램 내용	방송 편수
자격증 시험대비 강좌	취업 등을 위한 자격증 시험대비 강좌	935편
극한직업	극한현장에서의 직업체험 프로그램	8편
지식채널e	다양한 지식의 이면을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창의적으로 재구성하는 5분 클립형 콘텐츠	90편
역사채널e	역사 교육 클립 콘텐츠	8편
EBS 초대석	매주 한국 유명 석학과 함께 미래 사회의 방향성 논의	52편
EBS 특별기획 통찰(洞察)	인문학 강의	16편
미래강연Q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향한 수많은 질문들. 전문가들과 함께 미래에 대해 예측해 보고,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대안을 찾아본다	18편

EBS English 역시 <매일 10분 영어> 1,737편을 비롯하여 <EBS 생활영어> 329편, <EBSe 영어뉴스> 329편 등을 방송했다.

<표 2-16> EBS English 평생교육 편성 비율

프로그램 명	프로그램 내용	방송 편수
EBSe 영어뉴스	AP통신에서 제공하는 최신 뉴스 영상을 통해 청취 실력 향상	329편
EBS 생활영어	현지 원어민들이 사용하는 생생한 Keyword를 가지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영어 회화 학습	329편
매일 10분 영어	다양한 강사들로 구성, 짧은 시간 동안 실용적인 영어 학습	1,737편

⑤ 민주시민 육성 프로그램의 편성

EBS는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해 각 채널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편성했는데, 먼저 EBS 1TV의 경우 〈EBS뉴스〉 518편, 〈지식채널e〉 100편, 〈다문화 고부열전〉 51편, 〈EBS 초대석〉 46편, 〈다큐 시선〉 42편 등 모두 907편을 방송했다.

<표 2-17> EBS 1TV 민주시민 육성 프로그램 방송 편수

프로그램 명	프로그램 내용	방송 편수
다큐 시선	일상적이고 표면적인 현상 너머의 것을 향한 깊이 있는 접근을 통해 새로운 사유의 계기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42편
지식채널e	다양한 지식의 이면을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창의적으로 재구성하는 5분 클립형 콘텐츠	100편
다문화 고부열전	갈등 상황에 놓인 다문화 가정의 고부가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혀가는 과정을 감동적으로 담아내어 다문화 가족에 대한 공감을 돋는 프로그램	51편
글로벌 아빠찾아 삼만리	100만에 가까운 외국인 근로자 아버지와 아버지를 떠나보낸 가족의 사연을 전하고, 아버지를 찾아오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또 다른 구성원에 대해 생각해 보는 프로그램	43편
EBS 교육 대토론	다양한 입장의 교육 주체들이 교육 현안에 대해 토론하는 생방송 프로그램	47편
대통령은 누구인가	대통령은 어떤 역사적 배경을 통해 탄생하게 됐으며, 대통령은 국민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취재함으로써 대통령 선거가 진정한 민주주의의 축제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한다	2편
철학하라	인간은 왜 사는가? 우주는 누가 만들었는가? 누구나 한번쯤 생각해봤을 이런 철학적인 접근의 시작을 통해 철학을 쉽고 재미있게 소개하는 프로그램	5편
EBS 뉴스	교육과 문화 관련 뉴스	518편
EBS 초대석	국내외 전문 영역의 저명 인사를 초대해 전문가들의 철학과 경험을 나누면서 현재 우리 사회에 대한 시각과 나아갈 방향을 찾는 대담프로그램	46편
통일 미리보기	북한의 실제 모습을 다양한 시청각 자료와 함께 분석하고 미래 대한민국의 비전을 모색하는 통일 교육 콘텐츠	8편
평등채널e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 개선 및 사회적 민감성을 높이고 국민적 문제의식 제고	6편
까칠남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젠더 이슈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다루고 미래지향적이고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38편
특집 생방송 토론회 <대입제도, 현실과 과제>	<대학입시의 진실> 방송 이후 대입제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담아내는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1편
합계		907편

EBS 2TV의 경우 〈EBS 특별기획 통찰〉 88편, 〈한눈에 보는 경제〉 48편이 가장 대표적인 민주시민 육성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으며, 〈남북 10대들의 통일 프로젝트-딱 좋은 친구들〉 6편 등 172편이 방송되었다.

〈표 2-18〉 EBS 2TV 민주시민 육성 프로그램 방송 편수

프로그램 명	프로그램 내용	방송 편수
남북 10대들의 통일 프로젝트-딱 좋은 친구들	남한과 북한의 10대 아이들을 통해 남과 북의 차이는 물론 동질성을 확인하고 통일을 위한 노력에 대해 알아보는 통일교육 프로그램	6편
호모 이코노미쿠스	현실 속에서 부딪히는 돈과 경제에 대한 문제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을 통해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경제교육 프로그램	6편
한눈에 보는 경제	경제교과서나 개념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경제현상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알아보는 경제교육 콘텐츠	48편
EBS 특별기획 7부작 <인터뷰 다큐-우리, 지금 행복한가요>	일자리, 창업, 저출산, 성평등, 교육, 노인복지등 대한민국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국민들의 진솔하고 솔직한 인터뷰를 통해 현실적으로 그려내고 대안을 모색해본다	7편
역사가 술술	재미있는 사건과 인물을 주제로 이야기를 꾸며 역사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초등 대상 한국사 프로그램	8편
EBS 특별기획 통찰	인문, 사회, 철학, 예술, 교육, 경제, 미디어, 첨단 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초대하여 예리한 관찰력과 혜안으로 동서고금을 관통하는 삶의 지혜와 비전을 제시하는 고품격 강의 프로그램	88편
통일 미리보기	매주 북한의 다양한 소식과 이야기를 통해 남북 한 차이점을 이해하고 한걸음 가까워지는 통일 교육 프로그램	9편
합계		172편

2) 프로그램의 신설 및 폐지의 적정성

가) 평가기준

EBS는 공사의 설립 목적, 채널별 정체성 및 연초에 수립한 편성 목표와 방향성을 바탕으로 교육적 가치, 공익·공공성, 트렌드 반영, 프로그램 경쟁력, 제작·방송 환경, EBS 가치 구현 등을 평가 기준으로 하여 신설 및 폐지 여부를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그러한 판단 기준이 적정한지 평가하기 위해서는 ① 프로그램 신설 및 폐지 기준의 적정성과 ② 프로그램 신설 및 폐지 기준 적용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나) 평가사항

① 프로그램 신설 및 폐지 기준의 적정성

프로그램 신설은 ① 교육적 가치, ② 공익·공공성, ③ 트렌드 반영의 세 가지 평가 기준을 토대로 하며, 이는 다시 ① 교육적 가치: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창의·인성교육, 공교육 보완, 직업/진로 교육 등 ② 공익·공공성: 교육 정책의 제 설정, 사회 통합 콘텐츠, 다문화 등 소외계층 대상, 교육 복지 확대, 사교육비 절감, 교육전문공영방송으로서 공공복리증진에 기여 ③ 트렌드 반영: 모바일 등 방통융합 환경, 소비자 니즈·기호 변화, 사회 트렌드·이슈 반영, 새로운 포맷 개발, 시청자 참여 확대, 4K, UHD 기술 혁신 등 하위 기준들로 구성된다.

프로그램 폐지는 지상파의 경우, ① 프로그램 완성도(시·청취율, EPEI, CI 등), ② 시청자 기호, EBS가 연초 수립하는 채널별 편성 목표 충족 여부, ③ 제작비, 인력 등의 투입 대비 시청자 반응, ④ 내용 및 성격이 유사해 통합 또는 축소가 필요한지 여부, ⑤ 기획의도, 주요 구성방식 등이 변경되어 신규 프로그램으로 대체된 프로그램, ⑥ 편성기간 내 계획 편수를 마무리한 프로그램 등의 기준이 적용된다.

EBS 플러스1,2와 EBSe의 폐지기준은 ① 편성기간 내 계획 편수를 마무리한 프로그램, ② 시대의 변화에 따른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프로그램, ③ 방송 및 교재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이 현저히 떨어지는 프로그램 등이다.

<표 2-19> 프로그램 신설 및 폐지 기준

채널	신설기준	폐지기준
지상파 (TV, 라디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전문공영방송사로서 EBS의 채널 정체성을 확고히 할 수 있는 프로그램 ○ 시대의 변화 및 시청자 기호의 변화에 부응하는 프로그램 ○ 일일 생활 시간대별 세분화한 타겟(유아, 어린이, 청소년 및 가족, 성인)에 맞는 창의적 프로그램 ○ EBS가 연초 시청자에게 표방하는 대 기획에 따른 중점 추진 프로그램 ○ 시청자(수요자)의 주요 관심사항 및 생활 패턴에 맞는 프로그램 ○ 다문화 가정 등 소외 계층을 위한 공영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완성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프로그램(시·청취율, EPEI, CI 등) ○ 시청자 기호 등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프로그램 ○ EBS가 연초 수립하는 채널별 편성 목표에 미충족 프로그램 ○ 제작비, 인력 등의 투입 대비 시청자 반응 미흡 프로그램 ○ 내용 및 성격이 유사해 통합 또는 축소가 필요한 프로그램 ○ 기획의도, 주요 구성방식 등이 변경되어 신규 프로그램으로 대체된 프로그램 ○ 편성기간 내 계획 편수를 마무리한 프로그램
플러스1,2 EBS 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고 학생들의 학습 수요를 예측한 교재 발간 계획에 맞춰 프로그램 신설 ○ 초중고 학습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창의적 형태의 프로그램 ○ 자체 커리큘럼에 의한 발달 단계별 영어 교육 프로그램 ○ 실용성을 강화한 현장 중심의 영어 및 외국어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성기간 내 계획 편수를 마무리한 프로그램 ○ 시대의 변화에 따른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프로그램 ○ 방송 및 교재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이 현저히 떨어지는 프로그램

② 프로그램 신설 및 폐지 기준 적용의 적정성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는 주요내용으로는 시청률 및 청취율, EPEI, CI, 편성 목표, 채널 정체성 등의 범주에 따라 각각 조사 및 평가자료가 산출되며, 그 결과에 의해 신설 및 폐지가 결정되는 방식이다.

<표 2-20> 신설 및 폐지 기준의 주요 내용 및 적용방식

구분	기준 주요 내용	적용 방식
시청률 및 청취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NMS, 닐슨코리아 등 시청률 조사기관을 통한 시청률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대별, 연령별, 프로그램별 시청률 분석에 따라 주요 시청층 및 시청 흐름 분석 ○ 분석 결과를 통한 프로그램 평가 ○ 개편 시 프로그램 신설 및 폐지 기준으로 활용

구분	기준 주요 내용	적용 방식
EPEI (EBS Program Evaluation Index)	○ EBS 프로그램 평가 지수, EBS전체 프로그램의 품질에 대한 수용자 평가	○ 조사 대상 프로그램 선정(총 38개) ○ 전국 지역별, 성별, 연령별 분포비에 비례한 표본 추출을 통한 인터넷 설문 조사 실시 ○ 1,078명의 패널을 4주일 동안 조사 ○ 분석 결과를 통한 프로그램 평가 ○ 개편 시 프로그램 신설 및 폐지 기준으로 활용
CI (Children Index)	○ EBS 유아·어린이 프로그램의 품질에 대한 수용자(어린이 및 부모) 조사	○ 조사 대상 프로그램 선정(자사 10개, 타사 11개) ○ 패널 1,200명(부모 및 자녀)을 대상으로 면대면 인터뷰 조사 실시 ○ 분석 결과를 통한 프로그램 평가 ○ 개편 시 프로그램 신설 및 폐지 기준으로 활용
편성목표	○ 2017년 편성목표인 '채널 브랜드 경쟁력 강화', '미래 인재 교육 콘텐츠 강화', '멀티플랫폼 콘텐츠 전략 강화'와의 부합 정도 평가	○ 제작 및 편성부서 합동 간담회, 프로그램 시사회, 편성자 문위원회, 각종 편성조사를 통한 프로그램 평가 ○ 사내외 기획안 공모(연간 2회)를 통한 프로그램 기획개발 ○ 개편 시 프로그램 신설 및 폐지 기준으로 활용
채널 정체성	○ 교육전문 공영방송사로서 EBS의 채널 정체성과의 부합 정도 평가	○ 제작 및 편성부서 합동 간담회, 프로그램 시사회, 각종 편성조사를 통한 프로그램 평가 ○ 사내외 기획안 공모(연간 2회)를 통한 프로그램 기획개발 ○ 개편 시 프로그램 신설 및 폐지 기준으로 활용

3) 방송운행의 정시성 정도

가) 평가기준

방송 운행의 정시성 정도는 시청취자들과의 가장 기본적인 약속을 이행하는지와 관련되며, 표준제작시간 위반, 대응편성을 위한 고의적 지연, 프로그램 고지방송의 과다편성 정도 등으로 평가된다. 10분 이상의 오차 발생 요인을 초래한 프로그램에는 감점을 부여한다.

나) 평가사항

① 표준제작시간 위반 정도

EBS 총 7개 채널의 공통 정시 운행률은 100%를 기록했다. 또한 정규 프로그램

110,085편 중 방송시작 10분 이상 지연 프로그램은 없었다. 참고로, 2017년 지상파 1TV의 표준제작시간 초과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2-21> 2017 지상파 1TV 표준제작시간 초과 현황

총편수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11	13	17	25	26	17	13	15	23	25	28	24	237편

- 표준제작시간 초과 프로그램 비율(편수 기준) : 1.5%
- 2017년 표준제작시간 초과 프로그램 비율 1.6% 대비 0.1% 감소
- 표준제작시간 초과 현황 검출 방법 : 실제로 방송된 최종본(광고본 포함)을 대상으로 검출하는 관계로 표준제작시간에 최대 광고시간을 포함하여 검출.
- 위반 프로그램 검출 기준
 - 25분부터 그 이상 편성시간 프로그램 : (편성시간-60초=기준R/T)
 - ※ 오차 허용 범위 ±60초
 - 20분부터 그 이하 편성시간 프로그램 : (편성시간-30초=기준R/T)
 - ※ 오차 허용 범위 ±30초

② 대응편성을 위한 고의적 지연 정도 및 프로그램 고지방송의 과다편성 현황

2017년도 대응편성을 위한 고의적 지연 정도 및 프로그램 고지방송의 과다편성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결과 및 제언

EBS는 명확한 채널별 특성화를 통해 시청자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각 채널별로 전문 편성을 시행하고 있으며, 공영 방송사로의 사회적인 책무를 다하고자 방송법에서 정해진 각종 편성 비율 역시 준수하고 있으며 이는 시범서비스라 방송법, 시행령을 준수할 의무가 없는 EBS 2TV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EBS 1TV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를 준수하여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다. 특히 유아·어린이 대상 프로그램, 소외계층 배려 및 국민들의 평생 교육 프로그램 등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의 편성비율을 꾸준히 유지하여 공영성을 구현하고 있다. 또한 각 채널 별로 명확한 정체성을 구현하기 위한 차별화된 프로그램들의 기획 및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EBS 2TV의 경우 증가된 제작비를 통하여 신규 제작 프로그램의 비율이 전년대비 크게 상승했다. 2TV의 설립 취지에 따른 다양하고 완성도 있는 창의 융합 교육 프로그램의 제작을 통해 각 채널별 편성의 특성을 명확히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그러나 미흡한 점도 적지 않은 바, EBS 1TV는 시청 대상별로 균형 있는 편성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연령별 편성비율 중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의 비율이 다소 저조한 실정이다. 플러스1, 플러스2 등에서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이 일부 편성되어 있으나 EBS 1TV에도 양질의 청소년 대상 콘텐츠를 개발하고 방송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EBS 2TV의 경우 증가된 제작비 투입에 따라 신규 제작 프로그램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긴 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향후 본 방송을 대비하여 2TV 신규 제작 비율을 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일반교양프로그램이 평생교육프로그램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교육방송으로서의 설립 목표 상 이렇게 광의의 개념 규정과 범주 설정보다 좀 더 세밀하고 목적지향적인 평생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도 시도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EBS 1TV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

시」에 따른 편성비율을 꾸준히 준수하여 프로그램을 편성해 나가는 것은 물론, 시청 대상에 따른 균형 있는 프로그램 편성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대상 시청에 맞는 양질의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기획·개발하여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에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BS 2TV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창의융합 교육 콘텐츠 전문 채널로서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프로그램을 선보이려는 노력을 더욱 구체화 해야 한다. 여전히 신규 제작 프로그램 비율이 높지 않은 수준인데,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제작비 재원 마련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므로 향후 지속적인 방송통신발전기금의 확대와 그와 연계된 자체 제작비의 상승을 통하여 2TV의 신규 제작 프로그램 비율을 계속하여 높여 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EBS 2TV의 정체성을 명확히 할 수 있는 2TV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하여 2TV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특성화된 편성 전략을 통하여 선명한 브랜드 가치를 시청자들에게 심어 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 신설 및 폐지 기준’을 수립하여 EBS의 설립 목표와 경영 목표 및 편성 목표에 부합하도록 방송 프로그램의 전 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 점을 높이 평가할 만하다. 현재 시청률이나 청취율 외에 EPEI, CI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있지만, 방송 환경과 수용자의 변화를 반영하여 EBS의 공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게끔 학계 전문가와 수용자 등을 대상으로 프로그램별 ‘공영성 지수’(가칭)를 정교하게 개발하고, 이를 기준으로 시청률이나 청취율의 비중을 조정, 적용하여 교육방송만의 공영성을 실현하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평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외 프로그램 및 채널 정책에 대한 연구를 연중으로 실시하여 2017년도에도 국내 주요 방송사는 물론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주요 국가의 공영방송사 프로그램 1천여 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글로벌 트렌드를 파악하고 EBS 프로그램에 적용하였다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성과나 반영 결과 등을 유형화하여 체계적이고 누적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덧붙여, 기존의 6개월, 1년 단위 정기 편성 개편은 모바일과 웹 기반 시청 플랫폼으로의 이동하는 콘텐츠 소비와 트렌드의 변화를 즉각적으로 반영하기에 어려

움이 있으므로, 사회적 어젠다를 선점하고 및 시청자 니즈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수시 편성 조정을 확대하였는데 향후 탄력적 수시 편성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와 더불어, 기존의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된 시청률, EPEI, CI 등의 자료는 변화한 시청행태의 반영과 콘텐츠의 파급력 정도를 평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새로운 지표를 마련하여 보다 다면적인 프로그램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탄력적 수시 편성 운영을 위하여 참신한 소재 및 포맷의 항시적 기획, 개발이 요구된다. 시장의 최신 콘텐츠 소비 동향 및 트렌드 분석에 기반한 R&D 작업과 더불어 유연한 편성 전략과 이에 따른 탄력적인 제작 일정 조율 등 내부 협업 시스템의 효율적 구축도 필요할 것이다. 프로그램의 다면적 평가를 위해서는 소셜 데이터 마이닝을 통한 화제성 지수를 조사하고,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평가 지표를 통하여 기존의 지표들을 보완하고 향후 프로그램 신설, 폐지 시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맥락에서 2017년 12월에 이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시기적절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향후 더욱 정교하고 다면적인 평가 지표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프로그램의 정시 운행과 관련해서는 각 프로그램별 표준제작시간의 안정적인 안착과 동시에 지속적 관리를 했다. 프로그램 방송 3일전 입고 원칙 준수를 위해 방송제작본부 각 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했으며 이를 통하여 프로그램 정시운행을 위한 사전 대비를 철저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SPOT, FILLER 등의 적절하게 운행함으로서 정시운행을 준수했다.

다. 프로그램 제작과 운영

평가내용

1) 제작예산 관리 및 집행의 효율성

가) 평가기준

프로그램 제작과 운영을 평가하기 위한 첫 번째 항목은 제작예산 관리 및 집행의 효율성이다. 이는 ① ‘제작투자비율=제작비/매출액’ 수준의 적정성, ② 표준제작비 집행의 적절성, ③ 제작비 협찬 수준 정도 등으로 평가된다.

나) 평가사항

① 제작투자비의 적정성

2017년도 제작 투자 비율은 61.26%이며, 제작비 집행액은 전년 대비 5.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016년 집행액 53,950,753,205원). 제작투자비율 또한 전년 대비 2.50% 증가했다(2016년 투자비율 58.76%). 매출액은 928.9억원으로 전년 대비 1.18% 증가했다(2016년 매출액 918.1억원).

<표 2-22> 2017년 집행액 및 매출액

제작비 집행액 (원)	매출액 (원)	집행액/매출액
1TV	수신료수입 40,960,605,132	18,075,984,251
FM	방송통신발전기금수입 4,232,422,637	30,171,185,323
Plus2	방송광고수입 4,624,255,863	35,474,829,500
2TV	제작협찬수입 7,089,391,493	4,269,809,088
	프로그램공급수입 (계)	4,898,766,700
(계)	(계)	92,890,574,862
		61.26%

* 집행액 : 종합정보표준제작비집행현황(방송일자기준) (20170101~20171231)

* 매출액 : 2017년도 예산대결산 손익계산서

② 표준제작비 집행의 적절성

표준제작비 집행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유형별 집행률을 살펴봐야 한다.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7년 전체적인 제작비 집행률은 99.88%였으며, 이는 99%였던 2016년도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이다.

<표 2-23> 유형별 표준제작비 집행현황

(단위 : 원)

유형	표준제작비	실집행액	차액	집행률
다큐	18,169,279,348	17,842,921,341	326,358,007	98.20%
드라마	231,390,339	224,404,712	6,985,627	97.00%
애니메이션	1,856,386,079	1,612,292,092	244,093,987	86.80%
영화	541,005,782	430,468,054	110,537,728	79.60%
일반구성	313,144,926	304,234,818	8,910,108	97.15%
종합구성	13,166,442,660	13,331,850,721	-165,408,061	101.26%
취재/구성	4,390,952,010	4,397,339,190	-6,387,180	100.10%
취재/보도	1,188,000,000	1,187,588,720	411,280	100.00%
기타	354,646,703	296,985,143		
SB/캠페인/필러	799,142,495	787,843,224	10,876,271	98.60%
공통	-	542,266,381	-	-
(계)	41,010,390,342	40,958,194,396	52,195,946	99.87%

* 집행액 : 종합정보표준제작비집행현황(방송일자기준) (20170101~20171231)

③ 제작비 협찬 정도

2017년도 제작비 협찬 사업은 총 148건이며 금액은 11,054,087,999원이었다. 2016년의 122건, 110억 원과 비교해 협찬 건수는 다소 늘었으나 금액은 비슷한 수준이었다.

2) 외주제작 정책 및 제도의 적정성

가) 평가기준

외주제작 정책 및 제도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항목으로는 ① 외주제작 비율의 적정성, ② 양질의 외주제작 프로그램을 제공받기 위한 제작관리 및 프로그램 검수시스템 활용 정도, ③ 외주제작사의 EBS 교육이념에 대한 이해도 및 제작에서 실행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 운영 정도, ④ 외주사가 제작한 방송물의 EBS목적 부합 정도에 대한 평가 및 확인 시스템 및 활용 정도 등이다.

나) 평가내역

① 외주제작비율의 적정성

2017년도 EBS 지상파TV의 전체제작비는 378억 4천6백만원 규모였고 이 가운데 외주제작비는 131억 8백만원 규모로, 외주제작 비율은 34.6%였다.

<표 2-24> 2017년도 EBS 지상파TV 외주제작 비율 현황

구분	전체제작비	외주제작비	외주제작비 비율
외주 제작비 비율	37,846,352,737	13,108,803,956	34.6%

※ 2017년 1월 1일~2017년 12월 31일까지 방송된 프로그램의 집행액 기준

②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외주제작비율 준수 정도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외주제작비율은 20% 이상이며, 비율 미달 시 5점에서 미달성비율 1%당 1점씩 감점하는 방식이다. <표 2-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7년도 EBS 지상파TV의 외주편성비율은 봄 29.4%, 가을 30.6%로 평균 30%에 달했다.

<표 2-25> 2017년도 EBS 지상파TV 외주편성 비율 현황

구분	2017년 봄	2017년 가을
자체	70.6%	69.4%
외주	29.4%	30.6%

③ 양질의 외주제작 프로그램을 제공받기 위한 시스템 운영의 적정성

외주제작프로그램의 제작관리 및 검수시스템은 양질의 외주제작 프로그램을 제공받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여기에는 역량 있는 외주제작사 선정, 프로그램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내용에 대한 효율적인 제작관리 전략 추진, 내부평가 및 심의 등 양질의 외주제작 프로그램 제공 담보가 가능한 제작관리 및 검수시스템 등이 중심을 이룬다.

EBS는 외주 관리 PD의 제작 노하우와 외주제작사 제작진의 제작능력을 결합하여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한 체계적인 제작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여 시행 중이다. EBS의 외주제작프로그램 제작 관리 및 검수 절차를 위한 업무와 주요

내용은 다음 <표 2-26>에 잘 나타나 있는데, 외주제작사 사전 교육 → 프로그램 공동 세부 기획(내부PD, 외주제작사 제작진) → 편별 세부구성안 공동조정(내부 PD, 외주제작사 제작진) → 제작 진행 사항 조정 → 가편집 관리 및 조정 → 최종 대본 검토 → 완성본 시사 → 종합 시사 순으로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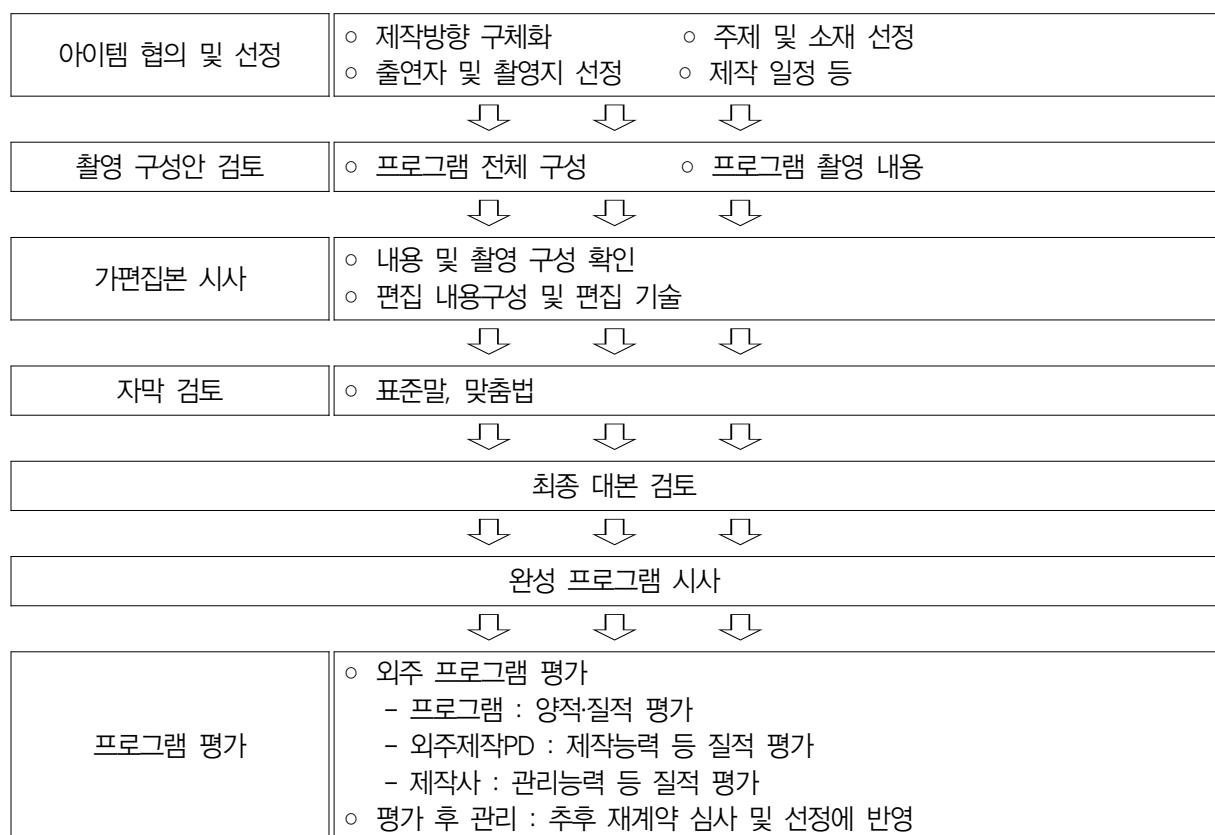
<표 2-26> 외주 제작 프로그램 제작 관리 및 검수 절차

순서	업무	주요내용
1	외주제작사 사전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된 외주제작사의 전 제작진을 대상으로 제작지침, 심의 지침 등 교육 실시 ◦ 교육 내용 : 교육방송 강령, 해당 편성에서의 제작 주안점, 프로그램 제작 가이드라인, 제작 기술 표준사항, 문자 그래픽 관련 제작 표준, 심의 지침 및 사례, 홍보자료 작성 등 홍보 관련 사항 ◦ ‘EBS 외주제작 프로그램 제작 매뉴얼’ 배포
2	프로그램 공동 세부 기획 (내부PD, 외주제작사 제작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프로그램 단위 편별로 매회 세부기획을 공동 진행 ◦ 프로그램 아이템 검토 및 확정, 문제점 점검, 아이템별 강조점 및 강화 방안 세부 조정 등
3	편별 세부구성안 공동조정 (내부PD, 외주제작사 제작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별 아이템을 확정한 후 현지 사전 답사 결과,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세부 촬영 방안, 구체적인 내용 전개, 촬영 외 필요한 구성요소(CG, 영상자료 등)를 공동 설계
4	제작 진행 사항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 구성 확정 후, 제작 진행에 따른 주요 조정 사항 및 인허가 사항 등 처리 ◦ 관계 기관 공문 발송, 촬영 허가 관련 사항 진행(내부 PD의 주관 하에 진행), 내부 스태프들과의 업무 조율(스튜디오 제작 시 회의 주관 등) ◦ 상해 보험등 안전관련 대책 확인, 점검
5	가편집 관리 및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촬영 직후 촬영 내용을 방송 프로그램으로 구성하는 단계에서 편집 구성안 확정 및 편집 진행, 촬영 내용이 부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촬영 진행 여부 등 결정
6	최종 대본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레이션 톤, 프로그램 내용, 자막, 표준어 사용, 성우 결정, 그래픽 내용 등 최종 프로그램 완성에 필요한 사항 결정
7	완성본 시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 완성본을 기획자 및 시청자의 입장에서 시사, 방송 적합성, 기획의도 구현 여부, 완성도 등을 최종 검토함
8	종합 시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성기획 관계자, 방송 기술 관계자, 동료 PD 등이 참여하는 종합시사를 실시하여 다양한 시사 의견을 듣고, 시사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편 수정 또는 다음 기획에 반영함(월 1회 정도 시행)

④ 외주제작사의 EBS 설립목적 및 교육이념에 대한 이해, 제작물 내 반영 정도에 대한 평가시스템의 운영 정도

외주제작프로그램의 기획 및 평가관리 절차와 지침은 EBS 설립목적과 교육이념을 외주제작사가 제대로 이해하고 제작과정에서의 실행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기획 및 평가관리시스템이 중심이 된다. 이러한 과정은 아이템 협의 및 선정 과정부터 시작하여, 촬영 구성안 검토, 가편집본 시사, 자막 검토, 최종대본 검토, 완성 프로그램 시사를 거쳐 프로그램 평가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표 2-27> 외주 제작 프로그램의 기획 및 평가관리 절차



뿐만 아니라 외주 제작 프로그램 평가표에 의한 프로그램 평가 및 평가 결과 누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외주 제작 프로그램의 품질을 제고하고 EBS 채널 정체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 외주 프로그램 평가를 체계적인 시스템에 의해 진행. 평가 결과를 누적 관리하여 외주제작사 선발 및 외주 프로그램 제작관리에 누적된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관리자들의 관리 노하우를 후임자에게 전달하여 프로그램 관리를 점점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평가기준에 의한 점수 합계가 80점 이상이 되어야 제작비가 지급되며, 미달점수가 3회에 이르면 경고가 나가는 시스템이다.

- 평가 기준: 아래의 세 영역을 주된 기준으로 하여 외주제작사 평가 수행
 - (1) 기획 및 내용 관리(내용, 구성의 적절성)(50점) : 프로그램 평가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50점 배정. EBS 채널 정체성에 맞는지에 대한 평가도 함께 수행
 - (2) 흥미 유발도(30점)
 - (3) 제작 능력(영상, 기술)(20점)

<표 2-28> 외주제작 프로그램 평가표

프로그램명		방송일시						
부제								
제작사			제작사 PD					
순서	평가항목 (배점)	표준점수			부여점수			
		A 탁월	B 우수	C 보통	D 미흡	E 불량		
1	기획 및 내용 관리 (내용, 구성의 적절성) (50)	(50)	(44)	(38)	(32)	(26)		
2	흥미 유발도 (30)	(30)	(26)	(22)	(18)	(14)		
3	제작 능력(영상, 기술) (20)	(20)	(17)	(14)	(11)	(8)		
합계								
서술평가								
결과	방송, 방송불가							
							년 월 일	
								(인)

<표 2-29> 외주 제작 프로그램 종합 평가표

프로그램명	제작사	관리자 평가 점수	관리자 평가 환산점수 (A,40%)	시청률점수 (%) (달성시청률/기준시청률)	시청률 환산점수 (B,30%)	심의 점수	심의 환산점수 (C,20%)	종합평가 (D,10%)	기타 (수상, 협찬,주의, 경고) (E,100%)	총점 (A+B+C+D+E)

이 밖에도 외주 제작 프로그램 중간 점검 및 프로그램 질 제고를 위한 워크샵을 개최했다.

- 편성 개편 이후 2~3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신규 프로그램 및 주요 프로그램의

시청자 반응, 시청률 및 내부 평가 등을 토대로 향후 외주 제작프로그램의 완성도 및 질 제고를 위한 중간 점검 실시

- 외주제작사에서 작성한 분석 보고서와 관리 담당 프로듀서의 분석 보고서를 토대로 외주관리 CP의 집중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발전적인 방향 도출

또한 외주 제작비 단가표에 따라 외주제작비를 산정하여 집행했는데, 외주 제작비 단가표는 한국콘텐츠진흥원 단가표에 기반 한 것이다.

<표 2-30> 외주제작비 단가 기준표

(단위 : 천원)

순서	분야	항목	기준	단가	비고
1	원고료		제작비 20% 이내		시장 가격
2	연출료		제작비 20% 이내		
3	출연료		별도 산정		.
4	스튜디오	518㎡(157평)	9시간	3,500	한국콘텐츠 진흥원단가
		142㎡(43평)	9시간	1,500	
5	세트비		별도 산정		.
6	카메라	ENG	9시간미만	297	-방송제작외부용 역규칙및프로그 별별결기준준용 -인건비포함
		6mm	1일	180	
7	조명	교양 조명	9시간미만	126	
8	오디오	동시녹음	9시간미만	190	
9	차량	일반	1일	150	시장 가격
10	편집실	HD	1:1	시간당	30
			종편	시간당	150
		SD	1:1	시간당	18
			종편	시간당	90
11	CG		별도 산정		.
12	녹음실	HD	시간당	100	한국콘텐츠 진흥원단가
		SD	시간당	90	
13	음악.효과		별도 산정		.
14	출장비	숙박비	1박	40	시장 가격
		식비	1식	6	
		차량렌트비	1일	150	
		유류비		별도산정	
15	TAPE		별도산정		.
16	일반관리비		제작비 5% 이내		EBS 회계규정
17	기업이윤		제작비 10% 이내		

가. 기준 9시간은 09:00~18:00시간대로 점심시간 1시간을 포함한다.

나. 상기 기준표상 단가는 EBS가 사용하는 용역단가 및 한국콘텐츠진흥원 시설사용 기준단가로 외주제작사의 사용환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3) 프로그램의 내부 평가 및 심의의 적정성

가) 평가기준

이 평가항목은 ① 프로그램 내부평가제도의 운영 현황, ② 프로그램 내부심의 제도의 운영 현황을 기준으로 프로그램의 내부 평가 및 심의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나) 평가사항

① 프로그램 내부평가제도의 운영 현황 및 결과

EBS는 프로그램 내부 평가 및 심의 제도로 「프로그램 심의」 및 「시청자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심의는 EBS 지상파 1TV, 지상파 2TV, 지상파 라디오, EBSU 채널(4개 채널) 콘텐츠를 심의위원 심의 또는 제작부서 부장 또는 CP에게 위임하는 부서위임심의로 나눠서 심의하고 있다.

프로그램 내부평가제도의 운영을 평가하기 위한 기본자료는 2017년 프로그램 모니터링 건수로서,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 산출식(%)

$$\left(\frac{\text{실적(당해년도)} - \text{최저목표(직전3개년도 실적의 평균} \times 60\%}{\text{최고목표(직전3개년도 실적의 평균} \times 105\% - \text{최저목표(직전3개년도 실적의 평균} \times 60\%} \right) \times 100$$

2017년 모니터링 건수는 5,774건으로, 이는 최근 3년 모니터링 평균 건수 3,461건보다 훨씬 많은 것이다. 2014년 아래 모니터링 건수는 감소 추세였으나 2017년 들어 급격히 증가했고, 이를 바탕으로 237%의 지수가 도출되었다.

<표 2-31> 최근 3년 모니터링 건수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소 계
건수	4,275건	3,168건	2,941건	10,384건(평균 3,461건)

- 산출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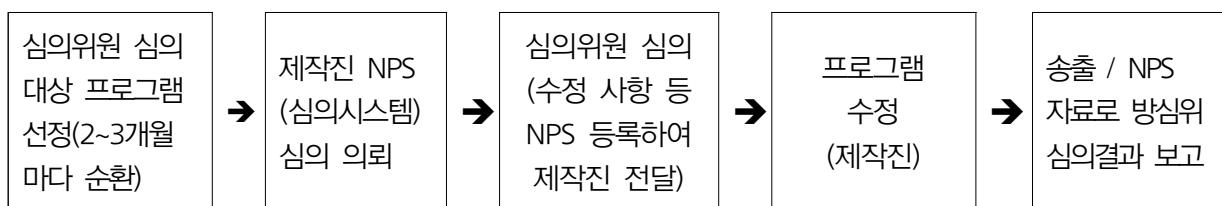
$$\frac{5,774 - 2,076 = 3,698}{3,634 - 2,076 = 1,558} *100 = 237\%$$

※ 2016년 3월부터 기존 '전문모니터 요원제(13명~20명)'에서 '자원봉사형 시청자모니터단(100명 내외)'으로 변경하여 운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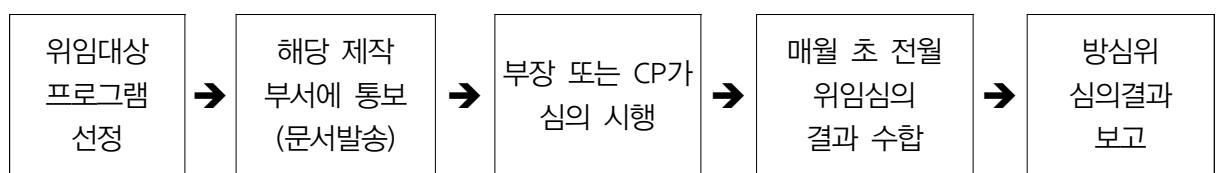
② 프로그램 내부심의제도의 운영 현황 및 결과

내부심의제도는 프로그램의 품질을 관리하는 기본적인 절차인 동시에 자율규제 기구적 성격을 갖고 있는 제도로서 방송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심의 위원 구성 현황을 보면, 방송제작 경력 25년 이상 부장 이상급 7명이 심의위원으로 각자 담당부서의 프로그램들을 맡아 심의했다. 내부심의제도는 심의위원 심의와 부서 위임 심의 등으로 나뉘는데, 그 프로세스는 각각 다음과 같다.

○ 심의위원 심의 프로세스



○ 부서 위임 심의 프로세스



이들이 행한 심의를 채널별로 정리해보면, 다음 <표 2-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심의대상편수 35,459편 가운데 7%인 2,381편을 담당했고 위임심의편수는 33,078편으로 93%였다. 심의대상 2,381편 가운데 자막수정, 간접광고, 내용오류, 기타 등의 수정조치가 이루어진 경우는 1,798건이었고, 수정조치 유형별로는 자막수정이 가장 많았다.

<표 2-32> 2017년도 채널별 심의 실적

채널명	1TV	라디오	2TV	EBSU	합계(비율)
심의대상 편수 (재활용 포함)	9,056편	8,933편	10,380편	7,090편	35,459편 (100%)
심의위원 심의 편수	2,067편	-	314편	-	2,381편
위임심의 편수	6,989편	8,933편	10,066편	7,090편	33,078편(93%)

<표 2-33> 2017년도 채널별 심의 실적

구분	총편수	심의위원 심의편수	지적 건수		수정 조치 건수
1월	3,055편	187편	자막수정	83건	137건
			간접광고	12건	
			내용오류	15건	
			기타	27건	
2월	2,699편	166편	자막수정	83건	117건
			간접광고	10건	
			내용오류	11건	
			기타	13건	
3월	2,851편	176편	자막수정	84건	136건
			간접광고	12건	
			내용오류	19건	
			기타	21건	
4월	2,786편	193편	자막수정	80건	147건
			간접광고	20건	
			내용오류	27건	
			기타	20건	
5월	3,054편	240편	자막수정	82건	146건
			간접광고	23건	
			내용오류	23건	
			기타	18건	
6월	2,935편	196편	자막수정	85건	142건
			간접광고	24건	
			내용오류	9건	
			기타	24건	
7월	2,945편	221편	자막수정	75건	147건
			간접광고	23건	
			내용오류	23건	
			기타	26건	
8월	3,068편	218편	자막수정	86건	156건
			간접광고	13건	
			내용오류	20건	
			기타	37건	

2017사업연도 EBS 경영평가 보고서

구분	총편수	심의위원 심의편수	지적 건수		수정 조치 건수
9월	2,942편	191편	자막수정	87건	147건
			간접광고	11건	
			내용오류	25건	
			기타	24건	
10월	3,049편	178편	자막수정	84건	149건
			간접광고	22건	
			내용오류	22건	
			기타	21건	
11월	3,049편	204편	자막수정	107건	193건
			간접광고	28건	
			내용오류	31건	
			기타	27건	
12월	3,026편	211편	자막수정	105건	181건
			간접광고	29건	
			내용오류	36건	
			기타	11건	
계	35,459편	2,381편	계		1,798건

평가결과 및 제언

먼저 제작예산 관리 및 집행의 효율성과 관련하여, 작년 평가결과 콘텐츠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단위당 투입요소(예산, 인력, 기간)이 점점 증가하는 반면 실질적 제작 여건의 확보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결과가 도출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 확보 등 여건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수립했다.

따라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1TV의 제작비 집행률을 99.88%로 운영했고 콘텐츠 제작에 대한 투자총액 및 제작투자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상승했다. 2TV 방송통신발전기금이 2016년 20억원에서 2017년 50억원으로 증액된 덕분에 제작 투자총액 역시 약 37.5억 증가하여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집행되었지만, 방송통신발전기금의 확대로 제작 투자비율과 투자총액은 예년에 비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경쟁이 점차 심화됨에 따라 단위당 투입요소(예산, 인력, 기간)가 증가하는 비율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콘텐츠 경쟁력 제고 등의 편성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한된 투입 요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다양한 측면의 제작여건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인력, 예산, 기간 등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편성전략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콘텐츠 경쟁력 상승은 곧 EBS의 공적 위상 및 시청자 만족도 제고로 이어지고 이는 공적자금 등의 제작비 증액을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 되는 만큼, 선택과 집중을 바탕으로 한 편성 및 제작 운영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EBS 2TV의 창의·융합 교육 및 교육격차 해소라는 채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더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대내외적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외주제작정책 및 제도의 적정성을 살펴본 결과, 전년 대비 집중 관리 주요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프로듀싱을 강화하려는 조치를 취했고, 외주제작 안전 강화를 위한 상해보험 및 여행자 보험가입을 의무화했으며, SNS, 모바일 등을 이용한 프로

그램 홍보를 강화하고 N 스크린 서비스를 확대했다.

각 프로그램 부제별로 프로그램 품질, 시청자 소구도, 기술적 완성도에 관한 평가표를 작성하고 이를 전산으로 입력하여 누적 데이터로 관리하여 심사자료로 활용하는 등 외주 제작 프로그램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작관리 및 검수의 시스템화를 추진한 것은 보다 면밀한 차원의 개선이라 할 것이다. 또한, 외주제작사들이 EBS 정체성을 공유하고 방송 제작에 필수적인 기준을 습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외주 프로그램 제작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여 외주 프로그램 제작 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외주제작사를 대상으로 EBS 방송 정체성 및 제작 지침 등 제작 수칙에 대한 사전 교육(연 2회: 봄, 가을 편성 개편 및 조정 시)을 프로그램별로 실시하고 심의결과를 공유함으로써 평생교육채널로서의 EBS 정체성을 구현하려는 노력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평가항목 간 점수 차이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토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EBS 대표 프로그램인 <세계테마기행> 등 집중 전략 프로그램은 더욱 업그레이드하여 시청자들에 대한 소구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다른 방송사에서 유사한 프로그램들을 다수 방송하는 상황에서 교육방송으로서의 정체성과 공익성을 보다 잘 구현할 수 있는 장소와 출연자, 내용 등에 각별히 신경 쓸 필요가 있다.

특히 아프리카 촬영에서 외주제작 PD 2명의 비극적 사망 사고가 난 만큼 외주제작관리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적인 사항은 적극적이고 현실적으로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 2017년 하반기부터 해외출장 프로그램 등에 여행자 보험 및 상해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EBS가 제작비에 추가지급하고 있는 등 제도 개선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다큐프라임>과 같은 장기 제작 프로그램과 <극한직업> 등 제작 위험도가 높은 프로그램의 제작 안정화를 위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동안 외주제작사 및 독립 제작자들이 제작비 등 제작 환경의 어려움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한 호소와 문제 제기를 단지 외주제작 생태계 전반의 문제로 돌리지 말고 보다 적극적인 차원에서 상생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EBS는 제작비 지원 기준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 단가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 단가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각 프로그램의 특성과 제작현실을 고려하여

부합 여부를 잘 살피고 현실적인 제작비 지원을 하도록 해야 한다. 외주제작에서 불공정한 계약이나 불리한 조건의 여지가 없도록 선도적으로 개선에 나섬으로써 EBS라는 공영방송사의 전향적 방안 마련이 한국 방송산업 전반에 좋은 선례와 모범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개정된 상생협력방안을 적극 적용하고 실천하여 외주제작사와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CP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외주제작사와의 진정한 파트너십을 맺으려는 인식의 전환 및 제도의 정착을 위한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내부심의 및 평가제도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EBS1TV, EBS2TV, EBSFM, EBSU 4개 채널의 심의대상인 총 35,459편의 심의결과를 월 단위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2017년 심의위원 심의는 신규 프로그램, 주요프로그램 위주로 총 2,381편(7%)을 심의했으며 그 중 자막, 간접광고, 오류 등으로 1,798건의 수정을 완료했다. 2016년 하반기에 NPS(심의시스템) 전면 전산화 시범운영을 시행했고,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NPS(심의시스템) 전면 전산화 운영함으로써 심의 관리 업무의 정확도 및 효율성을 제고했다.

그러나 심의를 계속함에도 불구하고 수정조치 건수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이유에 대한 고민과 이를 개선할 방안 마련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자막수정은 물론 내용오류는 방송프로그램에서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기본적인 사항이므로, 담당인원에 대한 교육 등 근본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내부심의가 프로그램의 사소한 오류를 바로잡는 데에 급급하지 말고 보다 전반적이고 근본적인 프로그램 품질 향상에 기여하는 제도가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시청자의 니즈를 반영하기 위한 「시청자모니터단」 운영은 수요자 중심의 콘텐츠 제작에 기여하고 있으며, 2017년 총 5,774건의 모니터링 결과가 제작진에 전달되었다. 「시청자모니터단」은 2016년부터 3월부터 성인 시청자로 구성된 시청자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요자 중심의 콘텐츠 제작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수요자 중심의 콘텐츠 제작을 위한 「시청자모니터단」이 성인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보니, 교육 프로그램의 실수요자인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지 않다. 이에, 모니터링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학생들의 참여 역시 고려가 필요하다.

라. 시청자 서비스

평가내용

1) 시청자 의견 수렴 및 반영 시스템의 적정성

가) 평가기준

어느 방송사나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교육방송에서 시청자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대단히 중요한 기준이자 나아가 방송사 존재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그런 만큼 시청자에 대한 서비스는 방송사의 기본적인 책무이며, 프로그램 향상을 위한 시청자 의견 수렴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여기서는 ① 시청자 의견 수렴 시스템의 적정성, ② 시청자 의견 반영 및 피드백 현황과 성과 등을 중심으로 시청자 의견 수렴 및 반영 시스템의 적정성을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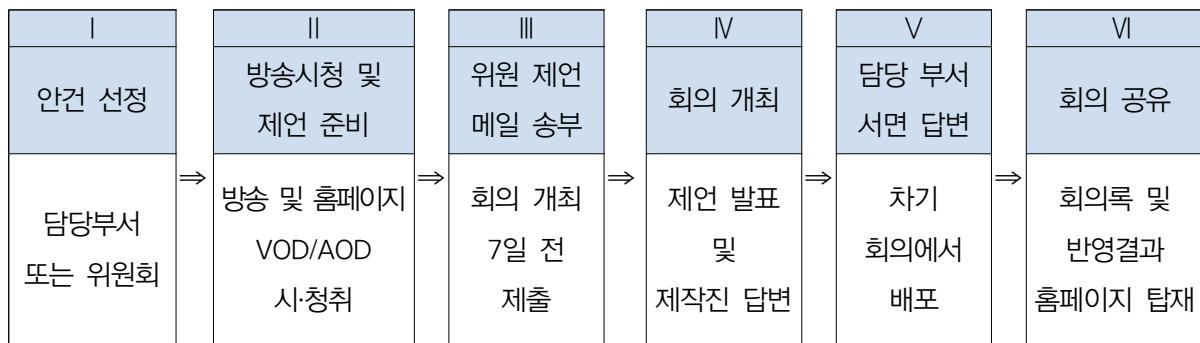
나) 평가사항

① 시청자 의견 수렴 시스템의 적정성 및 운영 정도

EBS는 교육방송이라는 특성상 시청자 의견 수렴은 학교(교육현장), 시청자위원회, 청소년시청자위원회, 고객센터, 외부기관(시청자고충민원시스템 등)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EBS는 시청자 의견 수렴을 위하여 「시청자위원회」, 「청소년시청자위원회」, 「교사시청자위원회」,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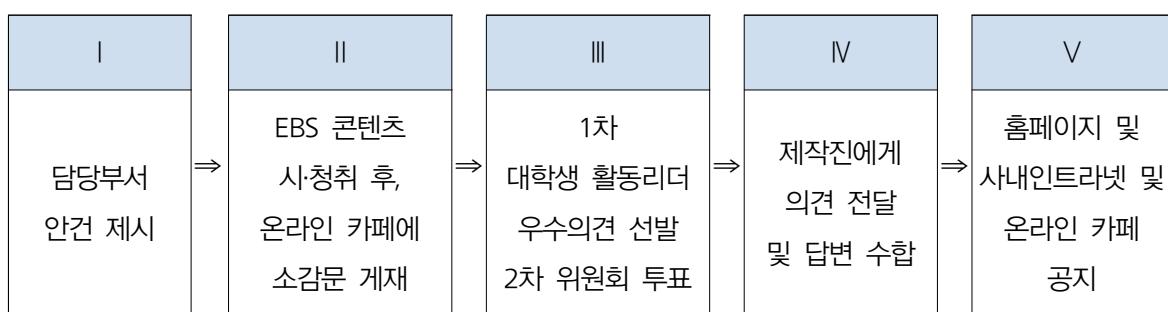
시청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시청자위원회이다. 시청자위원회는 방송법 상(방송법 제87조) 설치 의무는 없으나, 시청자들의 의견 수렴 및 권익보호를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위원 8인 등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전) 기업 대표와 변호사 각 1인을 제외하면 전원이 교수 혹은 교사 등 교육 전문가들이다. 시청자위원회는 매월 프로그램을 분야 별로 선정하여 월 1회 회의를 개최하고, 임원진, 제작 관련 부서장, 담당 부장과 PD가 회의에 참석하여 위원회의 제언을 청취하고 반영하고 있다. 시청자위원회의 의견 수렴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표 2-34> 시청자위원회 의견 수렴 시스템



청소년시청자위원회는 여타 방송사와 달리 EBS만의 설립 목적과 취지를 잘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017년 4월부터 1년 임기로 활동하고 있는 6기 청소년시청자위원회는 모두 52명으로, 중학생 22명, 고등학생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학생 활동리더 5명이 함께 활동하고 있다. 이들의 의견 수렴 시스템은 시청자위원회보다 비교적 단순한데, 온라인카페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이들의 우수 소감문은 사내 인트라넷과 홈페이지, 온라인 카페에 게시하여 전 직원 및 시청자들과 그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청소년시청자위원회 정기회의에서 합동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위원들의 의견수렴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표 2-35> 청소년시청자위원회 의견 수렴 시스템



교사시청자위원회는 학교교육 현장의 요구를 파악하여 수능사업과 교육콘텐츠의 개선 방향 모색을 위한 것으로, 2017년 총 4회 회의를 개최하여 교사 입장에서의 EBS 콘텐츠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표 2-36> 2017년 교사시청자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

구분	일시	안건
1차	2017. 4. 7.(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지원센터 페이지 리뉴얼(3.15)에 따른 사용자 개선 의견 ‘입시맘’ 대입 정보 앱 이용 후 콘텐츠 및 서비스 보강 의견 학생부종합전형 확대에 따른 내신 콘텐츠 모니터링 의견
2차	2017. 7. 7.(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별 교재 및 강의 콘텐츠 보강 의견 EBS 수능강의 콘텐츠 및 서비스 홍보 방안
3차	2017.10.13.(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5 개정 교육과정 대비 EBS 콘텐츠에 대한 발전적 제언 2018년 EBS 콘텐츠 기획에 필요한 의견 수렴
4차	2017.12.15.(금)~ 2017.12.16.(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8 EBS 고교강의 사업 개요 및 2017 EBS 수능강의 성과 실적 내신 대비를 위한 EBS 강의사업 개선 제언 2018년 EBS 교사지원센터 지원 안내 기타 고교강의 발전 방향 모색 등 종합 토의

이 밖에도 전화와 게시판, 1:1 메일상담, 원격지원, SNS 등을 활용한 고객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고객센터 역시 문의가 접수되면 관리자와 담당부서에 내용을 전달하고 답변 처리가 완료된 후에도 답변처리 공유 및 입력 등 사후관리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모바일 원격 서비스 도입으로 상담 시간이 건당 평균 30분에서 10분으로 대폭 단축되었다.

② 시청자 의견 반영의 정도

시청자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구가 존재한다면 그 기구를 통해 어떤 의견을 얼마나 들었는지, 또 그런 의견들을 얼마나 어떻게 반영했는지는 실제 운영의 효율성을 점검할 수 있는 관건이 된다. 2017년 시청자위원회 제언 및 반영 현황을 보면 217건이 제언되어 212건이 반영되어 97.7%의 반영률을 보였으며, 시청자 위원회의 제언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표 2-37> 2017년 시청자위원회 제언 및 반영 현황

구분	개최일	안건 프로그램명	제언 건수	반영 건수
1월	1. 20.	위촉식 및 EBS 콘텐츠 총평	6건	6건
2월	2. 17.	청소년 직업 관련 프로그램 등에 대한 발전적 제언 - <당동댕유치원>, <대도서관잡소>, <다큐프라임-긴팔인간> 중심으로	21건	20건

구분	개최일	안건 프로그램명	제언 건수	반영 건수
3월	3. 31.	유아 영어 콘텐츠 등에 대한 발전적 제언 - <세계문학기행>, <금쪽같은 내 새끼랑>, <Magic Ice Cream Truck> 중심으로	22건	21건
4월	4. 28.	초등 <u>소프트웨어</u> 콘텐츠 등에 대한 발전적 제언 - <동요구출대작전>, <스피드어휘 초등(1)>, <미스터리 식당Q>, 헬로! EBS 소프트웨어 엔트리>, <다큐 시선> 중심으로	21건	20건
5월	5. 26.	메디컬 다큐 프로그램 등에 대한 발전적 제언 - <방귀대장 뽕뽕이>, <청소년 프로젝트 경청>, <메디컬 다큐 7요일> 중심으로	13건	13건
6월	6. 30.	과학 다큐멘터리 등에 대한 발전적 제언 - <토닥토닥 마음 아>, <과학 다큐 비욘드>, <엄마를 찾지마> 중심으로	25건	24건
7월	7. 28.	EBS 라디오 콘텐츠에 대한 발전적 제언 - <잉글리시 클리닉>, <주말의 문화>, <이지연의 3삼5오> 중심으로	22건	22건
8월	8. 25.	액티브 시니어 프로그램 등에 대한 발전적 제언 - <모여라 딩동댕>, <이것이 야생이다>, <성난 물고기> 중심으로	22건	22건
9월	9. 22.	창의융합 콘텐츠 등에 대한 발전적 제언 - <공부의 왕도>, <사이언스타Q>, <수상한 철학관> 중심으로	24건	24건
10월	10. 27.	강연 관련 프로그램 등에 대한 발전적 제언 - <삐뽀 삐뽀! 우리몸 X 파일>, <장학퀴즈 - 학교에 가다>, <미래강연 Q> 중심으로	21건	20건
11월	11. 24.	다문화 가족 관련 프로그램 등에 대한 발전적 제언 - <과학땡Q>, <왕초보 영어>,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중심으로	12건	12건
12월	12. 22.	EBS 콘텐츠 및 편성에 대한 전체적인 제언	8건	8건
합계			209건	204건

청소년시청자위원회의 의견 접수는 그보다 훨씬 많아서 교과·학습 및 교양다큐 프로그램/ 신규 프로그램 등에 대해 782건이나 되었지만 의견이 반영된 우수 소감문은 57건으로 반영비율은 한 자리수인 7.3%에 그쳤다.

<표 2-38> 2017년 청소년시청자위원회 의견 수렴 현황

구분	안건 프로그램명	접수건수	우수소감문 (의견반영)
1월	한성현의 달콤한 지구과학!, 정희부즈-학교에 기다 똑똑! 우리 몸 X 파일 외	92건	5건
2월	고1,2 국/수/영기초개념올림포스, 놀이 대장을 찾아라 봉구야 밀해줘 2 외	87건	5건

2017사업연도 EBS 경영평가 보고서

구분	안건 프로그램명	접수건수	우수소감문 (의견반영)
3월	청소년시청자위원회 5기 임기를 마치며' 후기 작성	30건	-
4월	TV 중학 - 국어, 수학, 사회, 과학, 금쪽같은 내 새끼랑 공부하기 좋은 날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시즌2 외	75건	5건
5월	스피드 어휘 중학, 등업 신공 과학, 지시채널 e 외	78건	6건
6월	고1,2를 위한 기출의 미래-김민재의 수학II, 불멸의 진시황, 한국기행, 대도서관 잡초 외	72건	6건
7월	더 중학 영어 3학년, 2017학년도 고2 9월 학력평가 국어, 2018 수능완성-강봉균의 한국지리, EBS 초대석, 공부의 왕도, 과학비큐 비욘드 외	55건	4건
8월	자식 english, 365 English Diary, 중학 필수 영단어, 2018 수능완성-이하영의 꿈꾸는 수학, 메디컬 다큐 7요일 엄마를 찾지마 외	67건	5건
9월	중학 예비과정 과학, 달그락 달그락 교과서 실험실 극한직업 병귀대장 뽕뽕이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뉴탐스런 화학, 수능 국어어휘 외	57건	6건
10월	Action Verbs, I LOVE 카툰영어 미리 온 통일세대를 위한 영어, TV 중학 과학, TV 중학 영어 2, 스쿨랜드, 만점왕 사회, 올림포스-수학II 개념완성 외	61건	4건
11월	스피드 어휘 중학 M포스 수학2, 역사가 술술 필독 중학 국어 - 소설 문장을 여는 10분 영문법 최종점검 김종의의 생활윤리 입시 핫리인 외	59건	5건
12월	나의 첫 번째 영어쓰기 노트, 왕초보 중학영어 독해 Actual English, 매일10분 영어 필독 중학 사회, 아주 쉬운 미적분 개념완성 동아시아 외	49건	6건
합 계			782건
			57건

EBS 고객센터를 통해서는 총 232,034건에 이르는 많은 문의와 의견이 접수되었는데, 전화를 통한 문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전화 외에도 게시판, 이메일, SNS 등을 통하여 시청자 의견을 수렴하여 각 부서에 전달했고, 그 중 92.7%(215,182 건)의 의견을 반영했다.

<표 2-39> 2017년도 고객센터 접수 및 처리 내역

구 분	전화	1:1문의	이메일	SNS	소 계
접수건	195,131	25,041	3,301	8,561	232,034
처리건	177,708	25,612	3,301	8,561	215,182
응대율(%)	(91.1%)	(102.3%)	(100.0%)	(100.0%)	(92.7%)

주) 1:1문의 및 이메일상담은 기준일 이전 상담처리 건수가 반영됨.

2)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편성비율의 적정성

가) 평가기준

시청자들의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시청자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시청자참여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을 짚어봄으로써 시청자 서비스의 한 면을 살펴볼 수 있다.

나) 평가사항

①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편성비율 운영 정도

EBS는 2017년도에 EBS 1TV 연간 편성시간의 16.4%, 2TV 10.6%, FM 라디오의 24.8%를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2016년의 지상파 TV 14.1%, FM 라디오 21.3%보다 증가한 수치이다.

먼저, EBS 1TV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편성 현황을 보면 연간 33,130분(신규 제작 본방 기준)에 이른다. 대표적인 시청자참여 프로그램으로는 〈생방송 톡! 톡! 보니 하니〉, 〈EBS 스페이스 공감〉, 〈생방송 EBS 교육대토론〉 등 시청자가 방청객으로 간접 참여하는 형태의 프로그램과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나눔 0700〉 등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 등이 있다.

EBS 2TV의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편성 현황을 보면 연간 44,685분으로 10.6%인데, 〈성인 문해교육 프로젝트-공부하기 좋은 날〉과 〈부모-위대한 엄마 열전〉이 전체의 2/3를 차지했다. 그밖에 2,000분 이상의 시청자 참여가 가능했던 프로그램으로는 〈EBS 新교실혁신 프로젝트-자유학기제를 말하다〉, 〈자유학기제-내 인생의 직업〉, 〈EBS 교육 대토론〉, 〈공부의 왕도〉 등이 있다.

EBS FM의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은 연간 121,800분 편성되었다. 라디오의 특성 상 1/4 가까운 시간이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으로 편성된 것인데,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EBS 북 카페〉, 〈영어! 할 수 있다 Can Can Can〉, 〈English Go Go!〉, 〈모닝스페셜〉, 〈니하오 차이나〉 등 어학학습프로그램 등이었다.

평가결과 및 제언

시청자 의견 수렴 및 반영과 관련하여, 우선 EBS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시청자위원회와 교사, 청소년 등의 별도 시청자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시청자층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시청자위원회 구성의 다양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NGO, 시청자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교육 및 사회 각 분야의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나 실제로는 교수와 교사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평생교육과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EBS의 정체성을 지나치게 학교 학습 위주로 축소, 인지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현재까지 「EBS 고객센터」에서 처리되고 있는 시청자의 문의 처리 비중은 전화응대(84.0%)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시대적 흐름에 맞는 고객채널에 대한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되어야 할 시점이라 하겠다. 장기적으로 전화를 통한 의견 접수보다 SNS나 원격지원 방식을 늘려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2017년 11월부터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모바일 원격서비스를 도입하여 시청자의 편의를 향상시키려 노력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 이러한 방식이 제대로 자리 잡고 활용되기 위해서는 제도의 도입에 그치지 말고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청소년층이나 청장년층이 즐겨 사용하는 SNS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그 방식도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시청자위원회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면 반영되지 않은 의견, 즉 우수소감문으로 채택되지 않은 소감문에 대해서도 충분한 이유와 설명이 제공되어야 하며, 그것 또한 사후관리의 중요한 일부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시청자참여프로그램 비율의 적정성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EBS의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에 더해 〈엄마를 찾지마〉, 〈아! 일요일-기적의 달리기〉, 〈EBS 창사특별기획-최종면접〉 등을 통해 일반 시청자들의 사연과 도전을 담아 시청자들이 주인공이 되는 프로그램들을 다수 기획·제작했다.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의 비율 또한 지상파 TV 16.4%, FM 라디오 24.8%로 전년대비 각각 16.3%, 16.4% 포인트 증가했다.

그러나, 시청자들의 매체 이용 행태 변화에 따라 모바일, 웹, IPTV VOD 등 다양한 플랫폼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고 시청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MCN 방송, 실시간 라이브 방송 등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매체 환경 속에서 시청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의 포맷과 내용이 어떤 것인지 고민하고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존의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을 보다 발전시킨 새로운 포맷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시청자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콘텐츠의 주변이 아닌 중심으로 활약할 수 있는 형태의 신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기존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지속적인 제작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실험’을 담아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더 많은 시청자들이 콘텐츠의 주체로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또 다른 의미의 ‘시청자 참여’라고 할 수 있는 시청자제작프로그램을 방송함으로써 EBS의 다양성과 실험성을 보완하고 포맷의 다각화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TV뿐만 아니라 인터넷, 모바일 플랫폼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크로스 플랫폼형 콘텐츠 개발이 시급하다. 현재 AR, VR 등의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의 내용과 포맷에 접목시키고 ‘체험할 수 있는’ 형태의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시청자와의 소통을 보다 강화하여 모바일과 웹, SNS 등을 통해 즉각적으로 시청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프로그램 제작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시청자위원회의 의견수렴방식을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이 특정분야 프로그램에 대해 소감문을 받아 우수소감문을 선정하는 방식 외에 일반적인 모니터링과 의견을 접수하고 반영하는 절차나 기구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제언 반영비율을 100%로 올리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한 주목, 관리도 있어야 한다.

FM 라디오의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이 어학 학습 프로그램 위주인데, 프로그램의 포맷뿐 아니라 내용을 보다 다양화하려는 노력과 함께 프로그램의 창의성을 살리기 위한 실험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마. 방송성과

평가내용

1) 프로그램의 완성도 제고

가) 평가기준

EBS 방송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완성도 평가가 필수적이다. ① 기존 프로그램의 완성도 제고를 위한 노력 정도, ② 신규 프로그램 기획 및 제작의 참신성과 실험성 정도, ③ EPEI와 CI 정도, ④ 프로그램의 품질 및 공익성이 인정되는 공신력 있는 국내·외 기관의 수상 실적 등을 기준으로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고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살펴본다.

나) 평가사항

① 기존 프로그램 완성 제고를 위한 노력 및 결과

기존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제고하기 위해 EBS는 사전기획·제작 프로그램과 시즌제 프로그램을 확대했다. 우선, 한국 방송 최초로 대형 다큐를 매주 3회 방송하고 있는 교육 기획 다큐멘터리 <EBS 다큐프라임>은 2017년 제작방송분 전편 모두 6개 월부터 1년 이상의 사전 기획·제작 과정을 거쳐 방송되고 있다. 2017년에도 총 64편(본방 기준)에 해당되는 전 아이템을 사전 기획 과정을 통해 완성도를 제고함으로써 고품격 다큐멘터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시청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던 프로그램인 <이것이 야생이다>, <최종면접> 등의 프로그램을 시즌제로 제작하여 충분한 사전 기획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시즌제 프로그램의 도입을 통해 보다 차별화된 내용과 포맷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개별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사전 기획·제작 프로그램들은 2017년에도 높은 수상 실적(총 23건)을 달성했고(2012년 38건, 2013년 41건, 2014년 27건, 2015년 38건, 2016년 32건),

2017년 EBS 전체 프로그램 수상 건수(41건)의 56%에 해당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표 2-40> 2017년 주요 사전기획·제작 프로그램 내역(신규 제작 본방 기준)

프로그램명	편수	방송일시	투입 제작비(천원)
절망을 이기는 철학: 제자백가	6부작	1.2~1.11	522,029
생선의 종말	3부작	1.23~1.25	141,000
긴팔인간	2부작	2.6~2.7	186,989
2017 시대탐구 청년	4부작	2.27~3.7	309,999
글로벌 인재전쟁	5부작	3.13~3.21	250,000
달의 기적	2부작	3.27~3.28	143,333
먼지	3부작	4.3~4.5	249,828
대통령은 누구인가	2부작	5.1~5.2	218,182
불멸의 진시황	2부작	5.15~5.16	355,967
대학 입시의 진실	6부작	5.22~5.31	576,000
행복한 주거	3부작	6.19~6.21	300,329
가축	4부작	6.26~7.4	452,000
생명의 해류 2000km	2부작	7.10~7.11	140,420
100세 쇼크	3부작	7.24~7.26	141,099
독버섯 죽음에 이르는 유혹	1부작	8.2	15,000
생명의 전략 번식	3부작	8.28~8.30	359,991
4차 산업혁명시대 교육대혁명	3부작	9.18~9.20	180,000
철학하라	5부작	9.25~10.3	420,000
꿈, 떠나다	1부작	11.27	20,000
4차 산업혁명, 교육 패러다임의 대전환	2부작	12.11~12.12	212,461
미래人교육	2부작	12.18~12.19	250,000

<표 2-41> 2017년 주요 시즌제 프로그램 내역

프로그램명	편수	방송일시	투입 제작비(천원)
이것이 야생이다	12부작	4.30~7.16	743,482
이것이 야생이다 2 - 시련의 계절	12부작	12.3~2.18(2018년)	600,000
EBS 창사특별기획-최종면접	4부작	6.28~7.22	160,000
최종면접 시즌2	5부작	11.18~12.2	200,000

② 신규 프로그램의 참신성, 실험성 및 제작 횟수

기존 프로그램의 완성도 제고 노력뿐 아니라 참신하고 실험정신이 담긴 신규 프로그램도 매우 중요하다. EBS는 기흔 여성들의 고민을 인문학적 성찰로 풀어내는 〈아줌마 고민 상담소-수상한 철학관〉, 시니어 세대들의 열정적인 도전을 그려낸 〈불량시니어클럽〉,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물건들로 새로운 장난감을 만들어보는 〈또또랑 보물창고〉, 아빠와 자녀의 소통 과정을 담아낸 〈아빠타〉, 어린이 MCN 스타들의 좌충우돌 체험기 〈우리끼리 비밀기지〉, 회사의 보스가 된 어린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리틀 보스〉 등의 신규 파일럿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선보였다.

<표 2-42> 2017년 주요 파일럿 프로그램 내역(본방기준)

프로그램명	편수	방송일시	투입 제작비(천원)
아줌마 고민 상담소 - 수상한 철학관	4편	8.31~9.21 매주(목)	100,000
불량시니어클럽	4편	10.26~11.22 매주(목)	100,000
또또랑 보물창고	4편	9.28~10.6 매주(수, 목)	34,000
아빠타	4편	9.1~9.22 매주(금)	80,000
우리끼리 비밀기지	4편	9.25~10.29 매주(금)	80,000
리틀 보스	4편	10.30~11.26 매주(금)	80,000

③ EPEI와 CI 신장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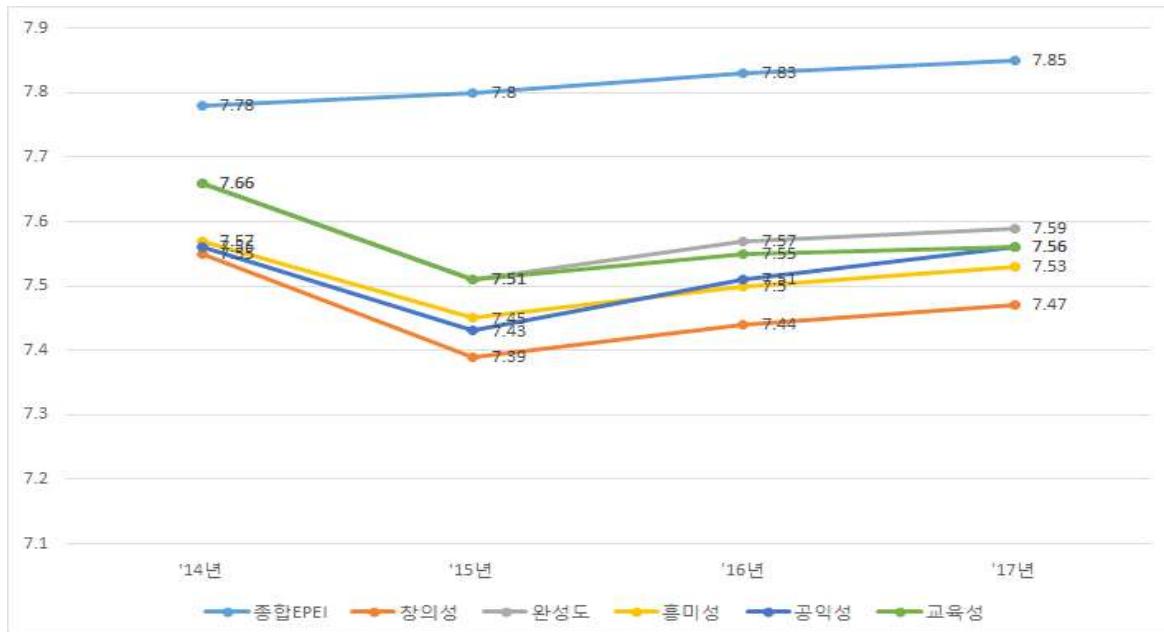
EPEI는 프로그램의 창의성, 완성도, 흥미성, 공익성, 교육성 등을 기준으로 시청자들의 프로그램 만족도를 온라인 조사로 측정하여 산출하는 지수로서, EBS와 한국방송학회가 공동으로 개발하여 적용해 오고 있다. 2017 종합 EPEI 평가지수는 10점 만점에 7.85으로 전년 대비 0.02점 상승했고, 모든 속성별 점수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으며, 공익성 점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수 변화를 2014년부터 살펴보면, 종합EPEI를 비롯한 창의성, 완성도, 흥미성, 공익성, 교육성 등의 점수가 2015년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한 후 2016년부터 미세하나마 상승 혹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7년도 EPEI지수는 2016년과 비교해서는 대부분 점수가 상승했지만, 2014년과 비교해 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점수가 하락한 상태이다.

<표 2-43> 2014년~2017년 EPEI 지수 추이

(단위 : 점)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종합EPEI	7.78	7.80	7.83	7.85
창의성	7.55	7.39	7.44	7.47
완성도	7.66	7.51	7.57	7.59
흥미성	7.57	7.45	7.50	7.53
공익성	7.56	7.43	7.51	7.56
교육성	7.66	7.51	7.55	7.56



<그림 2-1> 2014년~2017년 EPEI 지수 추이

한편, CI지수는 EBS의 시청층과 프로그램 특성을 고려한 평가기준인데, 2017년 종합 CI 지수는 10점 만점에 6.54점으로 전년 7.18점 대비 0.64점이 하락했다. 아동과 부모 모두에서 다소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인 것이다. 그러나 채널 평가에서 EBS는 5점 만점에 교육성 4.25점, 유익성 4.28점으로 조사대상 채널 가운데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표 2-44> 2014년~2017년 CI 지수 추이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아동	부모	평균									
전체 CI	7.01	7.21	7.09	6.96	7.34	7.15	6.85	7.51	7.18	6.00	7.07	6.54
내용	6.96	7.15	7.04	6.84	7.40	7.12	6.74	7.52	7.13	5.96	7.06	6.51
기획/제작	6.98	7.31	7.14	7.02	7.48	7.25	6.89	7.64	7.27	6.08	7.19	6.63
기여도	7.03	7.17	7.10	7.02	7.28	7.15	6.93	7.37	7.15	5.96	6.98	6.46
채널 평가	교육성	EBS 4.23, 재능 3.33, 대교 3.27(5점 척도)			EBS 4.32, 재능 3.38, 대교 3.29(5점 척도)			EBS 4.40, 재능 3.31, 대교 3.26(5점 척도)			EBS 4.25, 재능 3.57, 대교 3.52(5점 척도)	
	유익성	EBS 4.23, 재능 3.33, 대교 3.29(5점 척도)			EBS 4.33, 재능 3.29, 대교 3.32(5점 척도)			EBS 4.39, 재능 3.29, 대교 3.24(5점 척도)			EBS 4.28, 재능 3.56, 대교 3.52(5점 척도)	

④ 프로그램의 국내·외 평가 정도

수상 실적은 방송 프로그램이 국내외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인정받은 결과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평가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 2017년 EBS의 국내·외 수상 건수는 총 45건이었는데, 2014년 46건, 2015년 48건, 2016년 46건의 평균 46.5건에 비교해 81%의 수상 실적에 그쳤다.

<표 2-45> 2017년 EBS 국내외 수상 실적

번호	프로그램명 (부제명)	상의 명칭 (수상부문)	수상기간 (연간/분기/ 월간)	시상제도 주최 기관명	방송채널 (방송일시)	수상자 (성명, 수상당시 소속)
1	다큐프라임 - 사라진 인류	제201회 이달의 PD상 - TV 시상 교양부문	월간	한국PD연합회	EBS-CH13 2015.11.28~11.30 21:50~22:45	황준성 (교육다큐부)
2	다큐프라임 - 절망을 이기는 철학: 제자백가	제203회 이달의 PD상 - TV 시상 교양부문	월간	한국PD연합회	EBS-CH13 2017.1.2~1.11 21:50~22:45	이주희, 허성호 (교육다큐부)
3	다큐프라임 - 절망을 이기는 철학: 제자백가	2017년 1월분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월간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EBS-CH13 2017.1.2~1.11 21:50~22:45	이주희, 허성호 (교육다큐부)
4	다큐프라임 -사라진 인류	제29회 한국PD대상 TV작품상(교양정보)	연간	한국PD연협회	EBS-CH13 2015.11.28~11.30 21:50~22:45	황준성 (교육다큐부)
5	다큐프라임 -녹색동물	제29회 한국PD대상 TV작품상(촬영)	연간	한국PD연합회	EBS-CH13 2016.1.18~1.19 21:50~22:45	손승우 (교육다큐부)

제4장 부문별 평가 - 방송부문

번호	프로그램명 (부제명)	상의 명칭 (수상부문)	수상기간 (연간/분기/ 월간)	시상제도 주최 기관명	방송채널 (방송일시)	수상자 (성명, 수상당시 소속)
6	개인상	제29회 한국PD대상 TV작품상(음악효과)	연간	한국PD연합회	장학퀴즈 등	이용문 (협력제작)
7	다큐프라임 - 녹색동물	2017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우수상 (창의발전부문)	연간	방송통신위원회	EBS-CH13 2016.1.18~1.19 21:50~22:45	손승우 (교육다큐부)
8	세계테마기행	2017 방통위원회 방송대상 특별상 (우수외주제작상)	연간	방송통신위원회	EBS-CH13 월~목요일 20:50~21:30	야요디아 (협력제작)
9	하나뿐인 지구 - 이상한 나라의 죽음	제15회 언론인권상	연간	언론인권센터	EBS-CH13 2016.6.10 20:50~21:30	김민지 (진로직업청소년부)
10	하나뿐인 지구 - 이상한 나라의 죽음	제21회 YWCA가 뽑은 좋은 TV 프로그램상 특별상	연간	한국YWCA 연합회	EBS-CH13 2016.6.10 20:50~21:30	김민지 (진로직업청소년부)
11	다큐프라임 - 사라진 인류	제50회 WorldFest Ho uston 국제영화제 Grand Remi (Best of Show)상	연간	Houston	EBS-CH13 2015.11.28~11.30 21:50~22:45	황준성 (교육다큐부)
12	다큐프라임 - 감정시대	제50회 WorldFest Ho uston 국제영화제 Interviews 부문 Plat num상	연간	Houston	EBS-CH13 2016.12.5.~12.13 21:50~22:45	김광호, 김훈석, 박은미 (교육다큐부)
13	특별대기획 - 시험	제50회 WorldFest Ho uston 국제영화제 Gold상	연간	Houston	2015.12.7~12.16 21:50~22:45	이미슬, 장후영 (교육다큐부)
14	EBS스페셜 - 취업전쟁 : 청춘생존보고서	제50회 WorldFest Ho uston 국제영화제 Platinum Remi상	연간	Houston	2016.9.18 21:00~21:20	이윤녕, 이수민 (교육뉴스부)
15	다큐프라임 - 2017 시대탐구 청년	2017년 3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월간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2017.2.27~3. 7 21:50~22:45	김지원, 박은미 (교육다큐부)
16	절망을 이기는 철학 : 제자백가 (개인상)	2017년 1분기 베스트촬영감독상	분기	한국방송촬영 감독연합회	EBS-CH13 2017.1.2~1.11 21:50~22:45	황경선 (영상제작1부)
17	취업전쟁 : 청춘생존보고서	멕시코국제영화제(Mexi co International Film Festival) 단편 다큐멘터리 경쟁부문 은상(Silver P alm Award)	연간	Mexico	EBS-CH13 2016.9.18 21:00~21:20	이윤녕, 이수민 (교육뉴스부)
18	EBS-1TV, 「딩동댕 유치원」 - 꿈	2017년 상반기 바른방송언어 특별상	반기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EBS-CH13 2017.4.27 08:00~08:30	고현미, 윤영아 (유아어린이부)
19	하나뿐인 지구- 똑의 재발견	제14회 Asia Media S ummit (AMS) – IBD 상 지속가능 에너지 관련 과학/ 환경 프로그램 TV 부문	연간	AMS	EBS-CH13 2017.2.10 20:50~21:30	허찬석 (진로직업청소년부)

2017사업연도 EBS 경영평가 보고서

번호	프로그램명 (부제명)	상의 명칭 (수상부문)	수상기간 (연간/분기/ 월간)	시상제도 주최 기관명	방송채널 (방송일시)	수상자 (성명, 수상당시 소속)
20	다큐프라임 - 대학입시의 진실	제207회 이달의 PD상 시사교부문	월간	한국PD연합회	EBS-CH13 2017.5.22~5.31 21:50~22:45	김한중, 남내원 (학교교육기획부)
21	까칠남녀	제207회 이달의 PD상 드라마예능부문	월간	한국PD연합회	EBS-CH13 월 23:5~24:25	이대경, 김민지 (진로직업청소년부)
22	-병이되는 명의 잠,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제44회 한국방송대상 생활정보TV	연간	한국방송협회	EBS-CH13 2017.3.17 21:50~22:45	김형수 (교양문화부)
23	개인상	제44회 한국방송대상 프로듀서상	연간	한국방송협회	-	정재을 (교육다큐부)
24	개인상	제44회 한국방송대상 음악효과상	연간	한국방송협회	-	이미성 (협력제작)
25	EBS 다큐프라임 - 불멸의 진시황	2017 ABU상 TV 다큐 부문 우수상 (Commended Entry)	연간	ABU (아시아 태평양 방송연맹)	EBS-CH13 2017.9.4~9.5 21:50~22:45	정재을, 오정호 (교육다큐부)
26	EBS 다큐프라임-대학입시의 진실	2017년 5월분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월간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EBS-CH13	김한중, 남내원 (학교교육기획부)
27	EBS 다큐프라임-가족	2017년 7월분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월간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EBS-CH13	서준, 김규섭 (교육다큐부)
28	EBS 다큐프라임-생명의 전략 번식	2017년 8월분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월간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EBS-CH13	박성웅 (교육다큐부)
29	EBS 다큐프라임-2017 시대탐구 청년	제20회 국제 앰네스티 언론상	연간	국제 앰네스티	EBS-CH13	김지원, 박은미 (교육다큐부)
30	까칠남녀	2017 푸른미디어상 성평등부문	연간	한국여성 민우회	EBS-CH13	김민지, 최현선 (진로직업청소년부)
31	특집 다큐멘터리 위대한 유산 중앙아시아	2017년 10월분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월간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EBS-CH13 2017.9.28~10.19 23:35~24:25	박치대, 박국현, 배미진 (방송제작기획부)
32	다큐프라임 - 사라진 인류	2017 Asian Television Awards(ATV) 다큐멘터리 시리즈 부문 대상	연간	ATA	EBS-CH13 2015.11.28~11.30 21:50~22:45	황준성 (교육다큐부)
33	지식채널e-이행의 계곡에선 무슨 일이 벌어졌다 外	제19회 양성평등미디어상 최우수상(장관상)	연간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 교육진흥원	EBS-CH13 2017.8.17 外	김동준 (교양문화부)

제4장 부문별 평가 - 방송부문

번호	프로그램명 (부제명)	상의 명칭 (수상부문)	수상기간 (연간/분기/ 월간)	시상제도 주최 기관명	방송채널 (방송일시)	수상자 (성명, 수상당시 소속)
34	EBS 뉴스 - 연중기획 여기서 일한다, 여성이 일한다	제19회 양성평등미디어상 최우수상(장관상)	연간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 교육진흥원	EBS-CH13 2017.9.18~9.29	이윤녕, 송성환, 황대희, 금창호 (교육ニュース부)
35	까칠남녀 - 벌레가 된 엄마 맘충 외	제19회 양성평등미디어상 우수상	연간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 교육진흥원	EBS-CH13 2017.3.28~9.30	김민지, 최현선 (진로직업청소년부)
36	EBS 다큐프라임 - 생명의 전략 번식	2017 그리메상 대상	연간	한국방송촬영 감독연합회	EBS-CH13	홍의권 (영상제작1부)
37	EBS 다큐프라임 - 불멸의 진시황	2017 그리메상 우수작품상	연간	한국방송촬영 감독연합회	EBS-CH13 2017.9.4~9.5 21:50~22:45	김용상 (영상제작1부)
38	개인상	2017 그리메상 대촬영감독상	연간	한국방송촬영 감독연합회	-	이의호 (영상제작1부)
39	EBS 다큐프라임 - 생명의 전략 번식	2017 그리메상 연출상	연간	한국방송촬영 감독연합회	EBS-CH13	박성웅 (교육다큐부)
40	다큐프라임- 절망을 이기는 철 학: 제자백가	2017 Media Awards 지상파방송콘텐츠 우수상(교양/다큐멘터리 부문)	연간	(사)미디어 미래연구소	EBS-CH13 2017.1.2~1.11 21:50~22:45	이주희, 허성호 (교육다큐부)
41	EBS 특별기획 7 부작 - 인터뷰 다큐 우리, 지금 행복한가요	2017년 11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월간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2017.10.22, 11.12 21:05~22:00	김현주 (콘텐츠협력제작부), 이완범, 전영건 (협력제작)
42	EBS 다큐프라임- 불멸의진시황	2017년 Korea UHD Award 국제공동제작 특별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연간	RAPA 한국전파진흥협회	EBS-CH13 2017.9.4~9.5 21:50~22:45	정재응, 오정호 (교육다큐부)
43	엄마까투리	2017 대한민국 콘텐츠대상 (대통령상)	연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 진흥원	EBS-CH13 2016.8.29~ 08:25~08:40	김현우 (애니메이션부)
44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2017 대한민국콘텐츠대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연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 진흥원	EBS-CH13 2016.8.29~ 19:00~19:30	최미란 (애니메이션부)
45	지식채널e - 그들의 공식 外	한국기독언론대상 사회정의부문 우수상	연간	한국기독언론인 연합회	EBS-CH13 2017.10.11, 10.12, 10.18, 10.19.	김동준 (교양문화부)

2) 프로그램 시청률 및 VOD 이용 정도

가) 평가기준

방송 프로그램의 평가에서 시청률은 기본적이고도 핵심적인 준거가 된다. 또한 필요한 콘텐츠를 주문형으로 소비하는 VOD 이용 정도 역시 달라진 미디어 환경에서 프로그램의 성과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기능한다. 이 평가항목으로는 ① 주시청시간대 시청률 및 점유율, ② 타겟 시청자 시청률 및 점유율, ③ 온라인/모바일 VOD 이용 정도 등에 대해 살펴본다.

나) 평가사항

① 주시청시간대 시청률 및 점유율

EBS는 주시청시간대를 월~금 06:00~11:00, 17:00~24:00, 토·일 06:00~25:00로 설정하고 지상파 TV의 편성 시간대를 유아·어린이 시간대, 성인 시간대 등 대상별로 블록화하여 목표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 편성전략을 세워 실행하고 있다.

가구 기준 주시청시간대의 시청률과 점유율을 살펴보면, 2017년에는 시청률 0.90, 점유율 2.07%를 기록함으로써 2013년 이래 최저 수준을 보였다. 주시청시간대 시청률 및 점유율 목표 대비 산출 결과는 시청률 60%, 점유율 68%이다.

<표 2-46> 연도별 주시청시간대 시청률 및 점유율 (가구 기준)

주시청시간대*	시청률	점유율
2017년	0.90	2.07%
2016년	0.99	2.21%
2015년	1.08	2.37%
2014년	1.06	2.28%
2013년	0.97	2.11%

* (월~금 06:00~11:00 및 17:00~24:00, 토·일 06:00~25:00)

② 타겟 시청자 시청률 및 점유율

타겟 시청자층의 시청률과 점유율을 살펴보면, 먼저 유아·어린이 시간대의 경우 시청률 1.79%와 점유율 18.57%를 보였는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2017년도에 하락세를 보인 것이다. 이를 목표 대비로 산출하면 시청률은 18%, 점유율은 29%가 된다.

<표 2-47> 연도별 유아어린이 시간대 타겟 시청률 및 점유율(남녀 4~9세)

유아어린이 시간대*	시청률	점유율
2017년	1.79	18.57%
2016년	2.68	26.74%
2015년	2.67	25.47%
2014년	2.55	23.87%
2013년	2.26	22.29%

* (월~금 07:00~09:40 및 16:00~19:30, 토 07:00~11:00, 일 07:00~10:30)

남녀 25세 이상 성인 시간대의 시청률과 점유율은 각각 0.60%, 2.31%에 그쳤다. 2017년 성인 시간대의 타겟 점유율은 2.31%를 기록하여 전년도 2.32% 대비 소폭 하락했으나 타겟 시청자 시청률은 0.60을 기록하여 전년도 0.57 대비 상승된 수치를 보였다. 성인시간대 프로그램 타겟 시청률과 점유율은 소폭이나마 최근 5년 동안 상승하거나 예년 수준에 머무는 수준이다. 목표 대비 산출 결과는 시청률 96%, 점유율 85%이다.

<표 2-48> 연도별 성인 시간대 타겟 시청률 및 점유율(남녀 25세 이상)

성인 시간대*	시청률	점유율
2017년	0.60	2.31%
2016년	0.57	2.32%
2015년	0.60	2.42%
2014년	0.58	2.32%
2013년	0.50	1.98%

* (월~금 09:40~11:00, 19:30~24:00, 토 11:00~24:00, 일 10:30~25:00)

③ 온라인/모바일 VOD 이용 정도

온라인/모바일 VOD 이용은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변화하는 시청자들의 콘텐츠 이용을 잘 반영하는 기준이라 할 수 있으며, 2017년 1억 2천만 건을 넘기면서 15% 가까이 증가하여 224%의 지수가 산출되었다. EBS 홈페이지와 유튜브, 네이버TV 이용 건수를 보면, EBS 홈페이지가 2016년보다 470만건 정도가 감소하여 2015년 수준에 머물렀고 유튜브는 1억1천만 건을 넘기면서 급속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네이버TV는 2015년을 기점으로 2년 연속 감소하고 있는데 2017년은 2천만 건 이상 감소하면서 2016년 이용건수의 2/3에 머물렀다.

- 산출식(%)

$$\frac{\text{실적(당해년도)} - \text{최저목표(직전3개년도 실적의 평균} \times 60\%}{(\text{최고목표(직전3개년도 실적의 평균} \times 105\%) - \text{최저목표(직전3개년도 실적의 평균} \times 60\%)} \times 100$$

<표 2-49> TV VOD (EBS 홈페이지, 유튜브, 네이버TV 이용 건수)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EBS 홈페이지	33,099,793	24,410,415	29,529,308	24,843,577
유튜브	286,265,610	758,981,180	969,187,785	1,151,374,571
네이버TV	42,074,319	70,294,621	66,978,618	45,075,291
합계	361,439,722	853,686,216	1,065,695,711	1,221,293,439

FM라디오의 EBS 홈페이지 이용 건수는 2016년까지 감소세가 이어지다가 2017년에는 2016년 수준에서 근소한 증가를 보였다. FM AOD 이용정도는 50%로 산출되었다.

<표 2-50> FM AOD (EBS 홈페이지 이용 건수)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스트리밍	10,877,641	10,448,206	8,065,430	8,097,384

EBS 메인사이트, 유튜브, 네이버TV를 통한 유아·성인 대상 VOD 이용건수 추이를 보면, VOD의 콘텐츠 다양화, EBS Collection 등 채널 확대, SNS마케팅 홍보 등을 통해 성인 대상 콘텐츠 VOD 이용 건수가 1억8천만 건 가까이 증가했다. 유아 대상 VOD 이용건수는 3천만 건 가까이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전년 대비 52.6%의 증가세를 보였다.

<표 2-51>유아성인 대상 VOD 이용건수 추이 (EBS 메인사이트, Youtube, 네이버TV)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유아	215,414,819	599,177,614	611,526,249	582,479,027
성인	160,367,519	268,196,228	467,581,844	646,911,796
합계	375,782,338	867,373,842	1,079,108,093	1,229,390,823
성인비중	42.7%	30.9%	43.3%	52.6%

3) 콘텐츠 내부 관리 및 멀티 플랫폼을 활용한 유통 및 사업화 정도

가) 평가기준

콘텐츠 내부 관리와 멀티 플랫폼을 활용한 유통 및 사업화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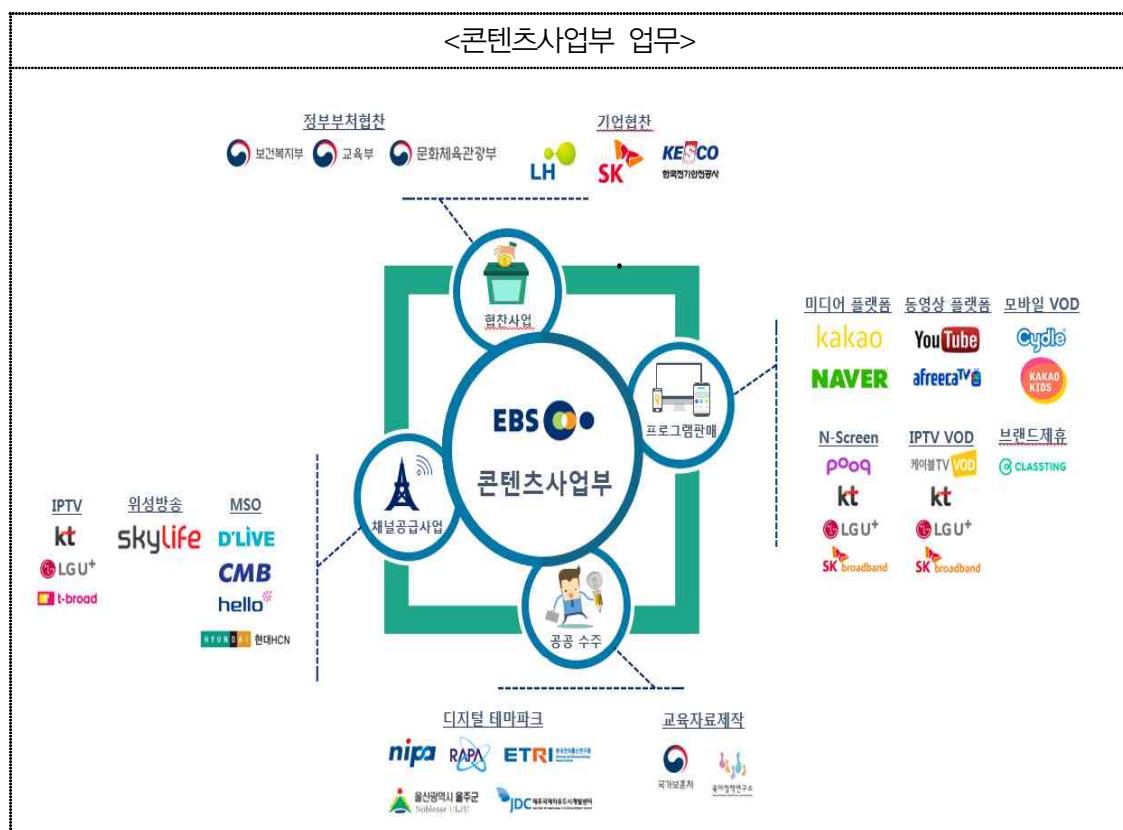
- ① 콘텐츠 내부관리의 체계성 정도, ② 멀티플랫폼을 활용한 콘텐츠 사업의 외부활용 실적 및 재활용 정도, ③ 제작 단계에서부터 사업부서와 콘텐츠 다각화를 위한 협의 정도 등을 기준으로 검토한다.

나) 평가사항

① 콘텐츠 내부 관리 체계의 적정성

콘텐츠(방송 프로그램)의 공급체계는 다음과 같이 세분화하여 평가할 수 있다.

- 방송 콘텐츠 공급 및 서비스 (EBS 콘텐츠사업부)
 - 프로그램판매 : VOD 서비스 활성화 및 N-SCREEN 수입확대
 - 채널공급사업 : Skylife, MSO, IPTV 사업자 대상 실시간 채널 판매
 - 협찬사업 : 프로그램 제작협찬 사업 및 영상물 제작용역 업무
 - 공공수주 : 정부 및 공공기관 대상 제작협찬 수주



② 멀티 플랫폼을 활용한 콘텐츠의 유통 및 사업화 정도

콘텐츠 사업의 외부활용 및 재활용 실적 및 확대 노력은 콘텐츠의 홈페이지 및 인터넷 기반의 활용 및 재활용 실적(특히 수능강의, 프로그램 수출, 복사판매), 다양한 멀티 플랫폼 유통 확대 및 확장 노력 중심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EBS사이트, 포털, N스크린(모바일/테블릿/인터넷), 웹하드, 케이블, 위성방송, IPTV, B2B 등 공급 가능한 모든 플랫폼을 통해 콘텐츠 서비스 추진
- 신사업 : 뉴미디어 신사업 기획 및 서비스 사업
- 방송콘텐츠의 다양한 플랫폼 공급으로 사업수익 확대
 - 16년 185억원 → 17년 185억원

<표 2-52> 멀티 플랫폼 콘텐츠 매출액

(단위 : 억원)

구분	내용	매출액
VOD 유통사업	IPTV(CATV) VOD 유통사업	52.0
B2B 제휴 및 공급	교육청 등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제작 공급 등	57.0
웹하드 양성화 사업	55개 업체 65개 사이트와 제휴	2.6
IPTV 및 위성방송	SkyLife, KT, LGU+, SKT 공급	24.0
SO 런칭	총90개처	25.0
미디어 플랫폼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 등 미디어플랫폼	20.0
EBS 육아학교	신규사업	4.4
(합계)		185.0

* 사업별 세부 내역은 ‘첨부자료1 방송콘텐츠의 외부 플랫폼 공급 현황’ 참조

<표 2-53> 문화사업 매출액

(단위 : 억원)

구분	내용	매출액	비고
협찬사업	방송프로그램, 시험대비강좌, 캠페인 등 협찬	110.00	
대행보급사업	한국산학경영 연구소, 려닝코리아 등	2.20	EBS미디어
방송권 판매	다큐프라임, 극한직업 등	26.00	EBS미디어
공연권 판매	세계테마기행, 명의 등	0.20	EBS미디어
셀스루 제품 판매	방귀대장 뿡뿡이, 뽀롱뽀롱 뽀로로 등	0.20	EBS미디어
복사 판매	다큐프라임 등	0.05	EBS미디어
캐릭터 제품	방귀대장 뿡뿡이, 딩동댕 유치원 등	3.80	EBS미디어
(합계)		142.45	

③ 제작단계부터 사업부서와 제작부서 간 협력 시스템의 운영 정도

내부 부서와 유관기관 간 편성전략 및 편성 연계 체계는 EBS 내부 콘텐츠 사업부서와 제작부서 간 협력의 유기성, EBS와 외부유관기관 간 편성전략 및 편성 연계체제 중심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EBS 내부 편성-제작-사업부서 간 편성전략 및 협력의 유기성
 - 연 2회(봄 정기 편성개편 및 가을 편성 조정 시, 편성-제작 간담회 개최)
 - 연 2회(봄 정기 편성개편 및 가을 편성 조정 시) 정기 편성개편 시, 편성위원회를 통해 편성정책 협의
 - (※ 편성위원회: 제작-사업-경영부서를 포함한 편성의결기구)
 - 편성개편 후 편성-제작 공동시사회 및 간담회 수시 개최
- EBS와 외부 유관기관 편성전략 및 협력의 유기성
 - 방송통신위원회, KOCCA, KISA, KCA 등과 연간 수시 간담회 개최
 - 제작비 협찬 및 글로벌 프리미엄 콘텐츠 개발을 위한 협의
 -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 현안 관련 수시 협의 및 편성 반영
 - ‘학교 폭력’ 등 교육계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 및 지상파 TV 편성 반영
 - 해당연도 수능 정책에 따른 Plus 1 편성 반영
 -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 정책에 따른 Plus 2 편성 반영

평가결과 및 제언

프로그램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 EBS는 다양한 시청자들의 니즈와 급격하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규 파일럿 프로그램들을 다수 개발하여 방송했다. 6개월, 1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정기 개편을 보완하고 최신의 트렌드와 시의성 있는 주제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긍정적 평가를 받은 프로그램을 정규 프로그램으로 전환하여 시청자들의 만족도를 제고했다. 또한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시즌제를 도입하여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제고하고, 보다 참신한 내용과 포맷을 선보임으로써 EBS의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했다.

사전 기획 프로그램 및 시즌제 프로그램의 제작 활성화 및 자체 특집 운영을 통한 시의성 반영 및 프로그램 완성도 제고, 참신한 파일럿 프로그램의 지속적 개발을 통한 EBS 브랜드 경쟁력 강화 노력이 있었지만,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및 사회적 어젠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콘텐츠의 제작을 위하여 보다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기획-제작 시스템의 구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웹이나 모바일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분화하는 시청 행태를 반영하고 시의성 있는 내용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현재의 6개월~1년 단위의 개편 시스템의 보완이 시급하다.

이와 관련하여, EBS 콘텐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R&D를 통한 국내외의 트렌드와 콘텐츠 분석이 필요하고 그러한 내용을 공유하여 신규 프로그램 제작과 기존 프로그램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실험적이고 혁신적인 차세대 신규 콘텐츠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과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변화하는 시청자들의 콘텐츠 이용 패턴을 반영하고 다변화된 플랫폼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콘텐츠와 그에 따른 마케팅, 편성 전략을 통해 EBS의 콘텐츠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BS는 2017년 성 정체성 관련 프로그램인 <까칠남녀>를 신설하여 화제를 불러 일으켰으나, 성 소수자 특집과 관련하여 성 소수자에 대한 찬반 이슈가 제기되면서 결국 출연자 하차에 이어 프로그램을 폐지한 바 있다. 논란의 결은 여러 차원이고 프로그램 외적인 문제도 있었다고는 하지만 폐쇄적인 성담론에 갇혀 있는 한

국 사회에서 성 정체성과 관련한 이슈를 사회적 담론화함으로써 교육방송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출연자 하차와 프로그램 폐지는 대단히 아쉬운 결정이었다고 하겠다. 교육방송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공익적 가치와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해 계속 고민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과 사회적 의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수시 기획과 편성을 강화하고 그 결과물로서 다양한 실험적 파일럿 프로그램들이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개발된 파일럿 프로그램은 면밀한 평가를 통해 정규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는 등의 열려있는 편성 전략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보다 유연한 인력과 예산의 배치가 있어야 한다.

EPEI지수에서 2016년과 비교해서는 대부분 지수가 상승했지만 2014년과 비교해 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점수가 낮아졌는데, 그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2017년 종합 CI 지수는 10점 만점에 6.54점으로 전년 7.18점 대비 0.64점이 하락했다. EBS의 CI 지수 하락은 디지털 환경에서 시청층의 미디어 이용 행태의 변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2016년 상승세를 보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반드시 그렇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설명력이 크지 않다고 치부하기보다는 CI 지수 하락에 대한 원인 진단과 대안 마련이 필수라고 하겠다.

예년에 비해 81% 수준의 수상 실적을 보였지만, 2017년 주요방송사들이 장기간 제작거부나 파업을 벌이면서 프로그램 제작을 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면 EBS는 상대적으로 수상 기회가 더 많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사실을 감안하면, 불과 한두 건의 차이라고 가벼이 여기지 말고 2014년 아래 최소 수상건수를 기록한 것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방안 강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시청률 및 VOD 이용 정도에서, 전반적으로 시청률과 점유율 하락세가 눈에 띠는 가운데 주시청시간대와 유아·어린이 프로그램의 시청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성인 시간대 타겟 시청률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성인 시간대 타겟 시청률은 0.60으로 전년도 시청률 0.57 대비 5.3% 상승한 수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유아·어린이 시간대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웹, 모바일, IPTV VOD 등 변화하는 유아·어린이들의 시청 행태를 고려하고

최신의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신규 콘텐츠 제작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EBS TV의 유아어린이 프로그램 편성은 누리과정 확대 등 유아어린이 재택율(집에 머무는 아동 인구의 비율)을 고려하여 오전 시간대 월~금 07:00~09:40, 오후 시간대 16:00~19:30로 설정하여 목표 시청자의 프로그램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지만 성과를 내기에는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유아어린이 시간대는 유아·어린이의 시청행태 변화와 달라 시청률 통계 기준 변경(2016년 8월 1일) 등으로 인해 2016년을 기점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다. 타겟 시청률(남녀 4~9세) 또한 2016년 2.68에서 2017년 1.79로, 점유율도 2016년 26.74%에서 2017년 18.57%로 하락하여 유아·어린이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시청률 개선 방안이 요구된다.

EBS 유아·어린이 콘텐츠의 완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유아·어린이 콘텐츠의 영향력과 이용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현재의 지상파 TV 플랫폼뿐만 아니라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에도 콘텐츠를 홍보하고 노출을 강화하여 점점 다양하게 분화하고 있는 유아·어린이 시청자들의 시청 행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실시간 시청에서 비실시간 시청으로 이동하고 있는 현재의 시청 양상을 반영하여 기존 시청률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 보다 다면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정확한 시청자 만족도 평가를 위하여 통합 콘텐츠 이용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콘텐츠 내부 관리 및 멀티 플랫폼을 활용한 유통 및 사업화 정도와 관련하여, 방송, 온라인, 모바일, 출판, 콘텐츠 유통 등 EBS 보유 매체 및 활용 플랫폼 전반의 통합 협찬상품을 기획하고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등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협찬으로 매출규모가 증대되었다. EBS 보유 콘텐츠를 요약 및 재가공하여 시기별, 주제별 2차 저작물 활용을 통한 신규 모바일 콘텐츠를 모바일 및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에 동시다발적 제공 기반을 마련하여, 기존의 콘텐츠 홍보 및 2차 저작물 제작을 통한 콘텐츠 사업 모델을 제시했다.

그러나, SD 송출방식으로 인한 방송영상 품질에 있어 타 채널과 불가피한 질적 비교로 채널평가 지수가 절하되어 사업에 지장이 초래되며, 미디어 플랫폼 서

비스를 통한 콘텐츠 공급 시 BGM, 시그널 등에 대한 저작권 증빙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 2차 유통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협찬 담당자의 수적 부족으로 적극적인 외부 협찬수주 실적이 저조하고 EBSu 채널의 자회사 이관에 따른 커버리지 및 수익이 축소되었다. 또한, EBSU 채널(현, EBS KIDS)의 자회사 이관에 따른 매출이 5억 감소되었으며, 썸네일 제작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지만 예산의 부족으로 인원을 확보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모바일 VOD 및 모바일 앱 서비스 내 EBS 교양/다큐 등의 콘텐츠를 추가로 공급하고 방송분 이외의 오디오 및 스크립트, 영상클립, 영상 스틸 이미지 등을 자료화하여 판매 가능한 신규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외부 업무기반을 구축할 것이 요구된다. 콘텐츠 창출 수익을 증진하기 위한 노출 및 공급시간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공익캠페인 송출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사업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바. 전년도 개선권고사항의 이행 노력

평가내용

1) 전년도 경영평가 개선권고사항의 이행 노력 및 성과

가) 평가기준

경영평가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정확한 현황 파악을 바탕으로 한 현실 진단과 개선 사항 도출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전년도 방송부문 경영평가결과에서 제안된 개선권고사항을 이행하고자 얼마나 노력했는지 살펴봄으로써 그 성과를 평가한다.

나) 평가사항

① 전년도 방송부문 경영평가결과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개선 정도

2016년도 방송부문에서 제시한 평가결과 개선권고사항은 1) EBS의 경영목표, 편성목표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와 새로운 목표설정 작업이 필요하다, 2) EBS TV 채널 별 특성화 전략에서 명실상부한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 3) EBS 재원문제에 대한 해결노력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4) 민주교육 발전이라는 EBS의 설립취지에 대해 방송편성과 프로그램 차원에서 명료한 개념 정리와 해석이 필요하다, 5) 국내·외 주요 방송사 프로그램 조사연구 방법의 개선이 요구되는 한편 사회 트렌드 연구성과를 적극적으로 활용, 제작과 편성에 반영해야 한다, 6) EBS의 시청자 관련 지표와 타 방송사들의 유사지표에 대한 비교·검토가 필요하다 등 여섯 가지 사항이다.

<표 2-54> 전년도 방송부문 경영평가결과 개선권고사항 및 조치결과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
1. EBS의 경영목표, 편성목표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와 새로운 목표설정 작업이 필요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START EBS”를 통한 경영 혁신프로그램 혁신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BS 사옥 이전과 함께 ‘EBS 제2창사’를 맞이하여 경영 혁신, 프로그램 혁신, 플랫폼 혁신을 통한 새로운 성장의 교두보 마련 전략 수립 • 경영혁신팀을 중심으로 전략 및 비전체계 정립, 실행고제 및 추진 로드맵 수립을 통해 경영 목표를 새롭게 설정 노력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																			
	<p>○ 주요 추진경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조사 및 간부/이사회워크숍 등으로 내·외부 환경분석 수행(~'17.1) • 비전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그룹인터뷰, 워크샵 등 의견수렴 절차 수행('17.2~) • 비전 및 전략체계 수립 및 보고('17.8) • 비전선포 및 변화관리와 실행력강화 대안 추진('17.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스트트 EBS 혁신토론회('17. 10. 16 ~ 20) <p>○ 17년 경영목표와 편성목표</p>																			
2. EBS TV 채널별 특성화 전략에서 명실상부한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	<p>○ 교육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EBS 채널 목표 설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의 심화, 창조, 향유를 위한 지상파 채널 : EBS 1TV, 2TV • 교과학습 지식 습득을 위한 PP채널 : 플러스1·2, English <p>○ EBS 채널 Identity 확립</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채널 Identity</th> <th>편성 내용</th> <th>편성 방향</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지상파 채널</td> <td>EBS 1TV</td> <td>지식채널</td> <td>유아어린이 및 평생교육 세대별 교양 함양</td> </tr> <tr> <td>EBS 2TV</td> <td>창의채널</td> <td>초·중학 창의융합교육, 외국어, 교육격차해소 창의교육 소양 강화 (융합형/흥미유발)</td> </tr> <tr> <td rowspan="3">PP 채널</td> <td>EBS 플러스1</td> <td rowspan="3">학습채널</td> <td>수능·내신·논술교육</td> </tr> <tr> <td>EBS 플러스2</td> <td>초등·중학·직업교육</td> </tr> <tr> <td>EBS English</td> <td>영어교육</td> </tr> </tbody> </table> <p>○ 시범서비스 중인 2TV의 채널 아이덴티티와 포지셔닝에 대한 모색을 필두로 채널별 정체성 확립 및 채널별 편성전략 수립</p>	구 분	채널 Identity	편성 내용	편성 방향	지상파 채널	EBS 1TV	지식채널	유아어린이 및 평생교육 세대별 교양 함양	EBS 2TV	창의채널	초·중학 창의융합교육, 외국어, 교육격차해소 창의교육 소양 강화 (융합형/흥미유발)	PP 채널	EBS 플러스1	학습채널	수능·내신·논술교육	EBS 플러스2	초등·중학·직업교육	EBS English	영어교육
구 분	채널 Identity	편성 내용	편성 방향																	
지상파 채널	EBS 1TV	지식채널	유아어린이 및 평생교육 세대별 교양 함양																	
	EBS 2TV	창의채널	초·중학 창의융합교육, 외국어, 교육격차해소 창의교육 소양 강화 (융합형/흥미유발)																	
PP 채널	EBS 플러스1	학습채널	수능·내신·논술교육																	
	EBS 플러스2		초등·중학·직업교육																	
	EBS English		영어교육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EBS 2TV를 '창의채널'로 설정, 기존 외국어, 교육격차해소 프로그램 외에 초·중학 창의융합교육 프로그램과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변화를 대비하고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창의·융합교육 콘텐츠 개발 EBS 2TV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창의적 미래인재 양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학 창의융합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언스타 Q>, <미스테리 식당 Q>, <과학땡 ·Q> 등 - 과학 다큐멘터리 신규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다큐-비욘드>, <미래강연 Q> 등 EBS 1TV : 유아·어린이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어린이 프로그램 확대 및 리뉴얼 : <딩동댕 유치원>, <방귀대장 뽕뽁이>, <동요구출 작전> 등 - 에버그린 콘텐츠 : <메디컬 다큐-7요일>, <엄마를 찾지 마>, <까칠 남녀>, <수상한 철학관>, <아빠타> 등 - 액티브 시니어 콘텐츠 : <금쪽같은 내새끼>, <불량시니어 클럽> 															
3. EBS 재원문제에 대한 해결노력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EBS예산 중 수신료, 방송통신발전기금, 특별교부금 등의 공적재원수입은 매출액의 약 27% 수준에 불과하며 지상파TV 방송광고 판매 하락세,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교재판매 수입 감소 계속으로 외부 환경 악화 ○ 공적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영방송의 충실한 역할 수행을 위한 재정건전성 확보 위해 정책적으로 합리적 수신료 배분 비율 주장 • 특별교부금 추가 확보 노력을 통해 22.7억원 추가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 특별교부금 : 기존 영어교육 콘텐츠 제작 보강, 사이트 재구조화, 모바일서비스 개선관련 (18.7억원) - 소프트웨어 특별교부금 : 소프트웨어교육 콘텐츠 제작(신규/4억원) ○ 자체수익사업 신장 노력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백만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연도</th> <th style="text-align: center;">2014</th> <th style="text-align: center;">2015</th> <th style="text-align: center;">2016</th> <th style="text-align: center;">2017</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문화콘텐츠사업수입</td> <td style="text-align: center;">6,691</td> <td style="text-align: center;">8,353</td> <td style="text-align: center;">8,932</td> <td style="text-align: center;">10,445</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콘텐츠 판매수입</td> <td style="text-align: center;">8,334</td> <td style="text-align: center;">9,302</td> <td style="text-align: center;">9,116</td> <td style="text-align: center;">12,807</td> </tr> </tbody> </table> <p>자체수익사업 중 문화콘텐츠사업과 콘텐츠 판매 사업에 있어서 매출 신장을 통해 자체재원 확보를 통한 EBS 재원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노력</p>	연도	2014	2015	2016	2017	문화콘텐츠사업수입	6,691	8,353	8,932	10,445	콘텐츠 판매수입	8,334	9,302	9,116	12,807
연도	2014	2015	2016	2017												
문화콘텐츠사업수입	6,691	8,353	8,932	10,445												
콘텐츠 판매수입	8,334	9,302	9,116	12,807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												
<p>4. 민주교육 발전이라는 EBS의 설립취지에 대해 방송편성과 프로그램 차원에서 명료한 개념정리와 해석이 필요하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BS는 공영방송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로 시민으로서의 정치의식, 민주의식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민주시민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EBS의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편성 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이 아닌 자율성과 창의력, 소통능력 등 기본 소양 함양에 이바지 • 인간 중심의 사회공동체적 삶의 방식과 민주시민 소양 증진·교육 관련 의제와 정보제공으로 교육 공론의 장을 마련 ○ EBS가 제작·방송하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table border="1" data-bbox="493 825 1414 1354"> <thead> <tr> <th data-bbox="493 825 890 892">내용</th><th data-bbox="890 825 1414 892">프로그램</th></tr> </thead> <tbody> <tr> <td data-bbox="493 892 890 982">교육정책과 교육현실에 대한 진단과 대안의 제시</td><td data-bbox="890 892 1414 982">교육 정책과 교육 현실에 대한 정보제공 및 보도 <EBS 뉴스>, <EBS 교육대토론> 등</td></tr> <tr> <td data-bbox="493 982 890 1072">인문학적 소양 개발</td><td data-bbox="890 982 1414 1072">삶과 사회에 대한 철학과 사유를 담은 다큐프라임 <제자백가>, <철학하라> 등</td></tr> <tr> <td data-bbox="493 1072 890 1161">시민의식의 함양</td><td data-bbox="890 1072 1414 1161">학교 현장에서의 민주시민과 정치교육에 대한 환기를 불러일으키는 다큐프라임 <학교의 고백> 등</td></tr> <tr> <td data-bbox="493 1161 890 1251">정치에 대한 이해 및 참여 증진</td><td data-bbox="890 1161 1414 1251">특별 기획 다큐멘터리 <투표>, <정치의 재발견> 등</td></tr> <tr> <td data-bbox="493 1251 890 1354">통일 등 한국 사회의 거시적 과제의 대안 모색</td><td data-bbox="890 1251 1414 1354"><EBS 초대석>, <통일의 길> 등</td></tr> </tbody> </table> 	내용	프로그램	교육정책과 교육현실에 대한 진단과 대안의 제시	교육 정책과 교육 현실에 대한 정보제공 및 보도 <EBS 뉴스>, <EBS 교육대토론> 등	인문학적 소양 개발	삶과 사회에 대한 철학과 사유를 담은 다큐프라임 <제자백가>, <철학하라> 등	시민의식의 함양	학교 현장에서의 민주시민과 정치교육에 대한 환기를 불러일으키는 다큐프라임 <학교의 고백> 등	정치에 대한 이해 및 참여 증진	특별 기획 다큐멘터리 <투표>, <정치의 재발견> 등	통일 등 한국 사회의 거시적 과제의 대안 모색	<EBS 초대석>, <통일의 길> 등
내용	프로그램												
교육정책과 교육현실에 대한 진단과 대안의 제시	교육 정책과 교육 현실에 대한 정보제공 및 보도 <EBS 뉴스>, <EBS 교육대토론> 등												
인문학적 소양 개발	삶과 사회에 대한 철학과 사유를 담은 다큐프라임 <제자백가>, <철학하라> 등												
시민의식의 함양	학교 현장에서의 민주시민과 정치교육에 대한 환기를 불러일으키는 다큐프라임 <학교의 고백> 등												
정치에 대한 이해 및 참여 증진	특별 기획 다큐멘터리 <투표>, <정치의 재발견> 등												
통일 등 한국 사회의 거시적 과제의 대안 모색	<EBS 초대석>, <통일의 길> 등												
<p>5. 국내·외 주요 방송사 프로그램 조사연구 방법의 개선이 요구되는 한면 사회 트렌드 연구성과를 적극적으로 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시민 교육 콘텐츠 확대를 위한 기획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격적인 시민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한 프로그램 기획 개발 • '18년 봄 편성 평일 밤 23시 55분 민주시민 교육 Zone 설정하고 관련 프로그램 기획 • 10대, 일반 등 시청 대상 세분화, 10대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프로그램 <시민학교>, 일반을 대상으로 한 <프리미엄 특강 쇼>기획 ('18년 방송 예정) ○ VOD시청과 PC, 스마트폰 등 스마트미디어를 통한 비실시간 시청이 확대되고 있는데, 시청률 조사는 고정형 TV를 중심으로 한 실시간 시청중심의 전문 시청률 조사기관을 활용하고 있어 한계가 있음 ○ 시청률 이외에 시청자의 다양한 반응과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새로운 조사 방법 개발의 필요성에 따라 '17년부터 신규 평가지표 개발着手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			
용, 제작과 편성에 반영해야 한다.	• 새로운 프로그램 평가지표 개발 계획			
	구분	추진 과제	내용	비고
	1단계	텍스트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체계 마련	• EBS 관련 텍스트 마이닝 체계 마련 및 프로그램 기획저작에 활용	
	2단계	신규 평가지표 개발	• 시청률 포함 통합 평가 지표 개발 및 프로그램 영향력 분석 • 소비자 반응 정성·정량 평가	
6. EBS의 시청자 관련 지표와 타 방송사들의 유사지표에 대한 비교검토가 필요하다.	3단계	신규 평가지표 정착	• 프로그램 영향력 강화 및 채널 브랜드·이미지 재구축 • 채널·프로그램 충성도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년 실적 : 1단계 텍스트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웹/모바일 데이터 마이닝 전문업체를 활용한 EBS 프로그램 빅데이터 분석 및 평가의 다양성 검토 - 텍스트 빅데이터 분석 전용 엔진을 활용한 프로그램 분석 착수('17년 12월) 대상 : EBS 탑25 프로그램 조사매체 : 매스미디어, SNS(트위터, 페북, 인스타), 블로그 - '18년까지 시범 운영 후 성과에 따라 2단계 착수 예정 • 프로그램 기획 및 제작에 소셜 빅데이터 자료 활용 체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BS도 시청률 자료 외에 프로그램 평가 및 시청자 반응 지표에 대한 개정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BS는 시청률 전문조사기관인 TNmS와 닐슨을 통해 실시간 가구 및 개인의 시청률 자료를 받고 있음 - 타 방송사의 경우 실시간 시청률 자료뿐만 아니라 소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비실시간 VOD 시청 및 다양한 시청자 반응을 수집 중 - 기관별 방송 프로그램 평가지표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		
	구분	평가지표	측정방식
KBS	시청률	패널 데이터 조사	
	KBS Market Sensing System	시청률 데이터 조사 + 소셜 빅데이터 분석	구축 중
MBC	시청률	패널 데이터 조사	
	CAMI (Cross-platform Audience Measurement Index)	시청률 데이터 조사 + PC/스마트폰 사업자 데이터 조사	
SBS	시청률	패널 데이터 조사	
	SBS 소셜 데이터	시청률 데이터 조사 + 소셜 빅데이터 분석	시범 운영
CJ E&M	CPI (Contents Power Index)	시청률 데이터 조사 + 소셜 빅데이터 분석	
방송통신위원회	통합시청점유율	TV/PC/스마트폰 패널조사	개발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웹/모바일 데이터 마이닝 전문업체를 활용한 EBS 프로그램 빅 데이터 분석 및 평가의 다양성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텍스트 빅데이터 분석 전용 엔진을 활용한 프로그램 분석 • EBS 및 프로그램 버즈량 분석 - 프로그램 기획/제작에 소셜 빅데이터 자료 활용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BS 프로그램의 평가지표 업그레이드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EBS 프로그램 평가를 위해 매년 EPEI(EBS Program Evaluation Index)와 CI(Children Index)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를 최신 트렌드에 맞게 업그레이드 하여 조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PEI : 시청자에게 인지되어 있는 프로그램의 경쟁력 평가 • CI : 영역별 구분 삭제 및 제작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항목 추가 - 패널조사를 포함하여 실질적인 제작에 도움이 되도록 개발 추진 ○ 외부 기관의 다양한 시청률 자료 비교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통신위원회와 닐슨, TNMS 등 외부 전문기관에서 발표하고 있는 평가지표 자료를 수집하여 반영 			

평가결과 및 제언

EBS는 사옥 이전과 함께 ‘EBS 제 2 창사’의 정신으로 “RESTART EBS” 운동을 전개하여 경영 혁신과 프로그램 혁신, 플랫폼 혁신을 통한 새로운 성장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했다.

2TV의 채널 정체성 확립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2017년 50억 원의 2TV 추가 제작비를 확보한 결과, 2TV의 신규 프로그램 제작 비율이 상승했으며 신규 제작된 창의·융합 콘텐츠를 통해 ‘창의채널’이라는 2TV의 채널 정체성 확립에도 큰 성과가 있었다.

시범서비스 중인 2TV의 채널 정체성의 성공적인 안착을 이뤄냄에 따라, EBS 1TV, 2TV는 지식의 심화, 창조, 향유를 위한 지상파 채널로, 플러스1 · 2, English는 교과학습 지식 습득을 위한 PP채널로 정체성을 확립하여 채널별 정체성 확립을 이루었고 채널별로 차별적 편성전략을 잘 구현했다.

비실시간 시청이 늘어나는 시청 행태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시청률 이외에 시청자의 다양한 반응과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새로운 조사방법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17년부터 신규 평가지표 개발 계획을 수립했다. 텍스트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체계를 마련하는 1단계 실행 계획이 12월부터 시행되어, EBS의 25개의 대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매스미디어, SNS(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EBS 관련 텍스트 마이닝을 진행하여 프로그램 기획·제작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EBS 재원문제 해결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등과의 협력을 통해 EBS 2TV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확대했으나 지상파TV 방송광고 판매 하락세,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교재판매 수입 감소 등 외부 환경이 악화되어 콘텐츠 경쟁력 제고라는 목표 달성에 한계가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방송통신 발전기금과 특별교부금 등의 공적재원수입 증대와 자체수익사업 신장에 계속적으로 노력하는 동시에, EBS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콘텐츠 제작을 위해 공공 목적을 가진 타 기관과의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사. 당해연도 중점평가 사항

평가내용

1) 외주제작관리 개선의 적정성

가) 평가기준

올해 EBS 경영평가 방송부문의 중점평가사항으로는 외주제작관리 개선의 적정성이다. 방송산업 전반에서 외주제작 문제가 빈번하게 터져 나오곤 했지만, 2017년 〈다큐프라임〉 제작에 참여한 독립피디 두 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EBS의 외주제작관리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다. 이런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고 외주제작관리를 근본적으로 개선함으로써 EBS가 외주제작의 취지를 잘 구현하는 모범적 방송사로 자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①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외주제작관리 개선 방향의 적정성, ② 외주제작관리 개선에 따른 성과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이를 점검해 본다.

나) 평가사항

① 외주제작관리 개선계획의 적정성

EBS는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외주제작관리 개선계획을 수립했는데, 사회적 책임성 강화 차원의 외주제작관리 개선계획의 적정성을 살펴본다.

(가) 상생협력방안 개정을 통해 향후 독립PD 진흥목적 정부 제작지원 사업 대상 EBS 제작비 비조정 결정

(1) (상생협력방안 강화) 단계적으로 축소해 온 정부 제작지원 사업에 대한 EBS 지원 제작비 조정을 향후 진흥목적의 제작지원 사업에 대해 전면 폐지함으로써, 독립PD 제작 여건 개선에 기여

<표 2-55> EBS지원제작비 조정비율 변화

구분	EBS지원제작비 조정비율	비고
2011.3~2014.12	40%	상생협력방안 시행
2014.12~	20%	상생협력방안 개정
향후	0%	※독립제작사가 순수 진흥목적 정부 제작지원을 받은 경우

(2) (EBS제작비 조정 적용 제외) 독립PD가 정부기관의 프로그램 진흥목적 제작지원 사업을 유치 시 해당 지원금 전액은 기존과 같이 독립PD의 제작비로 투입하고,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기 책정된 EBS 제작비도 추가 조정 없이 100% 지원.

<표 2-56> 정부 제작지원 사업 유치 시 EBS 제작비 조정 개선안

현행	개선(안)
<p>< 정부 제작지원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제작지원금 100% 지원 - EBS 제작비 조정 : 정부지원금의 20% 이내 (단, 프로그램 제작비 규모와 성격에 따라 조정 가능) 	<p>< 진흥목적 정부 제작지원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제작지원금 100% 지원 - EBS 제작비 비조정

(나) 안전 대책 강화 : 기시행중인 상해보험 가입 의무화에 더해, 담당CP의 가입 확인 의무화 시행

(1) 외주제작사와 계약 시 제작진 및 출연자 등의 상해보험 가입 관련 서류 확인을 의무화하여 제작자의 안전 시스템 제고

(2) 상해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작비를 증액하여 지원

(다) 상생협력방안 개정을 통해 촬영 원본 사용 절차 간소화 추진

(1) 촬영 원본의 사용절차를 사전, 사후 승인에서 사후 승인으로 간소화하여 외주제작 사의 제작편이성 향상 및 수익 증대

<표 2-57> 촬영 원본 사용 절차 개선안

현행	개선(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전 서면 승인 요청 → ② EBS 승인 → ③ 촬영원본 활용 2차 저작 → ④ 신규저작물 EBS에 제출 → ⑤ 수익금 배분(EBS 40 : 제작사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촬영원본 중 일부 소재영상을 영상 저작물 제작에 사용할 경우 ② 제작된 영상 저작물을 EBS에 제출 → EBS 승인 후 활용 ③ 수익금 배분(EBS 40 : 제작사 60)

② 외주제작관리 개선에 따른 품질관리의 적정성

외주제작사 및 외주제작 방송물에 대한 평가를 통해 품질관리를 적정하게 하고 있는지 점검해본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사항이기도 한데, 그 절차와 방식은 다음과 같다.

(가) 외주 제작 프로그램 평가관리 절차

- 외주 프로그램 평가 내용

 - (1) 프로그램 : 양적·질적 평가

 - (2) 외주제작PD : 제작능력 등 질적 평가

 - (3) 제작사 관리능력 등 질적 평가

- 평가 후 관리 : 추후 재계약 심사 및 선정에 반영

(나) 외주 제작 프로그램 평가표에 의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평가 및 평가 결과 누적 관리

- 외주 제작 프로그램의 품질을 제고하고 EBS 채널 정체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 외주 프로그램 평가를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진행. 또한 평가 결과를 누적 관리하여 외주제작사 선발 및 외주 프로그램 제작관리에 누적된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관리자들의 관리 노하우를 후임자에게 전달하여 프로그램 관리를 더욱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평가 기준 : 다음 세 영역을 기준으로 외주제작사 평가 수행

 - (1) 기획 및 내용 관리 (내용, 구성의 적절성)(50점) : 프로그램 평가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50점 배정. EBS 채널 정체성에 맞는지에 대한 평가도 함께 수행

 - (2) 흥미 유발도 (30점)

 - (3) 제작 능력(영상, 기술)(20점)

- 외주 제작 프로그램 종합평가를 시행하고, 평가 결과를 재계약 기초자료로 활용

(다) 외주 제작 프로그램 중간 점검 및 프로그램 질 제고를 위한 워크샵 개최

- 편성 개편 이후 2~3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신규 프로그램 및 주요 프로그램의 시청자 반응, 시청률 및 내부 평가 등을 토대로 향후 외주 제작프로그램의 완성도 및 질 제고를 위한 중간 점검 실시

- 외주제작사에서 작성한 분석 보고서와 관리 담당 프로듀서의 분석 보고서를 토대로 외주관리 CP의 집중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발전적인 방향 도출

평가결과 및 제언

EBS는 상생협력방안 개정 작업을 통해 독립제작사와의 상생 발전에 기여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한 만큼, 외주 제작 안전강화를 위한 상해보험 및 여행자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외주 제작 프로그램의 제작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히 해외 출장 프로그램에 대해 상해 보험 및 여행자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비용은 제작비로 지급하여 외주 제작사의 부담을 줄이도록 개선했다.

그러나, <다큐프라임>과 같은 장기 제작 프로그램과 <극한직업> 등 제작 위험도가 높은 프로그램의 제작 안정화를 위해 관리, 감독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장기 제작 프로그램 및 제작 위험도가 높은 프로그램의 경우 강화된 상생협력방안에 의거하여 보험 가입 등 기본적인 안전대책을 주의 깊게 관리하고 제작 위험도가 높은 해외 출장 프로그램의 경우 보험 가입 의무화 실시 이외에도 수시로 제작과정을 모니터링하여 안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제작비와 관련된 것이므로, 제작비 지원을 보다 선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정부지원사업에 선정된 경우 EBS 지원제작비를 비조정하는 것을 넘어서 현실적인 수준으로 제작비 단가를 상향 조정하여 더 이상 열악한 조건에서 외주제작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덧붙여, 방송계 ‘갑질’ 논란으로 이어진 간접비 수수 문제에서도 공영교육방송사로서 EBS가 보다 선도적으로 관행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외주제작사와의 관계가 갑을관계가 아닌 진정한 상생협력의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EBS의 인식의 전환이 전제되어야 한다.

방송부문 대표 집필위원 : 김세은 위원

3. 교육부문

EBS 설립목적인 학교교육 보완 및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EBS는 다양한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문은 이러한 사업들을 2017년도 12월에 개선된 2017사업연도 EBS 경영평가편람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방송교육목표, 교육방송 시스템, 방송교육 과정, 방송교육 성과에 5개 항목 11개 지표로 나누어 평가하고, 전년도 개선권고사항의 이행노력 및 성과에 대해서도 평가한다.

그리고 당해연도 중점평가사항으로 'EBS 교재 품질관리체계 개선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표 3-1> 교육부문 경영평가 항목 및 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가. 방송교육목표	1. 방송교육목표의 적정성 1. 교육전문성 확보를 위한 노력 및 대외협력의 정도 2. 교육콘텐츠 개발을 위한 노력 및 성과 3. 제작 직원의 교육전문성 제고 정도 4. 참여자들의 교육전문성 제고 정도 5. 매체별 전문성 확보와 상호 연계성 제고 정도 6. 출판부문 외주의 전문성 및 관리의 적정성
나. 교육방송 시스템	1. 학교교육 보완 활동 전략의 적정성과 성과 1. 타겟 시청자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이용 정도 2. 방송교육 프로그램의 공교육 기여 정도와 학교 현장의 평가 정도 3. 프로그램 및 출판물의 교육격차 해소 기여 정도
다. 방송교육 과정	1. 학교교육 보완 활동 전략의 적정성과 성과 1. 타겟 시청자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이용 정도 2. 방송교육 프로그램의 공교육 기여 정도와 학교 현장의 평가 정도 3. 프로그램 및 출판물의 교육격차 해소 기여 정도
라. 방송교육 성과	1. 전년도 경영평가 개선권고사항 이행노력 및 성과 1. 전년도 경영평가 개선권고사항 이행노력 및 성과
마. 전년도 개선권고사항의 이행노력	
바. 당해연도 중점평가 사항	1. EBS 교재 품질관리체계 개선의 적정성

가. 방송교육목표

평가내용

1) 방송교육목표의 적정성

가) 평가기준

방송교육목표가 당해연도의 경영목표에 기반하여 설정되었는지 여부와 개별 프로그램 기획 및 배치에 교육목표 반영의 적정성을 평하는 것이다. 평가항목은 ① 당해 연도 경영목표에 따른 방송교육목표 설정의 적정성, ② 방송교육목표 달성을 차원의 성과이다.

나) 평가사항

① 경영목표와 방송교육목표와의 부합 정도

EBS는 2017년도 경영목표를 ‘미래·창의교육 강화’, ‘최고 교육 콘텐츠 확대’, ‘스마트 서비스 실현’으로 설정하였다. 교육부문에서는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능강의사업, 교재발간사업, 창의융합교육사업, 영어교육사업, 수학교육사업 등 5개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수능강의사업은 2017년 교육 목표를 ‘고교 학습 지원을 위한 고1,2 대상 내신 수시 대비 콘텐츠 강화’, ‘온라인 중심 입시설명회 재편’, ‘파견교사 역할 운영 개선’, ‘수학 포기자 탈출 캠페인 실시 및 관련 콘텐츠 강화’, ‘교사 대상 교재문항 한글파일 무상 지원’, ‘EBS 교재자료 관리체계 구축 및 교사지원 서비스 제공’, ‘이미지 패턴 인식 기반 수능 강의 호출 서비스’, ‘교사시청자위원회 전국 확대’, ‘꿈 장학생 행사 확대’로 설정하였다.

교재발간사업에서 2017년 방송교육목표는 ‘수능-EBS 연계 정책 수행의 근간이 되는 수능 연계교재의 완성도 제고’와 ‘2015개정교육과정 및 교육정책 변화를 반영한 신규 혁신교재 개발 등을 통한 비연계 교재 경쟁력 강화’로 설정하였다.

창의융합교육사업의 목표는 ‘창의 융합 과학교육 콘텐츠 강화’와 ‘최고 교육 콘텐츠 확대’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콘텐츠로 ‘미래강연 Q’, ‘사이언스타 Q’, ‘과학땡Q’, ‘미스터리 식당 Q’, ‘헬로! 소프트웨어’, ‘톡톡 코딩’, ‘소프트웨어 교육-미래를 코딩하다’, ‘대도서관 잡(JOB)쇼’의 시즌2 버전을 제작하였다.

영어교육방송 EBS English는 방송교육 목표 달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매체와 대상을 달리한 구체적인 운영전략과 체계적인 절차를 갖추어 사업을 진행하였다. 수요자(학습자) 중심 서비스를 위해 유아/어린이/청소년/학부모/교사 등으로 정확하게 프로그램 주시청 대상을 설정하여 각각에 적용되는 어휘, 문법 수준, 문장의 길이 등을 정하고,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한 다양한 나이도의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하며, 언어학습의 4영역인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고루 익힐 수 있도록 영역별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서비스하였다.

수학교육사업은 초·중학 커리큘럼 기반 수학 콘텐츠를 제작하고, EBSMath 사이트를 성공적으로 운영하였고, 타(他) 학문과의 내용적 융합 및 장르적 결합을 통한 디지털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였다.

② 방송교육목표의 반영 성과

방송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한 수능강의사업, 교재발간사업, 창의융합 교육사업, 영어교육사업, 수학교육사업 등 5개의 사업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수능강의사업은 고교 학습 지원을 위한 고1,2 대상 내신 대비 콘텐츠 강화를 위해 ‘국어·영어 교과서별 콘텐츠 제공 확대’, ‘학교시험 서술형 대비 강의 신규 추가’, ‘내신 대비 전국 학평·모평·수능 기출 콘텐츠 확대’, ‘학생부종합전형 대비 기초 글쓰기 콘텐츠 제작’을 진행하였다. 2016년에는 교과서 콘텐츠가 없었던 반면, 2017년 영어 13개, 67편의 교과서 기반 강좌를 신규로 제작·보급하여 이용건수가 평균 이용건수보다 21% 이상 높게 나타났다. 국어의 경우 ‘독해의 원리’ 강좌를 교과서별로 재구성하여 서비스하였다. 학교의 서술형 평가에 대비하여 서술형 강좌 17개 강좌, 120편 제작하였다. 내신 대비 전국 학평·모평·수능 기출 콘텐츠를 확대하여, 학력평가 활용 강좌 75개 420편, 기출 활용 강좌 81개 2,240 편을 제작하였다. 학생부종합전형에 대비하여 수행평가 특강 7개 강좌 76편 제작,

학생부종합전형 특강 3개 강좌 17편 제작, 전형별입시가이드 10편을 제작하여 수시 대비 콘텐츠를 보강하였다. 교재발간사업은 연계교재 완성도 종합대책을 성공적으로 이행하여 초고의 완성도를 제고하고 자체검토를 내실화하였으며,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의 감수를 강화하였다. 또한 교재발간 후 정정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외부 심의위원회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오류 관리 체계 수립에 만전을 기하였다.

창의융합교육사업은 2017년 경영목표 중 방송교육목표에 부합되는 ‘미래·창의 교육 강화’를 위해 169편을 제작하였고, ‘최고 교육 콘텐츠 확대’를 위해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6,824편 제작하였다.

영어교육사업은 학교교육 보완, 교육격차 해소 등의 목표를 수행함에 있어 학습자의 정확한 니즈 파악, 지명도 있고 방송에 적합하게 능력을 갖춘 전문 강사들로 출연진을 구성한 점, 학습 집중을 지속 유지할 수 있는 10분 내외 길이로 프로그램을 설계한 점, 입문자 및 초급자를 주 타깃으로 한 난이도 설정 및 흥미로운 구성 등의 전략이 주효한 결과, 전년 대비 프로그램 VOD 히트 수는 2016년 16,432,939건에서 2017년에 22,008,113건으로 무려 33.92% 상승하였다. 2017 EBS 콘텐츠 내용 만족도 측정 결과(목원대 전영주 교수) EBS English 프로그램의 재미, 유익성, 체계성, 다양성, 이해가능성, 풍부성 등 모든 항목에 걸쳐 전반적으로 5점 만점에 4점대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수학교육사업의 경우에는 EBSMath 콘텐츠 활용률을 히트 건수로 살펴보면 2016년 3,333,857건에서 2017년 3,673,406건으로 10% 증가하였다. 창의융합 수학콘텐츠를 강화하여 실생활 속 수학 개념 융합형 콘텐츠 <엥? 여기에 수학이?!> 24편을 제작하였고, 낸버벌(Non-Verbal) 수학 개념형 콘텐츠 <돌도끼 수학> 24편, 신체활동 + 연산 기하 학습, 체험형 콘텐츠 <수학운동회> 24편을 제작하였다.

평가결과 및 제언

‘미래·창의교육 강화’, ‘최고 교육 콘텐츠 확대’, ‘스마트 서비스 실현’으로 설정된 EBS의 2017년도 경영목표에 따라 교육부문에서는 수능강의사업, 교재발간사업, 창의융합교육사업, 영어교육사업, 수학교육사업 등 5개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전반적으로 평가할 때, 경영목표 중에서 ‘최고 교육 콘텐츠 확대’라는 측면은 잘 이루어졌지만 ‘미래·창의교육 강화’, ‘스마트 서비스 실현’의 측면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수능강의사업은 변화하는 대입제도에 따라 적극적으로 변화를 모색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수능강의사업은 대입제도 흐름에 따라 내신 및 수시 대비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학교 현장에서의 학습자들이 필요한 강좌를 이용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관련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교재발간사업은 ‘수능연계교재 완성도 제고’와 ‘2015개정교육과정 및 교육정책 변화’를 반영한 신규혁신교재 개발로 요약될 수 있으며,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교육격차 해소 및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 경감에 성공적으로 기여하였다. 창의융합교육사업은 미래·창의교육 강화라는 경영목표에 매우 부합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 이를 달성하고자 노력하였다.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함께 미래 인재상과 역량 변화, 교육의 변화에 대비하여 향후 이 분야에 대해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영어교육사업과 수학교육사업은 대상에 맞추어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였고,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기관차원에서 향후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수능강의사업과 교재발간사업은 수능연계 출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지원을 받고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제도적 변화에 따라 일시에 사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취약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경영의 측면에서 본다면 대입제도 변화에 따른 상황대응전략(Contingency Plan)을 마련해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창의융합교육사업은 향후 매우 강조될 영역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더욱 더 적극적

인 투자와 콘텐츠 개발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영어교육사업과 수학교육사업의 경우에는 ‘스마트 서비스 실현’이라는 경영목표에 맞추어 좀 더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갖추어 나가고, 학습자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여 활용도를 더욱 높여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 교육방송 시스템

평가내용

1) 교육전문성 확보를 위한 노력 및 대외협력의 정도

가) 평가기준

교육정책 등에 대한 중장기적인 설계 및 관리(교육 관련 부서와의 연계 등)를 위한 체계, 교육전문성 확보를 위해 상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외부 연구조직 및 그 과정이 확립되어 있는 정도 등을 평가한다. 평가항목은 ① 교육정책 등에 대한 중장기적인 설계 및 관리(교육 관련 부서와의 연계 등) 체계의 적정성, ② 외부 교육전문가 또는 연구조직의 활용 정도이다.

나) 평가사항

① 교육정책 등에 대한 중장기적 설계 및 관리(교육 관련 부서와 내·외의 부서 및 기관 등과의 연계 등)체계의 적정성

수능강의사업은 수능강의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 및 연계 정책의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교육부’와 정책 협의 및 실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였다. 학교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교사로 구성된 자문단 ‘교사 시청자 위원회’를 4회 개최하였고, 장학사로 구성된 자문단 ‘시·도교육청 장학사 협의회’를 3회 운영하였다. 학교현장과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을 유도하고 학습 능력 신장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였고, 교과별로 학습 유형을 강의에 적극 반영하여 내신 및 수능시험을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입시정보 서비스 강화를 위한 콘텐츠를 신규 개발하여 대입정보의 지역격차 해소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노력하였다.

교재발간사업은 교육부-평가원과의 유기적인 협업관계를 구축하여 연계교재 완성도 제고 방안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완성도 높은 연계 교재를 개발함으로써, 교육과정상 목표의 효과적 달성과 안정적인 수능-EBS 연계정책 수행에 기여하였다.

창의융합교육사업은 교육전문성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콘텐츠 제작에 있어 교사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고 학교교육 보완을 위한 초·중학 콘텐츠 제작에 있어 현직 교사를 중심으로 강의를 제작하였고,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설명회를 11회 개최하였다.

영어교육사업은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와 업무 협력을 위한 분기별 협의회와 부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영어 정책 및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시도교육청 소속 EBS 영어교육방송 담당자 회의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의 활용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수학교육사업은 ‘2015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학교육과정 상의 변화를 콘텐츠 제작 및 서비스에 반영하기 위해, 담당기관인 <한국창의재단>의 수학교육개발실장을 초빙하여, EBS 학교교육본부 차원의 연수를 진행하였다(2017.8.31). 2018년 사업추진을 위하여, 콘텐츠 제작 대상학년을 선정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의견을 청취하였다.

미래교육연구소는 실질적인 업무 인력 구성을 시도하여 차기년도인 2018년 업무 추진 효율화 및 전문화의 토양을 마련하고자 하였고, 기관의 정책적 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이슈&전략 리포트>, <동향브리핑>, <미디어와 교육> 등을 내외부 전문가와 협력하여 발간하였다.

② 외부 교육전문가 또는 연구조직과의 협력 및 활용 정도

수능강의사업은 자문단으로 ‘교사 시청자 위원회’ 및 ‘전국 시·도교육청 연구 협의회’를 운영하였다. 또한 교육부-시·도교육청-EBS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 연구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교재발간사업은 수능 70% 연계 정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교육부, 한국교육 과정평가원(KICE)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2015년에 교육부, KICE와 공동으로 마련한 ‘수능-EBS 연계교재 완성도 제고 종합 대책안’을 2016년부터는 전면 적용하여 교재를 개발하였다. 수능연계교재의 품질 및 신뢰도 제고의 중요 요소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감수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였으며, 시·도교육청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추천을 받은 학계 전문가로 교재정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교재 개발 참여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선정 시 역량 검증 시스템을 활용하였다.

창의융합교육사업은 강의제작에 참여하는 강사(외부 교육전문가)의 선발시 공모를 통한 3단계(서류심사-카메라테스트 및 역량면접-최종면접) 심사를 실시하며 평가기준에 있어서도 교육전문성을 중요 평가항목으로 포함하고 있다. 미래창의교육 콘텐츠 및 초중학 학습 콘텐츠의 기획-제작-검수 단계에 이르기까지 현직 교사가 참여하고 있다. 청소년 진로체험 및 자유학기제 시행을 위한 학교교육 보완 프로그램인 <대도서관 잡(JOB)쇼> 제작시 서울시교육청과 협력을 진행하였다.

2) 교육콘텐츠 개발을 위한 노력 및 성과

가) 평가기준

교육콘텐츠 확보와 개발을 위한 조직, 부서, 인원의 구성 및 배치, 예산집행 등을 평가한다. 평가항목은 ① 교육콘텐츠 개발을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② 교육콘텐츠 개발을 위한 조직, 인력, 예산 등 자원 확보 정도는 어떠한 가이다.

나) 평가사항

① 교육콘텐츠 개발을 위한 노력 정도

수능강의사업은 2017년 EBS 수능강의를 고교 입시 동향에 맞추어 수능 콘텐츠, 내신 콘텐츠, 대학별 콘텐츠로 기획하여 제공하였다. ‘수학 수준별 강좌 확대’, ‘국어 내신개념 및 수능기초 강좌 확대’, ‘영어 절대평가 대비 콘텐츠 강화’ 등을 추진하여 수준별·맞춤형 강좌를 강화하였다. ‘비주얼 사과탐 - 한국사’ 20편, ‘지구과학 3D 특강’ 18편, ‘꿀꺽 VOCA 시리즈(4분 꿀꺽 VOCA · 5분 꿀꺽 VOCA)’ 180편, ‘교과서 배경여행’ 3편, ‘핫이슈 특강’ 11편을 지원하는 등 과목별로 학습 동기부여, 수업 도입 부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짧은 RT의 클립형 콘텐츠를 제작하여 제공하였다. 그 밖에도 내신/대입 학습 콘텐츠를 확대하고,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창의인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교재발간사업은 2017년 1월 ‘2018학년도 수능특강’ 49책(서책 31책, PDF 16책), 6월 ‘2018학년도 수능완성’ 40책(서책 21책, PDF 19책) 등 연계교재 발간을 진행하였다. 또한 연계교재는 교과의 성격에 따라 외부전문가가 지문과 계산, 수식 등의

검토에 참여함으로써 오류를 최소화하고 완성도 높은 교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17년에 비연계교재 185책(혁신교재 45책 포함)을 발간하였다.

창의융합교육사업은 초등, 중학, 창의 융합과학 콘텐츠,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영역에서 44개 강좌, 1,396편, 5,597개 클립 등 총 6,993개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영어교육사업은 방송 프로그램을 총 5,553편과 3분⑨클립을 총 2,595편 제작하였으며, 신규제작/재활용/재방송의 편성비율은 28.6%/25.3%/46.1%이며 주당 총 방송시간 7,560분이다.

수학교육사업은 EBSMath 초3·4 수학 학습 콘텐츠를 신규로 제작하여 2018년 2월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실생활 속 수학 개념 융합형 콘텐츠 <엥? 여기에 수학이?!> 24편, 넌버벌(Non-Verbal) 수학 개념형 콘텐츠 <돌도끼 수학> 24, 신체활동 + 연산 기하 학습, 체험형 콘텐츠 <수학운동회> 24편, 기하와 연산 부분에서 널리 활용되는 <수학 교구형 인터랙티브> 25편, SNS 플랫폼에서 용이하게 활용되는 <수학카드 뉴스> 26편 등 총 171편을 제작하였다.

② 콘텐츠 제작 성과

수능강의사업의 콘텐츠 제작 성과는 직전 3개년도 실적의 평균 16,115편에 비해 2017년에 총 17,774편이 제작되어 산출식에 의해 111.8%의 성과를 기록하였다.

창의융합교육사업의 콘텐츠 제작 성과는 직전 3개년도 실적의 평균 3,267편에 비해 2017년에 총 6,993편이 제작되어 산출식에 의해 342.4%의 성과를 기록하였다.

영어교육사업의 콘텐츠 제작 성과는 직전 3개년도 실적의 평균 4,566편에 비해 2017년에 총 5,553편이 제작되어 산출식에 의해 136.0%의 성과를 기록하였다.

수학교육사업의 콘텐츠 제작 성과는 직전 3개년도 실적의 평균 121편에 비해 2017년에 총 171편이 제작되어 산출식에 의해 96%의 성과를 기록하였다.

③ 교재 개발 노력 정도

학교교육본부는 교육콘텐츠 개발을 위해 사업별 조직을 구축하고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 학교교육본부 전체 인원은 97명이며, 일반직 62명, 계약직 13명, 파견직 16명, 파견교사 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3-2> 학교교육본부 인원현황 (2017년 12월 기준)

구 분	합 계	일반직	계약직	파견직	일용직	파견교사
학교교육본부	1	1	-	-	-	-
학교교육기획부	15	10	3	2	-	-
수능교재기획부	31	22	6	3	-	-
수능교육부	15	9	1	2	-	3
창의융합교육부	15	7	1	5	-	2
소프트웨어교육팀	4	3	-	-	-	1
영어교육부	10	5	2	3	-	-
수학창의교육부	6	5	-	1	-	-
합 계	97	62	13	16	0	6

학교교육본부의 업무는 수능강의사업, 창의융합교육사업, 소프트웨어교육사업, 영어교육사업, 수학교육사업 등 5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예산은 468.7 억원이다.

<표 3-3> 학교교육본부 예산 확보 실적

(단위 : 천원)

사업명	부 명	주요 내용	예산액
수능	학교교육 기 획 부	학습지원	3,196,298
		수능강의 제작지원(임자료, 시내교통비, 커리큘럼 등)	361,330
		수능강의 인터넷 서비스(회선료, 위탁운영 등)	6,850,952
		수능강의사업 연구지원	262,100
	수능교재 기 획 부	수능연계교재 개발	5,979,856
		고교(비연계) 교재 개발	5,554,877
		직탐/제2외국어교재개발(수능해설), KICE감수료 등	2,452,364
		출판기획지원	810,970
	수 능 교 육 부	수능강의 제작	8,950,000
		수능강의 제작지원(파견교사 등)	635,474
		학습Q&A/입시설명회/온라인입시상담	959,690
초중학	창의융합 교 육 부	초중학 콘텐츠 제작(플러스2)	868,769
		초중학 콘텐츠 제작지원	9,518
		초중학 인터넷 서비스	60,000
소프트	소프트웨어 교 육 팀	SW 방송콘텐츠 제작	350,000
		평가조사 및 사업관리 운영	50,000
영어채널	영 어 교 육 부	영어콘텐츠 제작	2,432,396
		사이트 및 인프라 구축 운영, 송출	3,574,004
		연구조사 및 지원	163,600
수학교육	수학창의 교 육 부	수학콘텐츠 제작	1,580,481
		사이트 및 인프라 구축 운영	1,012,816
		연구지원 및 운영	759,077
합 계			46,874,572

④ 교재 개발 성과

수능강의사업의 연계교재 개발 성과는 직전 3개년도 실적의 평균 60권에 비해 2017년에는 총 52권이 개발하여 산출식에 의하면 60.8%의 성과를 기록하였다. 이는 정부의 수험생 학습부담 축소 기조에 따라 수능연계교재 책 수가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로 인한 것이다.

수능강의사업의 비연계교재 개발 성과는 2017년에 총 185권이 개발되어 산출식에 의해 118.9%를 기록하였다.

영어교육사업은 지난 3년간은 교재 발간 실적이 없는 상황에서 2017년에 총 14권이 개발되어 산출식에 의해 1,400%를 기록하였다.

3) 제작 직원의 교육전문성 제고 정도

가) 평가기준

제작 직원의 교육에 대해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사원들을 대상으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또한 신입사원에 대한 교육학적 전문성에 대한 고려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육 등의 실시 정도를 평가한다. 평가항목은 ① 제작 직원의 교육전문성 정도, ② EBS 직원의 전문적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운영 실적, ③ 신입사원에 대한 교육학적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실시 정도이다.

나) 평가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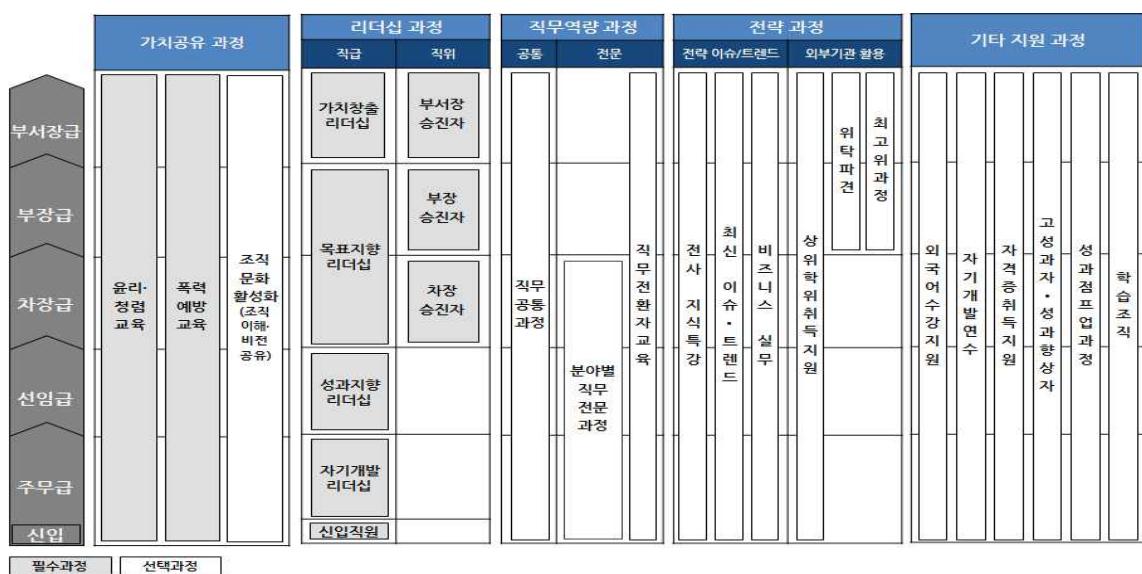
① 제작 직원의 교육전문성 정도

수능교육부는 박사급 1명, 석사급 3명, 학사급 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교육관련 전공자가 5명으로 모두 교사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교재개발 인력은 총 28명이며, 대부분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외국어 등 교과 및 교과교육 전공의 석·박사 학위자 또는 교재개발·출판 경험자로 구성되어 있다. 창의융합교육 사업에는 전체 제작자 5명 중에서 3명이 교사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수학교육사업은 2명이 교사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② 직원의 전문적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운영 정도

EBS의 2017년도 교육프로그램은 가치공유과정, 리더십과정, 직무역량과정, 전략과정, 기타지원과정 등 총 5개의 전문 영역으로 세분화해 구성·지원하였으며, 특히 구성원의 직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직무역량과정에 가장 많은 예산을 배정하여 집중 지원하였다.

<그림 3-1> 2017 교육훈련 체계도



전사적 차원에서 성과 창출 기반 마련을 위한 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현업의 선제적 문제 해결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부서별 R&D 연수를 지원하고, 직무전문과정 확대 운영을 통해 구성원의 업무 전문성 및 조직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전보 등에 따른 직무전환자의 소프트랜딩을 지원하기 위한 개인별/수준별 맞춤 교육을 지원하고, 현장 중심의 문제해결력 및 전략적 의사결정력 향상을 위한 자율형 학습조직(CoP)을 운영하였다.

<표 3-4> 직무역량 영역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적

(단위 : 명, 시간)

영역	세부 영역	교육 인원	교육 시간	비고
직무역량	직무전문교육	920	10,615	
	직무공통교육	17	136	
	직무전환자교육	13	188	
합계		950	10,939	

③ 신입사원의 교육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실시 정도

신입사원이 입사 직후 받게 되는 입문교육은 교육방송에 대한 기본이해, 교육 및 미디어 전반에 관한 심화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평생교육, 학교교육, 유아어린이교육 등 EBS의 주요역할 및 핵심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별 교육을 담당 부서장 및 부장이 직접 교육자료를 구성해 교육함으로써 신입사원의 교육 학적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였다.

4) 참여자들의 교육전문성 제고 정도

가) 평가기준

프로그램 참여자(직원, 프리랜서 PD 등)나 감수자가 기관 교육목표와 편성의도 등을 이해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활용되고 있으며, 참여 후 이들의 의식, 인지 평가 및 추후 반영을 위한 시스템(DB)이 구축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평가항목은 ① 프로그램 참여자(직원, 프리랜서 PD 등)나 출연자 선정 시 교육전문성 고려 비중, ② 제작 직원, 프로그램 참여자 및 감수자가 기관 교육목표와 편성의도 등을 이해하도록 하는 시스템의 활용 정도, ③ 프로그램 참여 후 이들의 의식, 인지도 평가 및 반영을 위한 시스템(DB) 운영 정도이다.

나) 평가사항

① **프로그램 참여자(직원, 프리랜서 PD 등)나 출연자 선정 시 교육전문성 고려 정도**
수능강의사업의 경우에는 3단계의 심사를 거쳐 강사를 선정하였다. 1단계는 서류심사로 80점 이상을 합격 기준으로, 2단계 심사는 카메라 테스트 및 역량면접을 실시하여 80점 이상을 합격 기준으로, 3단계는 최종 면접으로 역시 80점 이상을 합격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온라인 교사 경우에는 2단계의 심사로 운영하고, 프리 PD 선정의 경우에는 1단계 서류 전형과 2단계 면접으로 심사 하였다.

교재발간사업에서는 수능연계 교재 집필진의 자격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자격을 갖춘 자로 집필 후보군이 구성되면 ‘집필진 선정위원회’에서 적절성 여부를 심사하고, 서류 심사 및 샘플원고 심사 등을 통해 집필역량과 소양을 갖춘 자에 한하여 연계교재 집필진으로 최종 선정하고 있다.

<수능연계교재 집필진 자격 기준>

1. 아래 항목의 하나 또는 그에 준하는 교육 경력을 가진 자

- ① 고등학교 근무 경력 3년 이상인 현직 교사
- ② 대학 강의 경력 3년 이상인 현직 교수
- ③ (외국어 교재) 해당 언어 사용 국가에서 학사 이상의 학력을 갖춘 자로서 국내외 대학 및 고등학교의 전임 또는 초빙교원 및 강사, 대학부설 기관의 연구원 또는 강사, 해당국의 주한 외국 대사관이 추천하는 자 중의 하나에 해당함

2. 최근 10년 이내에 아래 항목의 하나 또는 그에 준하는 집필 및 검토 경력을 가진 자

- ① 고등학교 참고서(자습서 포함) 집필
- ② 고등학교 국정 및 검인정 교과서 집필
- ③ 전국단위 시험 출제 및 검토
- ④ 학술논문 5편 또는 저서 2권 이상 집필
- ⑤ EBS 교재 집필 경력자

3. 출제 업무, 합숙 검토 및 일반 활동을 함에 있어 건강상의 문제가 없는 자**② 제작 직원, 프로그램 참여자 및 감수자의 EBS 교육목표와 편성의도 이해를 위한 시스템의 운영 정도**

수능강의사업은 영역별 워크숍을 통해 ‘방송교육목표, 편성의도’에 대한 인식 및 인지정도를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교육 및 연수를 기획하여 시행하였다. 2017년에는 연간 총 24회 이상의 제작참여자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교재발간사업은 2017년 9월 23일에 수능문항에 준하는 EBS 교재문항 개발을 위하여 집필진의 출제 전문성 개발을 목적으로 연계교재 집필진 전문성 향상 연수를 실시하였다.

창의융합교육사업은 워크숍을 실시해 강의 질 관리를 위한 제작 매뉴얼을 배포하고, 강사진과 제작진들이 숙지하도록 독려하였다. 초·중학 신규강사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해 EBS 학습콘텐츠 제작방향을 공유하고, 방송강의 제작 시 유의점과 강의방법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였다. 또한 검수교사 대상으로 초·중학 검수관리 시스템과 검수방향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였다.

영어교육사업은 제작진 워크숍을 통해 방송교육 목표 및 편성 의도, 제작 시 유의점을 교육하였다. 프로그램 별 기획 회의 공동 시사, 스텝 회의 등을 통해 교육콘텐츠 제작방향 및 유의 사항을 공유하고, 장학사, 홍보교사 워크숍을 통해 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피드백 및 제작 조언 청취 후 제작에 반영하였다.

수학교육사업은 모든 아이템 선정 및 기획회의, 원고제작회의를 진행하면서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용어와 표현, 설명 방법 등을 회의를 통해 숙지하도록 하였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자료를 교수와 교사들 간에 공유함으로써 오류 최소화 및 참여자들의 콘텐츠 제작목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③ 프로그램 참여자(직원 및 프리랜서 PD 등)의 참여 후 의견 수렴 및 반영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운영 정도

수능강의사업에서 수능 출연 강사는 연 1회 정량적, 정성적 평가를 실시하였다. 강의 이용률 Data 분석을 통한 정량평가와 함께 강의제작시의 성실함, 전문성 등을 고려한 정성평가를 기준으로 설정해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점수가 낮은 일부 강사는 다음 강의배정을 제한하였다. ECD¹¹⁾(프리 PD)의 평가는 6개 영역 CP 별 정성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기준은 제작 이해도, 제작 전문성, 제작 협조도, EBS수능사업에 대한 이해도 등이다.

교재발간사업은 교재개발 참여자의 성과에 대한 정량적·정성적 평가를 실시하였다. 수능연계교재 품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교재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과 오류 발생 개수를 주요 평가기준으로 설정하였다. 교재 오류 발생 시 페널티 조항을 적용하여 오류 건수에 대한 집필료, 검토료, 편집료를 차감하고, 다수의 오류 발생 시 향후 교재 개발 참여를 제한하였다. EBS 교과위원이 작성하는 교재 개발 완료 보고서에 개발 참여자들의 집필 참여도, 공동 작업 역량 및 목표 공유 수준에 대한 정성·정량 평가가 포함되며 평가 결과는 향후 인력을 구성하는 데 참고 자료로 활용하였다. EBS 교재 개발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에 대한 유출 방지,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지침 공유 및 보안 서약서를 징구하였고, 집필자 관리 기준을 강화하여 역량미달 집필자 판단기준에 내용오류만 포함되던 것을 내용오류·단순 오탈자·맞춤법 위배로 확대 적용하였다.

11) ECD : Educational Contents Director, 교과전문제작자

창의융합교육사업에서 초·중학 출연 강사는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평가를 통해 다음 출연 여부 결정하였다. 출연자 및 콘텐츠 개발기획 참여자는 해당 콘텐츠 제작 완료시 평가를 실시하였다. 수학교육사업은 수학교육 콘텐츠 개발 전문가나 제작진 등 참여자에 대한 평가는 제작된 콘텐츠의 교육적 목표 달성 정도와 관련이 깊다. 제작 완료 후의 콘텐츠 공동시사 및 학생과 교사·학부모 등 이용자 만족도 조사 연구, 이용자 피드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프로그램 참여자를 평가하였다. 또한 EBSMath(www.ebsmath.co.kr) 사이트의 이용건수가 매일 통계자료로 공유되며, 이를 바탕으로 매 사업 기간마다 콘텐츠 유형별 이용 건수의 증감 추이, 콘텐츠별 이용 건수와 이용 행태의 변화 등을 통해 수학교육 콘텐츠의 교육 목표 달성 정도를 평가하고 있다.

5) 매체별 전문성 확보와 상호 연계성 제고 정도

가) 평가기준

다양한 채널을 보유하고 있는 EBS의 특성에 맞는 방송 프로그램들이 도입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또한 이러한 독립채널이 갖고 있는 교육 노하우 등의 상호 협조를 위한 체제 구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평가한다. 평가항목은 ① 제작과정에서 각 매체별 상호보완체제를 고려한 정도, ② 제작과정에서 학교교육 보완, 평생교육, 민주교육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고려한 성과이다.

나) 평가사항

① 제작과정에서 각 매체별 상호보완시스템을 고려한 성과

EBS는 매체별 특성에 따른 채널별 차별화 전략을 통해 EBS의 설립 목적인 학교교육 보완과 국민의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시대 변화에 맞춰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매체별 차별화 전략과 더불어 일부 채널 간 중첩되는 영역에 대해서는 상호 교차편성을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으며, 채널별 특성화 전략의 기본은 <표 3-5>와 같다.

<표 3-5> 채널별 특성화 전략

매체	구분	내용
EBS 1TV	채널 Identity	◦ 유아어린이 창의인성 교육 채널 및 평생 교육 채널
	채널 포지셔닝	◦ 국내 최대·최고의 유아어린이 교육 <u>프로그램</u> 채널 ◦ 국내 최대·최고의 교육 다큐멘터리 채널
	채널 특성화 전략	◦ 사회통합, 공동체 교육 콘텐츠 강화 ◦ 자존감, 공존-공감 능력, 행복감 등의 생활 역량 강화 콘텐츠 ◦ 교육 어젠다 설정에 적극 대응하는 콘텐츠 개발 ◦ 크로스미디어, UHD 등 방송 환경 변화 대비 콘텐츠 기획 ◦ 유아어린이 창의·인성 콘텐츠 기획 개발
EBS 2TV	채널 Identity	◦ 창의·융합 채널
	채널 포지셔닝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국내 최고 창의·융합 콘텐츠 교육 채널
	채널 특성화 전략	◦ 초·중 대상 창의·융합 콘텐츠 기획·제작 ◦ 학교 현장과 연계하여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대응하는 콘텐츠 강화 ◦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일반인 대상 교양 <u>프로그램</u> 강화 ◦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외국어 교육 <u>프로그램</u> 개발
EBS FM	채널 Identity	◦ 인문·교양, 외국어 학습 채널
	채널 포지셔닝	◦ 인문·교양, 외국어 학습 라디오 채널로 EBS FM 정체성 제고
	채널 특성화 전략	◦ 시간대별 Zone 개념 편성 전략(영어·제2외국어 / 문화예술교육 / 부모·교사교육 / 민주시민 교육 / 음악과 인문학 / 청소년) ◦ 인문·교양 채널 정체성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기획 ◦ 수준별·대상별 다양한 외국어 콘텐츠 편성 ◦ 음악을 인문학적으로 풀어내는 문화·예술 <u>프로그램</u> 강화
EBS 플러스1	채널 Identity	◦ 대수능 및 고교 학습 채널
	채널 포지셔닝	◦ 국내 유일의 고교 대상 학습 및 정보 채널(무료)
	채널 특성화 전략	◦ 수능 및 내신 대비 전 교과 수준별 편성 ◦ 입시, 논술 등 각종 학습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 제공 ◦ 교과 학습용 클립형 콘텐츠를 통한 학습 효율성 제고 ◦ 학생 및 교사, 학부모 등 교육현장의 니즈를 반영한 콘텐츠 강화
EBS 플러스2	채널 Identity	◦ 초·중 공교육 보완 및 직업 교육 채널
	채널 포지셔닝	◦ 자기 주도적 학습을 지원하는 고품질 학습 <u>프로그램</u> ◦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보, 시험대비, 실무 콘텐츠
	채널 특성화 전략	◦ 초·중학생 및 성인 생활시간대에 맞춘 블록 편성 강화 ◦ 교육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공교육 보완 콘텐츠 강화 ◦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고품격 맞춤형 직업교육 콘텐츠 제작 ◦ 학생 및 교사, 학부모 등 교육현장의 니즈를 반영한 콘텐츠 강화
EBS English	채널 Identity	◦ 영어교육 전문 채널
	채널 포지셔닝	◦ 국내 최대·최고의 고품격 영어 학습 콘텐츠 제공
	채널 특성화 전략	◦ 학교 커리큘럼 반영 및 학교 현장 활용 가능한 융합 교과형 <u>프로그램</u> 강화(클립형 콘텐츠 확대) ◦ 온라인 방송을 활용한 양방향 라이브 클래스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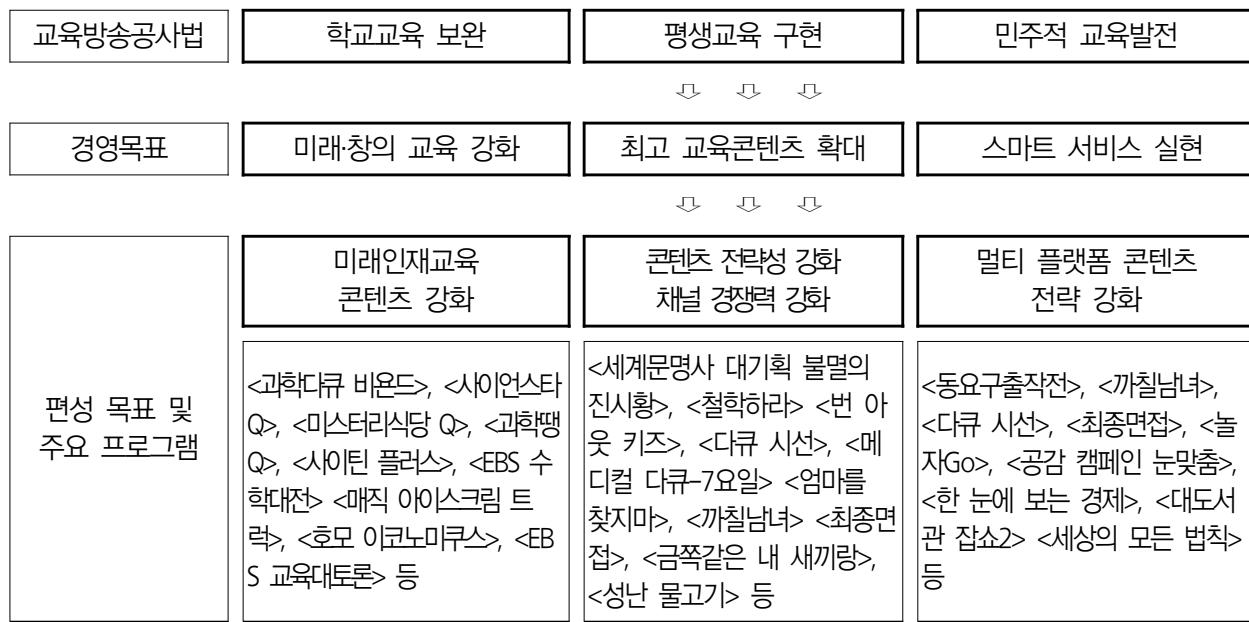
채널 간의 상호 보완적 시너지 효과를 위해 매체 상호 간 프로그램을 교차편성하고 있다. 플러스1, 플러스2 및 EBS English 채널의 학교교육 및 직업 프로그램은 지상파 1TV·2TV에, 지상파 1TV의 유아·어린이 인성교육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플러스 1, 플러스 2 채널에 교차 편성하고 있다. 또한 2TV의 창의 융합 및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 프로그램도 1TV, 플러스 1, 플러스 2 채널에 교차편성 하였다. 2017년의 경우, 다음과 같이 연간 109건의 교차편성을 실시함으로써 채널 간 콘텐츠 활용의 극대화에 노력하였다.

<표 3-6> 2017년 채널 간 교차편성 유형 및 건수 현황

기간	교차 유형		교차편성 건수	계
	주매체	부매체		
2017년	1TV	2TV	10	109
		플러스1	4	
		플러스2	15	
	2TV	1TV	9	
		플러스1	1	
		플러스2	10	
		EBS English	8	
	플러스1	1TV	3	
		2TV	6	
		플러스2	5	
		EBS English	0	
	플러스2	1TV	12	
		2TV	8	
		플러스1	1	
		EBS English	3	
	EBS English	1TV	0	
		2TV	13	
		플러스2	1	

② 제작과정에서 학교교육보완, 평생교육, 민주교육의 상호보완을 위해 노력한 정도
EBS는 2017년 편성 목표를 EBS 설립 목적을 기반으로 한 해당 연도 경영목표와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추진하였다.

<표 3-7> 2017년 경영목표와 편성목표



이러한 편성의 목표는 EBS의 다양한 채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실현하는 데 있다.

<표 3-8> 편성 전략에 따라 EBS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실현

구분		주요 편성 목표	비고
지상파	EBS 1T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어린이 및 평생교육 ■ 세대별 교양 함양 	Broadcasting의 특성 고려한 범용적 콘텐츠, EBS 브랜드 가치 제고, 시청률 견인
	EBS 2T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학 창의융합교육 ■ 외국어, 교육격차해소 	
	EBS F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양함양 및 외국어 교육 	
PP	EBS Plus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능·내신·논술교육 	채널별 목표 시청자 대상 콘텐츠 및 교육3주체 대상 콘텐츠 강화
	EBS Plus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중학·직업교육 	
	EBS Englis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 교육 	
인터넷 / 1인 방송	ebs.co.kr ebsi.co.kr ebse.co.kr ebsmath.co.kr EBS 육아학교 Pi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멀티플랫폼 콘텐츠 전략 강화 ■ 이슈 및 집중 프로그램 통합 큐레이션 ■ 시기별 주제별 콘텐츠 큐레이션 	온라인 특성 고려, 다양한 상세 부가 정보 (narrowcasting)

6) 출판부문 외주의 전문성 및 관리의 적정성

가) 평가기준

출판부문 외주의 전문성 및 관리의 적정성은 교육관련 출판물의 집필진과 편집 외주사들이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평가항목은 ① 출판물 제작 집필진과 편집외주사가 EBS 교육이념을 숙지하고 있으며, 제작한 출판물이 EBS 방송 교육목표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과 시스템 운영 현황, ② 교육관련 출판물 제작 외주사들의 전문성 정도, 제작한 교재들의 타사 교재출판물들과 비교한 질적 우수성 및 경쟁력 정도이다.

나) 평가사항

① 외주제작사 및 집필진의 EBS 교육목표 이해 정도와 출판물의 교육목표 부합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과 시스템운영 및 운영 정도

교재발간사업을 위해서 ‘EBS 교재에 대한 기획 평가관리 절차 및 지침’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EBS 교재에 대한 기획은 내부 교과위원을 중심으로 한 교재 기획 인력들이 교재의 기본 방향성을 선정한 후, 집필진과 함께 세부 내용을 기획하는 ‘내용선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기획 단계에서 교재의 구성, 내용, 사양, 개발 일정 등을 EBS의 교육이념 실현을 고려해 결정한 후, 집필자 등과 EBS 교재 집필 지침을 공유하여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수능연계교재의 경우 최대한 수능의 출제 기조에 맞도록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상호 소통해, 이를 근거로 교재별 ‘내용선정협의회’를 운영하여 긴밀한 협업을 수행하고 있다. ‘무오류 교재 제작’을 목표로 집필 전 과정에서 오류 발생 방지 관련 지침을 명확히 공유하고, EBS 교과위원이 교재개발 참여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면대면 검토, 합숙형 검토)하였다. 수능연계교재는 직영출판물로,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가장 많은 공정을 내부에서 담당하며 편집(책임편집자) 및 조판, 인쇄에 있어서 외주를 활용하므로 이에 대해 EBS 교과위원이 밀착형 총괄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교재 디자인도 ‘교재 디자인에 대한 평가관리 절차 및 지침’에 따라 진행하였다. 표지 디자인은 기획 의도가 잘 반영되었는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없는지를 표지선정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 디자인 결과가 최종적으로 교재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디자인, 조판, 인쇄 등 다수 업체와의 협업이 필요하므로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업무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디자인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여 공유하고 EBS 담당자가 진행과정을 확인하였다.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연계교재 같은 경우 ebsi 사이트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최종 시안을 확정하였다.

<표 3-9> 표지 디자인 선정 프로세스

업무 단계	세부 업무 사항
디자인 시안 요청	- 시리즈 특성 및 콘셉트 설명
경쟁 PT 진행	- 교재 콥셉트에 맞는 디자인인지 확인 - 사회적 논란 소지 가능성을 확인 → 출품 가능 디자인 시안 후보군 3개 선정
후보 시안 Develop 진행	- 수정이 필요한 내용이 있을 시 수정된 시안으로 설문 진행
학생 설문 조사 진행	- EBS 【듀나공감】 게시판 활용 - 배너, 팝업창, 알림방 공지를 통한 설문 홍보 - 아이디 당 1번 참여로 제한
표지 디자인 최종 확정	- 학생 선호도 조사 결과를 반영한 최종 시안 확정
확정 시안 업체 공지	- 선정된 디자인에 대한 수정 의견 등 전달
표지 검토위원회 진행 / 결과 보고	- 학교교육기획부, 출판사업부, 홍보부, 미술부, 영상그래픽부장 검토위원회 진행 및 평가 결과표 작성
과목별 VARIATION 진행	- 과목별 표지 디자인 수정 및 검토 진행

수능과 연계되지 않는 초·중학 교재의 경우에도 교재 내용에 대한 기획, 평가 관리 절차를 지침에 따라 수행하였다. 초·중학 교재는 직영 출판물로서 전반적 개발 과정은 수능연계교재와 대동소이한 방식(합숙형 검토만 제외)으로 진행되며, 편집 및 조판, 인쇄 등에 있어 외주를 활용하였다.

교재 디자인에 대한 평가관리 절차는 지침에 따라 진행하였다. 표지 디자인은 기획의도의 반영, 사회적 논란 소지 여부 등을 표지검토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 디자인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여 공유하고 EBS 담당자가 진행과정을 확인하였다. 주요 브랜드의 경우 사용자 선호도 조사로 최종 표지 디자인을 선정하였다.

② 교육관련 출판물 외주제작사의 전문성 정도, 출판물의 타사대비 질적 우수성 및 경쟁력 정도

외주 출판물 제작사 선정 절차는 기준에 따라 진행하였다. 외주 출판물 제작사(조판/편집)는 모집공고를 통해 접수를 받고 평가를 통과한 업체와 등록 계약하여 선정하고, 외주 디자인 제작사는 편집사보다 1회의 시안 평가가 추가되어 총 2차의 평가를 거쳐 선정하였다.

외주 제작 교재의 질적 우수성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 최근 3개년 간 초·중학 교재의 책당 내용 정정건수는 약 0.12건으로 시중 교과서를 상회하는 완성도와 신뢰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질적 우수성을 기반으로 교재 시장 전반이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는 중에도 EBS 초등교재는 성장세를 기록하여 점유율을 확대되고 있다.

<외주 제작사 자격 요건>

- 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출판 또는 편집)을 교부받은 자
- 나. 본사 회계규정시행세칙 제250조 규정에 의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 받지 아니하는 자
- 다. 편집 전담 담당자(일부교과가능)를 구성·운영하고 있는 자
- 라. 사업장 소재지가 수도권 내에 위치하고 있는 자
- 마. 위 각 호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자로서 참가서류를 등록마감일시까지 제출한 자

외주 출판물 제작사로는 교재 인쇄·제본 업무를 담당하는 「인쇄업체」가 있으며, 외주 출판사로는 학교현장 연계 및 초등 방학학습 교재 발간 전문성을 갖춘 단체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계약을 통해 사업의 연속성 및 안전성을 담보하고 있다. 인쇄업체는 연간 교재 제조량을 고려하여 「11개처」를 운용하며, 매년 일정 수준 이상의 자격 요건을 구비한 업체를 대상으로 일반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공정하게 선정하고 있다.

평가결과 및 제언

교육방송 시스템 영역에서는 ‘교육전문성 확보를 위한 노력 및 대외협력의 정도, 교육콘텐츠 개발을 위한 노력 및 성과, 제작 직원의 교육전문성 제고 정도, 참여자들의 교육전문성 제고 정도, 매체별 전문성 확보와 상호 연계성 제고 정도, 출판부문 외주의 전문성 및 관리의 적정성’ 등 총 6개 영역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였다.

수능강의사업의 경우 수능강의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 및 연계 정책의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교육부와 정책 협의 및 실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였고 다른 사업들도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수능강의사업의 경우 사교육 인터넷강의 업체들의 가격하락으로 인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스타강사 영입 등으로 ebsi 이용률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위기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내신 및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내신 콘텐츠 확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향후 대학입학전형 제도의 변화가 예견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전망과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교재발간사업의 경우에는 정부의 ‘수험생 학습부담 경감 및 사교육 억제’라는 정책 기조에 부응하고자 ‘수능-EBS 연계교재 완성도 종합대책’에 따라 2019학년도 수능특강(31책, 16 PDF), 수능완성(21책, 19PDF)을 총 13~14개월의 제작기간, 14단계에 걸친 사전검토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감수를 거쳐 안정적으로 완성도 높은 교재 개발을 완료하였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수능 연계교재의 경우 수능제도의 변경에 매우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와 환경의 변화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수능 연계 교재의 비중을 점차 줄이고 새로운 교육방송 콘텐츠 개발과 함께 비연계 교재의 비중을 늘리는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창의융합교육사업의 경우에는 총 인력 15명 전원 교육콘텐츠 개발 및 제작에 투입하여 다양한 교육콘텐츠를 개발하였다. 우수 강사진 확보 및 강사 연수를 통한 강의 품질을 제고하고, 고품질 비 교재 콘텐츠 개발을 위한 기획회의 및 자문진을 강화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초·중학 콘텐츠 서비스 관

련하여 제작부서, 교재출판부서, 사이트 관리부서 등이 나뉘어 있어 효과적인 콘텐츠 개발 및 홍보 등 시너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합적 관리를 위한 조직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영어교육사업의 경우에는 영어 학습 환경 취약 대상(탈북 청소년, 다문화 가정 어린이) 위한 프로그램 신규 제작, 자기주도 학습을 위한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 신규 제작, 편리딩 앱 내 영어원서 500권의 주요 단어, 문장 학습 가능한 학습하기(Learning) 콘텐츠 추가 업데이트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하지만 저작권 확보 비용 문제로 각 출판사별 교과서 커리큘럼이 반영된 학습 프로그램 제작이 불가능하여 학교 수업 현장에서 적극 활용 가능한 학교 교육 보완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또한 전문 교수 설계자의 부재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영역별, 단계별 커리큘럼 제공이 미흡하여 학습자 맞춤형 콘텐츠 개발 및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점은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수학교육사업의 경우에는 내실 있는 교육 콘텐츠 제작을 위한 외부 기관 및 전문 인력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교육이 STEAM¹²⁾ 및 융합형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제작 완료된 콘텐츠들은 PC와 모바일을 전편 무료로 로그인 없이 접근 가능할 뿐 아니라 2017년 추진된 콘텐츠 다운로드 시스템(DRM)을 통해 현직 교사들이 예습 또는 복습 시에 활용하거나,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활용하기 매우 용이하도록 제공하였다. 하지만 교육부의 교부금 사업의 특성상 장기적인 기획이 필요한 콘텐츠나 개발에 큰 예산이 필요한 콘텐츠(특히 본격 게임형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한계가 존재하므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미래교육연구소의 경우에는 전체 인력 중 박사급 인력이 1인에 불과하여 연구소 자체 수행 연구 추진에 한계가 있으며 연구 영역을 확장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관의 성장 및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미래교육연구소의 비전과 미션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전문성을 갖춘 연구인력 및 기획인력 등의 보강이 필요한 상황이다.

12) STEA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s, Mathematics) : 과학기술에 대한 학생의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과학기술 기반의 융합적 사고력(STEAM Literacy)과 실생활 문제 해결력을 배양하는 교육

다. 방송교육 과정

평가내용

1) 학교교육 보완 활동 전략의 적정성과 성과

가) 평가기준

학교교육 보완의 목적으로 제작된 교육 프로그램들이 학교교육과 어떻게 연계되어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있는지, 보충 및 심화교육은 적절하게 제공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평가항목은 ① 학교교육 보완 작업 수행 방법의 적정성, ② 학교교육 보완 수행 방법 및 전략 성과, ③ 학교교육 보완 채널 및 프로그램 제작 시 전문가 자문이나 감수 과정 및 절차 이행의 적절성, ④ 방송 후에 평가수행 및 그 평가결과의 사후 반영 정도이다.

나) 평가사항

① 학교교육 보완 활동 수행방법 및 전략의 적정성

수능강의사업은 영역별 기획 특강을 제작하여 수능 국어 공부 방법론을 매월 학습시기에 맞추어 제공하는 공부법 특강 ‘수능국어 911’을 11편 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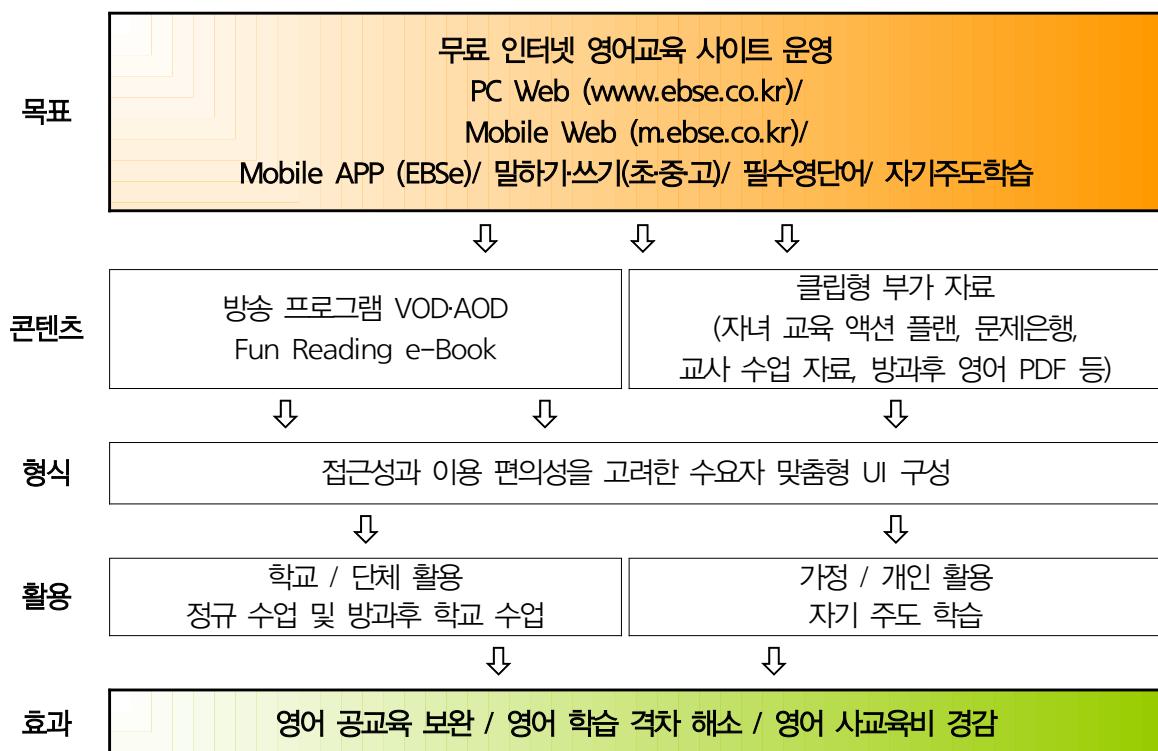
수학 1등급 및 만점을 겨냥한 문, 이과 최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콘텐츠 제공을 위해 ‘수학-세상의 모든 풀이’ 15편을 제작하였고, 영어 교과서 속 지문의 사회·역사·문화적 배경을 스토리텔링하는 클립형 콘텐츠 제공을 위해 ‘교과서 배경여행’ 3편을 제작하였으며, 최신 뉴스에서 나오는 주요 키워드를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개념을 배경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핫이슈 특강’을 제작하였고, 빈출 선지를 활용한 개념 정리 및 다양한 변이 유형 제공을 위해 ‘과학탐구 기획특강’ 99편을 제작하였다. 그리고 학교 현장 활용 및 보완 가능한 콘텐츠를 다양하게 제작하고, 수준별·맞춤형 강좌를 강화하였으며, 내신 학습 콘텐츠도 확대하였다.

창의융합교육사업은 중학생 대상 수준별·영역별 맞춤형 학습 콘텐츠로 〈EBS TV중학〉, 〈필독〉, 〈중학 영어듣기 능력평가 완벽대비〉, 〈데일리 서술형 수학〉, 〈중

학신입생 예비과정〉 등 학교교육 보완용 교육과정별 다양한 강의 콘텐츠를 개발하였다. 코딩의 기초부터 실전까지 총망라한 소프트웨어 콘텐츠인 〈Hello! EBS 소프트웨어! 엔트리〉, 〈톡톡코딩〉을 제작하였고, 코딩 블 조성을 위한 다큐멘터리 〈소프트웨어 교육-미래를 코딩하다〉를 제작하였다.

영어교육사업에서는 영어 공교육 보완, 영어 학습 격차 해소, 영어 사교육비 경감을 목표로 무료 인터넷 영어교육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영어 교과과정 연구 및 학년별 교과서 분석 기반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영어 학습 환경 취약 지역·계층 격차 해소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라이브클래스 – 중학영어 원포인트 레슨’을 진행하였다.

<표 3-10> 영어교육사업 운영 개요



수학교육사업은 모든 콘텐츠를 ‘2015년 개정 수학교육과정’에 따른 『수학과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세부 아이템을 선정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세부 교육목표에 부합하도록 콘텐츠를 기획·제작하였다. 내용연구 및 제작회의에 수학(교육)과 교수와 현직 중학교 수학교사들이 참여함으로써 개정된 수학교육과정이 현장에 적합하도록 제작과정에서 전문성을 제고하였고, 자문위원회와 이용자들의 평가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였다.

② 학교교육 보완 활동의 성과

연 1회 시행되는 ‘EBS 수능강의 및 교재 만족도 조사’ 및 ‘2018년 EBSi 커리큘럼 개발을 위한 소비자 조사’를 통해 학생,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능강의에 대한 보완점을 파악하였다. 해당 조사의 결과는 수능강의 사업 및 강좌 기획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다음 커리큘럼 기획 시 반영하였다.

<표 3-11> 2017년 EBSi 수능강의 및 교재 만족도 조사 [교사] 조사 결과 요약

항 목		결 과
활 용 도(직접 활용)(%)		98.2
활 용 도(학생 권유)(%)		92.2
족면별 만족율/효과	강의만족도	92.8
	교재만족도	88.1
	수능도움정도	90.5

창의융합교육사업은 EBS 강의 수강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초등 강의의 경우에는 만족 이상 응답자의 비율이 87.7%로 나타났고, 중학강의의 경우에는 만족 이상 응답자의 비율이 86.9%로 나타나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영어교육사업은 학생 2,037 명, 교사 97명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7년 EBS English 운영 성과 분석 및 영어 공교육 강화를 위한 전략 방안 연구> 결과 5 점 만점에서 학생(N=2037)은 4.19점, 학부모(N=234)는 4.19점, 교사(N=97)는 3.89으로 나타났는데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교사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나타낸 점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수학교육사업은 2017년 실행한 <EBSMath 효과성 조사>에서 초·중학 수학교사 152명이 응답한 설문 결과, ‘EBSMath가 수학에 대한 흥미를 높여 수업 참여도 증대에 기여한다.’ 89%, ‘EBSMath는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는데 도움이 된다.’ 87%, ‘EBSMath 활용 수업은 학생들의 이해에 대한 피드백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82%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③ 학교교육 보완 채널 및 프로그램 제작 시 전문가 참여 절차의 적정성 및 참여 정도

수능강의사업은 강의 제작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제작 참여자 전원이 숙지하도록 하였다. 수능강의 검수 시스템을 운영해, 수능 콘텐츠의 내용 및 표현 적합

성 검토 등을 통한 강의 품질 향상, 교과 전문성을 보유한 검수 교사(현직 교사)를 통한 내용 검토 전문성 강화, 수능강의 내용에 피드백을 통한 강의 경쟁력 제고를 추진하였다.

창의융합교육사업은 모든 교재 강의에 대해 매회 감수자(현장 교사)가 감수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초등대상 교양학습 콘텐츠인 〈과학땡Q〉, 〈사이언스타Q〉, 〈미래강연Q〉, 〈미스터리식당Q〉 기획 자문회의를 열었고, 중학 대상 진로탐색 콘텐츠인 〈대도서관 잡쇼〉 기획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영어교육사업은 현직 초·중등교사 10명(EBSe 홍보교사)이 기개발된 〈EBSe 방과 후 영어〉 온라인 교재를 2015년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업데이트하여, 교재 출간 및 EBSe 사이트 내 PDF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Level 1~5, 총 46권)을 하였고, 17개 시·도 교육청 EBSe 담당 장학사 회의(상·하반기 각 1회 회의)와 교육부, 홍보교사 의견을 수시로 청취해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수학교육사업은 수학교육부에서 기획·제작하는 모든 콘텐츠들은 수학(교육)과 교수의 자문을 바탕으로 현직 초·중학교 수학교사들의 내용연구를 통해 제작하고 있다. 제작이 완료된 이후에도 참여 교수와 교사들과의 공동 시사 및 평가를 통해 적격한 콘텐츠가 제작되었는지 재평가하고,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수정·보완 작업을 진행하였다.

④ 방송 후 평가수행 및 평가결과의 반영 정도

수능강의사업은 연 1회 시행되는 ‘EBS 수능강의 및 교재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교사, 학부모, 학생 의견을 수렴하였다. ‘EBS 수능강의 및 교재 만족도 조사’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 학생 1,050명, 교사 500명, 학부모 1,000명의 EBS 수능강의 수요자 총 2,5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 목적은 수능강의 및 사교육 이용 실태 파악 및 성과 점검, 수능 연계에 대한 체감도 및 만족도 조사 실시, EBS 수능강의 및 교재 활용 현황 파악, EBS 수능강의의 성과(수능과의 연계성, 사교육 절감 효과) 등을 점검하여 EBS 수능강의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이다.

창의융합교육사업은 연 1회 시행되는 ‘EBS 초등/중학 사이트 이용실태 및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하여 학생, 교사, 학부모 의견을 파악하여 콘텐츠 기획 시 기초

2017사업연도 EBS 경영평가 보고서

자료로 활용하였고, EBS 시범학교 학생, 교사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해 의견을 수렴하였다.

영어교육사업은 매주 방송 프로그램 주간 현황을 파악하고 프로그램별 히트 수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EBSe 프로그램 게시판 및 CSR을 통해 사용자 의견을 수시 확인하여 제작진에게 전달해 콘텐츠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연 1회 EBS English 만족도 조사를 통해 EBSe 이용자(학생, 학부모, 교사, 일반인)의 의견을 수렴해 콘텐츠 및 사이트 개선 방안 마련 시 참고하였다.

2017년에는 시청자위원회를 6회 개최하였으며 교육 콘텐츠와 관련하여 총 62 건의 제언이 있었고, 이 중에서 59건을 반영하였다.

<표 3-12> 2017년 시청자위원회 교육 콘텐츠 제언 및 반영 현황

구분	개최일	안건 프로그램명	제언 건수	반영 건수	비고
2월	2. 17.	청소년 직업 관련 프로그램 등에 대한 발전적 제언 - <대도서관잡쇼>	8건	7건	
4월	4. 28.	초등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에 대한 발전적 제언 - <스피드어휘 초등(1)>, <헬로! EBS 소프트웨어 엔트리>	7건	6건	
6월	6. 30.	과학 다큐멘터리 등에 대한 발전적 제언 - <과학 다큐 비욘드>, <엄마를 찾지마>	19건	19건	
9월	9. 22.	창의융합 콘텐츠 등에 대한 발전적 제언 - <공부 의 왕도>, <사이언스타Q>	16건	16건	
10월	10. 27.	강연 관련 프로그램 등에 대한 발전적 제언 - <삐뽀삐뽀! 우리몸 X 파일>	7건	6건	
11월	11. 24.	다문화 가족 관련 프로그램 등에 대한 발전적 제언 - <왕초보 영어>	5건	5건	
합계			62건	59건	

평가결과 및 제언

방송교육의 과정을 평가하기 위해서 ‘학교교육 보완 활동 수행방법 및 전략의 적정성, 학교교육 보완 활동의 성과, 학교교육 보완 채널 및 프로그램 제작 시 전문가 참여 절차의 적정성 및 참여 정도, 방송 후 평가수행 및 평가결과의 반영 정도’ 등 4가지 요소를 점검하였다.

수능강의사업은 교육 정책 지원과 학교교육 보완을 위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개발하여 제공하였다. 고교 교사의 수업 준비에 필요한 EBS 교재 한글 파일을 쉽게 편집할 수 있도록, 170여권의 EBS 연계 교재 및 비연계 교재 한글 파일을 무료로 제공하였다. 또한 학교 현장의 의견 수렴 강화를 위해 ‘EBS 교사시청자위원회’를 확대 운영하였다. 하지만 검수 교사 풀(pool)이 부족한 교과·영역에 대한 확충이 미흡하다는 점이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검수교사에 대한 정량적 평가제도를 통해 우수한 검수교사가 지속적으로 EBS 검수 교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영어교육사업은 방과후 수업의 활용을 위한 대상별, 영역별 콘텐츠가 노후화되어 있고, 영어 독해와 듣기 및 어휘 훈련이 가능한 ‘편리딩’ 외 말하기 중심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 수학교육사업의 경우에는 현재 초·중학 학습 과정 콘텐츠만이 제공되고 있는데 EBSMath 특유의 다양한 포맷(동영상, 웹툰, 게임 등)의 고품격 수학 콘텐츠에 대한 고등학교 교사들의 요청이 사이트 운영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개발 계획 및 예산 사정에 따라 고교 과정 콘텐츠 제작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

라. 방송교육 성과

평가내용

1) 타겟 시청자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이용 정도

가) 평가기준

인터넷을 통한 교육방송 프로그램의 수강률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방송시청률 뿐만 아니라 인터넷 수강 비율을 비교 평가하여야 한다. 아울러, 학교교육 보완의 목적으로 제작된 프로그램의 인터넷 이용자 확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강의 이용 실적을 평가한다. 평가항목은 ① 인터넷 강의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수준의 적정성, ② 문항별 해설 강의 및 인덱스 이용 수준의 적정성이다.

나) 평가사항

① 인터넷 강의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이용 정도

- 산정지수 : 스트리밍 이용 건수(10) + 다운로드 이용 건수(10)

- 산출식(%)

$$\left(\frac{\text{실적(당해년도)} - \text{최저목표(직전3개년도 실적의 평균} \times 60\%}{\text{최고목표(직전3개년도 실적의 평균} \times 105\% - \text{최저목표(직전3개년도 실적의 평균} \times 60\%} \right) \times 100$$

수능강의사업은 인터넷 강의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이용 정도가 목표치에 미달하여 29%의 결과를 가져왔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 3-13> 수능강의사업 인터넷 강의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이용 실적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스트리밍(건)	144,797,200	184,662,559	173,177,385	148,853,690
다운로드(건)	130,695,351	79,380,950	56,567,838	39,005,020
합계	275,492,551	264,043,509	229,745,223	187,858,710

창의융합사업은 162.7%, 영어교육사업은 101.05%, 수학교육사업은 165%로 목표치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② 문항별 해설 강의 이용 정도

- 산정지수 : 문항별 해설 강의 이용 건수
- 산출식(%)

$$\left(\frac{\text{실적(당해년도)} - \text{최저목표(직전3개년도 실적의 평균} \times 60\%}{\text{최고목표(직전3개년도 실적의 평균} \times 105\% - \text{최저목표(직전3개년도 실적의 평균} \times 60\%} \right) \times 100$$

수능강의사업은 2017년 이용 건수가 5,815,219건으로 141%의 달성을 나타냈고, 영어교육사업은 2017년 이용 건수가 4,404,554건으로 114.13%의 달성을 나타내어 모든 사업에서 목표한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③ 인덱스 이용 정도

- 산정지수 : 인덱스 이용 건수
- 산출식(%)

$$\left(\frac{\text{실적(당해년도)} - \text{최저목표(직전3개년도 실적의 평균} \times 60\%}{\text{최고목표(직전3개년도 실적의 평균} \times 105\% - \text{최저목표(직전3개년도 실적의 평균} \times 60\%} \right) \times 100$$

수능강의사업은 2017년 인덱스 이용 건수가 75,247,108건으로 199%의 달성을 나타내어 목표한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4> 수능강의사업 인덱스 이용 실적

구분	2016년	2017년
이용 건수	50,358,353	75,247,108

2) 방송교육 프로그램의 공교육 기여 정도와 학교 현장의 평가 정도

가) 평가기준

학교 현장에서 공교육 보완의 목적으로 제작된 프로그램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지, 만족도와 성취도는 어떠한지 등을 평가한다. 평가항목은 ① 학생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영향 정도, 성취도 정도, ② 교사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와 활용도 정도, ③ 학부모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와 활용도 정도이다.

나) 평가사항

① 학생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와 활용 정도

- 산정지수 : 학생의 프로그램 만족도
- 산출식(%) : 실적평가 60점과 개선도 평가 40점으로 나누어 총합 100점으로 평가

$$\frac{\text{실적}}{100\text{점}} \times 60\text{점} + \frac{\text{실적}}{\text{전년도 실적} + (100\text{점} - \text{전년도 실적}) \times 10\%} \times 40\text{점}$$

(※ 당해 연도 실적이 90점 이상인 경우 개선도 평가는 40점 만점을 부여함)

수능강의사업은 학생의 프로그램 만족도가 97.12점으로 나타났고, 창의융합교육사업의 경우에는 초등서비스 만족도는 92.54점, 중학서비스 만족도는 91.37점으로 나타났고, 영어교육사업은 85점으로 나타났다.

② 교사, 교육행정가의 프로그램 만족도와 활용 정도

- 산정지수 : 교사 및 교육행정가의 프로그램 만족도
- 산출식(%) : 실적평가 60점과 개선도 평가 40점으로 나누어 총합 100점으로 평가

$$\frac{\text{실적}}{100\text{점}} \times 60\text{점} + \frac{\text{실적}}{\text{전년도 실적} + (100\text{점} - \text{전년도 실적}) \times 10\%} \times 40\text{점}$$

수능강의사업은 교사, 교육행정가의 프로그램 만족도 평가 결과 95.68점, 영어교육사업은 72.4점으로 나타났다.

③ 학부모의 프로그램 만족도와 활용 정도

- 산정지수 : 학부모의 프로그램 만족도
- 산출식(%) : 실적평가 60점과 개선도 평가 40점으로 나누어 총합 100점으로 평가

$$\frac{\text{실적}}{100\text{점}} \times 60\text{점} + \frac{\text{실적}}{\text{전년도 실적} + (100\text{점} - \text{전년도 실적}) \times 10\%} \times 40\text{점}$$

수능강의사업은 학부모의 프로그램 만족도 평가 결과 93.33점, 영어교육사업은 86.6점으로 나타났다.

3) 프로그램 및 출판물의 교육격차 해소 기여 정도

가) 평가기준

교육방송이 제공하고 있는 방송 프로그램 및 출판물의 교육격차 해소 기여 정도는 교육방송이 제공하고 있는 방송 프로그램과 교재 및 각종 출판물들이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데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평가항목은 ① EBS 학습 프로그램 및 출판물 내용의 충실성, ② EBS 학습 프로그램 및 출판물 가격 수준의 적정성, ③ EBS가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정도이다.

나) 평가사항

① 학습 프로그램 및 출판물 내용의 충실 정도

수능강의사업은 ‘EBS 수능강의 및 교재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학생 및 학부모 모두 EBS 수능강의가 사교육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은 23.5%가 EBS 수능강의로 사교육이 줄었다고 응답하였고, 학부모는 69.2%가 EBS 수능강의로 사교육비가 감소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학부모의 경우 EBS 수능강의가 수능 준비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89.1%로 응답하였다. 교사 대상으로 EBS 교재가 타 출판사 교재보다 더 낫다는 의견이 47.1%로 타 출판사가 더 낫다는 의견 9.5%보다 높게 나타났다.

교재발간사업(고교 교재-수능교재기획부)의 연계교재는 교육과정상의 내용과 수능 출제 난이도의 충실한 반영, 석·박사급 교과위원과 국내 최고수준의 집필진, 수능출제기관의 감수 등 수능연계에 최적화된 교재로, 그 가격은 시중 수능대비 문제집의 45% 수준이다. 또한 수시 확대로 인해 수능시험을 보지 않고 내신과 비교과활동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학교시험 및 수행평가에 대비할 수 있는 교재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편승하여 교육과정을 벗어나거나 학습 부담을 가중시키는 검증되지 않은 교재, 고가의 교재를 판매하는 사교육 업체로부터 수험생과 학부모를 보호하기 위해 시중 교재의 70% 미만이라는 합리적인 가격에, 검증된 전문가인 EBS 집필진과 교재개발자가 만든 비연계 교재를 시장에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가격 정책은 교재시장의 신호등 역할을 하여 가계의 교재비 지출 부담을 감소시켜 사교육비 억제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창의융합교육사업의 <2016년 EBS 초등, 중학 콘텐츠 이용현황 및 만족도 조사> 결과에 의하면 초등 1,100명, 중학 858명의 약 60% 이상이 'EBS 초·중학 강의 만족도에 대해 매우 만족 한다.'라고 응답하였다.

② 학습 프로그램 및 출판물 가격의 적정성

수능강의사업의 경우에는 대표적 사교육업체인 M사와 E사의 인터넷강의(RT60분, 30강 기준) 가격은 아래와 같이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3-15-1> EBSi와 타사 간 인터넷강의(RT60분, 30강 기준) 가격 비교표

구 분	가 격
EBSi	무 료
M사	약 120,000원
E사	약 110,000원

창의융합교육사업의 경우 대표적인 사교육업체 M사와 S사의 중학 인터넷강의 가격은 아래와 같이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3-15-2> EBS TV중학과 타사 간 인터넷강의 가격 비교표

구 분	가 격
EBS TV중학	무 료 (중학 프리미엄 제외)
M사	강좌당 5~10만원
S사	월 10만원

영어교육사업은 '방과후 영어' 정규과정의 경우 교육과정 연계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공교육 강화를 위해 EBS 영어교육방송 사이트(www.ebse.co.kr)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 중이고, 별도로 제본한 교재는 온라인 서점에서 권당 5,500원에 판매하고 있으며, '왕초보 영어' 프로그램 강의노트는 권당 7,200원에 판매 중이므로 시중 유사 교재 판매가의 약 55.4% 수준이다.

③ EBS가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정도

EBS는 어려운 학습환경 속에서도 EBS를 활용하여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한 학생을 위한 <꿈 장학생 선발 및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총 상금 85백만원, 역대 최대 규모의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특히 1회 장학금 지급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학생의 성공 사례를 통한 희망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록 여름방학 기간 <꿈장학생 멘토-멘티 클래스>를 처음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교육부와 연계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가정 자녀, 일부 차상위계층 자녀, 교육적 배려 초중고 학생들에게 EBS 방송교재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EBS 교재 무상지원>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표 3-16> 2017년 지원 규모

구분	지원 학생수(명)	지원 부수(부)	지원 금액(정가기준: 천원)
계	211,000	739,000	6,343,000

수능강의사업은 ‘EBS 수능강의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EBS 수능강의의 사교육 감소 효과에 도움이 된다는 69.2%,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30.8%로 나타나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교육사업의 경우에도 ‘사교육비 절감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5점 만점에 2017년에는 4.19로 2016년 4.14보다 높게 나타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표 3-17> 2017년 영어교육사업 사교육비 절감 응답

구분	2017	2016
사교육비 절감	4.19	4.14

평가결과 및 제언

수능강의사업의 경우에 사용자의 강의 이용을 위한 학습 독려 및 동기 유발을 위한 서비스 요소가 미흡하고, 학생의 수준별 커리큘럼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시보다 수시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학원 등 사교육업체에서는 내신 및 학생 부종합전형 집중 대비하는 서비스를 강화하였으나 EBS 수능강의는 관련 콘텐츠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업체의 강사 경쟁력이 강화되어 스타 강사의 세대교체가 되었으나 EBS 수능강의는 기존 강사의 휴직, 계약 해지 등 영역별 주요 강사의 부재가 발생하였다. 사교육 업체에서 연계교재 분석 강좌가 등장하였으나 EBS 수능강의는 연계교재의 압축 분석 강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의융합교육사업은 중학 모바일 서비스 개시 및 수준별·맞춤형 콘텐츠 확대, 계기별 특강 강화 등에도 불구하고 중학 학령인구 감소 및 강좌 재활용, 검인정 교과서별 내신 대비 강좌가 부재한 상황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중학교 수준별 강의 확대 및 과목별 심화과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재미있는 코너 구성, 핵심 요점 정리 강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영어교육사업은 EBSe 사이트 이용자를 대상으로 개인화 서비스 제공이 미흡하여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법(2017.03.시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7.03.시행)에 따른 불필요한 접근 권한 문제 저촉으로 말하기·쓰기 초/중/고 앱, 필수 영단어 앱 서비스를 중지한 상태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모바일 사용자 증대로 인한 건의와 민원이 증대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교사의 경우, 학생, 학부모에 비해 EBS 영어교육방송 내용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수준별로 잘 구성되어 있다.’는 5점 만점에 3.77. ‘풍부하다.’는 5점 만점에 3.81으로 나타나 학생과 학부모 응답보다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분석과 개선이 필요하다. 예산 부족으로 교

과과정 기반의 수준별/대상별 맞춤 콘텐츠 제공이 어려운 상태이며, '방과후 영어' 수업 보충 부가(플래시 파일) 콘텐츠 업데이트 중단으로 사용자 학습 최적화된 환경 지원이 불완전한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수학교육사업의 경우에는 학생들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수학학습의 즐거움을 일깨우며 개념적, 통합적 이해를 돋기 위해 기획된 EBSMath의 다양한 동영상, 웹툰, 인터랙티브(게임)을 이용한 수학 수업도 초~중학교 교실에서는 꾸준히 시도되고 긍정적인 성과를 얻어냈지만,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 모든 것이 단절되고 단지 대입을 향한 강의형 수업, 반복적 문제 풀이, 지필 평가 위주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은 이미 EBSMath 콘텐츠를 활용한 수업 및 수학 학습을 경험해 본 세대이므로, 이러한 흐름을 이어 고교과정에서도 좀 더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수학 학습 경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EBSMath 콘텐츠의 제작을 고교과정으로 연결, 지속해 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BSMath에서는 2013년 사이트를 오픈한 이래 2017년까지 중학교 1~3학년, 초등 3~6학년 콘텐츠까지 제작하였으며, 아직 초등 콘텐츠는 그 수가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전 연령대로 제작이 확대되면 좀 더 교육격차 해소에 큰 몫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 전년도 개선권고사항의 이행 노력

평가내용

1) 전년도 경영평가 개선권고사항의 이행 노력 및 성과

가) 평가기준

경영평가의 목적은 평가과정에서 밝혀진 장단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기관의 발전에 도움을 주려는 데 있다. 전년도 교육부문 경영평가에서 제시된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처리 및 반영 정도를 평가한다. 평가항목은 전년도 교육부문 경영 평가 결과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개선 노력 정도이다.

나) 평가사항

① 전년도 교육부문 경영평가결과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개선 정도

전년도 교육부문 경영평가 결과 개선권고사항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직원들의 교육전문성을 좀 더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 2015교육과정 시행과 2021학년도 수능체제 개편에 대한 대책 수립이 요망된다. 셋째, 학습의 개별화에 따른 모바일 서비스 강화와 학습관리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년도 교육부문 경영평가 개선권고 사항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항목별로 개선하고자 노력하였다. 첫째, 직원들의 교육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학교교육본부에서는 소속 직원들의 교육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외부에서 진행하는 박람회, 세미나 참여를 독려하였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에듀테크 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이러닝 박람회>, <에듀테크 포럼 세미나>에 관련 직원들이 참여, 세미나 내용을 공유하였다. 또한 12월에는 중앙대학교 교수를 초빙하여 <4차 산업혁명 대비 4C 모듈형 교육과정을 접목한 EBS 창의융합 콘텐츠 및 서비스 방안>에 대한 연수도 진행하는 등 자체적으로 직원들의 교육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다.

둘째, 2015교육과정 시행과 2021학년도 수능체제 개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EBS 수능강의는 수시비율 증가, 2015 개정 교육과정 및 향후 입시체제 개편

에 대비하기 위하여 우선 국민참여 정책 제안 플랫폼인 ‘광화문 1번가’에 접수된 수능 및 입시체제 개편과 관련된 국민 의견을 모니터링하고, 교육부 및 기타 교육 기관에서 진행하는 공청회 및 학회에 참석하여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당시 제시된 여러 의견들을 분석, 공유하여 EBS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도 관련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 시행에 대비한 콘텐츠를 2017년에 대폭 신설하였다. 뿐만 아니라 2015 개정교육과정 및 2021학년도 수능 체제에 대한 학교 현장 및 수요자의 불안 해소를 위해 2017년 하반기 예비 고1 대상 입시설명회를 11월까지 6회, 연말까지 총 13차례 진행하였다.

2022년에는 수능체제 개편이 예정되어 있음에 따라, EBS 수능강의의 수능 영향력이 약화될 것을 예상하여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는 수능만이 아닌 내신 및 수시 대비, 학교 수업 지원 콘텐츠 강화를 계획하였다. 특히 [EBS 수능강의]를 [EBS 고교강의]로 변경하여 향후 체제 개편 시 영향력 감소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도 수립해 2018년 2월에 도입하였다. 또한 2015개정교육과정 도입 취지에 맞추어 학교 수업에서 모둠/활동 중심의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EBS 고교강의를 통해 수업 진도의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지원하고, 학습자 개별 수준에 맞추어, 기초 학력 증진을 위한 학습을 도모하기 위해서 2015 개정교육과정 반영 교과서 강의를 대폭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해 2018년 3월 현재 ‘검인정교과서협회’에 소속된 12개 교과서 출판사와 강의 제작을 협의하고 있다.

셋째, 학습의 개별화에 따른 모바일 서비스 강화와 학습관리시스템 개선을 추진하였다. EBS 수능강의는 모바일 학습 수요에 맞추어 EBSi 앱(강좌학습), EBSi 플래너 앱(스케줄 관리), EBSi+앱(사이트 전반)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용자의 편의성 및 모바일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17년에는 <이미지 패턴 인식 기반 수능 강의 호출 서비스>를 도입하여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EBS 교재 문제를 촬영하면 바로 해설강의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도입하였다. 사용자들의 개별화된 학습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하였으며, 2017년에는 학습 개별화에 최적화된 서비스인 <수학 AI 서비스>를 개발하여 2018년 시범 서비스 도입을 예정하고 있다.

평가결과 및 제언

전년도 교육부문 경영평가 결과 개선권고사항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직원들의 교육전문성을 좀 더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 2015교육과정 시행과 2021학년도 수능체제 개편에 대한 대책 수립이 요망된다. 셋째, 학습의 개별화에 따른 모바일 서비스 강화와 학습관리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BS는 직원들의 교육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직도 현장의 전문성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대부분의 영역에서 발견되고 있다. 따라서 실제 방송이 목표하는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한 전문성 함양 노력이 전사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15교육과정 시행과 2021학년도 수능체제 개편에 대한 대책 수립이 요망되는 부분에 대해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새로운 콘텐츠 개발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수능체제 개편이 정책적으로 연기됨에 따라 교육 환경의 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수능개편이 EBS에 주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학습의 개별화에 따른 모바일 서비스 강화와 학습관리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과 관련하여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학습지원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점에서 보다 공격적인 투자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바. 당해연도 중점평가 사항

평가내용

1) EBS 교재 품질관리체계 개선의 적정성

가) 평가기준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EBS교재 품질관리체계 개선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평가 항목은 ①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EBS교재 품질관리체계 개선 방향의 적정성, ② EBS교재 품질관리체계 개선에 따른 성과의 적정성이다.

나) 평가사항

① 교재 품질관리 개선계획의 적정성

2018년 고2·고3이 되는 학생도 구 교육과정(2009 교육과정)상의 내용으로 다양한 탐구활동과 자기주도 학습을 하고, 학교현장의 평가 방식 변화(수행 및 과정중심평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수행평가 대비 워크시트를 파일 또는 부록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비연계 교재개발 계획은 이전 연도 발행교재에 대한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3월 신학기부터 시작하며, 기 발간 교재에 대한 온·오프라인 피드백 점검, 교재 수요자(학생·교사·서점관계자, 출연강사 및 총판)와 유관부서(학교교육기획부·수능교육부·출판사업부 등)와의 대면 및 유선 인터뷰, 국내외 출판시장조사, 새 교육정책 및 사교육 동향 분석 결과를 참고하여 수립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조사를 바탕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언어적 개념 설명을 지양하고 직관적·시각적으로 문제해결과정의 원리와 전략을 제시하는 고품질 수학기본서 〈수학의 왕도〉 시리즈를 개발하였으며, 새 교재의 홍보 및 판매 촉진을 위하여 주요 공식과 개념을 집대성한 족보를 한정판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표 3-18> 수학의 왕도 시리즈 특징

	특 징	책 수
수학의 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념의 시각화를 활용, 복잡한 자료나 개념을 명료하게 정리 제시하여 직관적·시각적 이미지와 함께 정보를 제공 - 개념을 세분화한 문제를 충분히 연습해보며 개념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문항 구성 	
- 수학(상), (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계적 문항 및 풀이 전략 제공 	4책
- 수학1,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 개념 확인문제에서부터 대표 문제, 기본&실력 종합 문제를 거쳐 고난도, 신유형 문항까지 풀다보면 저절로 실력이 올라갈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문항 구성 - 풀이 단계별 해결 전략을 구성하여 해결 과정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 	

② 교재 품질관리 개선에 따른 성과의 적정성

학교 채택교재 시장 축소, 내신 중요성 확대, 수행평가 비중 확대 등의 정책변화를 고려하여 내신 대표 시리즈인 〈올림포스〉 교재에 수행평가 대비 워크북을 책 속의 책으로 추가 제공하고, 학습자 간 성취수준 차가 큰 수학에서 수준별 맞춤형 교재 라인을 구축하고 있다.

<표 3-19> 올림포스 시리즈 – 수학 수준별교재 특징

	특 징	책 수
• 올림포스 닥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학력 부진아를 위한 기초 개념서 - 수포자도 수학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초중학 연결 개념 구성 	5책
• 올림포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기를 쌓을 수 있는 교재 - 수학의 기본 개념을 익히고 학교 시험 대비 필수 문항 연습 	6책
• 올림포스 고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 수준 마스터 교재 - 유형을 마스터하고 고난도 문항 연습으로 실력 향상 	3책

2018년 고1부터 2015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됨에 따라 새 교과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사회탐구·과학탐구 특화교재 〈개념완성〉 시리즈를 개발하였다. 개정교육과

정의 취지를 최대한 반영해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은 단편적으로 제공되던 개념들을 간학문적 차원으로 다루었으며, 다양한 유형의 문항과 심화학습 거리, 범위별 비법노트, 모의 중간/기말고사를 제공하는 등 기본개념과 문제풀이를 한권으로 끝낼 수 있는 탐구과목 특화 내신교재를 지향하였다.

<표 3-20> 개념완성 시리즈 특징

	특 징	책 수
개념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신과 수능을 동시에 대비할 수 있는 탐구영역 기본서 - 개념과 주제별로 핵심 내용을 한 눈에 보여주는 스토리보드 제공 - (특별부록)범위별 비법노트+수행평가 활동지+모의 중간/기말고사 제공 	10책

평가결과 및 제언

당해연도 중점평가사항은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EBS교재 품질관리체계 개선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평가항목은 ①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EBS교재 품질관리체계 개선 방향의 적정성, 둘째, EBS교재 품질관리체계 개선에 따른 성과의 적정성이다.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EBS교재 품질 개선노력의 일환으로 고1 대상 교재에 2015 개정교육과정 내용을 반영하고, 과정중심평가 대비 문항을 개발하였으며, 자기 주도학습을 하는 학생이 수행평가를 연습할 수 있도록 책 속 책 형태의 수행평가 워크북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향후에도 2015 개정교육과정의 취지와 내용을 충실히 반영한 완성도 있는 교재를 개발하기 위하여 학습자의 탐구정신을 자극하는 다양한 형태의 활동 및 문항을 개발하는 한편, 기 개발된 교재의 구체적인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품질 개선에 반영하는 등의 노력으로 연결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문 대표 집필위원 : 정제영 위원

4. 기술부문

EBS는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교육공영방송이다. 기술부문 평가의 목적은 EBS 설립 목적 및 경영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원했는지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나은 시스템과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기술부문 평가는 경영목표에 부합하는 방송기술목표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1개 항목, 변화하는 IT 환경 및 미디어 환경에 대한 대응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IT 환경 대응 3개 항목, 미디어 환경 대응 6개 항목으로 나누어 방송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노력 및 운영 관리 실태를 평가하며, 전년도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이행노력 정도 및 당해연도 중점평가 사항으로 ‘청사 이전에 따른 기술환경 개선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표 4-1> 기술부분 경영평가 항목 및 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가. 방송기술목표	1. 방송기술목표의 적정성
나. IT 환경 대응	1. IT 서비스 활성화 노력의 적정성 2. IT 인프라 운용의 효율성 3. IT 서비스의 고객 만족도
다. 미디어 환경 대응	1. 융합서비스 추진 노력의 적정성 2. 전문성 강화 노력의 적정성 3. 프로그램 품질개선 기술지원의 적정성 4. 방송장비 도입의 적합성 5. 방송 제작 워크플로우 개선 노력의 적정성 6. 방송망 관리의 안정성
라. 전년도 개선권고사항의 이행노력	1. 전년도 경영평가 개선권고사항 이행노력 및 성과
마. 당해연도 중점평가 사항	1. 청사이전에 따른 기술환경 개선의 적정성

가. 방송기술 목표

평가내용

1) 방송기술목표의 적정성

가) 평가기준

방송기술 목표가 당해연도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적정하게 설정되었는지 여부와 추진 성과를 평가한다. 방송기술목표의 적정성 평가항목은 ① 당해 연도 경영 목표에 따른 방송기술목표의 부합정도, ② 방송기술목표 달성 정도와 성과로 설정하였다.

나) 평가사항

① 경영목표와 방송기술목표의 부합 정도

2017년 방송기술목표인 ‘차세대방송 기반 마련’, ‘콘텐츠 경쟁력 강화’, ‘방송 · 통신용합서비스 구현’은 EBS 경영목표인 ‘미래 창의교육 강화’, ‘최고 교육콘텐츠 확대’, ‘스마트 서비스 실현’ 목표에 부합되도록 설정하였다.

<표 4-2> 2017 경영목표와 방송기술정책 목표 비교

경영목표	상관관계	방송기술목표
<p><3대 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 창의교육 강화 ○ 최고 교육콘텐츠 확대 ○ 스마트 서비스 실현 <p><6대 추진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혁신 융합교육 선도 - 교육현장 연계 강화 - 고품질 교육콘텐츠 제작 - 글로벌 경쟁력 제고 - 언제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서비스 - 조직 경쟁력 강화 		<p><3대 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세대방송 기반 마련 ○ 콘텐츠 경쟁력 강화 ○ 방송 · 통신용합서비스 구현 <p><6대 추진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사옥 방송 인프라의 안정적 구축 - UHD 본방송 대비 - IT 서비스 고도화 - 제작 프로세스 개선 - 제작 기술 고도화 - 융합서비스 발굴 적용 검토

② 방송기술목표의 달성 정도와 성과

당해 방송기술목표는 차세대방송 기반 마련, 콘텐츠 경쟁력 강화,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구현이며 주요 성과는 아래와 같다.

(가) (목표) 차세대방송 기반 마련

- (과제) 통합사옥 방송 인프라의 안정적 구축
 - (성과) '17년 8월 방송 인프라의 성공적 이전을 통한 안정적 송출 실시
 - (성과) 과거 이원화된 방송시설의 통합으로 인한 효율성 제고
 - (성과) 사옥 전체를 제작 공간화하여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도록 함
- (과제) UHD 본방송 대비
 - (성과) UHD 후반작업 업무 강화를 통한 UHD 내부 제작 여건 마련
 - (성과) UHD 방송인프라의 체계적인 투자 이행
- (과제) IT 서비스 고도화
 - (성과) 반응형 웹 서비스 적용 확대를 통한 사용자 편의성 강화
 - (성과) 클립뱅크 교과분류 개선 및 교수학습서비스 구축
 - (성과) SNS 계정(네이버, 페이스북, 카카오) 활용 회원 인증 적용 진입 장벽 최소화
 - (성과) 각 영역별 서비스 관심 그룹화를 통한 개인화 추천 서비스 도입 시도
 - (성과) 수학사이트 클라우드 서비스 전환을 위한 인프라 기반 마련의 U2L 작업 수행
 - (성과) 임시 클라우드 서비스 센터 구축을 통한 2018학년도 수능 풀 서비스 비상 대응

(나) (목표) 콘텐츠 경쟁력 강화

- (과제) 제작 기술 고도화
 - (성과) 라디오 방송 제작·송출시스템 자체 개발
 - (성과) 모바일 <PIN> 앱, SNS를 활용한 시청자 참여형 양방향 서비스 도입
- (과제) 제작 프로세스 개선
 - (성과) 프로그램 스텝 전담제 도입을 통한 제작 경쟁력 강화
 - (성과) 제작 소통위원회 실시를 통한 제작 활성화

(다) (목표)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구현

- (과제) 융합서비스 발굴 및 적용 검토
 - (성과) 모바일 2nd 스크린 활성화를 위한 번개코드 서비스 특허 취득
 - (성과) AI를 활용한 네이버 오픈자 교정 솔루션 도입 시도
 - (성과) 데이터 분석을 통한 교재 출판 수요 예측 솔루션 개발 시도
 - (성과) 날씨 티커 서비스용 정보 수신용 에이전트 개발

평가결과 및 제언

유관부서인 정책기획부와 유기적인 협의 및 융합기술본부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경영목표에 부합되도록 방송기술목표를 수립하였다. 이렇게 설정된 방송기술목표의 달성을 위해 설정된 6개 과제들이 수행되었으며, 그 결과 다음의 성과들이 도출되었다.

- 2017년 8월 통합사옥의 성공적인 이전으로 당해년도 중요 현안과제를 해결하고 방송 인프라를 확보하였다.
- 급변하는 방송·통신 융합환경에 대비하여 AI, 클라우드 기반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발굴을 위해 노력하였다.
- 개인 맞춤형 서비스, 반응형 웹 등을 통해 사용자 중심의 IT 환경을 구현하였으며, 프로그램 전담제를 통한 제작 소통 강화로 제작 프로세스를 개선하였다.

그러나 UHD 방송서비스를 실시를 위해 요구되는 UHD 방송 송신설비 구축이 KBS의 지원 문제 미해결로 인해 지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UHD 본방송 실시가 늦어지는 것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UHD 방송 송신설비 구축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KBS에 협조요청을 지속하는 한편, 학계, 시민단체 등과도 연계하여 지원을 촉구하는 등 다각도의 대응노력이 요구된다.

나. IT 환경 대응

평가내용

1) IT 서비스 활성화 노력의 적정성

가) 평가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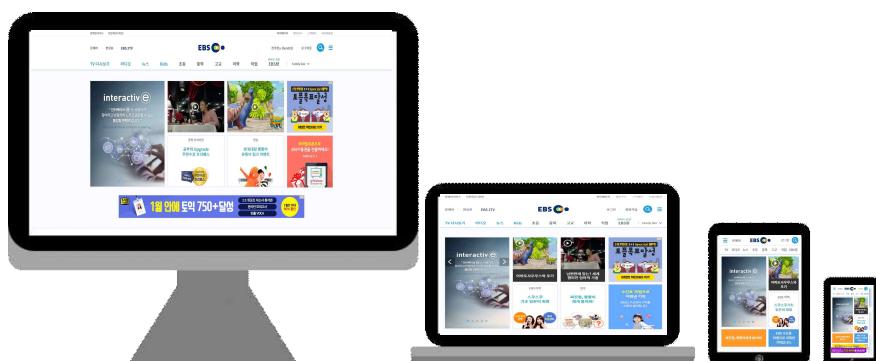
IT 기반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소비자의 편의성 제고를 통한 만족도 향상을 위해 추진했던 IT 서비스 활성화 노력에 대해 ① IT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개선 노력 및 성과, ② IT 서비스 품질 개선 노력 및 성과 평가항목으로 평가한다.

나) 평가사항

① 이용자 중심의 IT 서비스 개선 정도

최근 모바일 이용자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고 편의성 제고를 위해 반응형 모바일 서비스 및 방송-사이트 연계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개선이 이루어졌다.

반응형 모바일 서비스 관련하여서는 모바일 시대에 적절한 대응 및 사이트 이용률의 제고 및 개인화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서 메인사이트의 반응형 웹사이트 개편이 완료되었으며, 그 세부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그림 4-1> 동일한 콘텐츠를 디바이스별로 최적화된 레이아웃

- 각 영역별로 서비스를 단순화하여 개인화 서비스 도입에 대응
 - 관심도에 따라 서비스를 열거나 닫을 수 있게 하여 1단계 개인화 서비스 구현



<그림 4-2> 개인화 서비스 구현 레이아웃

- 복잡한 탭 구성을 없애 숨어있는 콘텐츠를 밖으로 <그림 4-3>와 같이 노출시킴



<그림 4-3> 콘텐츠 노출 레이아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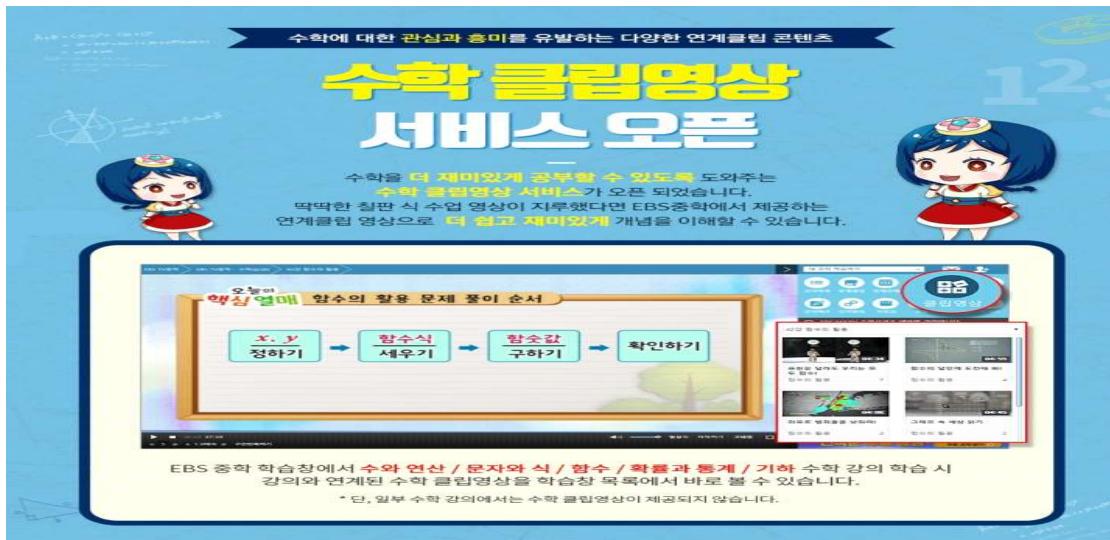
반응형 모바일 서비스들은 향후 반응형 웹 전환 계획에 따라 서브페이지 순차 개편 및 개인화 솔루션 도입으로 맞춤 서비스에 최적화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사이트 간 연계 서비스 확대에는 수학사이트의 클립 콘텐츠 연계서비스, 클립 뱅크에서 메인사이트 방송영상의 콘텐츠 클립 탑재 서비스 및 SNS로그인 등 공동 기능의 패밀리사이트로의 서비스 확장 등이 포함되며 각각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중학사이트 수학사이트(EBSmath) 콘텐츠 연계 구축

- 목적
 - 클립 동영상 서비스 확대에 따른 사용자 만족도 증대

- 기존 강의와 연계한 편의성 확보
- 주요 내용
 - 기존 학습창에서 가시성 높은 버튼 등을 추가하여 원클릭으로 바로 재생 가능
- 향후 계획
 - 연계 강좌 확대 및 클립 서비스 UI/UX의 개편
 - 신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분류체계 등 추가



<그림 4-4> 중학사이트 – 수학사이트 콘텐츠 연계

(나) 초등사이트 반응형 웹사이트 전면 개편

- 목적
 - PC/태블릿/ 모바일 모든 디바이스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 증가하는 모바일/ 태블릿 이용자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사용자 만족도 증대
 - 시간, 장소에 제한받지 않고 자기주도학습이 가능한 서비스 제공
- 주요 내용
 - 나의 학습방/ 문제은행/ 참여공간 / 교사&학부모 반응형 등이 포함
 - 나의 학습방 : 모바일에서 나의 학습 현황 상세 확인 가능
 - 문제은행 : 모바일에서 나만의 문제지/ 추천 문제지 학습 가능
 - 참여공간 : 모바일에서 체험학습 외 글쓰기 가능
 - 교사&학부모 : 모바일에서 사이버 학급 관리 및 공유 가능
- 향후 모바일/태블릿 디바이스 사양에 맞추어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 및 하이브리드 앱의 사용자 편의성과 학습 기능 개선을 추가할 계획임



<그림 4-5> 초등사이트 반응형 웹사이트

(다) 클립뱅크 교과분류 개선 및 교수학습서비스 구축

○ 목적

- PC/테블릿/ 모바일 모든 디바이스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 목적

- 신규 교육과정에 분류체계 적용 및 검색 UI 개선
- 교수학습 및 학업현장 활용도 증진을 위한 교사 특화 서비스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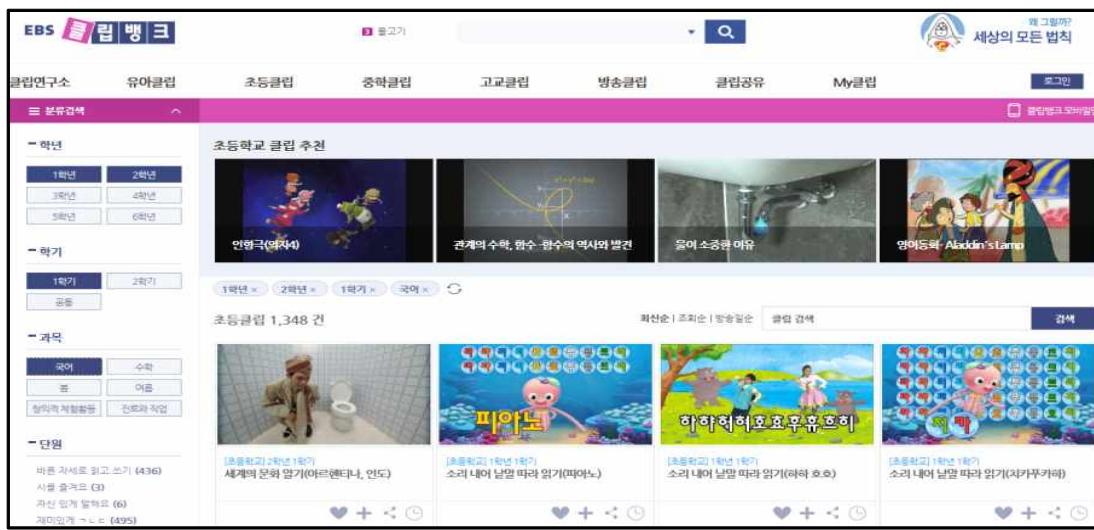
○ 주요 내용

- 신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분류체계 변경을 반영하기 위해 1~2학년 클립에 대한 신규 분류체계에 맞춘 메타정보 변경
- 신규 분류체계에 맞춘 클립검색 UI 개선
- 교수학습 및 현장 활용도 증진을 위한 교사 특화 서비스 구축
- 교수학습을 지원하는 “클립연구소” 서비스 포함
- 주제융합형 디지털 교수학습교재 120편 600차시 신규 콘텐츠 탑재
- 디지털 교수학습교재 “스토리랩” 및 스토리랩을 활용한 교사-학생의 온라인교육이 가능한 “스쿨랩” 서비스 포함

○ 향후 계획

- 사용자 기반의 “스토리랩” 만들기 위한 서비스 고도화
- 클립뱅크 콘텐츠의 유튜브(youtube) 탑재 및 플레이어 연계 서비스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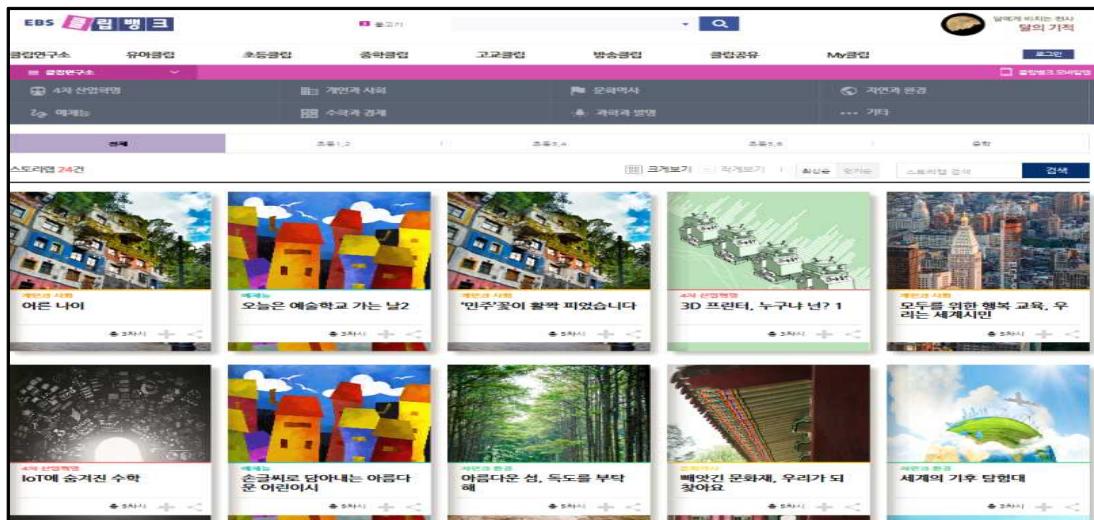
제4장 부문별 평가 - 기술부문



<그림 4-6> 클립뱅크 메인 페이지



<그림 4-7> 클립연구소 메인 페이지



<그림 4-8> 스토리랩 메인 화면

2017사업연도 EBS 경영평가 보고서



<그림 4-9> 스쿨랩 메인 페이지

(라) 네이버계정을 활용한 회원 인증 적용

○ 목적

- 신규 회원가입 및 로그인 시 서비스 진입 장벽 최소화
- SNS를 잘 이용하지 않는 중장년층 혹은 그 외 연령층까지 서비스영역을 확대

○ 주요 내용

- 네이버계정 인증을 통해 최초 로그인 시 SSO 통합회원으로 가입되며 이후 로그인 시 네이버 계정 인증으로 로그인 가능
- 메인, 초등, 중학, 클립뱅크, 외국어, 수학 사이트 네이버계정 로그인 적용 - 적용된 외부 SNS계정(페이스북, 카카오, 네이버)

○ 향후 계획

- 외부 사용자의 서비스 진입장벽 최소화
- 외부 계정 로그인 외에 회원가입 프로세스의 단순화



<그림 4-10> 네이버계정을 활용한 회원 인증

② IT 서비스 개선 요청 적기 처리율

IT 서비스 개선요청 관련하여 서비스개선 요청(CSR) 건수와 이의 적기 처리 건수를 적용한 아래의 산출식을 이용한 산정지수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 산정지수 : 메인, 초등, 중학, 클립뱅크 4개 사이트의 서비스 개선 요청(CSR) 건수 및 적기 처리 건수
- 산출식(%)

$$\left(\frac{\text{실적(당해년도)} - \text{최저목표(직전3개년도 실적의 평균} \times 60\%}{\text{최고목표(직전3개년도 실적의 평균} \times 105\%)} - \text{최저목표(직전3개년도 실적의 평균} \times 60\% \right) \times 100$$

최근 3년을 대상으로 서비스개선요청(CSR) 연도별 사이트별 적기처리율을 분석한 결과 3년 평균은 97.88%이며, 산출식에 의한 적기 처리율은 92.3%로 산출되었다

<표 4-3> 연도별 사이트별 적기처리율(%)

사이트	2014	2015	2016	2017
메인	99.4	99.7	99.6	99.7
초등	98.6	98.2	99.1	99.6
중학	93.9	98.4	98.9	98.7
클립뱅크	95.0	94.9	98.8	99.6
평균	96.73	97.80	99.10	99.40

2) IT 인프라 운영의 효율성

가) 평가기준

방송미디어환경에서 지속적인 개선과 유지를 통해 중단 없고 안정적인 IT 서비스 제공은 방송 서비스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선 노력 정도를 평가한다. 평가항목은 ① IT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개선 노력 정도, ② 연간 무장애 서비스 유지 시간이다.

나) 평가사항

① IT 인프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 정도

안정적인 IT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개선을 위하여 다음 시스템들의 구축 혹은 도입이 이루어졌다.

(가) 웹 시스템 U2L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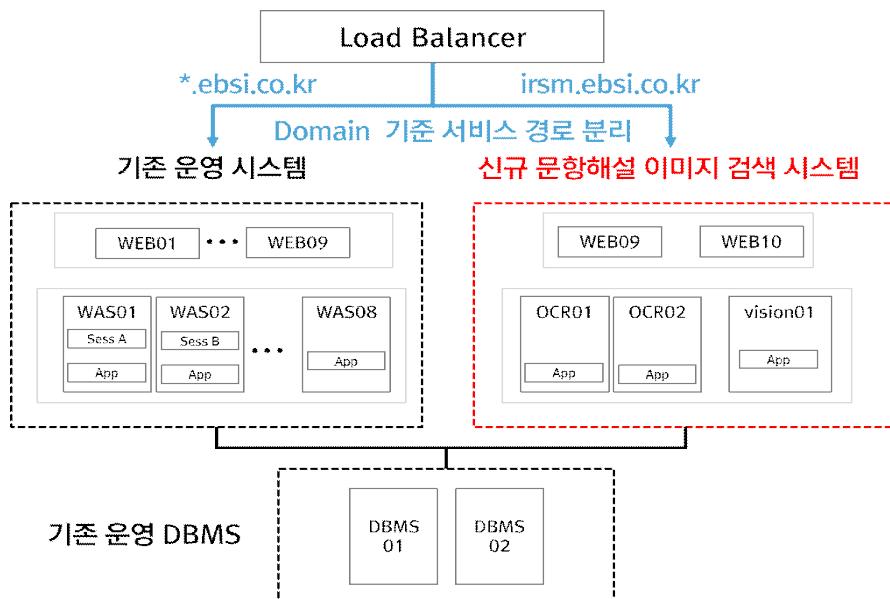
- 중장기 클라우드 전환을 위한 유연한 운영 플랫폼 구축의 인프라 기반 마련으로 기존 Unix 시스템을 Linux 시스템으로의 전환 작업 수행
- 개선 내역

<표 4-4> Unix 시스템을 Linux 시스템으로의 전환 현황

사이트	변경 시스템 대상	전환 시스템 대상
수능	○ Unix WEB 서버 15식	○ Linux WEB 서버 13식
	○ Unix WAS 서버 9식	○ Linux WAS 서버 8식
영어	○ Unix WEB 서버 2식	○ Linux WEB 서버 3식
수학	○ Unix WEB,WAS,검색 서버 6식	○ Linux WEB,WAS,검색 서버 6식
	○ Unix DB 서버 2식	○ Linux DB 서버 2식
초등·중학	○ Unix WEB,WAS,검색 등 14식	○ Linux WEB,WAS,검색 등 11식
통합 웹	○ Unix WEB,WAS,SSO 등 18식	○ Linux WEB,WAS,SSO 등 15식

(나) 문항해설 이미지 시스템 구축

- 수능 사이트 문항 이미지 기반을 통해 해당 해설 강의를 즉시 수강할 수 있는 신규 서비스의 인프라 시스템 구축 및 오픈 지원
- 시스템 구축내역 : Linux WEB 2식, OCR 서버 2식, 이미지패턴 매칭 분석서버 1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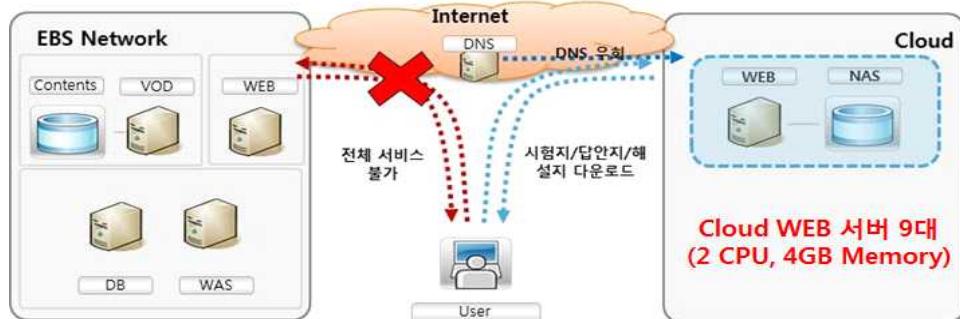


<그림 4-11> 문항해설 이미지 시스템

(다)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풀 서비스 비상 대응

-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발생 가능한 장애, 서비스 집중, 보안 침해 등의 다양한 상황별로 신속하게 대응하고 서비스를 정상화하기 위한 단계별 대응절차를 마련하였으며, 임시 클라우드 센터를 구축하여 IDC 장애 및 대용량 트래픽 유입에

대응하여 비상 시 정답 다운로드 서비스를 우회하여 제공하도록 구성



<그림 4-12>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풀 서비스 비상 대응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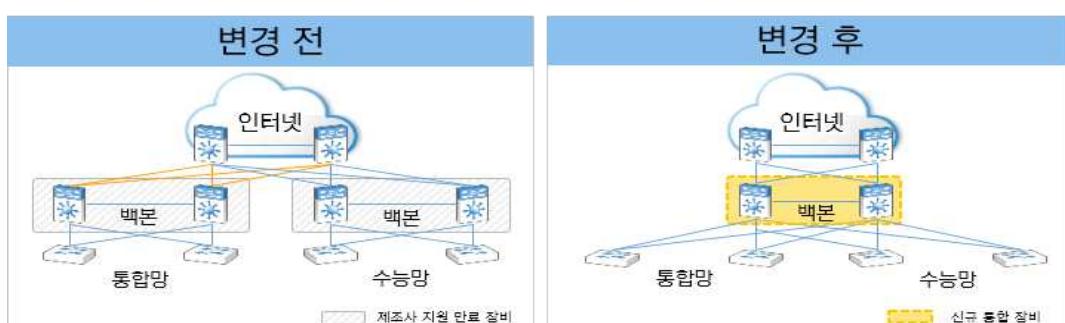
-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해당 서비스 관련 부서 및 IDC, 클라우드 센터 등과의 사전 협의과정을 통한 대응 절차 및 방안을 정의하고 명문화



<그림 4-13>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풀 서비스 비상 대응 업무체계

(라) 네트워크 구조 개선

- 제조사 지원 만료된 노후 백본 스위치의 통합, 재배치 작업을 수행하여 인터넷 서비스의 안정화 기반 마련
- 개선 내역



<그림 4-14> 네트워크 구조 개선 내역

(마) EBS 웹사이트 정보보호 수행

- 2013년 취득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IMS) 인증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분야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주기적으로 수행하여 EBS 웹서비스의 신뢰도를 향상시킴
- 수행내역은 <표 4-5>와 같다

<표 4-5> EBS 웹사이트 정보보호 수행 내역

구 분	항 목	일 자	내 역
관리적 정보보호	ISMS 위험평가	3. 6 ~ 4. 28	인증 항목별 위험 발생 요인 점검/관리
	ISMS 내부감사	8. 21 ~ 8. 25	관련 법률 기준 내부 점검/관리
기술적 정보보호	계정 권한 검토	분기별	퇴사자 등의 계정 삭제/중지 검토
	보안장비 정책 검토	반기별(1월11월)	미사용 정책 삭제 등 검토
	개인정보 진단(PC파일)	월별	주민번호 저장 여부 진단(PC웹서버)
	개인정보 진단(DBMS)	반기별(1월11월)	웹 사이트 DBMS 주민번호 저장 여부 진단
	웹 소스코드 취약점 진단	반기별 격월	SSO 연동 웹 소스코드 진단
	모바일 앱 취약점 진단	10. 9 ~ 12. 22	SSO 연동 안드로이드, IOS 모바일 앱 진단/관리
	Active-X 취약점 진단	3. 2 ~ 6. 30.	SSO 연동 안드로이드, IOS 모바일 앱 진단/관리
	DDoS 모의훈련	반기별(4월 9월)	DDoS 대응 절차 및 기술적 방어 대응 훈련
	해킹 이메일 모의훈련	반기별(4월 12월)	해킹 이메일 발송 및 열람/실행을 점검

② 연간 무장애 서비스 유지 시간 비율

IT 서비스 무장애 서비스 유지시간 비율의 산정은 수능, 영어, 수학, 외국어, 통합웹 및 초중학 6개 사이트의 연간 인프라 무장애 서비스 유지 시간을 반영한 비율로서 평가되며, 산출식은 아래와 같다.

- 산출식

$$\left(\frac{\text{실적(당해년도)} - \text{최저목표(직전 3개년도 실적의 평균} \times 60\%}{\text{최고목표(직전 3개년도 실적의 평균} \times 105\%) - \text{최저목표(직전 3개년도 실적의 평균} \times 60\%} \right) \times 100$$

<표 4-6> 2017년 인프라 가동률

구 分	당해연도 실적(A)	직전 3개년도 실적 평균(B)	최저목표 (C=B*0.6)	최고목표 (D=전체기동시간)	평 가
수능	8,760	8,760	5,260.798	8,760	100%
영어	8,759.917	8,760	5,260.62	8,760	99.998%
수학	8,760	8,760	5,260.62	8,760	100%
외국어	8,759.917	8,760	5,260.62	8,760	99.998%
통합웹	8,760	8,760	5,260.62	8,760	100%
초중학	8,760	8,760	5,260.62	8,760	100%
평균	8,759.97	8,760	5,260.65	8,760	99.999%

3) IT 서비스의 고객 만족도

가) 평가기준

모바일, 인터넷 등 IT 서비스 및 품질 개선을 통한 서비스 만족도 제고 노력에 대해 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평가한다.

나) 평가사항

① IT 서비스의 고객만족도

IT 서비스의 고객 만족도는 고객 만족도 평가를 위한 사이트 서비스 품질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와 메인, 초등, 중학, 클립뱅크 사이트의 고객 만족도는 산정지수에 의한 산출식 결과로 평가된다.

(가) 외부 고객 만족도 평가를 위한 사이트 서비스 품질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 목적
 - 이용자의 사이트의 활용 방법/빈도 분석 및 서비스 개선에 대한 VOC 접수
 -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과업을 진행하여 이용자 만족도 제고
- 주요 내용
 - 평가 방법
 - . 대상: 사이트 이용자 중 로그인 회원 기준(중복 참여 불가)
 - . 형식: 인터넷 설문조사
 - . 평가 문항 수

구분	메인	초등	중학	클립뱅크
문항 수	34	48	49	49

- . 추진 일정: 2017. 11. 27.(월) ~ 12. 17.(일)
- . 참여 인원(명)

구분	메인	초등	중학	클립뱅크
참여인원	5,098	1,425	1,078	1,197
응답완료수	4,379	1,110	869	1,197
응답완료율	85.9%	77.9%	82.4%	100%

- 향후 계획
 - 서비스 개선에 대한 VOC를 반영하여 2018년 개선 과업으로 추진

<표 4-7> 전년대비 고객 만족도 증감 현황

사이트	2016년	2017년	증감률
메인	78.6	81.7	3.9%
초등	89.1	89.6	0.5%
중학	87.7	87.5	-0.2%
클립뱅크	81.9	86.3	5.4%
평균	84.3	86.3	2.3%

(나) 고객 만족도 지수

<표 4-8> 사이트 서비스 품질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사이트	2015년	2016년	2017년	2년 실적 평균 (2015~2016)
메인	81.1	78.6	81.7	80.47
초등	86.5	89.1	89.6	88.40
중학	85.6	87.7	87.5	86.93
클립뱅크	82.9	81.9	86.3	83.70
평균	84.0	84.3	86.28	84.15

※ 위 사이트의 전체 설문조사 실시는 2015년부터이므로 직전 2년 평균으로 산출식 계산

○ 고객 만족도

- 산출식

$$\left(\frac{\text{실적(당해년도)} - \text{최저목표}(\text{직전3개년도 실적의 평균} \times 60\%)}{\text{최고목표}(\text{직전3개년도 실적의 평균} \times 105\%) - \text{최저목표}(\text{직전3개년도 실적의 평균} \times 60\%)} \right) \times 100$$

$$= \left(\frac{\text{실적}(86.28) - \text{최저목표}(84.15 \times 60\%)}{\text{최고목표}(84.15 \times 105\%) - \text{최저목표}(84.15 \times 60\%)} \right) \times 100 = 94.5$$

- 결과 : 94.5%

평가결과 및 제언

안정적인 IT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들이 이루어졌다.

- 웹 시스템의 중장기 클라우드 전환을 위한 인프라 기반 마련의 U2L 작업 수행
- 네트워크 구조 개선을 통한 웹 사이트 인터넷 서비스 안정화
- EBS 웹 서비스 신뢰성 향상을 위한 정보보호 조치 수행
- 임시 클라우드 서비스 센터 구축을 통한 2018학년도 수능 풀 서비스 비상 대응
- 수능사이트 문항해설 이미지 기반 서비스 신규 인프라 시스템 구축 및 오픈 지원

IT 서비스 무장애 서비스 유지는 장애 예방 활동 및 적극적인 장애 대응을 통한 IT 인프라 가동률이 매우 우수하였다.

PC사이트뿐만 아니라 모바일사이트 동시에 실시된 메인사이트 설문조사 결과, 메인 사이트의 고객만족도는 전년대비 3.9% 증가, 클립뱅크 사이트 고객만족도는 전년대비 5.4% 증가하였으나, 초·중학사이트 고객만족도는 거의 변동 없거나 다소 하락한 것으로 평가되었다.(초등 0.5%상승, 중학 0.2%하락)

이런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우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초중학 사이트의 고객만족도 제고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다. 미디어 환경 대응

평가내용

1) 융합서비스 추진 노력의 적정성

가) 평가기준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융합서비스 추진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평가항목은 ① 융합서비스 추진 노력의 적정성, ② 융합서비스 추진 성과 정도이다.

나) 평가사항

① 융합서비스 추진 노력 정도

융합서비스 추진을 위하여 4차 산업혁명 관련 AI, 빅데이터, 세컨드스크린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적용이 시도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가) 번개코드 서비스 특허 취득 및 서비스 활성화 시도

○ 추진 목적

- 모바일을 활용한 EBS 세컨드스크린 서비스 활성화
- EBS 콘텐츠 접근성 강화

○ 주요 내용

- EBS play 앱 내에 4자리 코드를 적용하여 앱 페이지 접근이 용이하도록 번개코드 구현 및 기술특허 출원

○ 번개코드 활성화를 위한 대상 프로그램 및 적용 방안 검토



<그림 4-15> 번개코드 서비스>

(나) AI를 활용한 네이버 오탈자 교정 솔루션 도입 시도

○ 추진 목적

- 수능교재 오탈자 및 맞춤법 교정 방식의 정확성 및 효율성 제고
- 수능교재의 신뢰도 향상을 통한 EBS의 공적인 이미지 제고

○ 주요 내용

- 수능교재기획부의 수능교재 대상으로 네이버 오탈자 맞춤법 교정기 추가 테스트 적용
- 네이버 맞춤법 교정기 솔루션 UI 개발 (2017~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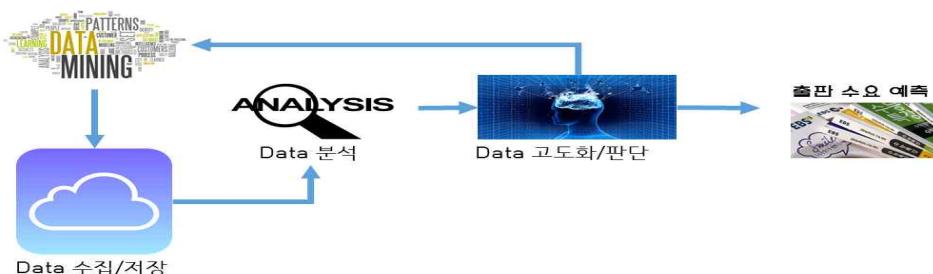
(다) 데이터 분석을 통한 교재 출판 수요 예측 시스템 개발 시도

○ 추진 목적

- 수능교재 출판 수요 예측을 통한 교재 폐기 비용 절감 시도
- 교재 재고 절감 노력을 통한 EBS 공익적인 이미지 제고

○ 주요 내용

- 수능교재 출판 물류 프로세스 및 통계자료 검토
- 데이터의 일부를 활용하여 통계 분석(시계열, 회귀 분석 등) 및 예측 모델 검토 (2017~2018년)
- 동국대 산학협력 프로그램(ICIP) 연계
 - ※ ICIP(Internship & Capstone-design Integrated Program) : 4학년 과정에서 산업체와 연계해서 프로젝트 과제 수행
- 수요 예측을 위해 데이터 구조화 모델 도출
- 현재 보유 데이터를 기반으로 테스트 프로그램 개발
 - ※ 예측 모델은 지속적으로 데이터 축적 및 다양한 예측 모델로 개선 필요



<그림 4-16> 출판 수요 예측 과정

(라) 날씨 티커 서비스용 정보 수신용 에이전트 개발

○ 추진 목적

- 기상청의 “선진형 방재기상정보 웹서비스 시스템”(<http://websky.kma.go.kr/>)의 서비스 종료에 따른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로 서비스 전환 대응

- 서비스 전환: Websky.kma.go.kr →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Open API
- 일정: 1차 전환(9.30.) → 2차 전환(11.30.) → 서비스 종료(12.31.)

- EBS는 DTV에서 날씨 티커 서비스 적용 및 기 사용 중인 기상청의 웹서비스 종료로 인한 변경 필요
- 주요 내용
 - 기존 운영 방식에서 보다 정확하고 안정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날씨 정보 수신용 에이전트 프로그램 개발
 - 2017년 하반기 시스템을 개발 완료 후 테스트 및 적용

(마) 연구용 UHD Head-End 도입 및 테스트

- 추진 목적
 - 지상파 UHDTV 송출 시스템 이해 및 테스트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제공)
- 주요 내용
 - 랩 테스트를 위한 연구용 지상파 UHD Head-End 시스템 도입
 - 연구용 지상파 UHD Head-End 시스템 정합 테스트

② 융합서비스 추진 성과 정도

융합서비스 추진 성과는 융합서비스 관련 연구개발 성과 및 추진계획 대비 성과 등으로 평가되며, 융합서비스 관련 주요 연구개발 성과들은 다음과 같다.

(가) 번개코드 서비스 기술의 특허결정 및 서비스 활성화 기반 확보

- 번개코드 특허청 기술특허 취득
- 번개코드 활성화 방안 마련 및 보고
 - (부가정보 제공) 요리비결, 세계테마기행 등
 - (시청자 참여) 스페이스공감, 모여라딩동댕 등

YOUR INVENTION PARTNER					
특 허 청 특허 결정서					
대	원	인	성	명	한국교육방송공사 (특허고객번호: 219980989022)
리	원	인	주	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1길 35 (우면동) 박희규
발	명	자	성	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20길 18, 2층 (역삼동, 부동빌딩)(유진특허법률사무소)
명	자	자	주	주	이동열 경기도 고양시 [REDACTED]
발	원	의	번	호	서희정 서울특별시 관악구 [REDACTED]
정	구	학	명	청	10-2016-0157337 단축코드를 이용한 양방향 데이터서비스 확장시스템
정	구	학	학	수	10
<p>이 출원에 대하여 특허법 제66조에 따라 특허결정합니다. (특허권은 특허료를 납부하여 특허법 제87조에 따라 설정등록을 받음으로써 발생하게 됩니다.)</p>					

<그림 4-17> 번개코드 서비스 기술의 특허결정서

(나) AI를 활용한 네이버 오탈자 교정 솔루션 도입 시도

- 네이버, 수능교재기획부와 협력하여 오탈자 교정 솔루션 도입 방향 논의 및 시범 테스트 진행
- 네이버와 협력하여 수능교재기획부 <한국사> 수능교재 대상으로 시범 적용 결과, 기존 방식(어문기자협회 교정)에서 걸러내지 못한 오탈자 오류 검출

<띄어쓰기 교정 사례>

입력	교정 결과	교정 부분
• 큰 일이 있을 때 반드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따른다. 이를 화백이라고 부른다.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 큰일이 있을 때 반드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따른다. 이를 화백이라고 부른다.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큰일이

<조사 교정 사례>

입력	교정 결과	교정 부분
• 회유책 : 여진족의 귀순 을 장려함, 국경 지역에 무역소를 설치하여 교역을 허용함	• 회유책 : 여진족의 귀순을 장려함, 국경 지역에 무역소를 설치하여 교역을 허용함	귀순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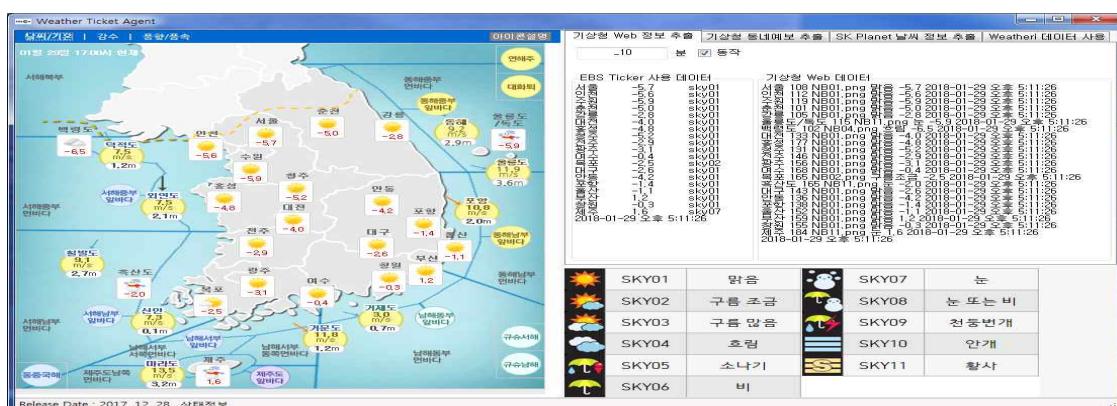
- AI 솔루션 적용을 위한 개발 준비

(다) 데이터 분석을 통한 교재 출판 수요 예측 시스템 개발

- 출판사업부와 협력하여 수능교재 출판 프로세스 현황 파악 및 수요 예측 데이터 수집 분석 및 솔루션 개발 방향 설정
- 동국대 산학 연계 캡스톤디자인 프로젝트 수행 준비
※ 동국대 산학 프로젝트 연계 수행 : '18년 3월 ~ 11월 예정

(라) 날씨 티커 서비스용 정보 수신용 에이전트 개발

- 주요 내용
 - 프로그램에 왼쪽에 기상청의 현재 날씨 웹페이지를 표시하여 인터넷 연결 상태/현재 날씨 확인이 가능하게 함



<그림 4-18> 날씨 에이전트 UI

- 기존 단일 사이트(기상청의 웹 서비스 시스템)에서 정보를 받아 오던 것을 4개 사이트에서 정보를 수신할 수 있도록 개발
 - . 기상청 Web 정보 추출 : 기상청 웹 사이트에서 현재 날씨 정보 활용
 - . 기상청 동네예보 추출 :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서 동네예보 API 활용
 - . SK Planet 날씨 정보 추출 : SK Planet에서 제공하는 현재 날씨 API 활용
 - . Weatheri 데이터 사용 : 데이터 스토어의 웨더아이 API 정보 활용
- 결과 및 기대효과
 - 2017년 12월부터 테스트 시작, 2018년부터 활용
 - 기존 대비 정확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마) 연구용 UHD Head-End 도입 및 테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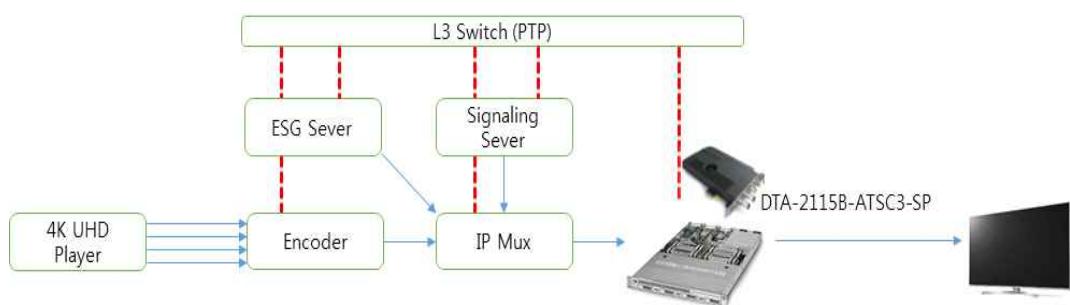
○ 추진내용

- 연구용 UHD Head-End 장비 도입

<표 4-9> 연구용 UHD Head-End 장비 도입 현황

순번	품명	규격	수량	기능
1	ENCODER	ATSC 3.0 (HEVC) 인코더	1	대용량 UHD 영상/음성 압축 장비
2	SIGNALING SERVER SYSTEM	ATSC 3.0 Signal ESG	1	서비스 정보(가상채널 10-1, 채널 이름 EBS1 등) 및 편성정보 제공
3	NETWORK SWITCH	L3 Switch(PTP)	1	송출 장비시간 동기화 및 데이터 통신
4	MONITOR COLOR LCD (36"~100")	ATSC 3.0 & HDR 지원 TV	2	ATSC 3.0 표준 삼성/LG전자 TV

- 랩 테스트 시스템 구축 정합 테스트 진행



<그림 4-19> 연구용 UHD Head-End 시스템 구성도

○ 결과 및 기대효과

- 지상파 UHDTV 본방송 실시 준비
- 지상파 UHDTV 서비스의 안전성 강화
- UHD HDR(High Dynamic Range) 서비스 및 IP 기반의 UHD 부가서비스 연구 기반 마련

2) 전문성 강화 노력의 적정성

가) 평가기준

미디어환경 변화 및 글로벌 융합기술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부문 전문성 강화 노력의 정도를 평가한다.

나) 평가사항

① 기술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실적

기술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글로벌 이동통신산업 전시회 참관 연수, 미래 융합기술 동향 파악이 가능한 글로벌 기술트렌드 세미나, 방송장비 도입 및 기획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매계약 업무능력 배양 및 송출시스템 용역 계약을 위한 정부 계약 프로세스 체계적 교육 실시 등의 연수, 교육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

(가) 국내 연수 실적에 대한 산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직전 3개년도 실적의 평균

- 글로벌 융합기술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는 인재 양성 연수 실시

<표 4-10> 인재 양성 연수 실시 현황

	2014	2015	2016	평균
횟수	29	27	18	24.67
인원	81	89	74	81.33

○ 당해연도 실적 및 산출 결과

- 횟수 :

$$\begin{aligned} & \frac{\text{실적(당해년도)} - \text{최저목표(직전3개년도 실적의 평균} \times 60\%}{\text{최고목표(직전3개년도 실적의 평균} \times 105\%) - \text{최저목표(직전3개년도 실적의 평균} \times 60\%}) \times 100 \\ & = \frac{\text{실적}(22) - \text{최저목표}(24.67 \times 60\%)}{\text{최고목표}(24.67 \times 105\%) - \text{최저목표}(24.67 \times 60\%)} \times 100 = 64.86 \end{aligned}$$

- 인원 :

$$\begin{aligned} & \frac{\text{실적(당해년도)} - \text{최저목표(직전3개년도 실적의 평균} \times 60\%}{\text{최고목표(직전3개년도 실적의 평균} \times 105\%) - \text{최저목표(직전3개년도 실적의 평균} \times 60\%}) \times 100 \\ & = \frac{\text{실적}(116) - \text{최저목표}(81.33 \times 60\%)}{\text{최고목표}(81.33 \times 105\%) - \text{최저목표}(81.33 \times 60\%)} \times 100 = 183.61 \end{aligned}$$

- 산출결과

	2017	직전 3개년도 평균	산정 결과(%)
횟수	22	24.67	64.86
인원	116	81.33	183.61

<표 4-11> 연수 세부 실적 현황

순번	연수과정	일시	기간	참석자	부서	비고
1	네트워크 시스템 교육	2.13-2.17	5	1명	네트워크기술부	
2	웹월드 콘텐츠 서비스 컨퍼런스	2.21-22,24	3	6명	IT운영부	
3	인공지능 음성콘텐츠 산업과 모바일 융합시스템	3.17	1	1명	제작기술부	
4	방송 사운드 테크닉	3.28-29	2	2명	제작기술부	
5	MySQL 관리자과정 교육	4.10-14	5	1명	제작기술부	
6	KOBA 2017 국제컨퍼런스	5.16-18	3	10명	융합기술본부	
7	방송조명 제작 워크플로우 실습 (1 차)	6.13-15	3	1명	제작기술부	
8	UHD 제작 워크플로우 실무 (1 차)	6.26-28	3	1명	기술기획부	
9	UHD 송신시스템 1차	7.18-20	1	1명	네트워크기술부	
10	디지털 신호시스템 품질관리	7.25-27	3	2명	영상기술부 네트워크기술부	
11	UHD DIT 플로우	8.23-25	3	1명	편집부	
12	조명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8.28-29	2	1명	제작기술부	
13	방송조명 제작 워크플로우 실습(2차)	8.28-30	3	1명	제작기술부	
14	나라장터 이용(물품·용역) 교육	10.11-13	3	1명	기술기획부	
15	UHD방송 시네마틱 제작	10.17-19	3	1명	제작기술부	
16	IoT 기술동향 분석 세미나	10.19	1	1명	네트워크기술부	
17	네트워크 및 파일기반 워크플로우 실무	11.8-10	3	2명	네트워크기술부	
18	방송영상 그래픽 실무	11.9-18.1.8	2 개월	1명	편집부	
19	찾아가는 조달전문교육	11.6	1	3명	네트워크기술부	
20	웹월드 컨퍼런스 2017	11.21-24	4	4명	IT운영부	
21	4차산업혁명과 SW교육 계획	12.7	1	30명	융합기술본부, 디지털혁신팀, 교육방송연구소	
22	방송콘텐츠와 미디어 융복합 시장의 이해	12.15	1	20명	융합기술본부, 디지털혁신팀, 교육방송연구소	

(나) 해외연수 실적에 대한 산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12> 직전 3개년도 실적

	2014	2015	2016
횟수	10	13	10
인원	19	22	23

○ 당해연도 실적 및 산출 결과

- 횟수 :

$$\left(\frac{\text{실적(당해년도)} - \text{최저목표(직전3개년도 실적의 평균} \times 60\%}{\text{최고목표(직전3개년도 실적의 평균} \times 105\%) - \text{최저목표(직전3개년도 실적의 평균} \times 60\%} \right) \times 100$$

$$= \left(\frac{\text{실적}(12) - \text{최저목표}(11 \times 60\%)}{\text{최고목표}(11 \times 105\%) - \text{최저목표}(11 \times 60\%)} \right) \times 100 = 109.09$$

- 인원 :

$$\left(\frac{\text{실적(당해년도)} - \text{최저목표(직전3개년도 실적의 평균} \times 60\%}{\text{최고목표(직전3개년도 실적의 평균} \times 105\%) - \text{최저목표(직전3개년도 실적의 평균} \times 60\%} \right) \times 100$$

$$= \left(\frac{\text{실적}(25) - \text{최저목표}(21.33 \times 60\%)}{\text{최고목표}(21.33 \times 105\%) - \text{최저목표}(21.33 \times 60\%)} \right) \times 100 = 127.08$$

- 산출결과

	2017	직전 3개년도 평균	산정 결과(%)
횟수	12	11.00	109.09
인원	25	21.33	127.08

<표 4-13> 연수 세부 실적 현황

순번	연수과정	일시	기간	참석자	부서	비고
1	CES(미국)	1.3-10	8	1명	기술기획부	
2	MWC(스페인)	2.26-3.4	7	2명	IT운영부 영상기술부	
3	NAB(미국)	4.23-29	7	2명	영상기술부 네트워크기술부	
		4.23-30	8	2명	네트워크기술부 기술기획부	
4	마스터스워처 1차(일본)	4.3-7	5	3명	네트워크기술부	
5	색보정 장비 연수(스페인)	5.25-6.2	9	2명	편집부	
6	마스터스워처 2 차(일본)	5.22-26	5	2명	네트워크기술부 네트워크기술부	

순번	연수과정	일시	기간	참석자	부서	비고
7	ARRI UHD 카메라 연수(캐나다)	7.9-14	6	1명	기술기획부	
8	IBC(네덜란드)	9.14-20	7	2명	편집부	
		9.14-21	8		기술기획부	
9	HeadEnd 시스템 장비 연수(미국)	11.26-12.3	8	3명	네트워크기술부	
					기술기획부	
					중계부	
10	글로벌 방송제작기술 전문가 양성과정(일본)	11.29-12.6	8	1명	영상기술부	
11	Video Server 장비 연수(싱가포르)	12.3-8	6	2명	IT운영부	
					네트워크기술부	
12	Audio Mixer 장비 연수(헝가리)	12.3-10	8	2명	중계부	
					제작기술부	

(다) 국내/해외 연수 실적 산출 결과

	국내	해외	산정 평균(%)
횟수	64.86	109.09	86.98
인원	183.61	127.08	155.35
평균			121.17

3) 프로그램 품질 개선 기술지원의 적정성**가) 평가기준**

고품질 콘텐츠 제작을 위한 다양한 기술적 지원 정도 및 프로그램 품질 개선을 위한 평가시스템의 운영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평가항목은 ① 프로그램의 품질 개선을 위한 기술지원 노력 정도, ② 프로그램의 품질 개선을 위한 품질 평가 시스템의 운영 정도로 구성되었다.

나) 평가사항**① 프로그램의 품질 개선을 위한 기술지원 노력 정도**

프로그램 품질 개선을 위하여 TV 영상/음향/조명 및 라디오 음향 등 각 부문에서 기술지원 노력이 이루어졌으며, 그 주요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가) 공통 부문

- 프로그램 사전협의 개최를 통한 프로그램 품질향상 및 효율적인 제작환경 마련

<표 4-14> 프로그램 사전협의 개최 현황 및 결과

회차	일자	프로그램명	결과
1	1/11	특집 ‘지능정보사회가 온다’	서버 백업녹화 및 모니터 소스 등 협의
2	2/23	방귀대장 뽕뽕이	카메라 수량 및 부감 등 협의
3	3/2	동요 구출작전	메인세트 후면 전식 및 조명 협의
4	4/4	엄마를 찾지마	세트와 조명위치 협의
5	6/14	특집 ‘대입제도 현실과 과제’	비디오 월 소스 및 서버 소스 협의
6	6/30	까칠남녀	세트 조명 및 멀티뷰어 협의
7	8/7	보니하니	LED 비디오 월 및 카메라 수량 협의
8	8/9	EIDF	마이크 수량 및 세트, 방청 조명 협의
9	8/20	엄마를 찾지마	모니터 설치와 출연자 시선처리 등 협의
10	9/13	방귀대장 뽕뽕이	탑샷 조명위치 및 RET모니터 협의
11	9/14	또또랑 비밀창고	아날로그 신호 분배 및 CD 협의

(나) TV 영상부문

- 영상 관련 스튜디오 제작 경쟁력 강화
 - 생방송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 프로그램 이원생방송 및 화상통화를 통한 일반 시청자 참여형 양방향 방송서비스 구현
 - EIDF 개.폐막식 생방송 기술지원
 - 대학입시 설명회, 대 수능 특별생방송 기술지원
 - 버추얼 프로그램 세트 디자인 및 운용관련 기술지원
 - DME (Digital Multi Effect) 고도화로 프로그램 영상구현 다양화
 - 카메라 시스템 셋업 최적화로 고화질의 영상제공
 - 시스템 예방점검 및 유지보수 수시 실시
- 회선조정실 (TOC)를 통한 신호 송·수신 기술 지원
 - 사옥 내 이원, 삼원 프로그램 제작 시 회선조정실을 통해 신호 분배 지원
 - 외부 신호 송, 수신 시 회선조정실을 통한 원활한 신호 처리
- 파일기반 제작시스템 지원
 - TV 1,2,3,4,5 부조정실 파일제작시스템 운용
 - TV 1,2,5 부조정실 신 서버(e-VCR) 도입으로 서버 안정성 증대
- NEWS 제작시스템 지원

- EBS 뉴스 방송망 링크 (중계차, LTE, IP, 광) 기술지원
- 옥상 파노라마 카메라 및 모니터 월 시스템 구축
- 버추얼 프로그램 제작 지원
 - 버추얼 스튜디오 프로그램 제작 운영 지원
 - . 영어회화, 영어뉴스, 자격증, 방학생활 등
- 중계 기술 지원
 - LTE, IP, 광 망 등을 이용하여 부조정실과 중계시스템 연결 및 필요 기술 지원
 - 기술감독 및 영상담당 인력 기술 지원
- 기타 기술 지원 및 교육
 - 새로운 장비 Demo를 통한 신 기술 적용 추구
 - . AR장비, 화상통화장비 등 방송장비 Demo
 - 보이는 라디오, 이더닝 스튜디오 등 영상관련 분야 기술 지원
 - 다양한 직무 연수교육을 통한 제작기술 능력 함양
 - . VR, AR WASP3D 교육 (3.17)
 - . 4차산업 컨퍼런스 (3.29~30)
 - . FCP 직무교육 (8.23)
 - . Ikegami 카메라 교육 (10.24~25)
 - . 네트워크 실무교육 (11.8~10)
 - . KOC 2017 세미나 (11.15)
 - . 방송콘텐츠와 미디어 융복합 시장의 이해 (12.15)

(다) TV 음향부문

- NEWS 제작시스템 지원
- 음향 관련 스튜디오 제작 경쟁력 강화
 - TV 4부조 안정적인 생방송을 위한 디지털 오디오 콘솔(VISTA X) 설치
 - 스페이스 공감 공연 품질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용 PA콘솔 도입
 - 스페이스 공감 등 다채널 오디오 채널 믹싱을 위한 전용 <3더빙실> 설치 및 운용
 - 1더빙실 DAW(멀티채널 믹싱 솔루션) Protools 도입을 통한 다양한 포맷의 오디오 더빙 및 믹싱 가능
- 방송기술 연수를 통한 제작역량 배양
 - 방송사운드 테크닉 교육
 - STUDER VISTA X 음향콘솔 교육

(라) TV 조명부문

- 조명 관련 스튜디오 제작 경쟁력 강화
 - 녹화 당일 사전 조명으로 녹화시간 단축 및 제작효율성 향상
 - ENG 촬영 프로그램 조명지원으로 ENG 촬영 효율성 향상
 - 무빙 라이트 자체운용으로 프로그램 조명 연출 향상 및 품질 개선
 - TV 1스튜디오에 Moving Light(VL3000)를 도입하여 다양한 조명 이펙트 효과 및 색채 구현으로 영상의 질 개선
 - TV 4스튜디오에 LED LIGHT의 장비를 도입하여 생방송 제작시 안정적인 조명 공급 및 색온도 5600K에 맞는 영상구현이 가능
- 방송기술 연수를 통한 제작역량 배양
 - 방송조명제작 워크플로워 실습
 - 방송조명 연출이론 및 시뮬레이션 교육

(마) TV 편집부문

- 고품질 프로그램 제작과 제작 역량 확대를 위한 연수 참여
 - 차세대 실감미디어 및 UHD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참여
 - 제작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외부 연수 참여 및 내부 전문가 연수 진행
 - 방송제작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뉴미디어 동향 파악을 위한 세미나 참석

<표 4-15> 세미나 참석 현황

구분	연수명	일자	장소	참여자
차세대 실감미디어	색보정 및 UHD	5.25 ~ 6.2	마드리드	2명
	UHD 4K DIT 개념 및 워크플로우	8.23 ~ 25	전파방송통신	2명
	VR 콘텐츠 제작 실무 교육	12.11 ~ 13	인재개발연구원	2명
	뉴미디어 전문가 양성 연수	9.14 ~ 20	암스테르담, IBC	1명
직무	방송영상그래픽 실무교육	11.9~18'1.5	SBS방송아카데미	1명
연수 (내외)	색보정	10.15~12.15	EBS 색보정실	2명
	프리미어 편집 교육(내부 강사)	1.19	EBS 특수편집실	8명
세미나	UHD 및 뉴미디어 동향	11.22	RAPA	3명

○ 콘텐츠 제작 기반 확대

- UHD 방송 송출을 대비한 콘텐츠 완성 기반 마련
 - . 색보정 업무를 확대하여 효율적인 콘텐츠 제작 및 영상의 완성도 제고
 - . UHD 콘텐츠 직접제작의 대안인 UHD 리마스터링을 위한 편집 장비 보강

- UHD 제작 워크플로우 방안 모색
 - . 체계적인 UHD 제작 워크플로우 정립을 위해 유관부서와 편집 소프트웨어 및 코덱 선정 방안 협의(네트워크기술부)
 - . UHD 콘텐츠 제작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워크플로우 정립을 위한 동향 파악
- 후반 편집 제작 인프라 확대
 - . 증가하고 있는 후반 편집 수요에 대응하고 편집부 업무 영역별 전문성 강화
 - .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통한 제작인프라 활용률 제고

<표 4-16> 후반 편집 제작 인프라 확대 현황

후반편집	前(도곡)	後(일산)	비고
영상	색보정	2 실	4 실 2실 증가
음향	사운드마스터링	2 실	3 실 1실 증가

- 프로그램 품질 개선을 위한 시사회 개최 및 유관부서와의 소통 강화
 - 편집부 전문영역별 시사회 및 통합시사회 실시
 - . 특수편집, 색보정, 사운드마스터링 등 파트별 시사회 정례화
 - . 편집부 전원이 참여하는 정기적인 통합시사회 개최(월 1회)
 - . 시사회 평가결과와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들을 공유하고 품질 개선 방안 모색
 - 프로그램 품질 향상 및 효율적인 제작 프로세스를 위한 유관 부서와 협력 강화
 - . 영상기술부, 제작기술부, 영상그래픽부, 영상제작1,2부

(바) 라디오 음향부문

- 라디오 관련 스튜디오 제작 경쟁력 강화
 - 보이는 라디오 서비스 화질 개선을 위한 조명장비 보강
 - . 라디오 1, 2스튜디오 조명장비 보강 및 교체
 - 라디오 부조별 이모션(E.moti.on) 제작시스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 . 시스템의 오류수정 및 개선사항 적용으로 보다 안정적인 제작환경 제공
 - 라디오 1스튜디오 Music Live 연주용 환경 조성
 - . 녹음 제작 및 생방송 시 언제라도 출연자들이 Live 연주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라디오 2스튜디오 증강현실[AR(Augmented Reality)] 환경 구축
 - . 보이는 라디오를 통하여 라디오 프로그램을 접하는 청취자들에게 시각적인 효과를 부가하기 위한 증강현실(AR) 환경 구축

○ 신규 FM 제작 송출용 오디오파일 시스템 고도화



<그림 4-20> 송출파일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 현황

- 스피커 송출용 프로그램 파일의 RT이상, 묵음 구간, 역상 구간 자동 검사
- 제작 서버, 3중화 송출 서버 간 파일 동일성 자동 검사
- 파형 모니터 및 프로그램 파일 미리 듣기 기능

○ 보이는 라디오용 이미지 동영상 플레이리스트 제작 시스템 구축



<그림 4-21> 보이는 라디오용 이미지 동영상 플레이리스트 제작 시스템 구축 현황

- 프로그램 편집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용
- 프로그램별, 일자별 플레이리스트 작성 기능 제공
- 송출용 재생 시스템에 의해 FM송출 시스템과 연동하여 자동 재생

② 프로그램의 품질 개선을 위한 품질 평가 시스템의 운영 정도

프로그램 시사회를 통한 품질 평가 횟수 등을 고려한 산정지수로 평가된다.

- 산정지수 : 프로그램 시사회를 통한 품질 평가 횟수
- 산출식

$$\left(\frac{\text{실적(당해년도)} - \text{최저목표(직전3개년도 실적의 평균} \times 60\%}{\text{최고목표(직전3개년도 실적의 평균} \times 105\%) - \text{최저목표(직전3개년도 실적의 평균} \times 60\%} \right) \times 100$$

(가) TV 영상/음향/조명부문

- 프로그램 시사회 개최
 - 12회(당해 연도), 12회(3년 평균)

<표 4-17> 프로그램 시사회 결과 (2017년)

회차	일자	프로그램명	결과
1	1/6	딩동댕 유치원	출연인형 동선에 따른 조명 외 기타 관련 개선 협의
2	2/8	최고의 요리비결	셋트 조명 관련 개선 협의
3	3/22	장학퀴즈	비디오 월 밝기 및 영상 외 기타 관련 개선 협의
4	4/5	모여라 딩동댕	무대 음향 및 조명 관련 개선 협의
5	4/26	방귀대장 뿅뿅이	출연인형 동선에 따른 조명 외 기타 관련 개선 협의
6	5/24	왕초보 영어	오디오 음질 관련 개선 협의
7	6/7	보니하니	조명효과 외 기타 관련 개선 협의
8	8/9	EBS NEWS	조명 및 비디오 월 관련 개선 협의
9	9/6	스페이스공감	조명 및 서버 녹화분 싱크 외 기타 관련 개선 협의
10	10/11	매직아이스크림	오디오 음질 관련 개선 협의
11	11/8	까칠남녀	셋트 조명 관련 개선 협의
12	12/6	교육대토론	카메라 및 오디오 마이크 수량 외 기타 관련 개선 협의

(나) TV 특수편집, 사운드마스터링, 색보정, 종합편집 부문

- 프로그램 시사회를 통한 품질 개선 실적
 - 12회(당해 연도), 12회(3년 평균)
- 산출결과 : 88.89%

<표 4-18> 프로그램 시사회 결과(2017년)

회차	일자	프로그램명	결과
1	1/31	하나뿐인 지구 (늘 푸른 집 반려식물과 살다)	콘크리트 숲에 갇혀 사는 현대인에게 정신적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잘 제시하였음
2	2/14	딩동댕유치원 (나의 겨울 친구, 눈가람!)	아이들이 좋아하는 눈과 눈사람을 통해 생태계의 원리, 자연의 순환 등을 자연스럽게 표현함
3	2/21	봉구야 말해줘 (여자친구는 꼭 한 명이어야 돼?)	봉구(3D 캐릭터)의 합성이 이질감 없이 자연스럽게 합성되었음
4	3/28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짖어야 한다 동네 만폐견 삼총사)	강아지의 나쁜 습관을 해주는 것은 양호하나, 대형견들에 대한 부분은 다소 미흡해 보임
5	4/18	모여라딩동댕(썸핑조이 생일파티 호랑이 배 속 구경)	현장의 파란색 조명이 너무 과해서 보기 불편했던 것 같고, 아이들 눈에는 파란 과물처럼 보일 것 같음
6	5/30	스페이스공감2 (안녕하신가영)	최근에 들을 수 없는 서정적인 음악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클로즈업 화면에서 배경과 자막이 겹쳐 명료도가 떨어져 보임
7	8/29	지식채널e (유치원에서 생긴일)	세계관과 정체성을 스스로 탐색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내용이 흥미로웠고 폰트의 종류가 좀 많은 것 같음
8	9/26	다큐시선 (우리는 한국인입니다)	드론을 비롯한 야외 촬영과 다문화 가정의 실내 촬영의 색보정이 잘 되어 있고, 믹싱밸런스가 안정적임
9	10/24	명의(죽을 만큼 아픈, 죽음보다 두려운 통증)	CG를 통해 통증을 잘 표현해 공감할 수 있었으나, 채도가 빠진 듯한 연한 색 톤은 좀 개선할 필요가 있음
10	10/31	문화유산코리아 (마을 수호신 장승을 찾아서)	드론을 통한 촬영이 안정적이고, 특수효과 합성 및 트랜지션 부분들이 특색이 있어서 좋았음. 반면 인터뷰 자막의 블랙 쉐도우 부분이 너무 과해보임
11	11/24	엄마를 찾지마 (시즌2 10부)	엄마 인터뷰(크로마) 부분이 좀 더 세밀하게 합성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음
12	12/19	또또랑 보물창고 (13회 움직이는 다크판)	다트판을 벨크로 테이프로 만드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어려운 용어를 ‘찍찍이’ 등 쉬운 용어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 라디오 음향부문

○ 프로그램 시사회 개최

- 12회(당해 연도), 12회(3년 평균)

<표 4-19> 프로그램 시사회 결과(2017년)

회차	일자	프로그램명	결과
1	1/13	심야책방	전체적인 믹싱상태는 양호하나 코너별 BG가 다소 차이가 남
2	2/17	시콘서트	진행자와 고정 게스트 간 마이크 입력 레벨 밸런스를 맞추었으면 함 (생방송 전 마이크 입력 체크 철저 요망)
3	3/24	모닝스페셜	진행자와 초대 게스트 간 음향 레벨 차이가 다소 있으므로 조정이 필요함
4	4/14	행복한 교육세상	믹싱 상태는 B.G와 음성이 적절하게 배합되어 있으나 CD 오디오 레벨은 약간 높음
5	5/19	경청	전반적인 믹싱상태는 좋으나 효과음들의 레벨 차이가 있음
6	6/16	English GoGo	청취자 전화 연결 시 노이즈가 심함 (전화 연결 전 전화라인 체크하고, 연결 시 상황에 맞는 EQ조정이 필요함)
7	7/14	책으로 행복한 12시	진행자와 초대 게스트 간 레벨 밸런스를 맞추었으면 함
8	8/18	니하오 차이나	전반적인 믹싱상태 좋으나 보이스 레벨 차이가 다소 있으므로 조정이 필요함. 전반적인 믹싱상태 좋으나 효과음들의 레벨 차이가 있음
9	9/15	CAN CAN CAN	전체적인 음향 믹싱상태는 좋으나 코너별 B.G가 다소 차이가 남
10	10/20	뮤직 원더랜드	진행자와 초대 게스트 간 레벨 밸런스를 맞추었으면 함
11	11/17	북카페	낭독 시 전반적인 믹싱상태는 좋으나 효과음들의 레벨 차이가 있음. (성우들의 보이스 레벨을 균형 있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12	12/15	일요음악여행	전체적인 음향 믹싱상태는 좋으나 코너 별 진행자의 낭독 시 BG가 다소 차이가 있음

(라) TV/라디오/편집 부문 최종결과

- 프로그램 시사회 개최 결과 : 12회(당해 연도), 12회(3년 평균)

<표 4-20> 당해연도 부문별 시사회 횟수

	TV(영상/음향/조명)	라디오(음향)	편집	평균
시사회 횟수	12	12	12	12

※ 프로그램 품질 향상을 위해 제작진 및 유관부서에 시사회 결과 등을 공유

- 산출식(%)

$$\begin{aligned}
 & \left(\frac{\text{실적(당해년도)} - \text{최저목표}(\text{직전3개년도 실적의 평균} \times 60\%)}{\text{최고목표}(\text{직전3개년도 실적의 평균} \times 105\%) - \text{최저목표}(\text{직전3개년도 실적의 평균} \times 60\%)} \right) \times 100 \\
 & = \left(\frac{\text{실적}(12) - \text{최저목표}(12 \times 60\%)}{\text{최고목표}(12 \times 105\%) - \text{최저목표}(12 \times 60\%)} \right) \times 100 = 89
 \end{aligned}$$

※ 3년 평균 : 12회

- 최종결과 : 89%

4) 방송장비 도입의 적합성

가) 평가기준

새롭게 변화하는 방송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신규 방송장비의 도입 및 활용은 콘텐츠 제작과 유통에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방송장비 도입을 위한 신기술 정보 취득 방법 및 공유의 적정성과 도입의 적합성을 평가한다. 평가항목은 ① 신기술 정보의 취득 및 활용의 정도, ② 방송장비 도입의 적합성 정도이다.

나) 평가사항

① 신기술 정보의 취득 및 활용의 정도

방송장비 관련 신기술 정보의 취득 방법 및 활용에 대한 평가는 투자 적합성(장비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이루어진 신기술 정보 취득 방법과 취득한 정보의 공유, 활용 실적 중심으로 실시되며, 주요 실적은 다음과 같다.

(가) 방송관련 신기술 정보 취득 활동

- 2017 NAB 참관
 - 일시: '17년 4월 22일~27일
 - 장소: 미국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

2017사업연도 EBS 경영평가 보고서

- 내용: 세계 최대 방송 장비 전시회
- KOBA 2017 참관
 - 일시: '17년 5월 16일~19일
 - 장소: 삼성동 코엑스 전시관
 - 내용: EBS 부스 운영, 지상파 및 방송장비 부스 참관 자료조사, 컨퍼런스 참석
- IBC 2017 참관
 - 일시: '17년 9월 14일~19일
 - 장소: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RAI 컨벤션센터
 - 내용: 글로벌 UHD 방송서비스 및 최신 방송통신융합기술 트렌드 조사
- KOC 2017 참가
 - 일시: '17년 11월 14일
 - 장소: 한국방송회관
 - 내용: 인공지능과 미디어의 미래
- CES 2017 참관
 - 일시: '17년 1월 5일~8일
 - 장소: 미국 라스베이거스
 - 내용: UHD TV, 사물인터넷, 가상 현실, 드론 및 액션캠 등
- MWC 2017 참관
 - 일시: '17년 2월 27일~3월 2일
 - 장소: 스페인 바로셀로나
 - 내용: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 2017 월드 IT쇼 참석
 - 일시: '17년 5월 24일~27일
 - 장소: 코엑스
 - 내용: 모바일, 클라우드 및 신규 ICT 기술 동향 파악
- 2017 국제 음향영상 산업전 참석
 - 일시: '17년 8월 30일~9월 1일
 - 장소: 킨텍스
 - 내용: 4차산업혁명 음향융합기술, 신규 음향 및 영상, 조명 장비 파악
- 2017 글로벌 모바일 비전 참석
 - 일시: '17년 9월 13일~9월 15일
 - 장소: 킨텍스
 - 내용: 신규 모바일 플랫폼 기술 / 클라우드 컴퓨팅, 무선 네트워크 장비 등 차세대

네트워크 솔루션 파악

- 기술세미나 및 장비시연회
 - 방송조명 제작 워크플로우 실습 참여
 - UHD 제작 워크플로우 실무 참가
 - UHD 송신시스템 교육 참가
 - 디지털 신호시스템 품질관리 교육 참석
 - 네트워크 및 파일기반 워크플로우 실무 교육 참가
 - UHD 방송기술 세미나 ‘UHD 방송의 쟁점과 전망’ 참석
 - 웹월드 컨퍼런스 2017 참석
 - IoT 기술 동향 분석 세미나 참석
 - UHD 방송장비(UHD 줌 렌즈) 시연회 실시
 - 통합사옥 4스튜디오용 LED디스플레이 Video Wall System 시연회 실시
 - JTBC 비디오 Wall System 운용 파악
 - (주)유원인포시스의 eVCR/NCAM(Camera Tracking System) 설명회 개최
 - GVG 4K/UHD VMU(Video Mixer Unit) 설명회 개최
 - (주)에스템 브로드텍의 AR/VR 장비 WASP3D 시연회 실시
 - 글로벌 UHD 컨퍼런스(UHD 신규 트렌드 분석 및 VR/AR 연계 시스템 동향) 참석
 - VR EXPO 2017 참석
 - AR/VR(트래킹시스템 STYPE KIT 및 WASP3D) 운용 견학(KBSN)
 - VR 어트랙션 장비 체험 및 전시회 견학
 - 4차산업 컨퍼런스 참석(프레스센터)
 - Avilith Systems의 4K Encoder 장비 시연 및 설명회
 - Filmlight의 BaseLight 색보정 장비 테스트
 - HDR & 4K 60P 레코더 장비 데모
 - 4K 후지논 렌즈 장비 데모
 - UHD DIT FLOW 교육 참가
 - SONY KOREA HDR 워크플로우 세미나 참석
 - 추계 방송과미디어 기술 워크숍 참석
 - 조명 장비(Robe/Acme 제품) 데모 실시
 - 4차산업혁명시대의 미디어서비스 혁신방안 세미나 개최
 - 인공지능 음성콘텐츠 산업과 모바일 융합시스템 교육 참가
 - 방송 사운드 테크닉 연수 참가
 - 조명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교육 참가

- 나라장터 이용(물품, 용역) 교육 참가
- 찾아가는 조달 전문교육 참가

② 방송장비 도입의 적합성 정도

방송장비 도입의 적합성 정도는 방송장비 도입의 ‘방법 및 절차’의 적합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며, 주요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가) 방송장비 도입 방법 및 절차

- 현업 사용부서에서 필요 장비에 대해 장비관리부서로 구매 요청
- 장비관리부서에서는 장비의 스펙 및 수량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예산부서와 협의한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한 후 방송장비도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장비구입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심의
- 심의를 통과한 장비에 대해 장비구매 품의 후 구매계약부서에 구입의뢰
- 구매 계약부서에서는 내용 검토 후 입찰 공고 및 구매 계약 체결

(나) EBS 방송장비 구매 시 고려 사항

- EBS는 입찰 시 구매할 장비의 기술규격을 만족하는 모든 업체의 장비를 경쟁시키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채택
- 방송장비 구매 시 평균 2개 이상 업체의 제품을 경쟁제품으로 검토
- 방송장비 검토 시 고려하는 우선순위로 1순위 성능 및 호환성, 2순위 안정성
- 반면에 국산/외산 여부는 8순위로 두어 국산장비의 차별을 두고 있지 않음
- 제품 간 성능차이가 있을 때에는 성능 테스트를 통해 성능이 떨어지는 제품을 입찰 시 배제할 수도 있음
- 제품 성능 차이가 없을 때는 최저가 제품을 구매

<표 4-21> 인프라 가동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7순위	8순위
성능 및 호환성	안정성	가격	A/S	업체인지도 및 신뢰도	납품실적	사용부서 의견	국산 및 외산 여부

5) 방송제작 워크플로우 개선 노력의 적정성

가) 평가기준

고품격 콘텐츠 제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방송제작 워크플로우 정립과 개선 노력이 필수적이다. 여기서는 방송 제작 시스템 및 워크플로우 개선을 위한 노력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나) 평가사항

① 방송 워크플로우 개선 노력 적정성

(가) 일산사옥 파일기반시스템 구축

- 목적 : 최적의 제작워크플로우 환경 구성을 통한 디지털기반의 효율적인 업무 환경 제공
- 주요 특징
 - 100% 파일기반으로 운영이 가능한 디지털워크플로우 구축
 - 프로그램 특성에 따른 제작 환경 최적화(장기간 또는 대규모 기획, UHD 등)
 - 확장성을 고려한 시스템 설계로 UHD 방송에 대응
 - 장비 인프라 통합을 통한 시스템 운영 효율성 강화
 - 미디어 파일의 이중 백업 구조 및 비상주조정실 구축으로 파일기반시스템 안정성 확보
- 추진 경과

'17년	구축 방향 설계 및 사업자 선정
1월 ~ 6월	파일기반시스템 신규 구축
7월 ~ 8월	일산-도곡사옥 간 이원화 운영 및 장비 이전 구축
9월 ~ 12월	시스템 안정화

○ 주요 구축 내용

- 지상파 제작 시설 파일 전환
 - . 지상파 제작 시설 100% 파일기반 전환 완료

<표 4-22> 지상파 제작시설 파일 전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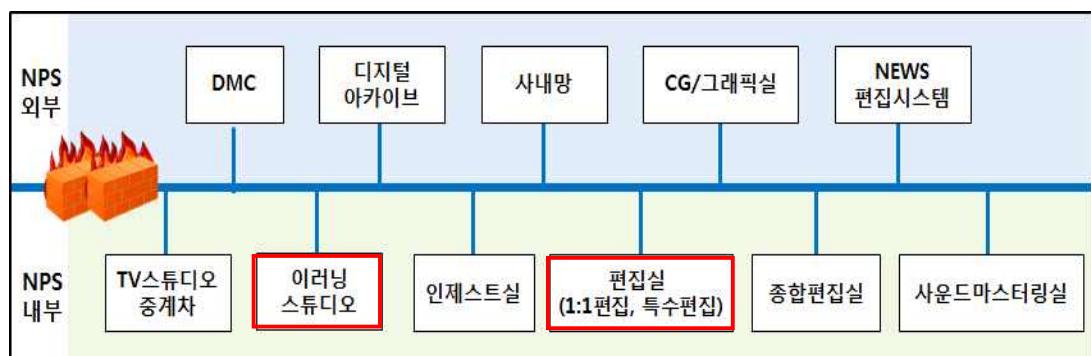
구 분	스튜디오	ENG	PD편집	종편	광고편집	송출	전 체
'16년	4/6	19/20	60/60	4/4	6/6	2/2	97%
	67%	95%	100%	100%	100%	100%	
'17년	5/5	20/20	60/60	5/5	6/6	2/2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교과제작 시설 파일기반 전환
 - . 일산사옥 4개(1,2,3,12)스튜디오 파일제작시스템 전환 완료
 - . 수능 10개 스튜디오 중 5개 스튜디오 파일 레코더 도입
 - . 파일레코더를 도입하였으나, NPS 및 인코딩시스템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음
 - . '18년부터 단계적으로 파일 전환 예정

<표 4-23> e러닝스튜디오 파일제작시스템 전환 현황

스튜디오	1	2	3	4	5	6	7	8	9	10	11	12	도곡센터	
													13	14
시스템 전환														
파일 레코더 도입	완료	완료	완료										완료	
사용부서	콘텐츠 사업부	온라인 사업부	영어 교육부						수능교육부				창의 융합 교육부	수능 교육부

- 파일기반시스템 연계 확대
 - . 도곡사옥에서 단독으로 운영되던 모든 제작 시설을 NPS와 연계하여 파일기반의 네트워크 운영 환경 구성



<그림 4-22> 파일기반시스템 연계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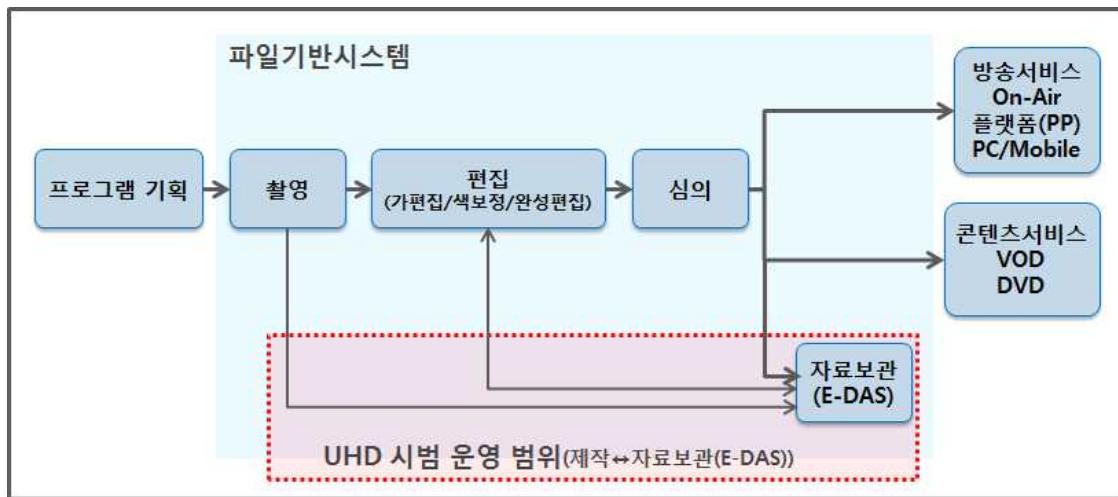
(나) UHD NPS(자료 보관 및 활용) 시범운영시스템 구성

○ 목적

- UHD 디지털워크플로우 시범운영을 통한 개선 사항 및 향후 확장 방안 도출
- 기 제작된 UHD 프로그램 촬영·완성 파일의 E-DAS 보관 및 활용 환경 마련

○ 주요 구축 내용

- UHD 촬영자료 및 클린·마스터 파일에 대한 E-DAS 자료보관
- E-DAS UHD 자료 관리 및 NPS 전송·활용



<그림 4-23> UHD NPS(자료 보관 및 활용) 시범운영시스템

○ 향후 계획

- 편성비율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디지털워크플로우 구축 진행

<표 4-24> 디지털워크플로우 구축 계획

1단계 : 도입기 (~2018)	2단계 : 전환기 (~2023)	3단계 : 정착기 (2024~20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HD로 제작된 프로그램의 자료보관 및 활용 ▶ UHD 송출 개시에 따른 NPS-송출-E-DAS 워크플로우 구성 ▶ 파일기반인프라 (네트워크, 스토리지)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V부조 및 마스터링 편집실 UHD 전환 및 연계 ▶ UHD 표준 디지털워크플로우 정립 ▶ UHD 제작 비율에 따라 기반인프라 (스토리지, 네트워크) 증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HD 시스템 전환 완료 ▶ 내·외부 서비스 시스템 (미디어통합관리시스템) 연계

6) 방송망 관리의 안정성

가) 평가기준

중단 없는 방송을 위해 ① 방송망 안정성 확보 노력 및 방송사고 대처능력 정도, ② 방송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및 운영 현황을 평가한다.

나) 평가사항

① 방송망의 안정성 확보 노력 및 방송사고 대처능력 정도

(가) EBS 신사옥 방송회선 구축 및 전환

○ 신사옥 KT M/W 방송회선 구축

- 구간 : 일산 → 관악산 · 남산 · 망경대 · 검단산
- 기간 : 7.10(월) ~ 7.23(일)
- 테스트 : TV (M/W, 광회선), FM (광회선)

내용	일자	방문지
7.24(월)	1차 회선 테스트	KT 구간
7.31(월)	2차 회선 테스트	송신소 구간

○ EBS 자가망 M/W 시스템 구축 진행

- 구간 : 일산사옥, 관악산 송신소 시설 구축(일산 → 관악산 구간)
- 기간 : 8. 4(금) ~ 8. 8(화)
- 테스트 및 시험방송 : TV, FM (M/W), 8. 9(수)~8.18(금)

○ 신사옥 방송 송출 시작 및 테스트

- 대상 : 지상파 (TV, FM), PP채널 (SO, IPTV), Skylife
- 내용 : EBS 일산 신사옥 송출을 위한 방송전용 회선 안정성 및 절체 테스트
- 진행일정

내용	일자
8. 4(금)	PP채널 절체 테스트
8. 7(월)	3차 회선 테스트
8.12(토)	4차 회선 테스트
8.14(월)	방송 절체 (우면→일산), 오전 2시

(나) EBS 방송 송중계소 방송망 조사 실시

○ 추진목적

- EBS 송신을 담당하고 있는 KBS 송·중계소의 방문과 송신시설 조사를 통해 지상파 TV 및 FM 방송현황 파악
- 다채널방송과 관련하여 안정적인 송신을 위한 모니터링 협조
- KBS 근무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이를 방송망 운영 업무에 반영함으로써, 시·청취자에 대한 공영방송의 책무 수행

○ 추진내용

- EBS 방송 송중계소(TV/FM)의 방송망 현황 파악 : EBS 방송권역, 송신장비의 운용 현황
- 각 송·중계소의 방송매체별 PIC 입력 방송신호 현황 파악
- KT 전송장비와 EBS 방송 송중계소 간 연결 루트 및 신호형태 파악
- 방문 송·중계소 근무자와 인적네트워크 형성 및 우호적 관계 유지

○ 추진실적

내용	일자	방문지	방문자
M/W 자가망 구축 관련 시설 점검 및 협의	4월 7일(금)	관악산 (KBS)	네트워크기술부 부장 외 3명

(다) EBS TV / FM 방송전송망 (KT 방송전용회선) 점검

○ 2017년 EBS 방송전송망 (KT 방송전용회선) 점검 주요 내용

- TV방송회선 품질측정
 - . 측정기간 : `17.8.18(금) ~ 9.3(일)
 - . 측정장소 : 5개소 (일산M/W실, TV주조, 관악산, 남산, 검단산 전국망)
 - . 주요항목 : Baseband SDI Eyepattern측정 등
 - . 측정결과 : 양호함
 - ✓ MPEG-2 Transport PCR특성 (양호)
 - ✓ MPEG-TS Video PID 변동없음 (양호)
 - ✓ PSItables 입력/출력 PAT Version 변동없음 (양호)
 - ✓ PSItables 입력/출력 PMT Version 변동없음 (양호)
- Radio방송회선 품질측정
 - . 측정기간 : `17.8.23(수) ~ 9.19(화)
 - . 측정국소 : 10개소(일산 Radio주조, 청주, 춘천, 대구, 전주, 대전, 부산, 광주, 제주, 강릉)
 - . 주요항목 : Audio 레벨, 주파수, 잡음비 특성 등
 - . 측정결과 : 양호함
 - ✓ 일산EBS~지역총국간(9국소) : 레벨변동 없음 (양호)
 - ✓ 일산EBS~관악산송신(1국소) : 레벨변동 없음 (양호)

○ 주요 조치 사항

- EBS일산사옥으로 이전 시 KT 신규로 Sumavision EMR(ASI/DS3) 장비 투입
 - . 변경일시 : `17.9.13(02:00~05:00)

- . 변경수량 : EMR 12대(일산EBS 8층 6대, 21층 6대)
 - * 남산, 관악산, 검단산, 지역송신소는 변경 없이 기존 TANDBURG TT-6120 TSP 사용
- . 변경사유 : MPEG PCR 특성 안정화 등
- 방송회선 현황 관련 송신소 점검 방문

내용	일자	방문지	방문자
신사옥 이전에 따른 신규 구축된 방송회선 시설 현황 파악	10월 19일(목)	KT검단산 중계소	네트워크기술부 부장 외 2명

② 방송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노력 정도

(가) 방송재난 대비 비상송출 시스템 운용

○ 비상송출 시스템 운용 현황

- 지상파 TV

도곡	일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시 주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사 TV 5부조정실→임시 지상파 TV주조로 전환 - 신호 전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사 5부조(생방송 광회선 이용)→KT 영등포 방송센터→KT 검단산TRC, 관악산, 남산송신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시 주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송출실(B1)→임시 지상파 TV주조로 전환 - 신호 전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송출실(B1)→KT영등포방송센터→KT 검단산TRC, 관악산, 남산송신소
공통	

- 방송 방법 : 전국 13개 송신소로 DTV 전송
 - 수도권(관악산, 남산송신소), 지방(KT 검단산TRC→KBS 11개 지역 송신소)
- 비상 송신 시설 구축(KBS 협조요청 사항) 운영 유지
 - 비상 방송 플레이 시스템 구축(관악산, 남산 송신소)

- 지상파 F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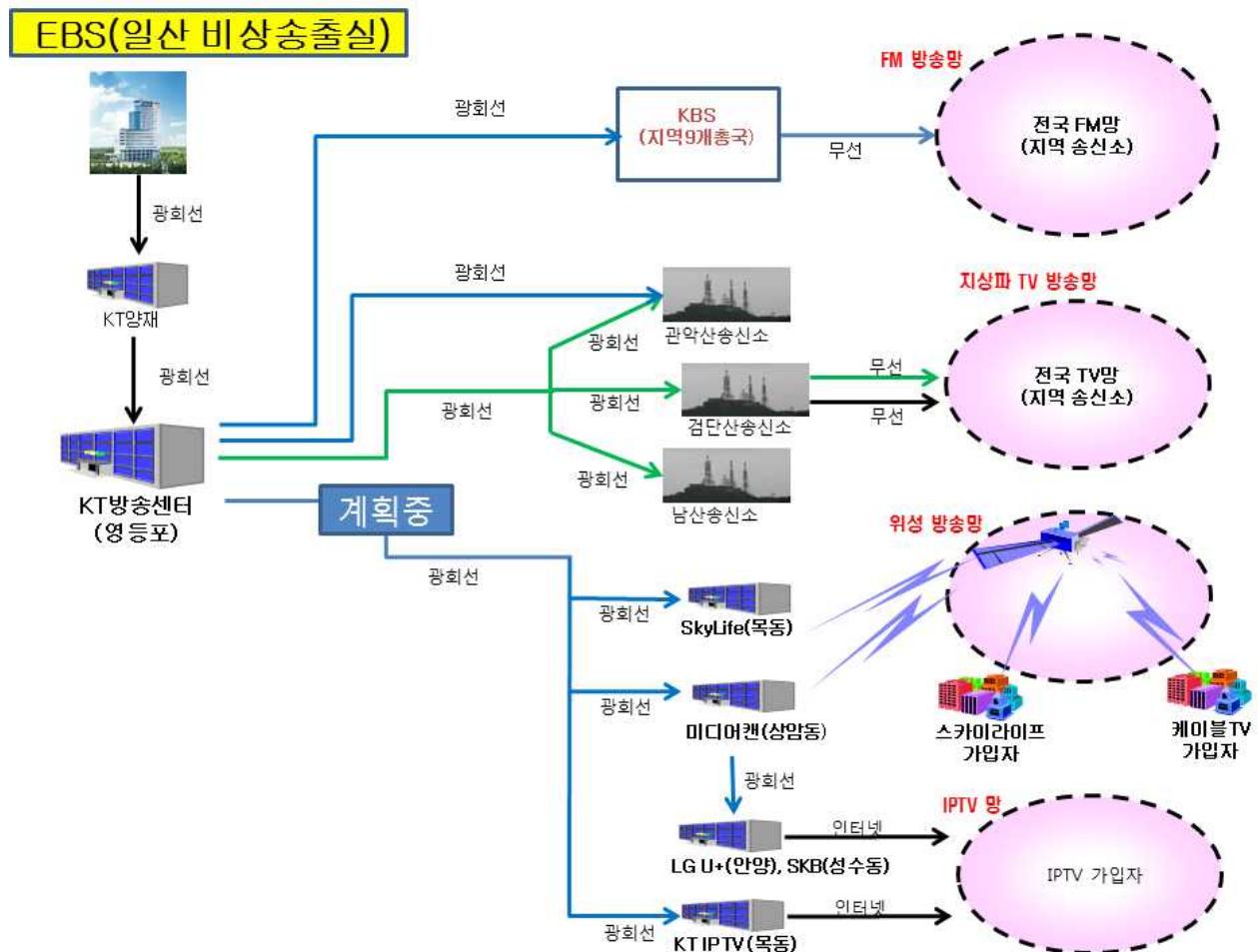
도곡	일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시 주조 : 본사 더빙실→임시 지상파 FM주조 - 신호 전송 : 본사 더빙실(광회선 4구격)→KT 양재전화국→KBS 9개 지역총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시 주조 : 비상송출실(B1)→임시 지상파 FM주조 - 신호 전송 : 비상송출실(B1)→KT 일산→KBS 9개 지역총국
공통	

- 비상 송신 시설 구축(KBS 협조요청 사항) 운영 유지
- KBS 화악산 송신소 EBS FM(106.5Mhz) 재송신(관악산 송신소)

- EBS 플러스 1, 2, English

도곡	일산(검토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시 주조 : 본사 TV 5부조정실→임시 위성멀티 주조(지상파 TV겸용) - 신호 전송 : 본사 5부조(상방송 광화선)→KT 구로 방송 방송센터→미디어캔(SO용전송용) 및 Skylife로 위성신호 전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시 주조 : 비상송출실(B1)→임시 위성멀티 주조(지상파 TV겸용) - 신호 전송 : 비상송출실(B1)→SK 브로드밴드 신촌 분기망 센터→미디어캔(SO용 전송용) 및 Skylife로 위성신호 전송

- 우회 방송망 구성도



<그림 4-24> 우회 방송망 구성도

(나) 방송사고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비상조치 교육 실시

- 주조 운영 매뉴얼 작성 및 비치
- 분기별 근무자 시스템 교육 및 비상조치 재교육 : 연 4회 이상
- 비상조치용 회로도면 근무자 옆 비치

(다) 방송사고 예방을 위한 예방 점검 실시

- 예방 점검
 - DTV headend 주요 장비 : 매일 육안점검 및 6개월 단위 Cleaning (연 2회)
 - VCR 18대 : 3개월 점검 및 Cleaning (연 4회)
 - 비디오 서버 : 1개월 단위 점검 및 Cleaning (연 12회)
 - 자동송출시스템(APC) : 1개월 단위 점검 및 3개월 단위 Cleaning (연 4회)
 - CG장비 : 3개월 단위 점검 및 Cleaning (연 4회)
 - 콘텐츠관리시스템 서버 및 DB : 자동화 정책 시스템으로 운용
 - 기타 방송 장비 : 6개월 단위 점검 및 Cleaning (연 2회 이상)
 - FM 주요 장비 : 매월 점검 및 Cleaning (연 4회 이상)
- 송출시스템 보완 및 설치
 - TV주조 통합 및(지상파,PP) Baseband, Headend 주요 장비 신규 교체
 - 방송신호 모니터링 및 알람 시스템 신규 설치 (iControl)
 - FM주조 송출/제작 서버 노후 모듈(시스템 디스크) 교체
 - FM주조 송출/제작 스토리지 시스템 전원부 교체
 - FM주조와 각 부조 간 노후 된 아날로그 신호 변환/분배기 제거하고 디지털화하여 장애요소 제거

평가결과 및 제언

미디어 환경 대응과 관련하여, 일산 신사옥 이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력을 제고하였으며, 디지털워크플로우 운영이 확대되어 자체 제작분 모두를 파일로 전환하였다. 또한 UHD 방송 기반 제작 설비 확보, 파일기반시스템의 안정화, 비상 상황 대응 능력을 향상시켰다. 시설 구축과는 별도로 방송 인프라 주요 시설 현황 자료의 정리를 통해 제작 및 시설 활용 효율성을 제고하였고, 향후 방송장비 인프라 개선 기초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다음의 사항들도 좋은 실적들로 평가된다.

- 구사옥의 방송장비를 신사옥에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사옥 이전 비용 최소화
- 방송장비의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유지보수 관리로 장비의 수명 연장 기여
- 방송장비 수요조사와 협의를 통해 우선순위 조정과 함께 합리적인 방송장비 도입
- 방송기술 전문 월간지 ‘방송과 기술’을 참고하여 신제품 및 방송기술 동향 파악
- 장비 전시회(NAB, IBC, KOBA, CES, MWC 등) 참관을 통한 신기술 정보 취득
- 최신 방송기술 세미나 및 방송장비 시연회 참석을 통해 관련정보 확보
- 제작시스템 파일 전환율 100% 및 지상파 자체제작 프로그램 100% 전환 완료
- 제작 프로그램 특성(장기간 또는 대규모 기획 및 UHD 등)에 따른 최적화된 제작 환경 구성
- 시스템 통합운영 관리를 통한 업무 효율성 확보
 - 통합주조(지상파 및 pp채널) 구축을 통한 운영 효율화
 - 파일기반시스템(NPS, 아카이브, 송출)의 통합운영 환경 구성
- 안정성을 고려한 파일기반 방송시스템 구축
 - TV · 라디오 비상주조정실 구축 및 파일기반시스템 연계를 통한 비상 상황에 대비
 - 영상의 물리적 이중백업 구성을 통한 디지털아카이브 자료 보관 안정성 확보

- NAS(Network Attached Storage)를 이용한 프로그램 제작용 데이터 공유
 - 프로그램 “SPACE 공감”에 필요한 음원, 가사, 악기구성, 큐시트 등을 공유 스토리지에 저장하고 공유
 - 공유대상 : 작가, PD, 조명감독, 음향감독, 무대감독 등
 - 뮤지션과 공연내용 등 수시로 변동되는 사항에 대한 체계적 대응 가능하여 프로그램 품질 개선에 기여 (기존 음원 CD 버닝 작업 없어짐)
 - 공연 관련 데이터를 저장하여 빅데이터로 활용 가능
- EBS 신사옥 이전 시, 방송이 안정적으로 송출될 수 있게 방송망 환경 조성
 - 도곡·우면과 일산 사옥 간에 일시적으로 회선망을 구축하여 원활한 제작 및 송출환경 구성
 - 도곡·우면에서 송출하던 방송 신호를 일산 사옥에서의 송출을 위한 안정적 방송망 이전 구축
- EBS 방송 송중계소 방송망 조사를 통한 원활한 방송 환경 조성
 - 주기적인 송·중계소 업무협의를 통한 원활한 방송환경 조성 및 비상시 송신 소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체계적인 대응
- EBS TV / FM 방송전송망 (KT 방송전용회선) 점검
 - EBS일산사옥으로 이전에 따라 TV 5개소와 Radio 10개소 방송전송망의 품질을 측정하여 안정성 확보
- 비상송출 시스템 운용
 - 방송센터(우면동) 주조정실의 비상상황을 대비한 본사(도곡동) 5부조 TV 비상송출 시스템과 본사(도곡동) 더빙실 FM 비상송출 시스템 운용
 - 일산 통합사옥에서 별도의 비상송출실(일산) 구축 및 운용 개시
- 교과 관련 e스튜디오의 파일전환 및 디지털워크플로우 확대 운영 검토

그러나 KBS의 송출지원 비협조로 인하여 UHD TV 본방송이 지연되고 있고, 그로 인해 UHD 제작 및 송출시스템 구축 계획도 순연되고 있음은 조속한 해결이 요구된다. 또한 국내외 전시 혹은 기술세미나/교육에 직원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급변하는 방송 미디어 환경에 대한 분석, 대응방안 수립방안 제시 등을 위해서는 양과 질적 측면 모두에서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일례로 방송장비 제조사가 제공하는 장비 테스트나 시연회에서는 자사 장비의 장점이 집중 강조됨으로써 이 행사를 참관하는 것만으로는 객관적이고 폭넓은 정보를 파악하기는 용이치 않을 것이다.

한편 지상파 직접수신율의 지속적 하락으로 현재 5% 내외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TV 방송의 직접 수신율은 조사가 되고 있으나, FM 라디오방송의 수신커버리지 및 청취율에 대한 조사는 실시되고 있지 않다.

상기의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사항들의 개선 및 추진이 요구된다.

- 첫째, 지연되고 있는 UHD 방송 송출 관련 추진 전략/계획의 재점검
- 둘째, 미디어 환경 변화 및 신기술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이들이 향후 방송에 미칠 영향 등을 분석, 예측하고 방송에 적용하기 위한 전략 수립 능력의 제고 (사내 전문 인력 육성 및 외부 기관/전문가 협력 등)
- 셋째, 소홀히 되고 있는 FM 라디오방송의 수신 커버리지 특성 및 청취율 조사
- 넷째, 4차 산업 혁명, 자율주행차/Connected Car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고부가가치 방송서비스 제공 검토 (UHD 모바일, 라디오 등 모바일 방송망을 이용한 재난, 교통, 기상, 위치 정보 서비스 등)
- 다섯째, TV시청형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IPTV, 케이블TV, 위성TV 등 유료방송 채널들 대상 방송 모니터링 및 품질 관리

라. 전년도 개선권고사항의 이행 노력

평가내용

1) 전년도 경영평가 개선권고사항의 이행 노력 및 성과

가) 평가기준

경영평가의 목적은 평가과정에서 밝혀진 장·단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EBS의 발전에 도움을 주려는 데 있다. 전년도 기술부문 경영평가에서 권고된 개선 사항에 대한 이행노력 및 성과 정도를 평가한다.

나) 평가사항

① UHD 콘텐츠를 확대해야 한다.

체계적인 UHD 인프라 투자 및 제작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며, UHD 콘텐츠 제작 확대를 위해 UHD 방송인프라 투자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UHD 방송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져 UHD 야외촬영, 후반작업, 파일 기반 제작시스템 등 제작 위주의 장비 투자가 진행되어 UHD 콘텐츠 제작 여건을 마련하였다.

- UHD 콘텐츠 제작 확대를 위해 UHD 방송인프라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UHD 방송인프라 투자 추진 중임
 - (1차 방송장비도입 심의, '17.2.26) UHD 야외 촬영, UHD 후반작업, UHD 파일기반 제작시스템 등 UHD 제작 활성화를 목표로 방송인프라 도입 추진
 - 야외 촬영 및 후반작업 인프라 도입을 통해 다큐프라임 등 다양한 UHD 프로그램 제작에 활용
 - (2차 방송장비도입 심의, '17.8.16) UHD 활성화를 위한 UHD 부가서비스 연구 시스템 도입 추진
- UHD 후반작업 강화를 통한 UHD 내부 제작 여건 마련
 - 특수편집, 색보정, 종합편집 등 UHD 야외제작물의 완성편집 역량 강화

<참고>

- UHD 방송인프라 투자계획 (총 614억)
 - (도입기, '16 ~'17년) 야외촬영 제작환경 구축
 - (전환기, '18 ~'20년) 방송 제작시설 단계적 UHD 전환
 - (정착기, '24 ~'27년) HD 노후장비의 UHD 장비로의 교체완료
- UHD 장비 보유 현황 ('17년 9월 기준)
 - 카메라, 특수편집 장비, 자막기 등 UHD 야외촬영장비 위주로 UHD 장비 도입 추진 중

구분	용도	규격	수량
야외촬영용 카메라	4K 시네마 카메라	RED-EPIC, C500	3
	UHD ENG급 카메라	ARRI AMIRA, PXW-Z450	4
	UHD 미들급 카메라	C300 Mark2, FS7 Mark2	5
	UHD 초고속 카메라	Flex4K	1
그래픽 장비	UHD 자막 생성기	V-NLE 4K, Tornado2 4K	2
	3D 그래픽 워크스테이션	Karisma 3D 4K	1
후반작업 장비	UHD 색보정 장비	Mistika Ultima (1대는 '17년 9월 설치예정)	2
	특수편집용 워크스테이션	NEW MAC PRO	9

②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IT, UHD, RAPA 협력, 제작기술 등 연수과정 개설을 통한 인력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제작 경쟁력 강화 및 IT 관련 인프라 개선을 위한 신규 인력을 충원하였으며, 특수편집 및 IT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 업무 능력을 제고하였다. 아울러 제작, UHD, IT, NPS, 4차 산업혁명 기술 등 다양한 연수를 실시하였다.

- 급변하는 미디어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제작 및 IT관련 신규 기술인력을 충원 하였으며, 이를 통해 콘텐츠 제작 경쟁력 강화 및 방통융합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임
 - (특수편집, 색보정) 인력 보강을 통한 콘텐츠 품질 강화
 - (IT 클라우드 기반기술) 인력 보강을 통한 IT 인프라 개선 및 방통융합서비스 강화
- 다양한 분야의 연수 기회 확대를 통한 인력 역량 강화
 - UHD, IT, 제작기술, 인문학 등 다양한 형태의 연수 참여 기회 확대 추진
 - RAPA와 협력하여 4차 산업혁명 관련 EBS 맞춤형 커리큘럼 개설
 - 방송기술교육원, OJT, 세미나, 전시회 등 참여

평가결과 및 제언

UHD 콘텐츠 확대와 관련하여 콘텐츠 제작 설비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UHD방송 송신시스템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작만 하는 것은 그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으며, KBS와의 UHD 송신지원 문제 해결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방송할 수 있는 송신 인프라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 강화와 관련하여 다양한 교육 및 연수가 실시되고 있으나, 급변하는 IT 환경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획, 연구개발 및 협업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연수 등의 질적 심화 및 양적 확대가 필요하며, 신규 전문인력 충원 분야와 충원 인원 수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교육 연수와 관련하여, 해당 교육들에 대한 효과의 측정 및 평가 시스템의 도입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마. 당해연도 중점평가 사항

평가내용

1) 청사이전에 따른 기술환경 개선의 적정성

가) 평가기준

통합사옥 이전 등 환경변화에 따른 기술환경의 유지 및 개선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항목으로는 ① 청사이전에 따른 IT인프라 유지 및 개선의 적정성, ② 청산이전에 따른 융합서비스 유지 및 개선의 적정성으로 되어 있다.

나) 평가사항

① 청사이전에 따른 IT인프라 유지 및 개선계획의 적정성

(가) 통합사옥 통신, N/W 구축 및 전산실 이전 계획

- IT 인프라 이전 일정

구 분	사업기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전화인터넷 회선	인터넷 회선 구축								
	통신(전화) 구축								
	서비스 개시 및 안정화								
	회선요금 지급(협상중)								
네트워크 케이블 포설	기본계획 및 계약요청								
	사업자선정								
	케이블공사								
사내 전산실 이전	전산실 이전 계획 수립								
	사업자 선정								
	신규서버 랙 설치 및 전원 공사								
	전산실 이전								
사무환경 이전	사무환경 이전(예정)								

(나) 인코딩실 통합 이전

- 시설 현황

구 분	도곡사옥	통합사옥	증감(△)	주요 내용
인코딩실	3	1	△2	7층 e러닝 인코딩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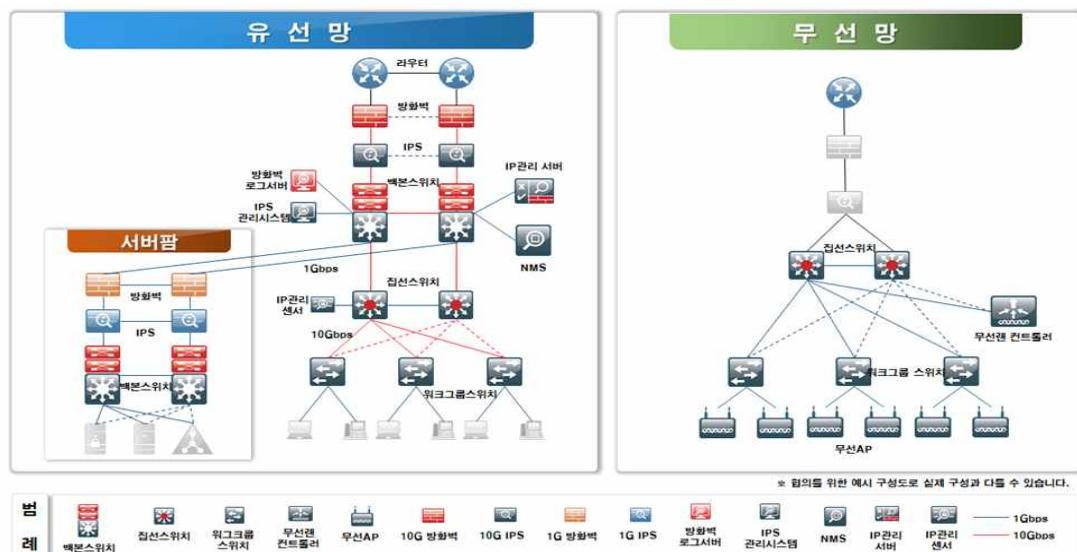
○ 사업예산 절감내용

구 분	운영인력(고급)	운영인력(초급)	합계	사업예산	비고
2017(도곡사옥)	2	20	22	7.2억	
2018(청사이전)	3	16	19	6.2억	1억 절감

(다) 디지털 통합사옥 통신·인터넷 회선 사업자 선정

부 문	주요 내용
통신	- 인터넷 전화 IP-PBX 도입(게이트웨이 등) - 이중화를 통한 안정적 통신 환경 구축
인터넷 회선	- 인터넷 회선 서비스 제공 - 회선 이중화를 통한 안정적 인터넷 환경 구축

○ 네트워크 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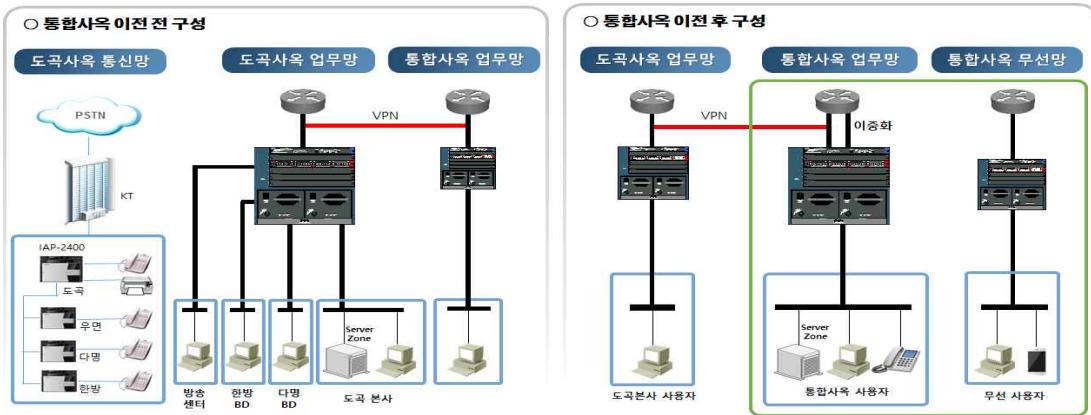


○ 사내 전산실 장비 이전

- 전산실 이전 장비 현황

구분	대수	내용
서버 장비	41	• 종합정보, 그룹웨어 등
네트워크 장비	11	• 백본, 방화벽, VPN 등
스토리지 장비	7	• 메일, 백업, 통합콘텐츠, 보도정보 시스템 등
기타	4	• 개발 워크스테이션 등
합계	63	• 이전 대상 Rack : 7대

- 이전당시 네트워크 구성



<※ 도곡-일산 간 데이터 전용회선을 통한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사용>

② 청사이전에 따른 융합서비스 유지 및 개선계획의 적정성

(가) 통합사옥 방송 인프라 이전 및 구축계획 및 성과

(1) 추진목적

- 안정적인 방송인프라 이전 및 구축
- 방송인프라 통합운영을 통한 효율성 제고
- 미래 방송환경 대비 시스템 확장 및 디지털 파일기반 제작환경 정착

(2) 추진계획

- 일정별 체크리스트 작성 및 관리
 - ('17년 1~3월) 방송인프라 실시 설계 및 기반 공사
 - ('17년 4~7월) 방송인프라 신규 구축 및 순차적 이전
 - ('17년 6~8월) 안정성 테스트 및 시험 운행
 - ('17년 8월) 방송 개시
 - ('17년 10월) 비상주조정실 구축 및 방송인프라 이전 구축 사업 완료

구 분	2016년						2017년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조명기반시설	구축 완료 ('16년 1월~12월)															
조명제작시설	구축 완료 ('16년 7월~12월)															
인프라 이전																
- TV/FM St	조달청 입찰 의뢰	조달청 사전 규격 공개	조달청 입찰 공고	제안 평가	업체 선정	실시 설계	기반 인프라 구축		이전 설치							
- 편집시설																
- 이라닝St									신규 구축		이전 설치					
NPS, 아카이브											설계	신규 구축	안정화	비상주조 구축		
TV/FM 주조정실																

○ 이전 시나리오 작성 및 이전 리스크 관리

시설	이전 시나리오	개소당 이전 기간	총 이전 기간																																																
TV 스튜디오	<p>①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한 순차적 이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은 규모인 2ST, 3ST 1차 이전 - 생방송 부조인 4ST, 마지막 이전 <p>② 대체 제작 여건 고려한 이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 제작이 최대로 가능한 부조 우선 - 필요시 중계차로 부조 가능 대행 	1개월	<p>· 3개월(5~7월)</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 colspan="6">2017년</th> </tr> <tr> <th>3</th><th>4</th><th>5</th><th>6</th><th>7</th><th>8</th> </tr> </thead> <tbody> <tr> <td>1St</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 <td>2St</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 <td>3St</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 <td>4St</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 <td>다목적홀</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body> </table>	구 분	2017년						3	4	5	6	7	8	1St							2St							3St							4St							다목적홀						
구 분	2017년																																																		
	3	4	5	6	7	8																																													
1St																																																			
2St																																																			
3St																																																			
4St																																																			
다목적홀																																																			
Radio 스튜디오	<p>① 신규 대형실 구축을 통한 대체 제작 활용</p> <p>② 제작 1개 부조씩 순차적 이전</p> <p>* 생방 부조 2개, 마지막 이전 (주조와 생방 부조 관계 고려)</p>	1개월	<p>· 3개월(5~7월)</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 colspan="6">2017년</th> </tr> <tr> <th>3</th><th>4</th><th>5</th><th>6</th><th>7</th><th>8</th> </tr> </thead> <tbody> <tr> <td>1St</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 <td>2St</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 <td>3St</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 <td>4St</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 <td>5St</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body> </table>	구 분	2017년						3	4	5	6	7	8	1St							2St							3St							4St							5St						
구 분	2017년																																																		
	3	4	5	6	7	8																																													
1St																																																			
2St																																																			
3St																																																			
4St																																																			
5St																																																			
이러닝 스튜디오	<p>① 신규 스튜디오 1개 구축</p> <p>② 스튜디오 3개씩 동시 이전</p> <p>* 원활한 이전을 위해 사전 제작 필요</p>	1개월	<p>· 3개월(5~7월)</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 colspan="6">2017년</th> </tr> <tr> <th>3</th><th>4</th><th>5</th><th>6</th><th>7</th><th>8</th> </tr> </thead> <tbody> <tr> <td>1~3St</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 <td>4~7St</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 <td>8~11St</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 <td>신규St</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body> </table>	구 분	2017년						3	4	5	6	7	8	1~3St							4~7St							8~11St							신규St													
구 분	2017년																																																		
	3	4	5	6	7	8																																													
1~3St																																																			
4~7St																																																			
8~11St																																																			
신규St																																																			
종합편집실	<p>① 종합편집실 1개 신규구축을 통한 물량 소화</p> <p>② 도곡 본사 종편D부터 이전 (도곡 종편D → 일산 종편E)</p> <p>③ 이후 1실씩 순차적으로 이전</p>	1개월	<p>· 4개월(4~7월)</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 colspan="5">2017년</th> </tr> <tr> <th>3</th><th>4</th><th>5</th><th>6</th><th>7</th> </tr> </thead> <tbody> <tr> <td>신규종편</td><td></td><td></td><td></td><td></td><td></td></tr> <tr> <td>종편A</td><td></td><td></td><td></td><td></td><td></td></tr> <tr> <td>종편B</td><td></td><td></td><td></td><td></td><td></td></tr> <tr> <td>종편C</td><td></td><td></td><td></td><td></td><td></td></tr> <tr> <td>종편D</td><td></td><td></td><td></td><td></td><td></td></tr> </tbody> </table>	구 분	2017년					3	4	5	6	7	신규종편						종편A						종편B						종편C						종편D												
구 분	2017년																																																		
	3	4	5	6	7																																														
신규종편																																																			
종편A																																																			
종편B																																																			
종편C																																																			
종편D																																																			

(3) 추진성과

- 이원화된 시스템의 통합으로 인한 운영의 효율성 증대
 - 통합주조(지상파, pp채널) 구축을 통한 운영 효율화
 - 파일기반시스템(NPS, 아카이브, 송출)의 통합운영 환경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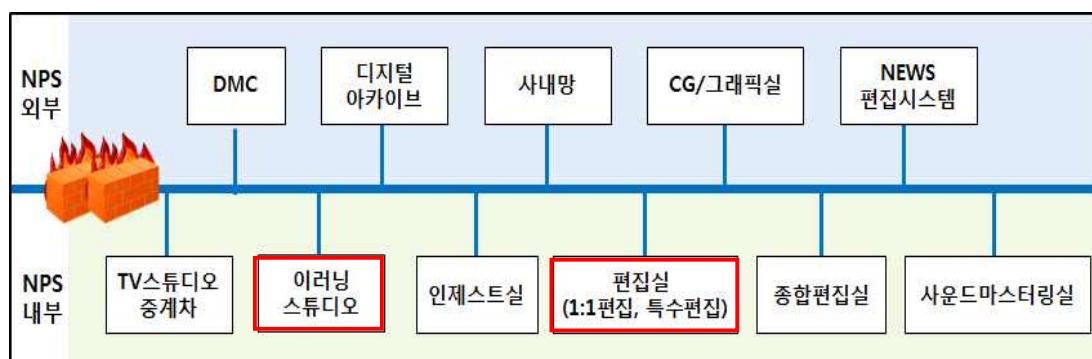
시설	이전 전(前)	이전 후(後)
TV송출	지상파주조, 멀티주조 별도 운영	통합 주조 운영
NPS	도곡본사 4층, 2층, 우면방송센터 3층	통합 운영

- 방송장비 통합 배치를 통한 업무 편의성 향상
 - 각 실로 분리된 방송장비의 통합관리를 위한 통합장비실 신설
- 프로그램 품질향상에서 후반작업의 중요성이 증가함을 고려하여 편집실 증설
 - 종합편집 1실, 특수편집 3실, 1:1 편집실을 12실 증설
- 제작시스템 파일기반 100% 전환 완료 및 연계 확대

<시설별 파일 전환율>

구 분	스튜디오	ENG	PD편집	종편	광고편집	송출	전 체
'16년	4/6	19/20	60/60	4/4	6/6	2/2	97%
	67%	95%	100%	100%	100%	100%	
'17년	5/5	20/20	60/60	5/5	6/6	2/2	100%
	100%	100%	100%	100%	100%	100%	

<NPS 연계도>



2017사업연도 EBS 경영평가 보고서

- UHD 방송을 고려한 최적의 제작환경 구성
 - UHD 디지털워크플로우 시범운영을 통한 UHD NPS 구축 계획 수립

1단계 : 도입기 (~2018)	2단계 : 전환기 (~2023)	3단계 : 정착기 (2024-20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HD로 제작된 프로그램의 자료보관 및 활용 ▶ UHD 송출 개시에 따른 NPS-송출-E-DAS 워크플로우 구성 ▶ 파일기반인프라 (네트워크, 스토리지)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V부조 및 마스터링 편집실 UHD 전환 및 연계 ▶ UHD 표준 디지털워크플로우 정립 ▶ UHD 제작 비율에 따라 기반인프라 (스토리지, 네트워크) 증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HD 시스템 전환 완료 ▶ 내외부 서비스 시스템 (미디어통합판권시스템) 연계

- 통합주조 내 UHD 주조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연계 설계 및 구성

- 라디오 제작 송출 솔루션 자체 개발을 통한 비용 절감 및 사업화 기반 마련
 - 국내 솔루션 기업과 협력하여 사업화 추진(ODA 사업 등)
 - 보이는 라디오 증강현실 환경 구축



- 통합사옥 전체를 제작 공간화하여 다양한 공간에서 연출 가능하도록 설계
 - 통합사옥 내 총 9개 위치에 카메라 복합 케이블 포설 등 건물 전체의 네트워크화
 - <생방송 보니하니> 등 건물의 다양한 곳에서 방송 진행

<통합사옥 방송시설 현황>

구 분	과거	통합사옥	증감(△)	주요 내용	해당총	
송출시설	지상파주조	1	1	• 통합 주조정실 (비상주조시스템 별도 구축)	8총	
	위성멀티주조	1				
	FM주조	1	1	• 자체 개발 송출시스템 구축	6총	
제작시설	TV스튜디오	6	5	△1	1총~6총	
	회선조정실	-	1	1	• 신호 분배 및 관리 통합운영	4총
	종합편집실	4	5	1	• 이전 4실, 신규 1실	9총
	특수편집실	7	10	3	• 이전 7실, 신규 3실	9총
	사운드믹스실	2	3	1	• 이전 2실, 신규 1실	9총
	더빙실	1	3	2	• 이전 1실, 신규 2실	6총
	FM스튜디오	5	5	-	6총	
파일기반 제작시설	1:1 편집실	33	45	12	• 이전 33실, 신규 12실	9총
	NPS 장비실	1	1	• 통합장비실 • 네트워크 1Gbps→10Gbps	8총	
	아카이브 장비실	1				
	DMC 장비실	1				
이러닝	이러닝스튜디오	11	12	1	• 이전 11실, 신규 1실	5총
인코딩	인코딩실	4	2	△2	• NPS 인코딩실(제작용) • 통합 인코딩실(인터넷용)	7총

(나) 융합서비스 추진계획 및 성과

(1) 추진목적

- 미디어변화에 따른 신규 기술의 서비스 적용
- 서비스 개선 및 혁신 해결

(2) 추진계획

- TV 및 모바일 연계 서비스 강화를 위한 번개코드 도입
- AI를 활용한 수능교재 오탈자 교정 솔루션 도입 검토
- 네이버 분석을 통한 교재 출판 수요 예측 솔루션 도입 검토

(3) 추진성과

- 모바일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번개코드 특허 취득
 - 프로그램 시청 중 EBS play 앱에서 개별 해당 프로그램 페이지 접근에 용이하도록 4자리 단축 코드 부여 방식 특허 취득
 - 번개코드를 활용 가능한 대상 프로그램 발굴 및 활성화



- AI를 활용한 수능교재 오탈자 교정 솔루션 도입 검토
 - 수능교재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방식(어문기자협회 교정)과 병행하여 오류 검출할 수 있는 네이버 AI 솔루션 발굴
 - 수능교재(한국사) 대상으로 시범 테스트 결과, 유의미한 결과 도출(기준방식에서 걸려내지 못한 오탈자 2건 검출)
 - 향후 단말기 탑재를 위한 UI 개발 필요
- 데이터 분석을 통한 교재 출판 수요 예측 시스템 개발 검토
 - 수능교재 폐기로 인한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출판 수요 예측 솔루션 도입 검토
 - 출판사업부와 협력하여 출판 프로세스 및 데이터 수집 및 분석
 - 동국대 산학협력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진행 예정

평가결과 및 제언

성공적인 방송 인프라 이전을 통하여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제작 여건이 개선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이원화된 시설 및 시스템의 통합으로 비용 및 운영의 효율성 증대
 - 통합주조(지상파, pp채널), 파일기반시스템(NPS, 아카이브, 송출)
- 2) 제작시스템 파일기반 전환율 100% 완료
- 3) 안정적인 인터넷 · 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선 이중화망 구성 및 무선망 구축
 - 인터넷회선 유선망 1Gbps 2회선(이중화), 무선망 1Gbps 1회선
 - ALL IP기반의 통신환경 구축(인터넷 전화)으로 운영 비용 절감과 관리의 효율성 제고
 - 인력상주 포함하여 5년 간 무상 유지 보수
- 4) 통합인코딩실 이전으로 방송(우면동) 및 이더닝파트(도곡동)의 분산된 업무 프로세스 일원화
 - 기존 투입인력 대비 3명 감원하여 연간 1억원 절감(기준 7.2억 → 6.2억)
- 5)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내 정보시스템 장비의 이전으로 업무연속성 확보
 - 2차에 걸친 이전 수행으로 신속하고 안정적인 이전 수행
 -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사용을 위해 도곡-일산 간 전용회선 데이터 라인
- 6) 라디오 제작 송출 솔루션 자체 개발 · 구축을 통한 비용 절감 및 사업화 기반 마련

한편 청사 이전에 따른 융합서비스 유지 및 개선과 관련하여, EBS 내 서비스 적용을 위한 다양한 융합기술의 적용이 시도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모바일 세컨드스크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번개코드 특허 취득
- 2) AI 및 빅데이터 기술 적용을 통한 현안 과제 해결 시도

그러나 UHD 송신지원 미해결로 UHD 본방송 지연에 따른 UHD 인프라 시설 계획도 순차적인 지연이 초래되었으며, 도곡, 일산 두 사업장의 업무로 인한 인력 부족 및 업무가 과중되는 측면도 있었다.

UHD 방송 지연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KBS·방송통신위원회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UHD 송신지원을 신속히 해결하고, UHD 제작 장비 확보 및 제작 설비 구축의 추진이 요구된다.

일산으로의 청사이전 및 ERP 구축으로 인한 인력부족 및 업무 과중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IT인프라 운영 전문인력 보강 및 관리체계의 마련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교육방송 본연의 책무인 교육 중심 방송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다양한 신기술들의 도입을 통한 타 방송채널들과의 차별화 노력을 기술부문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술부문 대표 집필위원 : 이상운 위원



SMART GLOBAL CONTENT

EDUCATION TO EXPAND
SMART 未来的基础
立异教育 EDUCATION